

金元述

普照園詩話卷全

贈呈

부산시동래구중동1408번지의5
주식회사 해운대관광호텔
대표이사 김진선

남본 2488



懸吐
譯解

普照法語序

古人이 말씀하기를 道가 一 極太을 내고 一이 二 陽陰을 내고 二가 三 三才을 내고 三이 萬物을 내었다. 하니 이는 道의 精蘊이 暢發치 않고는 쉬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宇宙 生序의 法則이라면 여가서 다시 推窮하여 萬物을 三으로 三을 二로 二를 一로 溯及하고 보면 一은 元來 生한 곳이 없다. 一이 元來 生한 곳이 없을진댄 天地萬物인들 어찌 生한 곳이 있으랴 그러고 보면 生과 無生이 둘이 아니며 理와 事가 둘이 아니며 空과 色이 둘이 아닌 것이다. 이 生한 곳 없는 것을 道라 假名한 것이니 이는 一切聖人의 學問의 宗旨이다.

이 普照國師는 常師가 없이 生而知之한 聖人으로서 平昔에 壇經으로 스승을 삼고 書狀으로 밋을 삼았다는 史話도 있거니와 原來 松廣寺에 가서 宗을 세울때에 宗名을 曹溪라 한 것은 六祖가 曹溪山에 계셨으므로 그를 慕仰하여 命名한 것이니 五宗家風이 모두 六祖下에서 버려진 걸로 보아 우리 曹溪宗은 五宗의 統一宗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그러고 보면 六祖壇經과 이 法語는 우리 數百萬宗徒의 必修의 教典이라 하여도 또한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 語錄은 釜山市 海雲台 觀光호텔 社長 金鎮善氏가 모든 佛子를 위해 廣布할 뜻을 두어 出版을 보게 되었다. 初學者로서 이 法語를 보고 發心하여 無生의 宗旨에 契合한다면 今日 金鎮善社長の 功이 헛되지 돌아가지 않는 同時에 譯者의 淺見도 또한 望梅止渴의 一助가 될까 생각하는 바이다.

一九七一年 三月

日

譯者 삼가 곁

譯解에 對한 小言

이 譯解는 專攻家의 研究材料로 하기 爲하여 될수 있는한 原著者의 本懷를 喪失치 않도록 努力했으며 다만 文法의 艱澁해 알기 어려운 處에는 略干의 注釋을 부쳤다. 또 法數에 있어서도 辭典披閱의 勞를 덜기 爲하여 大略 紹紛되어 있다.

이 法語는 原來 篇篇이 散在하여 完璧을 보지 못했던 것인데 二十七年前에 先師漢岩和尚이 編纂해 놓은 것이다. 그 編次의 內容은 定慧結社後에 修心하여야 할 것이며 修心하는 데 있어서는 眞妄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眞心直說이 그 다음에 있다. 그리고 眞妄을 가린 後엔 敎理的으로는 華嚴論宗旨를 依據해 닦아가고 禪學的으로는 徑截門活句를 參詳해 들어가라는 意味다.

이 法語의 篇篇마다 段落을 지은 것은 元來 原著者의 本意는 아니다. 그러나 法門이 浩瀚하여 初學者로서는 끝코를 잡기 어려운 故로 그 血脉이 있는 處에 段落을 지어 讀者의 便宜를 圖謀한 것이니 大段은 ○으로 表示하고 中段은 △으로 表示하고 小段은 無標로 表示되어 있다.

高麗國普照禪師語錄纂集重刊序

普照禪師^一憐悶後學^{하사}策發痛切故^로其憐悶策發之意旨^를有與

同志共之之思^{하야}纂集其幾篇法語而自昧識淺^{하고}敢懸其吐^{하야}以貽

同住道伴矣^{려니}或^이曰西來密旨^는非關文字^{어늘}今使心學者^로記言

逐句^{하야}以助無明^이可乎^아余曰但執文言而不如實叅究則雖閱盡

大藏^{도이라}猶爲魔魅^{와어니}若本色人^이言下知歸^{하야}豁開正眼則街談燕語

善說法要^{어든}況我祖師^의直截警誨耶^아是以^로不避譏嫌^{하고}力主

此事^{하야}使同行禪者^로時常披玩而體得奧旨^{하야}以爲入道之宗眼矣

有寶山天一師^一發廣布願^{하야}募資重刊^{하니}其功^이亦大矣^라略述

其事而冠之篇^{하야}以爲後日之龜鏡^{하노}

佛紀二九六四年 丁丑莊月 日也

漢岩重遠 謹識

普照國師가 後學을 憐悶히 여기사 策發함이 매우 간절하신 故로 그 憐悶히 여겨 策發
 하신 意旨를 同志로 더불어 같이할 생각이 있어서 그 幾篇의 法語를 纂集하여 스스로
 知識의 淺薄함을 昧却하고 敢히 그 吐를 달아서 同住道伴에게 주었더니 或이 이르
 되 西來의 密旨는 文字에 關涉함이 아니어늘 이제 心學者로 하여금 말을 記憶하고 글귀
 를 좇아서 無明을 돕게함이 可하랴 내가 이르되 다만 文言을 執하여 如實히 參究하
 지 않은즉 비록 大藏을 閱覽해 다하더라도 오히려 魔魅가 되려니와 만일 本色人(本色人)
 이 言下에 돌아갈 줄 알아서 豁然히 正眼을 연즉 街談과 鸞語가 잘 法要를 說함이 어든
 하물며 우리 祖師의 直截히 警誨함이랴 이로써 譏嫌을 避하지 않고 이 일을 힘써 主張
 하여 行을 같이하는 禪者로 하여금 때로 尙상 披玩해 깊은 旨趣를 體得하여 世人道의
 宗眼을 삼게 했더니 寶山天一師가 있어 廣布할 願을 發하여 資金을 모아 거듭 刊行하
 니 그 功이 또한 큰지라 干略히 그 事由를 叙述해 篇에 冠하여 後日의 龜鏡을 삼게
 하노라

佛紀二九六四年 丁丑莊月 日에

漢岩重遠 삼가 씀

目次

定慧結社文	一
修心訣	三八
真心直說	五九
真心正信	六一
真心異名	六三
真心妙體	六五
真心妙用	六七
真心體用一異	六八
真心在迷	六九
真心息妄	七〇
真心四儀	七六
真心所在	七七

真心出死

七八

真心正助

八〇

真心功德

八二

真心驗功

八三

真心無知

八五

真心所往

八八

圓頓成佛論

九一

看話決疑論

一二一

附錄

國師碑文

一三九

高麗國普照禪師語錄

五臺沙門 漢岩重遠 懸吐

門 人 吞虛宅成 譯解

勸修定慧結社文

定慧_{타음을} 勸_하여 社_를 結_하는 文

○恭聞_{호니} 人_이 因地而倒者 1 因地而起_{니라} 離地求起_는 無有是處也

迷_라 一心而起無邊煩惱者_는 衆生也_요 悟一心而起無邊妙用者_는 諸

佛也_니 迷悟雖殊_나 而要由一心則離心求佛者_도 亦無有是處也_{문다}

知_나 訥_이 自妙年_{으로} 投身祖域_{하야} 遍叅禪肆_{하야} 詳其佛祖_의 垂慈爲物之

門_{호니} 要令我輩_로 休息諸緣_{하고} 虛心冥契_{하야} 不外馳求_니 如經所謂若

人欲識佛境界_나 當淨其意如虛空等之謂也_라 凡見聞誦習者₁ 當

起難遇之心_{하야} 自用智慧觀照_{하야} 如所說而修則可謂自修佛心_{하리} 自

成佛道

하야

而親報佛恩矣

라

然

이나

返觀我輩

의

朝暮所行之迹

호니

則憑

依佛法

하야

裝飾我人

하야

區區於利養之途

하고

汨沒於風塵之際

하야

道德

未修

하고

衣食斯費

하니

雖復出家

나

何德之有

리오

噫

라

夫欲離三界

호대

而

未有絕塵之行

하니

徒爲男子之身

이요

而無丈夫之志

라

上乖弘道

하고

下

闕利生

하고

中負四恩

하니

誠以爲恥

로다

知訥

이

以是長歎

이

其來久矣

라

歲在壬寅正月

하야

赴上都普濟寺談禪法會

더니

一日

에

與同學十餘人

으로

約曰罷會後

에

當捨名利

하고

隱遁山林

하야

結爲同社

하야

常以習定均

慧

로

爲務

하고

禮佛轉經

으로

以至於執勞運力

히

各隨所任而經營之

하야

隨緣養性

하야

放曠平生

하야

遠追達士眞人之高行則豈不快哉

리오

○溫恭히 들으니 사람이 땅을 因하여 지꾸러지는 者가 땅을 因하여 일어난다 하니 땅

을 여의고 일어난을 求함은 옳은 곳이 있음이 없는지라 한 마음을 迷하여 邊際없는 煩

惱를 일으키는 者는 衆生이요 한 마음을 깨달아 邊際없는 妙用을 일으키는 者는 모든 부

처남이니 迷하고 깨달음은 비록 다르나 要가 한 마음에 말미암은즉 마음을 여의고 佛을

求하는 者도 또한 옳은 곳이 있음이 없도다 知訥(彌訥)이 妙年으로부터 몸을 祖域에 던

저서 두루 禪肆에 參詣하여 그 佛祖의 慈를 드리워 物을 爲하신 門을 자세히 하니 종
 오로이 우리 무리로 하여금 모든 攀緣을 쉬고 마음을 비워 가만히 契合하여 밖으로 馳
 求하지 않게 함이니 經에 이른바 만일 사람이 佛의 境界를 알고자 할진댄 마땅히 그 뜻
 을 깨닫기 하기를 虛空과 같이 하라는 等の 이름과 같은지라 무릇 보고 듣고 의우고
 익히는 者가 마땅히 만나기 어려운 마음을 일으켜서 스스로 智慧를 써 觀照하여 說하신
 바와 같이 닦은즉 可히 이르되 스스로 佛心을 닦으며 스스로 佛道를 이루어서 親히 佛恩
 을 갚음이라 그러나 돌이켜 우리 무리의 朝暮에 行하는바 자취를 觀하니 곧 佛法에 憑
 依하여 我人_(我相)을 裝飾해서 利養의 길에 區區_(劣少하고 高劣한 뜻)하고 風塵의 즈음에 汨沒하여 道
 德을 닦지 못하고 衣食만 이에 虛費하니 비록 다시 出家하나 무슨 德이 있으리오 슬프
 다 대저 三界를 여의고자 하되 塵을 끊는 行이 있지 못하니 한갓 男子의 몸만 되고 丈
 夫의 뜻은 없음이라 위로 道 넓힘을 어기고 아래로 衆生 利케함을 闕하고 中으로 四恩
 (國王恩 師長恩 父母恩 朋友恩)을 저버렸으니 진실로써 부끄러움이 되도다 知訥이 이로써 기리 歎 한지가
 그 음이 오래라 해가 壬寅正月에 있어서 上都_(首都) 普濟寺의 談禪法會에 나아갔더니 하
 룯날 同學十餘人으로 더불어 언약해 이르되 會를 罷한 後에 마땅히 名利를 버리고 山
 林에 隱遁해서 맺아 同社를 하여 항상 定을 익히고 慧를 고됨으로써 힘씀을 삼고 禮佛
 하고 轉經함으로써 執勞하고 運力하는데 이르기까지 各各 말은바를 따라 經營하여 緣
 을 따라 性을 길러서 平生을 放曠하여 멀리 達士와 眞人の 높은 行을 따른즉 어찌 快

하지 않으리오

△諸公_이 聞語曰時當末法_{하야} 正道沉隱_{하니} 何能以定慧_로 爲務_{리오} 不如勤念彌陀_{하야} 修淨土之業也_{라하야}

△諸公이 말을 듣고 이르되 때가末法에 當하여 正道가 沈隱하니 어찌 能히 定慧로써 힘씀을 하리오 부지런히 彌陀_{(具云하면阿彌陀니면 彌陀(역하면無量光壽다)를}를 생각하여 淨土의 業을 닦는것만 같지 못 하다 하거늘

△余曰時雖遷變_{이나} 心性_은 不移_니 見法道之興衰者_는 是乃三乘權學之見_{이라} 有智之人_은 不應如是_{나라} 君我_ㅣ 逢此最上乘法門_{하야} 見聞薰習_{하니} 豈非宿緣_{대이완} 而不自慶_{하오} 返生絕分_{하야} 甘爲權學人則可謂辜負先祖_{하야} 作最後斷佛種人也_라 念佛轉經_과 萬行施爲_는 是沙門_의 住持常法_{이라} 豈有妨碍_{리오} 然_{이나} 不窮根本_{하고} 執相外求_{하면} 恐被智人之所嗤矣_{노라} 華嚴論_에 云_{하사} 此一乘教門_은 以根本智_로 爲所成_{이니} 名一切智乘_{이라} 十方世界_ㅣ 量同虛空_{하야} 爲佛境界故_로 一切諸佛_과 及

以衆生^의 所有心境^이 互相參入^{호미} 如影重重^{하야} 不說有佛無佛世界

^{하며} 不說有像法末法^{하야} 如是時分^에 常是佛興^{이며} 常是正法^{이라하} 此乃^{심은}

了義經^{이요} 但說有此方穢土^와 別方淨土^와 有佛無佛處所^와 及像法

末法^은 皆爲不了義經^{이라하} 又云^{대하} 如來¹ 爲一切邪見顛倒衆生^{하사}

示現出興^{하사} 略說少分福德境界^{지나} 而實如來^는 無出無沒^{이니} 唯與道

相應者^{라사} 智境^이 自會^{하야} 不作如來出興滅沒之見^{하고} 但自以定觀二

門^{으로} 以治心垢^니 情在相存^{하야} 我見求道^{하면} 終不相應^{이라} 須依智人^{하야}

自摧憍慢^{하고} 敬心徹到^{하야} 方以定慧二門^{으로} 決擇^{이라하} 先聖^의 教旨¹

如斯^{하니} 豈敢造次^{하야} 輒有浪陳^{이리} 誓遵了義懇苦之言^{하고} 不依權學方

便之說^{이니}

△내가 이르되 때는 비록 옮겨變하나 心性은 옮기지 않음이니 法과 道の 興하고 衰함

을 보는 者는 이는 이에 三乘權學^(權은 假借의 義로 三乘人을 爲하되 方便으로 說한 敎인 故로 이르는 權學이다)의 見이라 智慧있는 사람은 應當

이같이 함을 지니라 그대와 내가 이 最上乘法門을 만나서 보고 듣고 薰習하니 어찌 宿

緣이 아니관데 스스로慶事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分에 諸을 내어서 (自己的分과 맞지 않다) 權學
 人이 됨을 달게 여긴즉 可히 이르되 先祖를 저버려서 最後에 佛種을 자를 사람이
 라念佛하고轉經함과萬行으로施爲함은이沙門의住持하는 몇몇한法이라 어찌妨碍
 가있으리오 그러나根本을窮究하지 않고相을執하여 밖으로求하면智人의 웃는바
 를 입을까 두려워 하노라華嚴論에 이르시되 이一乘敎門은根本智로써이툼바가 됨이
 니 이름이一切智乘이라十方世界가量이虛空과 같아서 부처님境界가 되는故로一
 切 모든 부처님과 및 세衆生의 있는바 마음과境界가 서로 서로 叅해入함이 그림자
 와 같이 重重하여 有佛과 無佛의 世界를 說하지 않으며 像法과 末法佛滅後에正法의一千년이요緣
 法의一千년이니末世法이란말이다이 있음을 說하지 아니하여 이같은時分에 항상 이佛이 일
 어나며 항상 이正法이라 하심은 이는 이에 了義經(一乘實敎)이요 다만此方의穢土와別方
 의淨土와 有佛과 無佛의處所와 및像法과 末法이 있다 說하심은 다不了義經(三乘權法)이
 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如來가一切邪見顛倒衆生을爲하사示現해出興하사簡略히
 少分福德境界를 說하셨으나實로 如來는나심도 없고沒하심도 없음이시니 오직道로
 더불어 서로應한者라야智와境이 스스로融會하여 如來가出興하고滅沒한다는見
 을 짓지 않고 다만 스스로定과觀두門으로써 마음의 때를 다스리나니情이 있고
 相이 있어서 我見으로道를求하면 마침내 서로應하지 못하는지라 모름지기智人을

依止하여 스스로 橋慢을 꺾고 敬心이 사두쳐 이르러야 마야흐로 定과 慧 두 門으로써
決擇한다 하시니 先聖의 가르치신 旨趣가 이 같으니 어찌 敢히 造次(*)히 하여 문득 허
랑히 배품이 있으리오 盟誓코 了義의 懇苦한 말씀을 좃고 權學方便의 說을 依止하지
말지니라

我輩沙門

이 雖生末法

하야

稟性

이 頑癡

나

若自退屈

하야

着相求道則從

前學得

한

定慧妙門

은

更是何人

의

所行之事

은

行之難故

로

捨而不

修則今不習故

로

雖經多劫

이나

彌在其難

이요

若今

에

强修

하면

難修之行

因修習力故

로

漸得不難

니하리

古之爲道者

還有不從凡夫來者耶

諸經論中

에

還有不許末世衆生

의

修無漏道乎

아

圓覺經

에

云

末世諸衆生

이

心不生虛妄

하면

佛說如是人

은

現世即菩薩

이라하

華嚴

論云

대하사

若言此法

이

非是凡夫境界

요

是菩薩所行

이라

當知是人

은

滅佛知見

하야

破滅正法

이라하

諸有智者

는

不應如是

하야

不勤修行

이니

設

行不得

도이라

不失善種

하야

猶成來世積習勝緣

이라

故

로

唯心訣

에

云

대하사

聞

而不信

도이라

尙結佛種之因

하고

學而未成

도이라

猶蓋人天之福

이니

由是觀

之^{전면} 不論末法與正法時殊^하 不憂自心昧之與明^하 但生仰信之心^하

隨分修行^하 以結正因^하 遠離劫弱^하 當知世樂^하 非久^하 正法^하

難聞^하 豈可因循^하 虛送人生^하

我輩의 沙門^{法侶의通稱이다만역하면動息이니善法을勤修하고正行을止息한다는意다} 이 비록 末法에 나서 稟性이 頑하고 痴하나 만일 스

스로 退屈하여 相에 着해 道를 求한즉 前으로 좃아 배워 얻은 定慧의 妙門은 다시 이

어떤 사람의 行할바 일인고 行하기 어려운 故로 버리고 닦지 않은즉 이제 익히지 않는

故로 비록 多劫^{劫은具云하면劫波요만약하면時分이니無限の時分을말한것이다大中小の時分의있으니例컨대人壽가十歲正命으로부터百年한대一減劫을一小劫이라한다이와같이二十回를지내는동안에世界가成住壞空이以上二十回減劫을一中劫이라한다이와같이二十回를지내는동안에世界가住하고로二}

十回를지내는동안에世界가壞하고로二十回를지내는동안에世界가空이以上八十回減劫을一大劫이라稱한다마치儒教에天地開闢은十二萬九千六百年으로보는데과類似하다大小遠近의差가있을뿐이다 을 지내나 더욱 그 어려움에 있을것이요 만일 이제 強作히 닦으면 닦기

어려운 行이 脩習의 힘을 因한 故로 점점 어렵지 않음을 얻으니 옛적에 道를 한 者

가 또한 凡夫로 좃아 오지 않은 者가 있느냐 모든 經과 論가운데에 또한 末世衆生의 無漏

道 닦음을 許諾하지 않음이 있느냐 圓覺經에 이르시되 末世에 모든 衆生이 마음에 虛妄

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이 說하시되 이같은 사람은 現世에 곧 菩提이라 하시고 華嚴論

에 이르시되 만일 말하되 이 법이 이 凡夫境界가 아니요 이 菩薩의 行할바라 하면 마땅

히 알라 이 사람은 佛知見을 滅하여 正法을 破滅한다 하시니 모든 智慧있는 者는 應當

이같이 하여 修行을 부지런히 하지 아니치 말지니 設使 行하여 연지 못하더라도 善種을 잃지 아니하여 오히려 來世의 쌓아 익힌 勝緣을 이루는지라 故로 唯心訣에 이르시 되 듣고 信치 않더라도 오히려 佛種의 因을 맺고 배워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人天의 福을 뒀는 다 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觀하전대 末法과 다 못 正法의 때가 다름을 論하지 말며 自心の 어둡고 다 못 밝음을 구심치 말고 다만 우러려 信하는 마음을 내어서 分을 따라 修行하여 써 正因을 맺어 멀리 劫弱을 여월지니 마땅히 알라 世樂은 오래지 않고 正法은 듣기 어려움이니 어찌 可히 因循(인병히란 말이니 懈怠을 고쳐 지알고 進發에 氣力이 없음)하여 헛되이 人生을 보 내리오

如是追念^{컨넌} 過去久遠已來^로 虛受一切身心大苦^{하야} 無有利益^{하고} 現

在^에 卽有無量逼迫^{하고} 未來所苦^도 亦無分齊^{하야} 難捨難離^{호대} 而不覺

知^{어는} 况此身命^의 生滅^이 無常^{하야} 刹那難保^라 石火風燈^라 逝波殘照

不足爲諭^니 歲月^이 飄忽^{하야} 暗摧老相^{이라} 心地^를 未修^{하고} 漸近死門

念昔同遊^{컨넌} 賢愚雜處^{터니} 今朝屈指^{호니} 九死一生^{이라} 生者如彼^에 次

第衰殘^{하니} 前去幾何^{한대} 尙復恣意^{하야} 貪嗔嫉妬^와 我慢放逸^로 求名求

利^{하야} 虛喪天日^{하고} 無趣談話^도 論說天下^{하며} 或無戒德^{하고} 空納信施^{하며}

受人供養호대 無慚無愧아 如是等慳이 無量無邊하니 其可覆藏하야 不爲

哀痛乎리오 如有智者니넌 當須兢慎하야 策發身心하고 自知已過하야 改悔調

柔하미 晝夜勤修하야 速離衆苦니 但依佛祖誠實之言하야 爲明鏡하야 照見

自心이 從本而來로 靈明清淨하고 煩惱性空하야 而復勤加決擇邪正하야

不執已見하미 心無亂想호대 不有昏滯하미 不生斷見하고 不着空有하미 覺慧

常明하야 精修梵行하미 發弘誓願하야 廣度群品이니 不爲一身이 獨求解脫

라 이니

이같이 따라 생각컨대 過去久遠에 이미 음으로 헛되이 一切 몸과 마음의 큰 고통을 받아
서 利益이 있음이 없고 現在에 곧 限量없는 逼迫이 있고 未來의 괴로움 바도 또한 분

齊(界)가 없어서 버리기 어렵고 여의기 어렵되 깨달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 身命의

生하고 滅함이 몇몇함이 없어서 剎那에도 安穩하기 어려우니라 돌 불과 바람 燈籠과

가는 물결과 쇠잔한 落照로 足히 比論하지 못함이니 歲月이 飄忽하여 가만히 늙는 모

양을 재촉하는지라 心地를 닦지 못하고 점점 죽는 門에 가까우니 옛 同遊를 생각컨대

賢과 愚가 雜處하더니 今朝에 손가락을 꼽으니 아홉은 죽고 하나가 산지라 산者가 저

갈에 次第로 衰殘하니 앞으로 감이 얼마판데 오히려 다시 뜻을 放恣히 하여 貧病과 嫉

妬와我慢과放逸로 이름을 求하고 利를 求하여 헛되이 天日을喪하고 旨趣없는 談話로 天下를 論說하며 或戒德이 없고 空然히 信施(信者의 施物)만 받으며 사람의 供養을 받되 부끄럼이 없고 부끄럼이 없느냐 이같은 等 허물이 無量하고 無邊하니 그 可히 蔑어 감춰서 哀痛히 여기지 않으리오 만일 智가 있는 者일진댄 마땅히 모름지기 조심하고 삼가하여 몸과 마음을 策發하고 스스로 自己의 허물을 알아서 고쳐 뒤우치고 고루어 부드럽게 하며 낮과 밤으로 부지런히 닦아서 速히 苦를 여월치니 다만 佛祖의 誠實한 말씀을 依止하여 밝은 거울을 삼아서 自己마음이 根本 좃아 음으로 靈明하며 淸淨하고 煩惱性이 空한줄 비추어 보아서 다시 부지런히 邪와 正 決擇함을 더하여 自己의 見을 執하지 말며 마음이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되 昏滯를 두지 말며 斷見을 내지 말고 空과 有에 着하지 말며 覺慧가 항상 밝아서 精密히 梵行을 닦으며 큰 誓願을 發하여 널리 群品을 濟度할지니 한 몸이 홀로 解脫을 求하기 爲함이 아니니라

如或世間事務 種種牽纏나 或病苦所惱나 或邪魔惡鬼 所能恐怖 有如是等身心 不安는 則於十方佛前 至心洗懺 以除重障 禮念 等行 消息 知時 動靜施爲 或語或默 一切時中 無不了知自他身心 從緣幻起 空無體性 猶如浮泡 亦

如雲影^{하야} 一切毀譽是非音聲^이 喉中妄出^{호미} 如空谷響^{하미} 亦如風聲

如是虛妄^{하야} 自他境界^에 察其根由^{하야} 不隨傾動^{하고} 全身定質^{하야} 守護

心城^{하야} 增長觀照^{하면} 寂爾有歸^{하고} 恬然無間^{하리} 當是時也^{하야} 愛惡^{하야} 自

然淡薄^{하고} 悲智^{하야} 自然增明^{하미} 罪業^이 自然斷除^{하고} 功行^이 自然增進

煩惱盡時^에 生死即絕^{하고} 生滅^이 滅已^{하야} 寂照現前^{하야} 應用無窮^{하야}

度有緣衆生^{니하리} 是爲了事人分上^에 無漸次中漸次^미 無功用中功用

也^{니라}

만일 或世間事務가 갖가지 牽纏하거나 或病苦의 괴로운 바어나 或邪魔惡鬼의 能히
恐怖한 바어나 이같은 등 몸과 마음이 不安함이 있거든 곧十方佛前에 至極한 마음을
로 씻어 懺悔하여서 重障을 除하되 禮佛과 念佛(佛)을 平等히 行하며 消障과 息念(無)
을 때를 알아하여 動하고 靜하고 배풀어 함과 或 말하고 或 默하는 一切時가운데에 自
와 他的 몸과 마음이 緣으로 좇아 虛幻히 일어나서 空하여 体性이 없음이 마치 든 거품
과 같으며 또한 구름 그림자와 같아서 一切毀譽와 是非의 音聲이 喉中에 망령되이 남
이 空谷에 매아리와 같으며 또한 바람소리와 같은 줄 了達해 알지 않음이 없어서 이 같

은 虛妄한 自他境界에 그 根由를 살펴서 따라 傾動치 않고 全身이 質을 定하여 心城을 守護해서 觀照를 增長하면 寂靜히 돌아감이 있고 恬然해 사이가 없으니 이때를 當하여 愛와 惡가 自然히 淡薄하고 悲와 智가 自然히 더 밝으며 罪業이 自然히 끊어 除해 지고 功行이 自然히 더 나아가서 煩惱가 다할 때에 生死가 곧 끊어지고 生滅이 滅해 마쳐서는 寂과 照가 앞에 나타나서 應해 씀이 다함이 없어서 因緣있는 衆生을 濟度하 리니 이것이 일 마친 사람 分上에 漸次없는 가운데 漸次며 功用없는 가운데 功用在 되나니라

△問曰汝今解說者 先須信解自身^의 性淨妙心^{하야} 方能依性修禪
是乃從上已來^로 自修佛心^{하야} 自成佛道之要術也^{어늘} 何故^로 凡見
修禪之士 不發神通智慧乎^아 若無通力可現^{이면} 則何名如實修行
者也^{리오}

△물어 이르되 너의 이제 解說한 것이 먼저 모름지기 自身의 性이 깨끗한 妙心을 信해 알아야 바야흐로 能히 性을 依止하여 禪을 닦을지니 이는 이에 위로 좇아 이미 옴으로 스스로 佛心을 닦아서 스스로 佛道를 이루는 要術이어늘 어찌 연고로 무릇 보전대 禪을 닦는 선비가 神通智慧를 發하지 못하느냐 만일 神通의 힘을 可히 나타낼 수 없으면

곧 어찌 如實히 修行하는 者라 이름하리오

△予¹笑曰神通智慧^는隨自正信佛心法力^{하야}加行用功而得之^니

比如磨鏡^에垢漸盡而漸明^{하야}明現則影像^이千差^라
此^는但^는論^은圓^은若^은

也信解未正^{하고}功行^이未深^{하야}昏昏坐睡^{하야}以守默爲禪則何有神通

自發也^{리오}先德^이曰汝等^은但向自己性海^{하야}如實而修^{안정}不要三

六通^{이니}何以故^오此是聖末邊事^{라하}如今^에且要識心達本^{하야}但得其

本^{이연}莫愁其末^{이니}史山人^이問圭峰宗密禪師^{호대}凡修心地之法^이爲

當悟心即了^아爲當別有行門^가若別有行門^{이면}何名禪門頓旨^며若

悟心即了^고何不發神通光明^{잇고}答曰識水池而全水^나藉陽氣而鎔

銷^{하고}悟凡夫而即眞^{이나}資法力而修習^{이니}氷銷則水¹流潤^{하야}方呈漑

滌之功^{하고}妄盡則心^이靈通^{하야}始發通光之應^{이라}修心之外^에無別行

門^{이라하}以是當知^{하라}不愁相好^와及與神通^{하고}先須返照自心^{하야}信解眞

正^{하야}不落斷常^{하고}依定慧二門^{하야}治諸心垢^{호미}即其宜矣^{이니}若也信解

未正^{이런} 所修觀行^이 皆屬無常^{하야} 終成退失^{나하리} 是謂愚夫觀行^{이라} 豈爲

智人之行哉^{리오}

△내가 웃어 이르되 神通智慧는 自己가 佛心과 法力을 바로 信하여 加行에 用功함을 따라 얻는이니 比컨대 겨울을 갈제 垢가 漸漸 다하매 漸漸 밝아서 밝음이 나다난즉 影像이 千差임과 같은지라^{(이는 다만 圖修(깨달아 닦음) 辨事(證悟)를 比論함이다)} 만일 信解가 마르지 못하고 功行이 깊지 못하여 昏昏히 앉아서 졸아서 默을 지킴으로써 禪을 삼은즉 어찌 神通이 스스로 發함이 있으리오 先德이 이르시되 너희 등은 다만 自己의 性海를 向하여 如實히 닦을지언정 三明^(天眼明宿命明 天眼明宿命明 天耳通天心通 天足通神通)과 六通^(宿命通神足通漏盡通)을 要하지 말지니 어찌 존 연고뇨 이것은 이 聖人の 末邊事라 하시니 如今에 또 중요로이 마음을 알고 根本을 達하여 다만 그 本을 얻을지언정 그 末은 근심하지 말지니 史山人이 圭峰宗密禪師께 묻되 무릇 心地를 닦는 法이 마땅히 마음을 깨달아 곧 마침이 되느냐 마땅히 別로 行門이 있음이 되느냐 만일 別로 行門이 있으면 어찌 禪門의 頓旨라 이름하며 만일 마음을 깨달아 곧 마칠진댄 어찌 神通光明을 發하지 못하니잇고 答해 이르시되 어름못이 온전히 물인줄 아나 陽氣를 假藉하여 鎔銷하고 凡夫가 곧 眞인줄 깨달으나 法力을 資賴하여 脩習하니 어름이 녹은즉 물이 흘러 潤澤하여 바야흐로 대고 씻는 功을 바치고 妄이 다한즉 마음이 神靈히 通하여 비로소 神通과 光明의 應을 發하는지라 마음을 닦는 밖에 別다른 行門이 없다 하

시니 이로써 마땅히 알라 相好와 맞다 못 神通을 근심치 말고 면저 모름지기 自心을
返照하여 信解가 眞正해서 斷과 常에 떨어지지 않고 定과 慧 두 門을 依止하여 모든
心垢를 다스림이 곧 그 마땅하려니와 만일 信解가 바르지 못하면 닳는바 觀行이 다 無
常에 屬하여 마침내 退失을 이루리니 이는 愚夫의 觀行을 이름이라 어찌 智人의 行이
되리오

他敎家

에도

亦有簡辨觀行

의

深淺得失

하야

其義甚詳

이연

祇爲學人

이

唯

習言說

하야

或高推聖境

하고

不能內求自心

하미

亦不能鍊磨日久

코

知其

功能耳

니

且如元曉法師

1

云

대 하사

如諸世間

에

愚夫觀行

은

內計有心

하고

外求諸理

하야

求理彌細

에

轉取外相故

로

還背理去遠

이

若天與地

근세

所以

로

終退沒

하야

受無窮生死

와니

智者觀行

은

與此相反

하야

外忘諸

理

하고

內求自心

호대

求心至極

에

忘理都盡

하야

盡忘所取

하야

取心都滅

일새

所以

로

能得至無理之至理

하야

畢竟無退

하야

還住無住涅槃

라니

又復

小聖

은

計心

호대

先有生性故

로

過微心

으로

三方便

은

以漸細

漸微

微微

微微

得

心

得

心

得

滅無

하야

無智無照

호미

不異空界

와니

大士

는

解心

호대

本無生性故

로

離細

想^{호대}不得滅無^{하야}眞照智在^{하야}證會法界^{사타하}如是辨別愚夫與智者^와

小乘及大乘人^의觀行得失^{하야}不隱微毫^{하니}是知若禪若教^에古今得

意觀行之人^은皆達自心^{하야}妄想攀緣^이本自無生^{이라}智智用中^에無

有間斷^{하야}證會法界^{하야}永與愚夫小乘^{으로}途路且別^{하니}豈可不觀自心

不辨眞妄^{하야}未積淨業^{하고}而先索神通道力耶^아比夫未解乘舟而

欲怨其水曲者哉^{고지}

저 敎家에도 또한 觀行의 深淺과 得失을 辨別하여 그 義가 甚히 仔細함이 있건마는 다만 學人이 오직 言說만 익혀서 或 높히 聖境에 미루고 能히 안으로 自心에 求하지 못하며 또한 能히 鍊磨함을 날이 오래도록 하지 못하고 그 功能만 알려함이 됨이니 또 저 元曉法師가 이르시되 저 모든 世間에 愚夫의 觀行은 안으로 마음이 있음을 計較하고 밖으로 모든 理致를 求하여 理를 求함이 더욱 微細하매 轉轉히 外相을 取하는 故로 도리어 理를 등저가 많히 天과 다뭇 地와 같을새 쓴바로 마침내 退沒하여 无窮한 生死를 받거니와 智者의 觀行은 이로더불어 서로 反하여 밖으로 모든 理를 잊고 안으로 自心을 求하되 求하는 마음이 至極하매 理를 잊어 도무지 다하여 다 取할바를 잊어서 取하는 마음이 도무지 滅할새 쓴바로 能히 至極히 理없는 至極한 理致를 얻어서 畢竟에 退

함이 없어서 도리어住함이 없는涅槃에住하나라 또 다시小聖은 마음을計較하되 먼
 저나는性이 있는故로 過微한 마음으로(小聖은微細와微微와微微)
 의三方便으로得入한다 마음의 滅無를 얻어서 智도 없
 고 비춤도 없음이 空界와 다르지 않거니와 大士(感證)는 마음을 알되 本來나는性이 없
 는故로 微細한 생각을 여의되 시려금 滅无치 아니하여 참되이 비추는 智가 있어서 法
 界를 証해 안다 하사 이같이 愚夫와 다름 智者와 小乘과 및 大乘人의 觀行하는 得
 失을 辨別하여 微毫도 숨기지 않으니 이 알라 이렇듯 禪과 이렇듯 敎에 古今에 뜻을
 얻어 觀行하는 사람은 다 自心을 達하여 妄想攀緣이 本來 스스로 남이 없는지라 理智
(根本智 또는 文殊智 또는 無差別智 또는 一切智)와 事智(後得智 또는 普賢智 또는 差別智 또는 一切種智)의 用가운데에 間斷이 있음이 없어서 法界를 証得
 해알아서 永히 愚夫와 小乘으로 더불어 途路가 또 다르니 어찌 可히 自心을 觀하지 않
 으며 眞妄을 가리지 아니하여 淨業을 쌓지 않고 먼저 神通과 道力을 찾으랴 比컨대 배
 탈줄 알지 못하고 그 물 굵음을 원망하고자 하는者인저

△問 호대 若約自己眞性 이 本自圓成 인연 但任心自在 하아 合他古轍 이아 何
 須觀照 하야 而無繩自縛乎 리오

△문되 만일 自己의 眞性이 本來 스스로 圓成함을 잡을진댄 다만 마음의 自在함을 말
 겨서 저 옛 法에 습할 것이어늘 어찌 모름지기 觀照하여 노곤 없이 스스로 얻대리오

△答_대末法時代_에人多乾慧_{하야}未免苦輪_{하야}運意則承虛託假_{하고}出

語則越分過頭_{하야}知見_이偏枯_{하고}行解_이不等_{이라}近來禪門汎學輩_이

多有此病_{하야}皆云既自心_이本淨_{하야}不屬有無_{이니}何假勞形_{하야}妄加行

用_{이리오}是以_로効無碍自在之行_{하야}放捨眞修_{하니}非惟身口不端_{이라}亦乃

心行_이迺曲_{하야}都不覺知_{하미}或有執於聖教_의法相方便之說_{하야}自生

退屈_{하야}勞修漸行_에違背性宗_{하야}不信有如來_이爲末世衆生_{하사}開秘

密之訣_{하고}圓覺經中_에特_{有妙旨也}固執先聞_{하야}擔麻棄金也_{도다}知訥_이頻遇如此之類

雖有解說_{이나}終不信受_{하고}但加疑謗而已_니何如先須信解心性_이

本淨_{하고}煩惱_이本空_{하야}而不妨依解薰修者也_{리오}外攝律儀而忘拘執

內修靜慮而非伏捺_{이니}可謂於惡_에斷_{호대}斷而無斷_{이요}於善_에修_{호대}

修而無修_라爲眞修斷矣_니若能如是定慧雙運_{하야}萬行齊修則豈比

夫空守默之痴禪_과但尋文之狂慧者也_{리오}且修禪一門_이最爲親切

能發性上無漏功德_{이라}若得意修者_는於一切時行住坐臥_와或語

或默

念念虛玄

하미

心心明妙

하아

萬德通光

이

皆從中發

이니

安得求道

侍本性而自安

하아

不專定慧乎

아

△答하시되 末法時代에 사람이 乾慧가 많아서 苦輪을 免치 못하여 뜻을 運用한즉 虛를
 이으며 假에 依託하고 말을 낸즉 分에 넘고 머리에 지나쳐서 知見이 偏枯하고 行과 解
 가 같지 않은지라 近來에 禪門의 汎汎히 배우는 무리가 많이 이 病이 있어서 다 이르
 되 이미 自心이 本來 깨끗하여 有와 無에 屬하지 않거니 어찌 形을 수고롭게 하여 망
 령되이 行用더함을 假借하리오 해서 이로써 無碍하고 自在한 行을 본받아서 眞修를 놓
 아 버리니 오직 몸과 입이 端正치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이에 心行이 迂曲하여 도무지 깨
 달아 알지 못하며 或 聖敎의 法相方便의 說에 執하여 스스로 退屈을 내어서 수고로이 漸
 行을 닦으며 性宗을 違背하여 如來가 末世衆生을 爲하사 秘密의 訣을 顯이 있음을 信치
 않고 (圓覺經中에 持 히妙旨가 있다) 먼저 들음을 固執하여 삼을 지고 金을 버림이 있도다 (昔에 삼집(三集)을 지고 가는
 과 金珠를 다 가져갈 수 없는 故로 먼저 數百里를 지고 온 삼집을 버리고 갔다는 佛人이 金珠를 버리고 갔다는 佛經에
 見이다 이는 小乘의 先入主見을 固執하여 一乘法門이 들어가지 않음을 比喩한 것이다) 知訥이 자주 이 같은 類를 만나서 비록
 解説함이 있으나 마침내 信해 받지 않고 다만 疑謗을 더할 따름이니 어찌 먼저 모름지
 기 心性이 本來 깨끗하고 煩惱가 本來 空한줄 信解하여 解를 依止해 薰修함이 妨害를
 지 않은 것만 같으리오 밖으로 律儀를 攝하되 拘執을 잊고 안으로 靜慮를 닦되 伏捺함
 이 아디디 可히 이르되 惡에 끊되 끊어도 끊음이 없고 善에 닦되 닦아도 닦음이 없는

지라 참 닦고 품음이 됨이니 만일 能히 이같이 定과 慧를 雙으로 運轉하여 萬行을 가지런히 닦은즉 어찌 空然히 默만 지키는 痴禪과 다만 글만 찾는 狂慧者에게 比하리오 또 禪을 닦는 한 門이 가장 親切함이 되어서 能히 性上에 無漏功德을 發하는지라 만일 뜻을 얻어 닦는 者는 一切 때 行住坐臥와 或 말하고 或 默함에 생각 생각이 虛하여 立하며 마음 마음이 밝아 妙하여 萬德과 神通光明이 다 가운데로 좇아 發하나니 어찌 시러금 道를 求함에 本性만 믿어 스스로 現안히 하여 定과 慧를 오로지하지 않으랴

翼眞記

에

云

대하사

定慧二字

는

乃三學之分稱

이

具云戒定慧

니

戒以防

非止惡

으로

爲義

하야

免墮三途

요

定以稱理攝散

으로

爲義

하야

能超六欲

이요

慧以擇法觀空

으로

爲義

하야

妙出生死

니

無漏聖人

의

因中修行

이

皆須

學此

로세

故名三學

이라

又此三學

이

有隨相稱性之別

하니

隨相

은

如上說

稱性者

는

理本無我

는

戒也

요

理本無亂

은

定也

요

理本無迷

는

慧

也

니

但悟此理

하면

即眞三學耳

라

先德

이

曰吾之法門

은

先佛

이

傳授

不論禪定精進

하고

唯達佛之知見

이러하

此即但破隨相對治之名

이요

不壞稱性三學

이니

故

로

曹溪

云대하사

心地無非

自性戒

요

心地無亂

이 自性定 이요 心地無痴 自性慧 라하 此之是也 라 又所言禪者 는 有淺

有深 하니 謂外道禪 과 凡夫禪 과 二乘禪 과 大乘禪 과 最上乘禪 이니 廣如

禪源諸詮集所載 와 今之所論心性 이 本淨 하고 煩惱本空之義 는 是當

最上乘禪 이라 然 이나 於用功門中 에 初心之人 은 不無權乘對治之義 로

故此勸修文內 에 權實 을 並陳 하니 不可不知也 니라

翼眞記에 이르시되 定과 慧의 두 글자는 이에 三學의 分으로 稱함이어든 갖추 이르면

戒定慧니 戒는 非를 막고 惡을 그침으로써 義가 되어서 三途 (鬼畜生)에 떨어짐을 免하고

定은 理에 稱合하여 散亂을 攝함으로써 義가 되어서 能히 六慾 (一은色慾二는形貌慾三은威儀姿顏慾四는

妙하게 生死에 나나니 無漏聖人의 因가운데 修行이 다 모름지기 이를 배울새 故로 이

름이 三學이라 또 이 三學이 隨相과 稱性の 別이 있으니 隨相은 위의 說과 같으며 稱

性이란 것은 理가 本來 我가 없음은 戒요 理가 本來 어지러움이 없음은 定이요 理가

本來 迷함이 없음은 慧니 다만 이 理致를 깨달으면 곧 참 三學이라 先德이 이르시되

나의 法門은 先佛이 傳해 주시되 禪定과 精進을 論치 않고 오직 佛의 知見만 達하게
했다 하시니 이는 곧 다만 隨相의 對治하는 이름만 破함이요 稱性三學은 壞하지 않음

이니 故로 曹溪(祖六)가 이르시되 心地가 그름이 없음이 自性戒요 心地가 어지러움이 없
음이 自性定이요 心地가 어리석음이 없음이 自性慧라 하시니 이것이 이것이라 또 말한
바 禪이란 것은 열음도 있고 깊음도 있으니 이르되 外道禪(與常計較를 품고 上界를 거미)과 凡夫禪
(因果를 正信하되 正한 心上 緣下하는 생각으로 새삼스름한者)과 二乘禪(我空만 眞個眞의 理를 悟하여 達하는者)과 大乘禪(我와 法이 둘다 空한 所願의 眞理를 悟하여 達하는者)과 最上乘禪이니 널리
禪源諸詮集에 실린 바와 같거니와 이제 論한바 心性이 本來 깨끗하고 煩惱가 本來
空했다는 義는 이 最上乘禪에 當하는지라 그러나 用功門 가운데에 初心의 사람은 權乘
의 對治하는 義가 없지 못할새 故로 이 勸修文안에 權과 實을 아울러 배푸노니 可히
알지 아니치 못할지니라

定慧

一名義

는

雖殊

나

要在當人

의

信心不退

하야

剋己成辦耳

니

智度

論

에

云

대 하사

若求世間近事

도 하

不能專精

이면

事業

을

不成

은이

況學無上菩

提

에

不用禪定

시고 하

偈

에

云

대 하사

禪定金剛鎧

一

能遮煩惱箭

이요

禪爲守智

藏

하야

功德之福田

다 이로

囂塵

이

蔽天日

커든

大雨能淹之

하고

覺觀風散心

커든

禪定

이

能滅之

시며 하

大集經

에

云

대 하사

與禪相應者

는

是我眞子

시고 하

偈

에

閑靜

無爲佛境界

에

於彼

에

能得淨菩提

라

若有毀謗住禪者

는

是

名毀謗諸如來시미라하正法念經에云대하사救四天下人命이不如一食頃에

端心正意시미라하起信論에云대하사若人이聞是法已하고不生怯弱하면當知是

人은定紹佛種하야必爲諸佛之所授記하리假使有人이能化三千大千

世界滿中衆生하야令行十善도이라不如有人이於一食頃에正思此法하야

過前功德하야不可爲論시니라하是知依此修行하느諸善功德을不可勝言대하

若不安禪靜慮하면業識이茫茫하야無本可據라臨命終時에風火逼迫

四大離散하야心狂熱悶하야顛倒亂見하야上無衝天之計하고下無入地

之謀하야惺惶恐怖하야失所依憑하야形骸蕭索이猶如蟬蛻하야迷途綿邈

孤魂이獨逝라雖有寶玩珍財나一無將去요雖有豪族眷屬이나竟無

一人追隨救護者리니是謂自作自受라無人替代矣니當是時也하야將

何眼目하야以爲苦海之津梁오莫言有少分有爲功德하야免此患難하리

定과慧의 名義는 비록 다르나 要는 當人의 信心이 退하지 아니하여 己를 剋해 辦斷한

을 이루는데 있나니 智度論에 이르시되 만일 世間에 가까운 일을 求하더라도 能히 精

을 오로지 하지 않으면 事業을 이루지 못하거든 하물며 위없는 菩提를 배움에 禪定을
쓰지 않으면라 하시고 偈에 이르시되 禪定の 金剛鑽(禪定の不動力金剛鑽으로만은 무구와 잡다한 법을)가 能히 煩惱의 火를
을 막고 禪은 智를 지키는 庫藏이 되어서 功德의 福田이로다 羈塵이 天日을 가리우거
든 大雨가 能히 적시고 覺觀(覺觀의 想別)風이 마음을 흔들거든 禪定이 能히 滅한다 하시며 大集
經에 이르시되 禪으로 더불어 서로 應하는 者는 이 나의 眞子라 하시고 偈에 이르시되
閑靜하여 하염이 없는 佛境界여 저에 能히 깨끗한 菩提를 얻는지라 만일 禪에 住함을
毀謗함이 있는 者는 이 이름이 모든 如來를 毀謗함이라 하시며 正法念經에 이르시되
四天下의 人命을 구원함이 한번 밤먹을 동안에 마음을 端正히 하고 뜻을 바루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시며 起信論에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이 法을 들어 마치고 怯弱을 내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決定코 佛種을 이어서 반드시 諸佛의 授記할 바가 되
리니 假使 사람이 있어 能히 三千大千世界 가운데 가득한 衆生을 化하여 하여금 十
善을 行케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 한번 밤먹을 동안에 이 法을 바로 생각하는 것만
같지 못하여 前功德에 지나서 可히 比論하지 못한다 하시니 이 알라 이를 依止하여 修
行하는 모든 善功德을 可히 다 말하지 못하겠도다 만일 禪을 편안히 하여 생각을 고
요히 하지 않으면 業識이 茫茫하여 根本 可히 依據할 게 없는지라 命 마침을 臨할 때
에 風火가 逼迫하고 四大(地水火風)가 離散해서 마음이 미쳐 熱悶하여 顛倒해 見이 어지러워
서 위로는 하늘을 뚫을 피가 없고 아래로는 땅에 들어갈 피가 없어서 惶惶하고 恐怖

하여 依憑할바를 잃어서 形骸가 蕭索(蕭索은 衰微한)함이 마치 매미의 벗음과 같아서 迷한 길에
멀고 먼데 의로운 魂이 홀로 가는지라 비록 寶玩과 珍財가 있으나 하나도 가져감이 없
고 비록 豪族과 眷屬이 있으나 마침내 한 사람도 따라 救護할 者가 없으니 이
르되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음이라 사람이 替代할 이가 없으니 이 때를 當하여 무슨
眼目을 가져서 세 苦海의 津梁을 삼으리오 少分の 有為功德이 있어서 이 患難을 免한
다 말하지 말라

百丈和尚

이 해사云

縱有福智多聞

이 나都不相救

爲心眼

未開하야唯

緣念諸境

하야不知返照

하고復不見佛道

하야一生所有惡業

悉現於前

或怖或懼

六道五蘊

現前

盡見嚴好舍宅

舟船車輿

光

明現赫

하야爲縱自心

하야貪愛所見

으로悉變爲好境

이隨所見

重處受

生

하야都無自由分

이라龍畜良賤

亦摠未定

是以

凡有高識遠

志之人

은先須深觀三世業報

毫髮不差

無地可逃

今若緣差

不能進修

하면後必受苦

니良可傷哉

即於初中後夜

閒爾忘緣

兀然端坐

하야不取外相

하고攝心內照

先以寂寂

治於緣慮

次

以惺惺^{으로} 治於昏沉^{하야} 均調昏散^{호대} 而無取捨之念^{하야} 令心歷歷^{하야} 廓

然不昧^{하야} 無念而知^{하미} 非彼所聞^{이여} 一切境界^를 終不可取^며 若隨世

緣^{하야} 有所施作^{이라} 悉當觀察應作不應作^{하야} 萬行^을 無廢^{하야} 雖有所作

不失虛明^{하야} 湛然常住^니 一宿覺^이 云^대 寂寂^은 謂不念外境善惡

等事^요 惺惺^은 謂不生昏住無記等相^{이라} 若寂寂不惺惺^은 此乃昏住

惺惺不寂寂^은 此乃緣慮^요 不寂寂不惺惺^은 此乃非但緣慮^라 亦

乃入昏而住^요 亦寂寂亦惺惺^은 非唯歷歷^{이라} 兼復寂寂^{이니} 此乃還源

之妙性也^{시고} 十疑論註^에 云^대 無念者^는 即是眞如三昧^니 直須惺惺

寂寂^{하야} 不起攀緣^{하야} 實相相應^{시고} 先德^이 云^대 凡夫^는 有念有知^요

二乘^은 無念無知^요 諸佛^은 無念而知^{시니} 如上言教¹ 是修心人^의 定

慧等持^{하야} 明見佛性之妙門也^라 有智之人^은 切須審詳^{이니} 豈可徒標

大意^{하야} 而便棄修行耶^아
定慧等持에 有五種起心과 六種料簡이 어든 大意在此 하니 思之 어다

百丈和尚이 이르시되 비록 福과 智와 多聞함이 있으나 도무지 서로 救援하지 못함이니

을 생각하지 않음이요 惺惺은 이르되 昏住와 無記等 相을 내지 않음이라 만일 寂寂하고 惺惺하지 않음은 이는 이에 昏住요 惺惺하고 寂寂하지 않음은 이는 이에 緣慮요 寂寂하고 惺惺치도 惺惺치도 않음은 이는 이에 다만 緣慮일 뿐 아니라 또한 이에 昏에 들어 住함이요 또한 寂寂하고 또한 惺惺함은 오직 歷歷할 뿐 아니라 兼하여 다시 寂寂함이 니 이는 이에 根源에 돌아가는 妙한 性이라 하시고 十疑論注에 이르시되 無念이란 것은 곧 이 眞如三昧나 바로 모름지기 惺惺하고 寂寂해서 반연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實相과 서로 應한다 하시고 先德이 이르시되 凡夫는 생각도 있으며 아는 것도 있고 二乘은 생각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고 諸佛은 생각이 없이 안다 하시니 위와 같은 言敎가 이 마음을 닦는 사람의 定과 慧를 平等히 가져서 밝게 佛性을 보는 妙한 門이라 智가 있는 사람은 간절히 모름지기 살피 자세히 할지니 어찌 可히 한갓 大意만 標하여 文々修行을 버리랴 (慧等持에 五種起心과 六種料簡이 있거니와 大意가) (이에 있으면서 생각할 지어다) (永嘉集에 나타났다)

△問曰 諸佛妙道 深曠難思 今只令末世衆生 觀照自心 而

希佛道 自非上根 未免疑謗

하니

이면

이로소이다

△물어 이르되 諸佛의 妙한 道가 깊고 멀어 생각하기 어렵거늘 이제 다만 末世衆生으로 하여금 自己의 마음을 觀照하여 佛道를 바라게 하니 스스로 上根이 아니면 의심해 誹謗함을 免치 못하겠나이다

마음과 눈이 열리지 못함이 되어서 오직 모든 境界를 반연해 생각해서 返照할 줄 알지 못하고 다시 佛道를 보지 못하여 一生의 있는바 惡業이 다 앞에 나타나 되 或 두렵고 或 즐거우며 六道 (天上人間修羅의 三善道와 地獄餓鬼畜生의 三惡道를 合稱한 것이다)의 五蘊 (色受想行識이니 色은 身을 말한 것이요 受想等은 心을 말한 것이다)이 앞에 나타나 되 다 殿好한 舍宅과 舟船과 車輿와 光明이 現赫함을 보아서 自心을 放縱함이 되어 貪愛의 所見으로 다 變하여 좋은 境界가 되거든 보는바를 따라서 重處에 받아 나서 도무지 自由의 分이 없는지라 龍과 畜과 良과 賤을 또한 다 定하지 못한다 하시니 이로써 무릇 높은 知識과 먼 뜻이 있는 사람은 먼저 모름지기 三世의 業報가 毫髮도 어긋나지 아니하여 땅에 可히 逃亡할데 없는지라 이제 만일 緣이 어긋나서 能히 나아가 담지 못하면 뒤에 반드시 苦를 받으리니 진실로 可히 슬프다 觀하여 곧 初中後夜에 間爾히 緣을 잇고 兀然히 端正하게 앉아서 外相을 取하지 말고 마음을 攝하여 안으로 비추되 먼저 寂寂으로써 緣慮를 다스리고 다음에 惺惺으로써 昏沈을 다스려서 昏沈과 散亂을 均調하되 取하고 버리는 생각이 없어서 마음으로 하여금 歷歷히 해서 廓然히 昧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없이 알며 저에 들은바가 아니어든 一切境界를 마침내 可히 取하지 말며 (만일 靜坐中에 魔가 帶着 薩婆로 變現하여 幻觀으로 비추면은 所識는 것이요 幻觀으로 비추되니 是 魔의 變現이니 行持者의 過去善根으로 佛魔가 現示한 것이니 是은 善境界다 故로 非彼所聞이든 一切境界를 緣不可取라 한 것이니 非彼의 彼字는 經中에 佛의 名을 用하고 리진 것이니) 만일 世緣을 따라서 베풀어 짓는바가 있더라도 다 마땅히 應當 지을 것과 應當 짓지 않을 것을 觀察하여 萬行을 廢함이 없어서 비록 짓는바가 있으나 虛明을 잃지 아니하여 湛然히 항상 住할지니 一宿覺 (永嘉眞覺禪師의 別號나 六祖의 高弟다)이 이르시되 寂寂은 이르되 外境의 善惡等 일

을 생각하지 않음이요 惺惺은 이르되 昏住와 無記等 相을 내지 않음이라 만일 寂寂하고 惺惺하지 않음은 이는 이에 昏住요 惺惺하고 寂寂하지 않음은 이는 이에 緣慮요 寂寂하고 惺惺치도 惺惺치도 않음은 이는 이에 다만 緣慮일 뿐 아니라 또한 이에 昏에 들어 住함이요 또한 寂寂하고 또한 惺惺함은 오직 歷歷할 뿐 아니라 兼하여 다시 寂寂함이니 이는 이에 根源에 돌아가는 妙한 性이라 하시고 十疑論注에 이르시되 無念이란 것은 곧 이 眞如三昧니 바로 모름지기 惺惺하고 寂寂해서 반연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實相과 서로 應한다 하시고 先德이 이르시되 凡夫는 생각도 있으며 아는 것도 있고 二乘은 생각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고 諸佛은 생각이 없이 안다 하시니 위와 같은 言敎가 이 마음을 닦는 사람의 定과 慧를 平等히 가져서 밝게 佛性을 보는 妙한 門이라 智가 있는 사람은 간절히 모름지기 살피 자세히 할지니 어찌 可히 한갓 大意만 標하여 문득 修行을 버리랴 (慧持에 五種起心과 六種料簡이 있거니와 大意가 이에 있으니 생각할지이다 (永嘉集에 나 타 났다))

△問曰 諸佛妙道 深曠難思 今只令末世衆生 觀照自心 而

希佛道 自非上根 未免疑謗 이런 이로서 이다

△물어 이르되 諸佛의 妙한 道가 깊고 멀어 생각하기 어렵거늘 이제 다만 末世衆生으로 하여금 自己의 마음을 觀照하여 佛道를 바라게 하니 스스로 上根이 아니면 의심해 誹謗함을免치 못하겠나이다

△予笑曰前來問意^는何爲自高^하此問^은何爲自卑^오且莫草草

吾^하語汝^라馬鳴菩薩^이撮略百本大乘經典^하造起信論^하直標

云^대所言法者^는謂衆生心^{이라}是心^이即攝一切世間出世間法^{이니}依

於此心^하顯示摩訶衍義^라蓋恐衆生^이不知自心^의靈妙自在^{하고}向

外求道耳^라圓覺經^에云^대一切衆生^의種種幻化^이皆生如來圓覺

妙心^{호미}猶如空花^이從空而有^라裴相國^이云^대血氣之屬^이必有知

凡^라有知者^는必同體^니所謂眞淨明妙^{하고}虛徹靈通^하卓然而獨尊

者也^라背之則凡^{이요}順之則聖^{이라}雲蓋智禪師^이常謂門人曰但莫

瞞心^{하면}心自靈聖^{시니}此等^이是諸經論^과及天下善知識^의所留言

句中微旨也^라但時人^이自欺自瞞^하日用而不自信自修耳^니脫或

有信之者^{라도}不加決擇^{하고}隨情向背^하未免斷常^하而堅執己見^{하니}豈

可與之語道也^{리오}

△내가 웃어 이르되 前來에 물은 뜻은 어찌 스스로 높음이 되더니 이에 물음은 어찌

스스로 낮음이 되었고 또 草草(草草)히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馬鳴菩薩이 百本大乘經典을 撮略하사 起信論을 지으사 마로 標하여 이르시되 말한바 法이란 것은 衆生心을 이름이라 이 마음이 곧 一切世間과 出世間法을 攝함이니 이 마음을 依止하여 摩訶衍義(此經下見 摩訶衍義)를 顯示한다 하시니 대개 衆生이 自心의 靈妙하며 自在함을 알지 못하고 向해 道를 求할까 두려워 함이라 圓覺經에 이르시되 一切衆生의 覺가 지 幻化가 다 如來의 圓覺妙心에서 남이 마치 虛空과 같아 虛空으로 좃아 있음과 같다 하시고 裴相國이 이르시되 血氣의 屬이 반드시 血이 있는지라 무릇 血이 있는 者는 반드시 體가 같음이니 이른바 眞淨하며 明妙하고 虛徹하며 靈通하여 卓然히 홀로 높은 者라 등진즉 凡이요 順한즉 聖이라 하시고 雲蓋智禪師가 항상 門人에게 일러 이르시되 다만 마음 속이지 말면 마음이 스스로 靈하고 聖하다 하시니 此等이 이 모든 經論과 天下 善知識의 머무신바 言句가운데 微한 旨趣라 다만 時代사람이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아서 날로 쓰되 스스로 信하고 스스로 닦지 못함이니 設使或 信하는 者가 있더라도 決擇을 더하지 않고 情을 따라 向하며 등져서 斷과 常을免치 못하여 自己의 見을 굳게 執하니 어찌 可히 더불어 道를 말하리오

△問曰修多羅中 演說百千三昧 無量妙門 布網張羅 該天
 括地 諸菩薩 依教奉行 至於斷證階位則遂有三賢十地 等

妙二覺

이이

今但依惺惺寂寂二門

하야

對治昏沉緣慮

하야

終期究竟位者

1 如認一微瀾

하야

以爲窮盡瀛渤

이니

不其惑乎

이까

△물어 이르되

脩多羅

(보살의 지혜가 다스려서 모든 법의 근본에 들어맞는 법이라 함)

가운데에 百千三昧와 無量妙

門을 演說하여 그물을 펴고 그물을

베풀어지

天을 싸고

地를 싸니

모든

菩薩이

敎를

依止하여 받들어 行해서 끊고 證하는

階位에

이른즉

드디어

三賢과

十地와

等妙

(妙覺位에 당함)

의

二覺이 있거늘

이제

다만

惺惺

寂寂의

두門을

依止해서

昏沉과

緣慮를

對治하여 마침내 究竟의 位를 期約하는 것이 한 작은 거품을 誤認하여 세 바다를 窮盡하

려는 것과 같음이니 그 迷惑함이 아니리오까

△答

하사

今時修心人

이

具佛種性

가나

依頓宗直指之門

하야

發決定信解

者

는

直了自心

이

常寂

하야

直然惺惺

하야

依此而起修故

로

雖具修萬行

이나

唯以無念爲宗

하고

無作爲本也

라

以無念無作故

로

無有時劫地位

漸次之行

하야

亦無法義差別之相

이요

以具修故

로

塵數法門

과

諸地功

德

이

妙心體具

호미

如如意珠

하니

此中惺惺寂寂之義

는

或直約離念心

體

하며

或約用功門說之

니

故

로

修性

이

俱圓

하고

理行

이

兼暢

이라

修行徑

路 莫斯爲最^{하니} 但得意修心^{하야} 脫生死病^이 爲要^니 何容名義諍論

而興見障乎^{하야} 而今^{미오} 若善得離念心體^{하면} 即與佛智^로 相契^니 何

論三賢十聖^의 漸次法門^오 圓覺修證儀^에 云^대 頓門^은 無定位^라 心

淨^이 即名眞^{시고} 起信論^에 云^대 所言覺義者^는 謂心體離念^{이니} 離念

相者^고 等虛空界^{하야} 無所不遍^{하야} 法界一相^{이니} 卽是如來平等法身^{이라}

又云^대 若有衆生^이 能觀無念者^는 卽爲向佛智故^{시고} 四祖^고 謂融

禪師曰夫百千三昧^와 無量妙門^이 盡在汝心^{시니} 故知^{하라} 若不了自

心^이 圓該諸法^{하며} 又不知聖教^에 千途異說^이 隨順機宜^{하야} 無不指歸

自心法界^{하고} 而返執文字差別義門^{하며} 又自生怯弱^{하야} 望滿於三祇行

位者^는 非性宗^의 得意修心者也^니 如有此病^은 請從今改^라

△答하시되 今時에 마음을 닦는 사람이 佛種性을 갖추 이가 頓宗에 直指의 門을 依止

하여 決定한 信解를 發한 者는 바로 自心이 항상 高요하여 바로 그러히 惺惺함을 了達

해서 이를 依止해 닦음을 일으키는 故로 비록 갖추 萬行을 닦으나 오직 無念으로써

宗을 삼고 無作으로 本을 삼는지라 써 생각이 없고 지음이 없는 故로 時劫과 地位의

漸次の行이 있음이 없으며 또한 法(一)과 義(眞如門)의 差別의 相도 없고 具足히 담
 는 故로 塵數의 法門과 諸地의 功德이 妙心體에 갖추어 如意珠와 같으니 이 가운데 惺
 惺하고 寂寂한 義는 或 다만 생각을 여의 心體를 잡으며 或用功門을 잡아 說합이니
 故로 脩와 性이 다 圓하고 理와 行이 兼하여 和暢한지라 修行하는 지름길이 이에서 가
 장 됨이 없으니 다만 뜻을 얻어 마음을 닦아서 生死의 病을 벗음이 要가 됨이니 어찌
 名義로 靜論하여 見障일으킴을 容納하리오 而今에 만일 離念心體를 잘 얻으면 곧 佛
 智로 더불어 서로 契合할지니 어찌 三賢(十住十行)과 十聖(地)의 漸次法門을 論하리오 圓
 覺修證儀에 이르시되 頓門은 定한 位가 없는지라 마음 깨끗함이 곧 이름이 眞이라 하
 시고 起信論에 이르시되 말한바 覺의 義란 것은 心體가 생각 여임을 이름이니 생각을
 여인 相이 虛空界와 같아서 두루하지 않은바가 없어서 法界가 한 모양이니 곧 이如
 來의 平等한 法身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만일 衆生이 있어 能히 無念을 觀하는 者는
 곧 佛智에 向함이 되는 연고라 하시고 四祖가 融禪師에게 일러 이르시되 대저 百千三
 昧와 限量없는 妙門이 다 네 마음에 있다 하시니 故로 알라 만일 自心이 모든 法을 두
 렷이 呑了達하지 못하며 또 聖敎에 干가지 길 다른 說이 根機 마땅함을 隨順하여 自
 心의 法界로 가리켜 돌아가지 않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文字의 差別義門을
 執하며 또 스스로 怯弱을 내어서 三祇行位(三大阿僧祇劫의 修行을 要한 然後에 果成에
 오른다는 말이니 阿僧祇는 無量數의 名詞다)에 참을 바라는 者
 는 性宗의 뜻을 얻어 마음을 닦는 者가 아니니 만일 이 病이 있거든 이제로 좃아 고침

을請하노라

近於故人處_에 得五位修證圖_{호니} 乃建州大中寺講學沙門永年_은 排

定_{하고} 杭州祥符寺傳華嚴教明義大師曇慧_는 重詳定_{이라} 其序_에 云_{하사}

夫無上菩提_는 在三數劫外_{하야} 五位修行_과 六度圓滿_{하야} 方能證得_{이와}

今列頓漸兩途_니 若圓頓門_{인면} 從衆生界_{하야} 善男子等_이 具佛種性_{하니}

一念_에 背塵合覺_{하야} 不歷僧祇_{하고} 直至悟界_{하니} 謂之頓超見性成佛_{이요}

若三乘漸次_{고면} 五位聖賢_이 須歷三祇_{하야} 方成正覺_{이라} 如是辨明_{하고} 至

於圖中_에 排定頓漸行相_{하야} 亦不相雜糅_{하니} 所以然者_는 以其衆生根

機_一 或有二乘種性_{하며} 或有菩薩種性_{하며} 或有佛種性_{하야} 利鈍_이 各別

故也_라 教中_{에도} 亦有如是具佛種性衆生_이 於生死地_에 面上_에 頓悟佛

乘_{하야} 齊證齊修之旨_{하니} 何獨南宗_에 有頓門耶_아

요사이 故人_{舊親}의 곳에 五位_{十住十行十回向十地十一地}脩証圖를 얻으니 이에 建州大中寺에 學을 講하는

沙門 永年은 排定하고 杭州祥符寺에 華嚴教를 傳한 明義大師曇慧는 거듭 詳定한지라

그序에 이르시되 대저 위없는菩提는 三數劫(三大阿僧祇劫) 밖에 있어서 五位의 修行과 六度

(布薩持戒忍辱精進神定智慧)가 圓滿하여야 마야호로 能히 証得하거니와 이제 頓과 漸 두 길을 벌리노니

만일 圓頓門일진댄 衆生界로 좇아 善男子 등이 佛種性을 갖춘 이는 한 생각에 塵을 등

지고 覺에 합해서 僧祇를 지내지 않고 바로 悟界에 이르나니 이르되 물론 뛰어 見性成

佛함이요 만일 三乘漸次일진댄 五位의 聖賢이 모름지기 三祇를 지내야 마야호로 正覺

을 이룬다 하여 이같이 辨明하고 圖 가운데에 頓과 漸의 行相을 排定함에 이르러서

도 또한 서로 雜糅하지 않으니 써 그러한 바는 써 그 衆生의 根機가 或二乘의 種性이

있으며 或菩薩의 種性이 있으며 或佛의 種性이 있어서 利와 鈍이 各各 다른 연고라

敎中에도 또한 이같은 佛種性을 갖춘 衆生이 生死地面위에 佛乘을 물록 깨달아서 가

지런히 証하고 가지런히 닦는 旨趣가 있으니 어찌 홀로 南宗에만 頓門이 있으랴

但學敎學禪之者 雖遇妙旨 高推聖境 自生怯弱 未能深觀

自心日用見聞覺知之性 是無等等大解脫故 生多般疑惑耳

此後 更引誠證 具明頓超見性者 雖不藉三乘漸次行位 亦

不碍悟後圓修行門 如是悟修本末 不離圓明覺性惺寂之義

願令修心人 遷權就實 不枉用功 自他 速證無上菩提

如法集別行錄 에 云 대하사 始自發心 으로 乃至成佛 이 唯寂唯知 라 不變不

斷 대이로 但隨地位 하야 名義稍殊 하니 謂約了悟時 는하야 名爲理智 요 理即是寂 이요 約

發心修時 는하야 名爲止觀 이요 止息塵緣 하야 契於寂也 요 約任運成行 는하야 名爲定慧 요 觀照性相 하야 冥於知也 라

因止緣功而融心定이니定者는寂然不變이요因觀照功而發慧니慧者는知無分別이라 約煩惱都盡 하고 功行圓滿成佛之時 는하야 名爲菩

提涅槃 이니 菩提는梵語어든此云覺이니即是知也요涅槃은梵語어든此云寂滅이니即是寂也라 當知 하라 始自發心 으로 乃至畢竟 이 唯

寂唯知 라하 今言唯寂唯知 이 正據此錄之旨則雖今時凡夫 이 能廻光返照 하야 善

知方便 하야 均調昏散 하야 惺惺寂寂之心 이 該因徹果 하야 不變不斷 이나 但

生熟明昧 이 隨功異耳 니라

다만 教를 배우고 禪을 배우는 者가 비록 妙한 旨趣를 만나나 높이 聖境에 미루어 스

스로 怯弱을 내어서 能히 自心の 日用에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性이 이 等없는 等 (宇宙萬物은이法과같은이없는이외이法은법히宇宙萬物과같이하는故로이르되無等이다) 의 大解脫인줄 깊이 觀하지 못하는 故로 多般의 疑惑을 내나

니 이 뒤에 다시 眞實한 証據를 이끌어서 물록 뛰어 見性하는 者가 비록 三乘의 漸次

行位를 假藉하지 않으나 또한 悟後에 두렷이 淸는 行門에 걸리지 아니하여 이같은 悟

와 脩의 本과 末이 圓明한 覺性의 惺과 寂을 여의지 않는 義를 갖추 밝혀서 願컨대

마음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權에서 옮겨 實에 나아가서 그릇 功을 쓰지 아니하여 自와

他가 速히 위없는 菩提를 証하게 하리니 또 저 法集別行錄에 이르시되 비로소 發心으로

부터 이에 成佛함에 이르기까지 오직 寂과 오직 知라 變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되 다

만 地位를 따라서 名義가 적이다르니 이르되 了悟할 때를 잡아서 이음이 理와 智가

되고 (理는 본이寂이요 智는 본이知다) 發心하여 닦을 때를 잡아서 이음이 止와 觀이 되고 (止는 心을 止息하여 寂에契하고 觀은 心을 觀照하여 知에契함이다)

뜻 좇아 行이름을 잡아서 이음이 定과 慧가 되고 (止靜의 功을因하여 心을 寂靜히 定한 것이니 智의 功은 寂靜이 了悟한 것이니 慧를發함이니 慧는 智의 功을因함이다)

은 知가分別이 없음이다 煩惱가 모두 다하고 功行이 圓滿해 成佛할 때를 잡아서 이음이 菩提와 涅槃

이 되나니 (菩提는 梵語어는 此方語로 이르며 覺이니 본이知요 涅槃은 梵語어는 此方語로 이르며 寂滅이니 본이寂이다) 마땅히 알라 비로소 發心으로부터 이에 畢竟

이 (佛)에 이르기까지 오직 寂이요 오직 知라 하시니 (이제唯寂唯知라 말함이니 正히이 惺惺과 寂寂이다) 이 錄의 旨趣를 依據

한즉 비록 今時에 凡夫가 能히 光(光은 心)을 들이켜 返照하여 方便을 잘 알아서 昏沈과 散

亂을 均調하여 惺惺하고 寂寂한 마음이 因을 짜고 果를 사무쳐서 變치 않고 끊어지지

않으나 다만 生과 熟과 明과 昧가 功을 따라 다름이니라

若圓照自心 眞常性德 動靜雙融 證會法界則便知諸地功德

塵數法門 九世十世 不離於當念 以心性 靈妙自在 含

容萬種法 萬法 未嘗離自性 如轉如不轉 性相體用 隨緣

容萬種法 萬法 未嘗離自性 如轉如不轉 性相體用 隨緣

容萬種法 萬法 未嘗離自性 如轉如不轉 性相體用 隨緣

容萬種法 萬法 未嘗離自性 如轉如不轉 性相體用 隨緣

不變^이 同時無碍^{하야} 初無今古凡聖善惡取捨之心^{일대} 而不妨功用^이

漸增^{하야} 歷諸地位^에 悲智漸圓^{하야} 成就衆生^{호대} 而始終^에 不移一時一

念一法一行也^라 華嚴論^에 云^{하사} 以自心根本無明分別之種^{으로} 便成

不動智佛^{하고} 以法界體用^{으로} 以爲信進悟入之門^{하야} 從信及入位進修

乃至經十住十行十回向十地十一地^{하야} 總不離本不動智佛^{하미} 不

離一時一念一法一行上^{하고} 而有無量無邊不可說不可說法界虛空

界微塵數法門^{이니} 何以故^오 爲從法界及根本不動智上^{하야} 爲信進悟

入故^{라하사} 又云^대 不同三乘權教^에 約劣解衆生^{하야} 存世間三世之性^과 說

佛果^이 在三僧祇之外^{라하} 據此論之旨^{전면} 圓宗圓信之者^는 以自心根

本無明分別之種^{으로} 便成不動智佛^{하야} 從信乃至究竟位^히 無有轉變

成壞之相^{이니} 可謂心性^이 本來自在^{하야} 隨緣以轉而常無變易者也^나

만일 自心の眞常한 性德이 動과 靜이 雙으로 融和함을 圓照하여 法界를 證得해 안즉

문득 諸地의 功德과 塵數의 法門과 九世十世^(過去三世外 現在三世外 未來三世外 九世)가 當念을 여의지

않음을 알지니 세心性이靈妙하고自在하여萬가지法을含容하고 萬法이 일찍기自
性을 여의지 아니하여 이렇듯轉하고(萬地은과라轉한)이렇듯轉하지 않음에(萬地은과라轉하지않음)性과 相과

體와 用과 隨緣과 不變이 同時에 걸림이 없어서 當初에 今古와 凡聖과 善惡과 取捨의
마음이 없을새 功用이 漸漸더하여 모든 地位를 지나매 悲와 智가 漸漸두렷하여 衆生

을 成就하되(衆生의本來空性性德을成就하여佛地에至함)始와 終에 一時와 一念과 一法과 一行도 옮기지 않음이妨
害롭지 않음이라 華嚴論에 이르시되 自心の 根本無明分別의 種으로써 문득 不動智佛을

이루고 法界의 體와 用으로써 信해 나아가며 깨달아 드는 門을 삼아서 信으로 좇아
및 位(十住中初住位)에 들어 進脩하여 이에 十住와 十行과 十回向과 十地와 十一地를(初發心住에見道하여時이十住十行十回向十賢位요十地十一地는殊位로본다)

一時와 一念과 一法과 一行위를 여의지 않고 無量하며 無邊하며 不可說不可說(華嚴學에의名詞)
인 法界와 虛界의 微塵數法門이 있나니 어찌손 연고노 法界와 根本不動智위로

좃아 信해 나아가며 깨달아 들어감을 삼음이 되는 연고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三乘權
敎에 劣解衆生을 작아서 世間三世의 性을 돕과 佛果가 三僧祇 밖에 있다 說하심과 같

지 않다 하시니 이 論의 旨趣를 依據하건대 圓宗에 두렷이 信하는 者는 自心の 根本無
明分別의 種으로써 문득 不動智佛을 이루어서 信으로 좇아 이에 究竟位에 이르기까지

轉變하고 成壞하는 相이 있음이 없음이니 可히 이르되 心性이 本來自在하여 緣을 따

라轉하는것 같되 항상 變易함이 없는 것이니라

近來^에 唯習言說者¹ 雖廣談法界無碍緣起^나 初不返觀自心之德

用^{니하다} 既不觀法界性相^이 是自心之體用^{니이어} 何時^에 開自心情塵^{하야} 出

大千經卷^{오이리} 經不云乎^아 知一切法^이 即心自性^{하면} 成就慧身^{호대} 不由

他悟^{라하} 又不云乎^아 言辭所說法^은 小智妄分別^{이라} 是故^로 生障礙^{하야}

不了於自心^{이라} 不能了自心^{니이어} 云何知正道^{리오} 彼由顛倒慧^{하야} 增長一

切惡^{이라하} 伏望^{하노} 修真高士^는 依如上懇苦之言^{하야} 先須深信自心^이

是諸佛本源^{하야} 以觀照定慧之力^{으로} 發出之^{언정} 不可端居抱愚^{하야} 効無

分別^{하야} 而爲大道^니 所謂在纏眞如^는 昏散^이 皆具^요 出纏眞如^{라자} 定

慧方明^{이니} 摠別^이 條然^{하야} 前後無濫故也^라 亦不可謂現今^에 治其染

當來^에 得其淨^{하야} 不觀本妙^{하고} 自生艱阻^{하야} 而勞修漸行^{이니} 唯心訣

云^{하사} 或讓位^{하야} 高推於極聖^{하며} 或積德^{하야} 望滿於三祇^{하며} 不知全體

現前^{하고} 猶希妙悟^{하니} 豈覺從來具足^{오이리} 仍待功成^{다이로} 不入圓常^{하야} 終成

輪轉

은

祇爲昧於性德

하야

罔辨眞宗

하야

捨覺徇塵

하야

棄本就末

하야

此之

是也

라

近來에 오직 言說만 익히는 者가 비록 널리 法界의 無碍緣起를 말하나 當初에 自心의

德用을 返觀치 않나니 이미 法界性相이 이 自心의 体用인줄 觀하지 않거니 어느 때에

自心의 情塵을 열어서 大千經卷을 내리오 (華嚴經에 이르되 塵이 三千大千世界와 같은 微塵이 一微塵中에 있으며 一切塵中에 妙用의 心 体 上에具 足함을 이룬다) 經에 이르지 안했느냐 一切法이 곧 마음 自性인줄 알면 慧身을 成就하되 다

른이를 말미암아 깨닫지 않는다 하시고 또 이르지 안했느냐 言辭로 說한바 法은 小智

로 망령되이 分別함이라 이런 故로 障礙를 내어서 自心을 了達하지 못하는지라 能히

自心을 了達하지 못하거니 어찌 正道를 알리오 저가 顛倒의 慧를 말미암아서 一切惡을

增長한다 하시니 설드려 바라노니 眞을 탐는 높은 선비는 위와 같은 懇苦한 말씀을 依

止하여 먼저 모름지기 自心이 이 諸佛의 本源인줄 깊이 信하여 觀照하는 定慧의 힘으

로써 發해 낼지언정 可히 端正히 居해 愚를 안아서 無分別을 본받아 大道를 삼지 말

지니 이른바 纏에 있는 眞如(衆生心中眞如)는 昏沉과 散亂이 다 갖추고 纏에 난 眞如(諸佛智中眞如)라야

定과 慧가 바야흐로 밝음이니 總과 別이 條然하여 前과 後가 넘침이 없는 연고라 또한

可히 이르되 現今에 그 染을 다스리고 當來에 그 淨을 얻는다 하여 本來 妙함을 觀하

지 않고 스스로 艱阻를 내어서 수고로이 漸行을 닦지 말지니 唯心訣에 이르시되 或位
를 사양하여 높이 極聖에게 미루며 (의는凡夫의 病痛이다) 或 德을 쌓아서 三祇에 차기를 바라며 (의는小乘과 眞小)
權教善薩의 病痛이다 全体가 現前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妙하게 깨달음을 바라니 (의는修行人의 病痛이다) 어찌 從
來에 具足함을 깨달으리오 因하여 功이름을 기다리도다 圓常에 들지 못하여 마침내 輪
轉을 이름은 다만 性德에 昧하여 眞宗을 分辨함이 없어서 覺을 버리고 塵을 좇으며 本
을 버리고 末에 나아감이 됨이라 함이 이것이라

是故 로 修心之人 은 不自屈不自恃 니 恃則墮於此心 이 不守自性 하고

能凡能聖 하야 刹那造作 하야 還復漂沉之用 일세 是以 로 晝三夜三 에 懃懃

蘊習 하야 惺惺無妄 하고 寂寂明亮 하야 不違修門 이며 屈則失於此心 이 靈通

應物 하야 常在目前 하야 終日隨緣 오대 而終日不變之德 일세 是以 로 將痴愛

成解脫眞源 하야 運貪瞋 하야 現菩提大用 하야 逆順自在 하고 縛脫無拘 하야

順於性門也 니 此修性二門 이 如鳥兩翼 하야 闕一不可 하니 先德 이 云 하사

恰恰用心時 에 恰恰無心用 이니 曲談 은 名相勞 요 直說 은 無煩重 이라 無

心恰恰用 하면 常用恰恰無 니 今說無心處 1 不與有心殊 라하 若能於此 시니

에
得意進修

하면

則雖是末世衆生

이나

何患乎落斷常之坑也

미오

向來所

謂塵數法門

과

諸地功德

이

妙心體具

호미

如如意珠

미라호

豈誣也哉

미오

言

妙心者

는

是惺惺寂寂之心也

니라

이런故로 마음을 닦는 사람은 스스로 屈하지도 말고 스스로 믿지도 말지니 믿은즉 이 마음이 自性を 지키지 않고 能히 凡하며 能히 聖하여 刹那에 造作해서 도리어 다시漂 沉하는 用에 떨어질새 이로써 晝三과 夜三(三時中後)에 懃懃히 쌓아 익혀서 惺惺하되 妄이 없고 寂寂하되 明亮하여 修門을 어기지 않으며 屈한즉 이 마음이 靈通해 物을 應하여 항상 目前에 있어서 終日토록 緣을 따르되 終日토록 變치 않는 德을 잃을새 이로써 痴 愛를 가져서 解脫의 眞源을 이루고 貧賤을 運轉하여 菩提의 大用을 나타내어 逆과 順 에 自在하고 縛과 脫에 얽매이 없어서 性門에 順하나니 이 修와 性 두 門이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를 闕하면 齟지 못하니라 先德이 이르시되 恰恰(說樣한)히 마음을 쓸 때에 恰恰히 마음 없이 쓰나니 굽은 말은 名과 相이 수고롭고 바른 말은 煩重함이 없 는지라 마음 없이 恰恰히 쓰면 항상 眊도 洽洽히 없나니 이제 說한 無心處가 有心으로 더불어 다르지 않다 하시니 만일 能히 이에 뜻을 얻어 進脩하면 곧 비록 이 末世衆生 이나 어찌 斷과 常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근심하리오 向來에 이른바 塵數法門과 諸地의 功德이 妙心の 体에 갖추어 如意珠과 같다 함이 어찌 속임이리오 妙心이라 말한 것은

이惺惺하고寂寂한 마음이니라

△問 호대 今時修心人 이 若博學多聞 하야 說法度人 하면 則損於內照 요 若

無利他之行 이런 則何異趣寂之徒耶 고

△문되 今時에 마음을 닦는 사람이 만일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法을說하여 사람을 제도하면 곧 內照에 損할 것이요 만일 他를 利케 하는 行이 없으면 곧 어찌 寂에 趣向하는 무리와 다르리잇고

△答 하사 此 는 各在當人 이라 不可一向 이니 若因言悟道 하고 籍教明宗 하야 具

擇法眼者 는 雖多聞而不起認名執相之念 하미 雖利他而能斷自他憎

愛之見 하야 悲智漸圓 하야 妙契寰中則誠當實行者也 요 若隨語生見 하미

齊文作解 하야 逐教迷心 하야 指月 을 不分 하야 未忘名聞利養之心 하고 而欲

說法度人者 는 如穢蝸螺 라 自穢穢他 라 是乃世間文字法師 니 何名

專精定慧 하야 不求名聞者乎 리오 華嚴論 에 云 하사 若自有縛 하고 能解他縛

無有是處 라하 誌公法師大乘證 에 云 하사 世間幾許痴人 이 將道復欲

求道 오 廣尋諸義紛紜 하야 自救己身不了 로다 專尋他文亂說 하야 自稱至

理妙好^{하니} 徒勞一生虛過^{하야} 永劫沉淪生老^{토다} 濁愛纏心不捨^{하니} 清淨

智心自惱^라 眞如法界叢林^이 返作荊棘荒草^{토다} 但執黃葉爲金^{하야} 不

悟棄金求寶^{하니} 口內誦經誦論^{이나} 心裡尋常枯燥^{토다} 一朝覺本心空^{하면}

具足眞如不少^{라하} 阿難^이 曰一向多聞^{하면} 未專道力^{이러하} 先聖之旨^니

明踰日月^{하니} 豈可廣尋諸義^{하고} 不求己身^{하야} 而永劫沉淪乎^아 但時中

觀行餘暇^에 不妨披詳聖教^와 及古德入道因緣^{하야} 決擇邪正^{하야} 利他

利己而已^요 非爲一向外求^{하야} 分別名相^을 如入海算沙^{하야} 虛度光陰

先德^{이니} 曰菩薩^이 本爲度他^{근세} 是以^로 先修定慧^니 空閒靜處^에 禪

觀^을 易成^{이요} 少欲頭陀^이 能入聖道^{라하} 此其證也^라 旣發度他之願^{인면}

先修定慧^니 有道力則雲布慈門^{하고} 波騰行海^{하야} 窮未來際^{토록} 救拔一

切苦惱衆生^{하야} 供養三寶^{하야} 紹佛家業^{하리} 豈同趣寂之徒也^{니호}

△答하시되 이는 各各當人^에 있는지라 可히 一向이 못할지니 만일 말을 因하여 道를

깨닫고 敎를 假藉하여 宗旨를 밝혀서 法을 揀擇하는 眼目을 갖춘 者는 비록 많이 들으

나 名을 알고 相에 執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비록 他를 利케 하나 能히 自와 他의

憎하고 愛하는 見을 끊어서 悲와 智가 漸漸 두렷하여 妙하게 寶中(法寶)에 契合한즉 진
 실로 實行에 當하는 者오 만일 말을 따라 見을 내며 글과 가지런히 解를 지어서 教를
 쫓고 마음을 迷하여 指와 月을 分辨치 못해서 (八萬藏經이 月을 顯한 處가 指와 같나면 그 宗旨는 月과 같은 故로 이름이 나지 說을 不分이라 함과 같다) 名聞과 利
 養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法을 說하여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 者는 더러운 달팽이가
 스스로 더럽히고 他를 더럽힘과 같은지라 이는 이에 世間에 文字法師이니 어찌 定과 慧
 에 精을 오로지하여 名聞을 求하지 않는 者라 이름하리오 華嚴論에 이르시되 만일 스
 스로 結縛함이 있고 能히 他의 結縛을 풀이 옳은 곳이 있음이 없다 하시고 誌公法師大
 乘讚에 이르시되 世間에 얼마나한 어리석은 사람이 道를 가져 다시 道를 求하고자 하
 는고 널리 모든 義를 찾아 紛紜하여 스스로 自己를 救援함도 마치지 못하도록 오로지
 저 글만 찾아 어지러이 說하여 스스로 至理가 妙好하다 稱하니 한갓 수고로이 一生을
 虛過하여 永劫토록 生老에 沈淪하도록 濁愛가 마음에 얽히되 버리지 않으니 淸淨한
 智慧마음이 스스로 뇌로운지라 眞如法界의 叢林이 도리어 荊棘荒草를 짓도다 다만 黃
 葉을 執해 金을 삼아서 金을 버리고 보배 求함을 깨닫지 못하니 입안에 經을 외우고
 論을 닦으나 마음속은 尋常(平常)에 枯燥하도록 다一朝에 本心이 空한줄 깨달으면 具足한
 眞如가 적지 않다 하시고 阿難이 이르시되一向이 많이 들으면 道力을 오로지하지 못
 한다 하시니 先聖의 旨趣가 밝음이 日月에 넘으니 어찌 可히 널리 모든 義를 찾고 自
 己몸에 求하지 아니하여 永劫에 沉淪하라 다만 때 가운데 觀行하는 餘暇에 聖教와 및

古德의 入道한 因緣을 헤쳐 자세히 하여 邪와 正을 決擇하여 他를 利케 하고 自己를 利케 함이 妨害롭지 않음 따름이요 一向이 밖으로 求하여 名相 分別함을 바다에 들어 모래를 셈과 같이 하여 헛되이 光陰을 지내게 함이 아니니 先德이 이르시되 菩薩이 本來 他를 제도하기 爲할새 이로써 먼저 定慧를 닦나니 空閑하여 고요한 곳에 禪觀을 이루기 쉽고 欲이 적은 頭陀(번역하면 禪觀은 除染나한으로 一切空想과 밖으로 모든 嗜好를 다 버리는 意다)가 能히 聖人의 道에 든다 하시니 이것이 그 證據라 이미 他를 제도 할 願을 發했을진대 먼저 定慧를 닦을지니 道力이 있으면 慈門을 구름 퍼듯 하고 行海를 물결 날리듯 하여 未來際가 다하도록 一切苦惱衆生을 救拔해서 三寶에 供養하여 佛의 家業을 이으리니 어찌 寂에 趣向하는 무리와 같으리오(願寂의 徒는 小乘을 말함이다)

△問

호대

今時行者

雖專定慧

나

多分道力

이

未充

하니

若也不求淨土

△留此穢方

하면

逢諸苦難

하야

恐成退失

노이다

恐成退失

노이다

△문되 今時에 行者가 비록 定慧를 오로지하나 多分히 道力이 充足지 못하니 만일 淨

土를 求하지 않고 이穢方에 머물으면 모든 苦難을 만나서 退失을 이룰까 두려워하

노이다

△答

대하사

此亦各在當人

이라

不可一例取之

나

若是大心衆生

이

依此最

上乘法門

하야

決定信解四大

하야

如泡幻

하야

六塵

이

似空花

하야

自心

이

是

佛心이自性이是法性이라從本以來로煩惱性自離하야惺惺直然惺惺

하고歷歷直然歷歷하야依此解而修者는雖有無始習氣나以無依住智

로治之하면還是本智라不伏不斷하야雖有方便三昧의離昏散之功이나

以知緣慮分別이是真性中緣起故로任性淨而無取攝之相하미雖涉

外緣違順之境이나爲了唯心하야無自他能所故로愛憎嗔喜一任運不

生이니如是任法하야調治習氣하야使稱理智增明하고隨緣利物하야行菩薩

道하면雖處三界內나無非法性淨土요雖經歲月이나體不離時하야任大

悲智하야以法隨緣故로此人은雖不如上古過量人의一超登位하야具

足通力者나然이나以夙植善根으로種性이猛利하야深信自心이本來寂

用自在하야性無更改故로於諸世難에無有退失之患이니華嚴論에所

謂大心凡夫一能生信證入故로生如來家니不言己生佛家한諸大

菩薩者也라今時에如此修心者一爲上根也니라

△答하시되 이것도 또한 各各 當人에 있는지라 可히 一例로 取하지 못할지니 만일 이

大心衆生이 이 最上乘法門을 依止하여 決定코 四大가 泡幻과 같고 六塵이 空花와 같아
 서 自心이 이 佛心이며 自性이 이 法性이라 根本 뜻아 씨 음으로 煩惱의 性이 스스로
 여의어서 惺惺하매 바로 그러히 惺惺하고 歷歷하매 바로 그러히 歷歷한줄 信解하여 이
 解를 依止해 닦는 者는 비록 無始의 習氣가 있으나 依止없는 智로써 다스리면 도리어
 이 本智라 調伏하지도 않고 끊지도 아니하여 비록 方便三昧의 昏沈과 散亂을 여의는
 功이 있으나 씨 緣慮分別이 이 眞性가운데 緣起인줄 아는 故로 性 깨끗함을 맡겨 取하
 고 攝하는 相이 없으며 비록 外緣인 違順의 境에 涉하나 唯心인줄 了達하여 自他와 能
 소가 없음이 되는 故로 愛憎과 瞋喜가 뜻뜻아 나지 않나니 이같이 法을 맡겨서 習氣를
 고루어 다스려서 하여금 理智에 稱合해 더욱 밝게하고 緣을 따라 物을 利케 하여 菩薩
 道를 行하면 비록 三界안에 處하나 法性淨土가 아님이 없고 비록 歲月을 지내나 体가
 때를 옮기지 아니하여 大悲智를 맡겨서 法으로써 緣을 따르는 故로 이 사람은 비록 上
 古過量人(大智根)의 한번 뛰어 位에 올라서 神通力이 具足한 者와 같지 않으나 그러나 夙
 世에 심은 善根으로써 種性(根在正)
 性이 更改함이 없는줄 信하는 故로 모든 世難에 退失의 患이 없음이니 華嚴論
 에 이른바 大心凡夫가 能히 信을 내어 証해 드는 故로 如來의 家에 나나니 이미 佛家
 에 난 모든 大菩薩을 말하지 안했다한 것이라 今時에 이같이 마음을 닦는 者가 上根
 이 되나니라

或有行者一聞自心淨妙之德하고信樂修習이나然이나以無始堅執我相
習氣偏重하야致諸惑障하야未能忘情者는且以空觀으로推破自他身
心과四大五蔭이從緣幻出하야虛假非實호미猶如浮泡하야其中空虛이니
以何爲我며以何爲人하야如是深觀하야巧洗情塵하야心常謙敬하야遠
離憍慢하고折伏現行하야資於定慧하야漸入明靜之性이니然이나此人이若
無萬善으로助開自力이면恐成逗滯니直須勤供養三寶하야讀誦大乘하야
行道禮拜하야懺悔發願을始終無廢니以愛敬三寶淳厚心故로蒙佛
威加하야能消業障하야善根不退니若能如是自力他力으로內外相資하야
志求無上之道則豈不具美乎리오

或行者가 있어 自心の 淨妙한 德을 듣고 信樂하며 修習하나 그러나 些 비릇함이 없이
我相을 堅執해서 習氣가 偏重하여 모든 惑障을 일으켜서 能히 情을 잊지 못하는 者는
또 空觀으로써 自他の 身心과 四大五陰이 緣으로 좃아 幻으로 나서 虛假하여 實이 아
님이 마치 뜬 거품과 같아서 그 中이 空虛하거니 무엇으로써 我를 삼으며 무엇으로써
人을 삼으리오 미루어 破해서 이같이 깊이 觀하여 恭敬히 情塵을 씻으며 마음이 항상

謙敬하여 멀리 橋慢을 여의고 現行(煩惱의 名詞니 根本)을 折伏하여 定慧를 假藉해서 漸漸 밝고
고요한 性에 들지니 그러나 이 사람이 만일 萬善으로 自力을 도와 열이 없으면 淺薄을
이룰까 두려움이니 바로 모름지기 부지런히 三寶에 供養하며 大乘(經典)을 讀誦하며
道를 行하고 禮拜하며 懺悔하고 發願함을 始와 終에 廢하지 말지니 三寶를 愛敬하는
淳厚한 마음을 쓴 故로 佛의 威加(의 加持)를 입어 能히 業障을 녹여서 善根이 退하지 않
나니 만일 能히 이같이 自力과 他力으로 안과 밖으로 서로 도와서 위없는 道를 뜻해
求한즉 어찌 갖추 아름답지 않으리오

此內外相資中 有二種人所願 各異 或有悲願重者 於此世
界 不厭生死 自利利他 增長悲智 求大菩提 所生之處
見佛聞法 以之爲願也 此人 不別求淨土 亦無逢難退失之
患 或有淨穢苦樂 欣厭心重者 所修定慧 及諸善根 回向
願求生彼世界 見佛聞法 速成不退 卻來度生 以之爲願也
此人 意謂雖專內照 忍力未成 留此穢土 逢諸苦難 恐
有退失之患 此內外相資二種人志願 深諧聖教 皆有道理

此中 에 求生淨土者

於明靜性中 에 有定慧之功

하야 懸契彼佛內證

境界故 로 望彼但稱名號

矣 라

하야 憶想尊容

하야 希望往生者

전면 優劣

可知

矣

이 안과 밖으로 서로 돕는 가운데에 두가지 사람의 願하는바가 各各 다름이 있으니 或
悲願이 重함이 있는 者는 이 世界에 生死를 싫어하지 않고 스스로 利케하며 他를 利
케해서 悲와 智를 增長하여 大菩提를 求해서 나는바 곳에 佛을 보고 法을 들음으로써
願을 삼나니 이 사람은 別로 淨土를 求하지 않더라도 또한 難을 만나 退失할 근심이
없고 或淨穢와 苦樂에 欣하고 厭하는 마음이 重함이 있는 者는 닦는바 定慧와 冥모
든 善根으로 回向하여 저 世界에 나기를 願求해서 佛을 보고 法을 들어서 速히 不退를
이루어서 도리어 와 衆生을 제도함으로써 願을 삼나니 이 사람은 뜻에 이르진대 비록
內照를 오로지하나 忍力을 이루지 못해서 이 穢土에 머무르면 모든 苦難을 만나서 退
失의 患이 있을까 두려움이니 이 안과 밖으로 서로 돕는 두가지 사람의 志願이 깊어 聖
敎에 合해서 다 道理가 있으니 이 가운데에 淨土에 나기를 求하는 者는 밝고 高요한
性 가운데에 定慧의 功이 있어서 미리 저 부처님의 안으로 証한 境界에 契合한 故로 저
다만 名號만 일컬어서 尊容을 憶想하여 往生을 希望하는 者에게 바라보진대 優와 劣을
可히 알지라

智者大師一臨終에謂門人曰火車相現도하야一念改悔者는猶能往生

은이況戒定慧薰하야修行道力은功不唐捐시고하淨名經에云대하사欲淨佛

土근면當淨其心이니隨其心淨하야即佛土淨시고하法寶記壇經에云대하사心

地一但無不淨하면西方이去此不遠니이와이性起不淨之心하면何佛이即來

迎請하시오壽禪師一云대하사識心에方生唯心淨土요着境은只墮所緣

境中시니하如上佛祖의所說求生淨土之旨一皆不離自心하시未審케라

離自心源코從何趣入오리如來不思議境界經에云대하사三世一切諸佛

이皆無所有하야唯依自心니이시菩薩이若能了知諸佛과及一切法이皆

唯心量하야得隨順忍하면或入初地하야捨身코速生妙喜世界하미或生極

樂淨佛土中시니하此其證也라以此而推컨면雖不念佛求生이나但了唯

心하야隨順觀察하면自然生彼호미必定無疑어늘近世에多有義學沙門이

捨命求道호대皆着外相하야面向西方하야揚聲喚佛로以爲道行하고前來

學習發明心地한佛祖秘訣로以謂名利之學하미라亦謂非分境界라하終

不掛懷^{하야}

一時棄去^{하니}

既棄修心之秘訣^{이라}

不識返照之功能^{하고}

徒將

聰慧之心^{하야}

虛用平生之力^{하야}

背心取相^{하야}

謂依聖教^{하니}

諸有智者^는

豈不痛傷^{오이리}

智者大師가 臨終에 門人에게 일러 이르시되 火車의 相이 나타나더라도 한 생각 고쳐

너우치는 者는 오히려 能히 往生하거든 하물며 戒定慧로 薰習하여 修行한 道力은 功이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 하시고 淨名經에 이르시되 佛土를 깨끗이 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할진니 그 마음 깨끗함을 따라서 곧 佛土가 깨끗하다 하시고 法寶

記壇經에 이르시되 心地가 다만 깨끗지 않음이 없으면 西方이 이에 감이 멀지 않거니

와 性이 不淨한 마음을 일으키면 어느 부처님이 곧 와 맞아請하리오 하시고 壽禪師가

이르시되 마음을 알때 바야흐로 唯心인 淨土에 나고 境에 着함은 다만 妄연하는바 境

界가운데 떨어져나 하시니 위와 같은 佛祖의 說하신바 淨土에 남을 求하는 旨趣가 다

自心을 여의지 않으시니 알지 못게라 自心의 心源을 여의고 어디로 좇아 趣向해 들어가

리오 如來不思議境界經에 이르시되 三世一切諸佛이 다 있는바가 없어서 오직 自心을

依止함이시니 菩薩이 만일 能히 諸佛과 및 一切法이 다 오직 心量인줄 了知하여 隨順

忍^(隨順은 法性을 隨順함이요 忍은 不動의義나 法性에 安住한다는 한名詞다)을 얻으면 或 初地에 들어서 물을 버리고 速히 妙喜世界^(妙喜世界은 佛國品에 佛이 舍利弗에게 台하시되 國土가 있으니 그들이 妙喜요 佛號는 無動이니 이는 維摩詰이 彼國에 沒하여 此土에 來生했다 하엿다)에 나며 或 極樂淨佛土가운데 난다 하시니 이것

이 그 証據라 이로써 미루건대 비록 念佛하여 往生을 求하지 않으나 다만 唯心을 了達하여 隨順해 觀察하면 自然히 저에 남이 반드시 決定코 疑心이 없거늘 近世에 많이 義學(數理的으로 研究하는者)沙門이 있어 命을 버리고 道를 求하되 다 外相에 着해서 낮을 西方에 向하여 소리를 드날려 부처님을 부름으로써 道行을 삼고 前來에 學習하여 心地를 發明한 佛祖의 秘訣으로써 名利의 學이라 이르며 또한 自分の 境界도 아니라 일러서 마침내 생가에 걸지 아니하여一時에 棄去하니 이미 마음 닦는 秘訣을 버린지라 返照하는 功能을 알지 못하고 한갓 聰慧의 마음을 가져서 헛되이 平生의 힘을 써서 마음을 등지고 相을 取하여 聖敎를 依止한다 이르나니 모든 智慧있는 者는 어찌 매우 슬퍼하지 않으리오

孤山智圓法師阿彌陀經疏序

에 대하사云

夫心性之爲體也

明乎靜乎

一而已矣

라

無凡聖焉

하며

無依正焉

하며

無延促焉

하며

無淨穢焉

내외로

及其

感物而動

하며

隨緣而變

하야

則爲六凡焉

하고

爲四聖焉

하며

有依焉

하고

有正

焉

하니

依正

이

旣作則身壽

1

有延促矣

며

國土

1

有淨穢矣

라

吾佛大

聖人

은

得明靜之一者也

시니

乃假道於慈

하시

託宿於悲

하사

將欲毆群迷

使復其本

하야

於是乎無身而示身

사케하

無土而示土

하시

延其壽淨其土

하사

延其壽淨其土

俾其欣하야促其壽穢其土하야俾其厭케하既欣且厭則漸諭之策이行

矣라雖寶樓金池云云爲悅目之翫이나而非惑蕩之色이라而能達唯心

無境矣요雖風樹鳥聲이有入耳之娛나而非怵懣丑例切藥音不和也之音이라而能

念三寶有歸矣니夫如是則復乎明靜之體者一如轉掌耳시라하予謂圓

師는深知吾佛善權本末者也라今引繁文하야庶使今時求淨土者로

知佛意而修之하야不枉用功耳로니知佛意者는雖念佛名하야懇求往生

이나知彼佛境莊嚴等事一無來無去요唯依心現하야不離眞如하야念念

之中에離於昏散하고等於定慧하야不違明靜之性하면則分毫不隔하야感

應道交호미如水澄月現하미鏡淨影分이니故로萬善同歸集에云하사佛實

不來요心亦不去라感應道交하야唯心自現시고라하又偈에云하사能禮所

禮性空寂이라感應道交難思議시니라하此人은必不取心外境界하야而興徧

計倒執하야招諸魔事하야違背佛意也니諸修道者는切須在意하미切須

在意이다

孤山智圓法師의 阿彌陀經疏序에 이르시되 대저 心性의 體됨이 明과 靜이 하나일 따름
 이라 凡과 聖이 없으며 依와 正이 없으며 延과 促이 없으며 淨과 穢가 없으며 그 物에
 感하여 動하며 緣을 따라 變하는데 미처서는 六凡(天凡 人間 阿修羅 地獄 餓鬼 畜生)이 되고 四聖(佛 菩薩 聲聞 緣覺)
 이 되며 依報(界世)가 있고 正報(身色)가 있으니 依와 正이 이미 일어난즉 身壽가 延과 促
 이 있으며 國土가 淨과 穢가 있는지라 우리 부처님 大聖人은 明과 靜의 一을 얻은 者
 시니 이에 眞을 慈에 빌리시며 眞을 悲에 依託하사 장차 群迷를 몰아 하여금 그 根本
 에 回復케 하고자 하사 이에 몸이 없는데 몸을 보이시며 땅이 없는데 땅을 보이사 그
 壽를 延하며 그 土를 淨히 하여 그로하여금 欣케 하시고 그 壽를 促하며 그 土를 穢히
 하여 그로하여금 厭케 하시니 이미 欣하고 또 厭한즉 漸漸 달래는 計策이 行할지라 비
 록 寶樓와 金池가 눈에 기쁜 구경이 되나 惑蕩의 色이 아니라 能히 唯心인줄 達하여
 境界가 없고 비록 風樹와 鳥聲이 귀에 드는 즐거움이 있으나 枯憊(不和聲이 되
音은 청제다)한 소리가
 아니라 能히 三寶를 생각하여 돌아감이 있나니 대저 이같은즉 明靜한 體에 회복하는
 것이 손바닥을 굴림과 같다 하시니 나는 이르되 圓師는 眞이 우리 부처님의 善權(方便)
 인 本末을 아신 者라 이제 繁文을 이끌어서 거의 今時에 淨土 求하는 者로하여금 佛
 意를 알아 닦아서 그릇 工夫를 쓰지 않게 하노니 佛意를 아는 者는 비록 佛名을 생각
 해서 부지런히 往生을 求하나 저 부처님 境界의 莊嚴等 事가 옴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오

각 마음을 依止하여 나타나서 眞如를 여의지 않는줄 알아서 念念가운데에 昏과 散을
 여의고 定과 慧를 平等히 하여 明靜의 性을 어기지 않으면 곧 分毫도 隔하지 아니하여
 感應의 道가 사침이 물이 맑은데 달이 나타나며 저울이 깨끗하매 그림자가 나뉘고 같
 나니 故로 萬善同歸集에 이르시되 佛은 實로 오지 않고 마음도 또한 가지 않는지라 感
 應의 道가 사귀어서 오직 마음이 스스로 나타난다 하시고 또 偈에 이르시되 能禮와
 所禮가 (能禮는衆生이요 所禮는佛이니 能強所歸이 된다 假令佛이 衆生을 所度할 때 佛
 이 德度가 되고 衆生이 所度가 되나니 佛은 主觀의 이요 所는 客觀의 이다) 性이 空寂한지라 感應의 道가 사침
 이思議하기 어렵다 하시니 이 사람은 반드시 마음 밖의 境界를 取해서 徧計 (三性(徧計)所執
 實性) 中의 이이 다 外境을 依止하지 않고 일
 이나는妄想이니 依他起性의 反對證다) 의 倒執을 일으켜서 모든 魔事를 招來하여 佛意를 違背하지 않
 나니 모든 道達는 者는 간절히 모름지기 뜻에 두며 간절히 모름지기 뜻에 들지 어다

或有行者 堅執名相 不聞大乘唯心法門 又不識吾佛 於明
 淨性中 以本願力 權現身土 幻住莊嚴 攝引衆生 令其耳
 目所翫 達唯心無境 復其本之善權 卻謂念佛往生 將五蘊
 身 受無量樂 以是情執未忘故 或見修禪者 以爲是人 不
 念佛求生 何時 出離三界哉 不知聖教 所明心淨故 即
 佛土淨之旨 又聞說所修心地 空明無物 以謂無身受樂之處

恐落空去^{라하} 不知空本無空^{니하나} 唯是如來圓覺明淨之心^{이라} 同虛空^이
 遍法界^{하야} 該衆生心^{하야} 無間斷處^{하며} 一切衆生^의 無明分別之心^이 當
 處虛明^{하야} 與十方諸佛^로 同一智海^며 同一法性^{마인} 祇爲衆生^이 終日
 其中行履^{호대} 而自背負恩德耳^{로다} 不知斯旨者^는 以執客貪着之心^{으로}
 求佛境界^{니하나} 如將方木^{하야} 逗圓孔也^라 或有行者^는 稟性^이 浮僞^{하야} 聞
 此心法^{하고} 信樂修習^{이나} 然^{이나} 得小爲足^{하야} 不加決擇^{하야} 知見^이 未圓^{하야}
 全恃本性^{하고} 不修萬行^{하며} 亦不求淨土^{하야} 見求生者^{하면} 而生輕慢^{니하나} 此
 上二人^은 於佛法中^에 不善用心^{하나} 多有滯障^{이니} 可悲可痛也^{로다} 若是
 最下根人^{인대} 盲無慧目^{하야} 而知稱佛號則歎其希有^{니하나} 豈以不知佛意
 修行^{으로} 爲過哉^{리오}

或行者가 있어 名相을 굳게 執하여 大乘의 唯心法門을 듣지 못하며 또 우리 부처님이
 明淨한 性가운데에 本願力으로써 權으로 身과 土를 現示하사 幻住의 莊嚴으로 衆生을
 攝引하사 그 耳目의 구경하는 바로하여금 唯心이요 境界가 없음을 達해서 그 根本에
 回復케 하신 善權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르되念佛하여 往生하매 五蘊身을 가져서

无量樂을 받는다 하여 세이情執을 잊지 못하는 故로 或禪하는 者를 보면 세 하되 이
 사람은 念佛하여 往生을 求하지 않거니 어느 때에 三界에 出離하리오 하나니 聖敎에
 밝히신바 마음이 깨끗한 故로 곧 佛土가 깨끗하다는 旨趣를 알지 못하며 또 닦는바 心
 地가 비고 밝아 物이 없다 說함을 들으면 세 이르되 몸이 樂을 받을 곳이 없다 하여
 空에 떨어져갈까 두려워 하나니 空이 本來空이 없는지라 오직 이 如來의 圓覺明淨한
 마음이 虛空과 같고 法界에 두루해서 衆生心을 該括하여 間斷한 곳이 없으며 一切衆
 生의 無明分別의 마음이 當處가 虛明하여 十方諸佛로 더불어 同一한 智海며 同一한 法
 性이언마는 다만 衆生이 終日토록 그 가운데 行履하되 스스로 恩德을 背負함인줄 알지
 못하도다 이 旨趣를 알지 못하는 者는 執着하고 貪着하는 마음으로써 佛境界를 求하나
 니 모난 나무를 가져 둥근 구멍에 맞추려함과 같은지라 或有行者는 稟性이 浮僞하여 이
 心法을 듣고 信樂하며 修習하나 그러나 妄言을 얻어 足함을 삼아서 決擇을 더하지 아니
 하여 知見이 두렷하지 못해서 온전히 本性만 믿고 萬行을 닦지 않으며 또한 淨土를 求
 하지 아니하여 往生 求하는 者를 보면 輕慢을 내나니 이 위에 두 사람은 佛法가운데에
 잘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많이 謬障이 있느니라 可히 슬프고 可히 아프도다 만일이
 最下根人일진댄 눈멀어 慧目이 없어서 佛號를 일컬을줄 안즉 그 希有를 讚歎하나니 어
 저 佛意를 알지 못하고 脩行함으로써 허물을 삼으리오

或有行者_는 受氣剛大_{하고} 情緣_이 最深_{하야} 聞此心法_{하면} 不知措意之處_나
然_{이나} 能觀彼佛白毫光明_{하며} 或觀梵宇_{하며} 或誦經念佛_{하야} 如是行門_에
專精不亂_{하야} 能調妄想_{하야} 不被惑障_{하고} 梵行_을 成建_나 此人_은 初從_에
事行_에 感應道交_{하야} 終入唯心三昧故_로 亦是善知佛意者也_라 飛錫
和尚高聲念佛三昧寶王論_에 云_{대하사} 浴大海者_는 已用於百川_{이요} 念佛
名者_는 必成於三昧_니 亦猶清珠下於濁水_에 濁水_이 不得不清_{안달} 念
佛投於亂心_에 亂心_이 不得不佛_{이니} 既契之後_엔 心佛_을 雙亡_{이라} 雙亡_은
定也_요 雙照_는 慧也_니 定慧既均_{이면} 亦何心而不佛_{이로} 何佛而不心_{하야}
心佛_이 既然則萬境萬緣_이 無非三昧_니 誰復患之於起心動念_{하야}
高聲稱佛哉_{시고하} 文殊所說般若經中_에 明念佛_{하야} 得一行三昧者_도
亦同此意也_니 不了此意者_는 却將見愛之情_{하야} 觀彼佛相_{하며} 念彼佛
名_{하야} 日久歲深_{하면} 多爲魔魅_의 所攝_{하야} 顛狂浪走_{하야} 虛勞功夫_{하야} 傾覆
一生_{하나} 近世_에 頻頻見聞如此之人_{호니} 皆由不知十界依正_과 善惡因

果 唯心所作 無體可得故也

로다

或有行者는 받은 氣가 剛大하고 情緣이 가장 깊어서 이 心法을 들으면 뜻을 못 들 곳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能히 저 부처님의 白毫光明을 觀하며 或 梵字(의 觀行法)를 觀하며 或 經을 의우고 佛을 念하여 이같은 行門에 精을 오로지하여 지럽지 아니하여 能히 妄想을 고루어서 惑障을 입지 않고 梵行(清淨)을 成建하나니 이 사람은 처음 事로 좇아 行할 제感應의 道가 사귀어서 마침내 唯心三昧에 드는 故로 또한 이 잘 佛意를 아는 者라 飛錫和尚의 高聲念佛三昧寶王論에 이르시되 大海에 沐浴하는 者는 이미 百川을 쏘이요 佛名을 念하는 者는 반드시 三昧를 이루나니 또한 水清珠를 濁水에 내리매 濁水가 시러금 맑지 아니치 못함과 같아서 念佛을 亂心에 던지매 亂心이 시러금 佛이 되지 아니치 못함이니 이미 契合한 後엔 心과 佛을 雙으로 잇는지라 雙으로 잇음은 定이요 雙으로 비춤은 慧니 定과 慧가 이미 고르면 또한 무슨 마음이 佛이 아니며 무슨 佛이 마음이 아니리오 心과 佛이 이미 그러한즉 萬境과 萬緣이 三昧아님이 없나니 누가 다시 마음을 이르고 생각을 動하여 高聲으로 佛을 稱함을 근심하리오 하시고 文殊의 說하심바 般若經 가운데에 念佛하여 一行三昧(百千三昧의 相對面 總니 一行三昧는 根本智 念及한 이요 百千三昧는 後得智를 말함이다) 얻음을 밝힌 것도 또한 이 뜻과 같으니 이 뜻을 了達하지 못하는 者는 도리어 見愛의 情을 가져서 저 佛相을 觀하며 저 佛名을 생각하여 날이 오래고 해가 깊으면 많이 魔魅의 攝하는 바가 되

어서 떨어지고 미쳐 虛浪히 달려서 헛되이 功夫를 수고로이 하여 一生을 顛覆하나니
近世에 자주 자주 이같은 사람을 보고 들으니 다 十界(四界)의 依와 正과 善惡의 因과
果가 오직 마음으로 지은바라 體可히 얻을수 없는줄 알지 못함을 말미암은 연고로다

或於坐中

에

見天人菩薩像

과

或如來像相好具足

과

或端正男女

와

及諸恐怖之相

과

說諸種種幻惑之事

하며

或雖非外現之相

이나

於自心

中隨順魔事

하야

惡覺情見

을

不可具陳

이니

當此之時

하야

昏迷不省

無慧自救

하야

橫罹魔網

니하나

良可傷哉

로다

起信論

에

不云乎

아

當念唯心

境界即滅

하야

終不爲惱

시고라하

又云

대하사

行者

이

常以智慧

로

觀察

하야

勿令

此心

으로

墮於邪網

하고

當勤正念

하야

不取不着

시니하

教旨如斯

이늘

何得逐

境背心

하야

而求佛菩提哉

리오

今時行者

이

多云

호대

但得念佛

하야

往生然

後

에

何有哉

리오하

不知九品昇降

이

皆由自心信解

의

大小明昧而發

現也

로다

經中

에

以解第一義諦

하야

勸進行者

로

爲上品

하니

豈以

聰明靈利之心

으로

甘爲鈍根

하야

不解第一義

하고

但稱名號哉

아

萬善同

歸集

에

云

대하사

九品往生

이

上下俱達

하니

或遊化國

하야

見佛應身

하고

或生

報土^{하야} 觀佛眞體^{하며} 或一夕而便登上地^{하고} 或經劫而方證小乘^{하며} 或

利根鈍根^과 或定意散意^{라하} 是知古今達者^는 雖求淨土^나 以深信眞

如^{하야} 專於定慧故^로 知彼色相莊嚴等事 無來無去^{하야} 離於分齊^{하야}

唯依心現^{하야} 不離眞如^나 不同凡夫二乘^의 不知轉識^이 現故^로 見從

外來^{하고} 取色分齊故也 如是則雖曰同生淨土^나 愚智行相^이 天地

懸隔^{하니} 何如現今學大乘唯心法門^{하야} 專於定慧^{하야} 免墮凡小^의 心外

取色分齊之見也^{리오}

或 앞은 가운데에 天人과菩薩像과 或如來像의 相好具足과 或端正한 男女와 밋 모든

恐怖의 相과 모든 갖가지 幻惑의 일을 說함을 보며 或 비록 外現의 相이 아니나 自心

가운데에 魔事를 隨順하여 惡覺인 情見을 可히 갖추 배플지 못함이니 이 때를 當하

여 昏迷해 살피지 못해서 慧가 스스로 救援할수 없어서 橫으로 魔網에 걸리나니 진실

로 可히 슬프도다 起信論에 이르지 안했으나 마땅히 唯心인줄 생각하면 境界가 곧 滅

하여 마침내 뇌로움이 되지 않는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行者가 항상 智慧로써 觀察하

여 이 마음으로 하여금 邪網에 떨어지게 말고 마땅히 正念을 부지런히 하여 取하지도

말며 着하지도 말라 하시니 가르치신 旨趣가 이갈거늘 어찌 시려금 境을 좃고 마음을

등져서 佛菩提를 求하리오 今時에 行者가 많이 이르되 다만 시러금 念佛하여 往生한 然
 後에 무엇이 있으리오 하나니 九品(上品三品 中品三品 下品三品)의 昇과 降이다 自心信解의 크고 작고 밝
 고 어두움을 말미암아 發現함인줄 알지 못하도다 經中에 세 第一義諦를 알아서 行者를
 勸進하므로 上品을 삼으니 어찌 聰明靈利한 마음으로써 鈍根됨을 달게 여겨서 第
 一義를 알지 않고 다만 名號만 稱하랴 萬善同歸集에 이르시되 九品の 往生이 上下에 다
 通하니 或化國(他受用의 化身土)에 놀아서 佛의 應身을 보고 或報土(自他受用의 報佛淨土)에 나서 佛의 眞鉢를
 보며 或一夕에 문득 上地에 오르고 或劫을 지내서 바야흐로 小乘을 証하며 或利根과
 鈍根과 或定意와 散意라 하시니 이 알라 古今에 達한 者는 비록 淨土를 求하나 세
 깊이 眞如를 信하여 定慧를 오로지하는 故로 저 色相과 莊嚴等 일이 옴도 없고 감도 없
 어서 分齊를 여의어 오직 마음을 依止해 나타나서 眞如를 여의지 않는줄 아나니 凡
 夫와 二乘의 轉識(染識轉識現識七起信의 行相이니 唯識學으로 보면 自證分見分相分이 되는 同 時에 染識(一念微動)이 自證分이요 轉識이 見分이요 現識이 相分이 된다)이 나타나는 故로 見이 밖
 으로 좇아 옴을 알지 못하고 色分齊를 取함과 같이 같은 연고라 이같은즉 비록 한가
 지 淨土에 난다 이르나 愚와 智의 行相이 天地가 멀리 隔하니 어찌 現今에 大乘唯心法
 門을 배워서 定과 慧를 오로지하여 凡夫와 小乘의 마음 밖에 色分齊를 取하는 見에 떨
 어짐을 免함만 같으리오

若是祖宗門下

에

以心傳心

하야

密意指授之處

는

不在此限

니이

琪和尚

이云^{대하사}能悟祖道^{하야}發揮般若者^{하야}末季^에未之有也^{시니}故此勸修文

中^에皆依大乘經論之義^{하야}爲明證^{하교}略辨現傳門信解發明之由致

並^와出生入死淨穢往來之得失^{하야}欲令入社修心之人^{으로}知其本末

息^{하야}諸口諍^{하교}辨其權實^{하야}不枉用功於大乘法門正修行路^{하야}同結

正因^{하미}同修定慧^{하미}同修行願^{하미}同生佛地^{하미}同證菩提^{하야}如是一切

悉皆同學^{하야}窮未來際^{토록}自在遊戲十方世界^{하야}互爲主伴^{하야}共相

助成^{하미}轉正法輪^{하야}廣度群品^{하야}以報諸佛莫大之恩^{니하노}仰惟佛眼^{으로}

證此微誠^{하사}普爲法界群迷^{하야}發此同修定慧之願^{케하소서}嗚呼^라衆生之

所以往來者^는六途也^라鬼神^은沈幽愁之苦^{하교}鳥獸^는懷猛狻^{上은輕舉}

之悲^{하교}修羅^는方噴^{이요}諸天^은正樂^{이라}可以整心慮趣菩提者^는唯

人道^{라야}能爲耳^니人而不爲^면吾^{로라}末如之何也已矣

만일 이祖宗門下에 마음으로써 마음을傳하여密意로 가리켜 주는 곳은 이限界에 있

지않거니와 琪和尚이 이르시되 能히 祖道를 깨달아서 般若를 發揮하는 者가 末季에

있지 못하다 하시니 故로 이 勸修文가운데에 다 大乘經論의 義를 依止하여 明証을 삼

고 干略히 現傳門에 信解하여 發明한 由致와 아울러 生에 나고 死에 드는 淨穢往來의
得失을 가려서 社에 들어 마음을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本末을 알아서 모든 口誑을
쉬고 그 權實을 가려서 大乘法門의 바로 修行하는 길에 그릇 功夫를 쓰지 아니하여 한
가지 正因을 맺으며 한가지 定慧를 닦으며 한가지 行願을 닦으며 한가지 佛地에 나며
自在히 遊戲하여 서로 主와 伴이 되어 한가지 서로 도와 이루며 正法輪을 轉해서 널리
群品을 제도하여 諸佛의 莫大한 은혜를 갚고자 하노니 우러러 생각컨대 佛眼으로
이 微誠을 證明하사 널리 法界의 群迷를 위하여 이 한가지 定慧를 닦는 願을 發하게 하소
서 슬프다 衆生の 衆往來하는바는 六途라 鬼神은 幽愁의 苦에 잠기고 鳥獸는 猛獸(猛獸
學說下字는驚走
獸나音은울립이다)의 悲를 품고 脩羅는 마야호로 성내고 諸天은 正히 즐거운지라 可히 心
慮를 整하고 菩提에 趣向할 者는 오직 人道라야 能히 함이니 사람으로서 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할수 없을 따름이로라

知訥이

曩閱大乘

하야

歷觀了義乘經論所說

호니

無有一法

도

不歸三學

之門

이며

無有一佛

도

不藉三學而成道也

라

楞嚴經

에

云

대하사

過去諸如

來

도

斯門

에

已成就

시며

現在諸菩薩

도

今各入圓明

이며

未來修學人

도

當依如是法

이타하
시니

是故

로

我輩

ㅣ

今結佳期

하야

預伸密誓

하야

當修梵行

則仰慕眞風^{하야} 不生自屈^{하고} 以戒定慧^로 資薰身心^{하야} 損之又損^{하야} 水

邊林下^에 長養聖胎^{하야} 看月色而逍遙^{하고} 聽川溪而自在^{하야} 縱橫放曠

逐處消時^를 猶縱浪之虛舟^{하야} 若凌空之逸翮^{하야} 現形容於寰宇^{호대}

潛幽靈於法界^{하야} 應機有感^에 適然無準矣^{리니} 予之所慕¹ 意在斯焉

若修道人^이 捨名入山^{하야} 不修此行^{하고} 詐現威儀^{하야} 誑惑信心檀越

則不如求名利富貴^{하야} 貪着酒色^{하야} 身心荒迷^{하야} 虛過一生也^{니하}

知訥이 저번에 大乘을 閱覽하여 了義乘인 經論의 說하신바를 歷觀하니 한 法도 三學의

門에 돌아가지 않음이 있음이 없으며 한 佛도 三學을 假藉하여 道를 이루지 않음이 있

음이 없는지라 楞嚴經에 이르시되 過去에 모든 如來도 이 門에 이미 成就하시며 現在

에 모든 菩薩도 이제 各各 圓明에 드시며 未來에 修學하는 사람도 마땅히 이 같은 法을

依止한다 하시니 이런 故로 우리 무리가 이제 佳期를 맺어 미리 密誓를 펴서 마땅히

梵行을 닦은즉 우러러 眞風을 사모하여 스스로 屈함을 내지 말고 戒定慧로써 몸과 마

음을 資薰하여 損하고 또 損해서 水邊과 林下에 聖胎를 長養하여 月色을 보아 逍遙하

고 川溪를 들어 自在하여 縱橫으로 放曠해서 곳을 쫓아 때(時)를 消遣함을 물결에 놓은

빈 때와 같이 하며 虛空을 凌蔑하는 편안한 날개(羽)와 같이하여 形容을 寶宇에 나타내

되 幽靈(幽靈)을 法界에 잠겨서 機를 應해 感함이 있음에 適然(適然)해 準則이 없으리니
나의 사모하는 바가 뜻이 이에 있노라 만일 修道하는 사람이 名利를 버리고 山에 들어
서 이 行을 닦지 않고 거짓 威儀를 나타내서 信心壇越(信心 있는 施主 단 말이니 壇越(布施) 渡)을 誑惑한
즉 名利와 富貴를 求하며 酒色을 貪着해서 몸과 마음이 荒迷하여 헛되이 一生을 지내
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

諸公^이 聞語^{하고} 咸以爲然曰他日^에 能成此約^{하야} 隱居林下^{하야} 結爲同

社則宜以定慧^로 名之^{야라하} 因成盟文而結意焉^{이니} 其後^에 偶因選佛場

得失之事^{하야} 流離四方^{하야} 未遂佳期者¹ 至今幾盈十載矣^라 去戊申

年早春^에 契內材公禪伯^이 得住公山居祖寺^{하야} 不忘前願^{하고} 將結定

慧社^{호려하야} 馳書請予於下柯山普門蘭若^{호데} 再三懇至^{이늘} 予雖久居林壑

自守愚魯而無所用心也^나 然^{이나} 追憶前約^{하며} 亦感其懇誠^{하야} 取是

年春陽之節^{하야} 與同行舡禪者^로 移棲是寺^{하야} 招集昔時同願者^{호니} 或

亡或病^{하며} 或求名利而未會^라 且與殘僧三四輩^로 始啓法席^{하야} 用酬

曩願耳^{로라}

諸公이 말을 듣고 다 써 그렇다 하여 이르되 他日에 能히 이 언약을 이뤄서 林下에 隱居하여 結해 同社를 한즉 마땅히 定慧로써 이를한다 하여 因해 盟文을 이루어 뜻을 맺었더니 그 後에 偶然히 選佛場(修濟場)에 得失의 일을 因해서 四方에 流離하여 佳期를 이루지 못한지가 이제 이르러 거의 十載에 찬지라 간 戊申年 早春에 契內(定慧社內)의 材公 禪伯이 公山居祖寺에 住함을 얻어서 前願을 잊지 않고 장차 定慧社를 結하려 하여 片紙를 보내 나를 下柯山普門蘭若(蘭若는 번역하면 寂靜處니 寺院의 通稱이다)에 請하되 두세번 懇曲하고 至極하거늘 내가 비록 오래 林壑에 居하여 스스로 愚魯를 지켜 마음을 쓰는바가 없으나 그러나 前約을 追憶하며 또한 그 懇誠에 感動하여 이 해 春陽의 節을 取해서 同行인 衲禪者로 더불어 이 절에 옮겨 棲息하여 昔時에 願이 같은 者를 불러 모으니 或 죽고 或 病들며 或名利를 求하여 모이지 못한지라 아직 殘僧三四輩로 더불어 비로소 法席을 열어서 세 저번의 願을 갚노라

伏望禪教儒道에 厭世高人이 脫略塵寰하고 高遊物外하야 而專精內行

之道하야 符於此意則雖無往日結契之因이나 許題名字於社文之後나하노

雖未一會而蘊習이나 常以攝念觀照로 爲務하야 而同修正因則如經所

謂狂心歇處 即是菩提라 性淨妙明이요 匪從人得에 文殊偈云하사

一念淨心 이 是道場 이라 勝造河沙七寶塔 다 寶塔 은 畢竟碎爲塵 니와 一

念淨心 은 成正覺 시니하 故知少時攝念無漏之因 은 雖三災彌綸而行

業 이 湛然者也 니 非特修心之士 1 成其益也 라 以此功德 으로 上祝

聖壽萬歲 고하시 令壽千秋 하시 天下泰平 하고 法輪常轉 하야 三世師尊父母 와

十方施主 와 普及法界生亡 이 同承法雨之所霑 하야 永脫三途之苦惱

하고 超入大光明藏 하며 遊戲三昧性海 하야 窮未來際 토록 開發蒙昧 하야 燈燈

相續 하야 明明不盡則其爲功德 이 不亦與法性 으로 相終始乎 아 庶幾樂

善君子 는 留神思察焉 다이어 時 는 明昌元年庚戌季春 에 公山隱居牧牛

子 知訥은 謹誌 라하노

至承安五年庚申 하야 自公山 으로 移社於江南曹溪山 호니 以隣有定慧寺

名稱 이 混同故 로 受朝旨 하야 改定慧社 하야 爲修禪社 나 然 이나 勸修文

旣流布故 로 仍其舊名 하야 彫板印施耳 로라

엿드려 바라노니 禪과 敎와 儒와 道에 世上을 싫어하는 높은 사람이 塵寶(塵)을 脱略하

고 높으니 物外에 놀아서 안으로 行하는 道에 精을 오로지하여 이 뜻에 符合한즉 비록
往日에 契를 結한 因은 없으나 社文의 後에 名字 씬을 許諾하노니 비록 한 會에서 繼
習하지 못하나 항상 생각을 攝해 觀照함으로써 힘씀을 하여 한가지 正因을 닦은즉 저
經에 이른바 狂心이 선 곳이 곧 이菩提라 性이 깨끗한 妙明이 사람으로 좇아 얻음이
아니라 함이요 文殊偈에 이르시되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이 道場이라 河沙의 七寶塔을
造成하는 것보다 勝하도다 寶塔은畢竟에 부서져 먼지가 되려니와 한 생각 깨끗한 마음
은 正覺을 이룬다 하시니 故로 알라 少時(時)에 생각을 저둔 無漏의 因은 비록 三災(水火)
가 彌綸(彌)하더라도 行業이 湛然한 것이니 特히 마음 닦는 선비가 그 利益을 이를
뿐 아니라 이 功德으로써 위로 비노니

聖(王君) 壽萬歲하시교 令(太子) 壽千秋하시며 天下가 泰平하고 法輪이 항상 轉하여 三世의
師尊과 父母와 十方施主와 널리 法界의 生과 亡이 한가지 法雨의 젖는바를 받아서
기리 三途의 苦惱를 벗고 大光明藏에 뛰어들며 三昧性海에 遊戲하여 未來際가 다하도
록 蒙昧를 開發해서 燈과 燈이 相續하여 밝고 밝아 다하지 않은즉 그 功德됨이 또한
法性으로 더불어 서로 終하고 始하지 않으랴 거의 善을 즐기는 君子는 神을 머물려 思
察할지 어다 時는 明昌(南宋時金章宗의 年號) 元年 庚戌季春에 公山에 隱居하는 牧牛子 知訥은 삼가

쓰노라

承安^(金章宗의 號 庚申年號)五年 庚申에 이르러 公山으로부터 社를 江南^(湖南) 曹溪山에 옮기니 씨이웃
 에 定慧寺가 있어서 名稱이 混同한 故로 朝旨^(命)를 받아서 定慧社를 고쳐 脩禪社라 했
 으나 그러나 勸修文이 이미 流布한 故로 그 舊名을 因하여 板에 새겨 印刷해 베푸노라

勸修定慧結社文 終

修心訣

마음을 닦는 秘訣

○三界熱惱 猶如火宅 其忍淹留 甘受長苦 欲免輪廻 莫
若求佛 若欲求佛 佛即是心 心何遠覓 不離身中 色身
是假 有生有滅 眞心 如空 不斷不變 故云 百骸 潰
散 歸火歸風 一物 長靈 蓋天蓋地 嗟夫 今之人 迷
來久矣 不識自心 是眞佛 不識自性 是眞法 欲求法 而
遠推諸聖 欲求佛 而不觀己心 若言心外 有佛 性外 有
法 堅執此情 欲求佛道者 縱經塵劫 燒身燃臂 敲骨出髓
刺血寫經 長坐不臥 一食卯齋 乃至轉讀一大藏教 修種
種苦行 如蒸沙作飯 只益自勞爾 但識自心 恒沙法門 無
量妙義 不求而得 故世尊云 普觀一切衆生 具有如來

智慧德相

이러하
시고

又云

대하
자

一切衆生

의

種種幻化

1

皆生如來圓覺妙心

이러하
시니

是知離此心外

에

無佛可成

다로

過去諸如來

도

只是明心底人

이시
며

現在諸賢聖

도

亦是修心底人

이시
며

未來修學人

도

當依如是法

이니

願諸

修道之人

은

切莫外求

이다

心性

이

無染

하야

本自圓成

하니

但離妄緣

하면

即

如如佛

이니
라

○三界

(色界·受界·無色界)

의 熱惱가 마치 火宅과 같으니 그 참아 오래 머물러서 진 苦 함을 알

게 여기라 輪廻를 免하고자 할진댄 佛을 求하는것만 같음이 없나니 만일 佛을 求하고

자 할진댄 佛은 곧 이 마음이라 마음을 어찌 멀리 찾으리오 身中을 여의지 않으니라

色身은 이 假라 生이 있고 滅이 있거니와 眞心은 虛空과 같아서 斷하지 않고 變하지

않음이니 故로 이르시되 百骸는 무너져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되 한

物件은 기리 神靈하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하시니라 슬프다 이제 사람이 迷해 음

이 오랜지라 自心이 이 眞佛인줄 알지 못하며 自性이 이 眞法인줄 알지 못해서 法을

求하고자 하되 멀리 모든 聖人에게 미루며 佛을 求하고자 하되 自己의 마음을 觀하지

않나니 만일 말하되 마음 밖에 佛이 있고 性 밖에 法이 있다 하여 이 情을 굳게 執해서

佛道を 求하고자하는 者일진댄 비록 塵劫을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며 骨을 두

드리고 髓를 내며 피를 내어 經을 쓰며 長坐하여 눕지 않으며 한번 먹어 卯時에 齋하
 며 (一食卯齋는一日二) 一食(兩食)을 말함이다 이에 一大藏敎를 轉讀하여 갖가지 苦行을 닦는데 이르더라도 모래를 찌
 밥을 지음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수고로움을 더함이니 다만 自心을 알면 恒沙의 法門
 과 無量한 妙義를 求하지 아니하여도 얻을지라 故로 世尊이 이르시되 널리 一切衆生을
 觀하니 如來의 智慧德相이 갖추어 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一切衆生의 갖가지 幻化가
 다 如來의 圓覺妙心에서 난다 하시니 이 알라 이 마음을 여원 밖에 佛을 可히 이룰수
 없도다 過去에 모든 如來도 다마 이 마음을 밝힌 사람이시며 現在에 모든 賢聖도 또한
 이 마음을 닦은 사람이시며 未來에 修學하는 사람도 마땅히 이같은 法을 依止할지니
 願컨대 모든 道를 닦는 사람은 간절히 밖으로 求하지 말지어다 心性이 물들이 없어서
 本來 스스로 圓成하니 다만 妄緣을 여의면 곧 如如한 佛이니라

△問 호대 若言佛性 現在此身 既在身中 不離凡夫 하야 因何我今

에 不見佛性 잇고 更爲消釋 하야 悉令開悟 소서하

△問되 만일 佛性이 이 몸에 번듯이 있다 말할진댄 이미 몸 가운데 있어서 凡夫를 여의
 지 안함으로 소니 무얼 因해 내가 이제 佛性을 보지 못하나니잇고 다시 爲해 消釋하여
 다 하여금 開悟케 하소서

△答 하사 在汝身中 汝自不見 이니 汝於十二時中 知飢知渴 하리 知寒

知熱하미 或瞋호미 或喜호미 竟是何物고 且色身은 是地水火風四緣의 所集

其質이 頑而無情하미 豈能見聞覺知리오 能見聞覺知者는 必是汝의 佛

性다미 故로 臨濟이 云하사 四大는 不解說法聽法하미 虛空은 不解說法聽法法

只汝目前이요 歷歷孤明한 勿形段者라사 始解說法聽法시니라하 所謂勿

形段者는 是諸佛之法印이미 亦是汝의 本來心也라 則佛性이 現在汝

身하니 何假外求리오 汝若不信인대 略舉古聖의 入道因緣하야 令汝除疑오미

汝須諦信다미

△答하시되 너의 몸 가운데 있진마는 네가 스스로 보지 못함이니 네가 十二時 가운데
에 주린줄 알고 목마른줄 알며 찬줄 알고 더운줄 알며 或 성내고 或 기뻐함이 마침내
이 무슨 物件인고 또 色身은 이 地水火風四緣의 모인바라 그 바탕이 頑하여 情識이 없
으니 어찌 能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알리오 能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은 반드시 이
너의 佛性이로다 故로 臨濟가 이르시되 四大는 說法하고 聽法할줄 알지 못하며 虛空은
說法하며 聽法할줄 알지 못하고 다만 너의 눈앞에 歷歷해 외로이 밝은 形段이 없는 者
라야 비로소 說法하고 聽法할줄 안다 하시니 이른바 形段이 없다는 것은 이 諸佛의 法
印이며 또한 이 너의 本來心이라 곧 佛性이 네 몸에 번듯이 있으니 어찌 밖으로 求함

을假借하리오 네가 만일 信치 못할진댄 簡略히 옛聖人의 道에 든 因緣을 들어서 너로 하여금 疑心을 除하게 하리니 네가 모름지기 자세히 信할지어다

昔^에 異見王^이 問婆羅提尊者曰何者 是佛^이 尊者^이 曰見性^이 是

佛^{이다} 王曰師 見性否^이 尊者^이 曰我見佛性^호 王曰性在何處^고 尊

者^이 曰性在作用^{이다} 王曰是何作用^대 我今不見^{잇고} 尊者^이 曰今現作

用^마 王自不見^{이다} 王曰於我^에 有否^이 尊者^이 曰王若作用^인 無有不

是^와 王若不用^인 體亦難見^{이다} 王曰若當用時^하 幾處出現^{잇고} 尊者^이

曰若出現時^에 當有其八^{이다} 王曰其八出現^을 當爲我說^하 尊者^이 曰

在胎曰身^이 處世曰人^이 在眼曰見^이 在耳曰聞^이 在鼻辨香^하 在舌

談論^하 在手執捉^하 在足運奔^하 徧現^하 俱該沙界^하 收攝^하 在一微

塵^이 識者^는 知是佛性^이 不識者^는 喚作精魂^{이다} 王^이 聞^고 心即開悟

又僧^이 問歸宗和尚^호 如何是佛^이 宗^이 云^하 我今向汝道^는 恐汝

不信^라 僧^이 云^호 和尚誠言^을 焉敢不信^{잇고} 師^이 云^하 即汝^이 是^니 僧

云

호대

如何保任하리師

잇고

云

대하사

一翳在眼

에

空花亂墜

니라

其僧

이

言下

에

有省

하니

上來所舉古聖

의

入道因緣

이

明白簡易

하야

不妨省力

이로

因此

公案

하야

若有信解處

하면

即與古聖

으로

把手共行

하리

옛적에 異見王이 婆羅提尊者께 물어 이르되 어떤 것이 이 佛이니잇고 尊者가 이르시되

性을 봄이 이 佛이니이다 王이 이르되 師가 性을 보았나니까 말았나니까 尊者가 이르

시되 나는 佛性을 보았노이다 王이 이르되 性이 어느 곳에 있나니잇고 尊者가 이르시되

性이 作用하는데 있나니이다 王이 이르되 이 무슨 作用이관대 내가 이제 보지 못하나

니잇고 尊者가 이르시되 이제 번듯이 作用하진마는 王이 스스로 보지 못하나니이다 王

이 이르되 나에게 있나니까 없나니까 尊者가 이르시되 王이 만일 作用할진대 옳지 않

음이 있음이 없거니와 王이 만일 作用하지 않을진대 體도 또한 보기 어렵나이다 王이

이르되 만일 作用할 때를 當하여는 몇 곳에 出現하나니잇고 尊者가 이르시되 만일 出現

할 때엔 마땅히 그 八이 있나니이다 王이 이르되 그 여덟군데 出現함을 마땅히 나를 爲

하여 說하소서 尊者가 이르시되 胎에 있어서는 이르되 身이요 世上에 處하여는 이르되

人이요 눈에 있어서는 이르되 見이요 귀에 있어서는 이르되 聞이요 코에 있어서는 香

을 分辨하며 혀에 있어서는 談論하며 손에 있어서는 執捉하며 발에 있어서는 運奔하여

두루 나타나서는 沙界를 다 싸고 收攝하여는 한 微塵에 있나니 아는 者는 이 佛性인줄

알고 알지 못하는 者는 精魂이라 불려 짓나니이다 王이 들으시고 마음이 곧 開悟하시며
또 僧이 歸宗和尚께 묻되 어떤 것이 이 佛이니잇고 宗이 이르시되 내가 이제 너를 向하
여 이르련마는 네가 信치 않을까 두려워 하노라 僧이 이르되 和尚의 誠實한 말씀을 어
찌 敢히 信치 않으리잇고 師가 이르시되 곧 네가 이것이니라 僧이 이르되 어떻게 保任
(悟後修行하는 語니 그 自性을 安穩하고 그 自在를 말스니이다) 하리잇고 師가 이르시되 한 翳가 눈에 있으면 虛空함이 어지러이 멸
어지나니라 그 僧이 말씀 아래에 살림이 있으니 上來에 든바 古聖의 道에 드신 因緣이 明
白하고 簡易하여 힘 덜림이 妨害롭지 안함으로 소니 이 公案(門法)을 因하여 만일 信解하
는 곳이 있으면 곧 古聖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한가지 行하리라

△問

호대

汝言見性

이

若眞見性

인연

即是聖人

이라

應現神通變化

하야

與人

有殊

어늘

何故

로

今時修心之輩

1

無有一人

도

發現神通變化耶

이까

△문되 네가 말하는 見性이 만일 참으로 見性일진댄 곧 이 聖人이라 應當 神通變化를
現示하여 사람으로 더불어 다름이 있을 것이어늘 어찌 까닭으로 今時에 마음 담는 무리
가 한 사람도 神通變化를 發現함이 있음이 없나이까

△答

대하사

汝不得輕發狂言

이니

不分邪正

이

是爲迷倒之人

이라

今時學道

之人

이

口談眞理

호대

心生退屈

하야

返墮無分之失者

1

皆汝所疑

니

學

道而不知先後하고說理而不分本末者는是名邪見이요不名修學이니非

唯自誤라兼亦誤他니其可不慎歟아夫入道1多門이나以要言之전면

不出頓悟漸修兩門耳니雖曰頓悟頓修1是最上根機의得入也나

若推過去전면已是多生에依悟而修하야漸熏而來라至於今生하야聞即

發悟하야一時頓畢아니以實而論전면是亦先悟後修之機也라則而此頓

漸兩門이是千聖軌轍也니則從上諸聖이莫不先悟後修하야因修乃

證니이시所言神通變化는依悟而修하야漸熏所現이라非謂悟時에即發現

也니라

△答하시되 네가 시러금 狂言을 輕發하지 말지니 邪와 正을 分揀치 못함이 이 迷해 거

꾸러진 사람이 되는지라 今時에 道를 배우는 사람이 입으로 眞理를 말하되 마음에 退

屈을 내어서 도리어 分이 없다는 失에 떨어지는 者가(無分之失은 聖人の境地에 衆生으로서는 들어갈 分이 없다는 錯見이다) 다 녀의 의심

하는 바니 道를 배우되 先後를 알지 못하고 理를 說하되 本末을 分揀치 못하는 者는 이

邪見이라 이름하고 修學이라 이름하지 못함이니 오직 스스로 그르칠 뿐 아니라 兼하여

또한 他를 그르침이니 그 可히 삼가하지 않으랴 대저 道에 들어감이 門이 많으나 要

로써 말하건대 頓悟와 漸修 兩門에 나지 않나니 비록 頓悟頓修가 이 最上根機의 연이
들에 감이라 이르나 만일 過去를 미루건대 이미 이 多生에 깨달음을 依止해 닦아서 漸
漸熏習해 온지라 今生에 이르러서 듣자 곧 發悟하여 一時에 몰록 마침이니 實로써 論
하건대 이도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根機라 곧 이 頓과 漸 兩門이 이 千聖의 軌
轍이니 곧 위로 좇아 모든 聖人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서 닦음을 因하여 이에 証得
하지 않음이 없음이니 말한바 神通變化는 깨달음을 依止해 닦아서 漸漸熏習해 나타
나는 바라 깨달을 때에 곧 發現함을 이름이 아니니라

如經 에云 대하사理即頓悟 라乘悟併消 와이니事非頓除 라因次第盡 이러하故

로圭峯 이深明先悟後修之義曰識水池而全水 나借陽氣以鎔消 요

悟凡夫而即佛 이나資法力以熏修 니氷消則水 하야流潤 하야方呈漑滌之

功 하교妄盡則心 이靈通 하야應現通光之用 이러하是知事上神通變化 는

非一日之能成 이라乃漸熏而發現也 어든況事上神通 이於達人分上 에

猶爲妖怪之事 요亦是聖末邊事 니雖或現之 나不可要用 한이今時迷

癡輩 나妄謂一念悟時 에即隨現無量妙用 과神通變化 라하若作是解

나所謂不知先後 며亦不分本末也 라旣不知先後本末 하고欲求佛道

고든

如將方木

하야

逗圓孔也

니

豈非大錯

오리

既不知方便故

로

作懸崖之

想

自生退屈

하야

斷佛種性者

不爲不多矣

라

既自未明

일세

亦未信

他人

有解悟處

하야

見無神通者

하고

乃生輕慢

니하나

欺賢誑聖

이라

良可悲

哉

로다

저經에 이르시되 理는 곧 물록 깨닫는지라 깨달음을 타서 아울러 녹이려니와 事는 물
 록 除함이 아니라 次第를 因하여 다한다 하시니 故로 圭峰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義
 를 깊히 밝혀 이르시되 어름 못이 온천이 물인줄 아나 陽氣를 假借하여 써 녹이고 凡
 夫가 곧 佛인줄 깨달으나 法力을 假資하여 써 熏修하나니 어름이 녹은즉 물이 흘러 潤
 澤하여 바야흐로 대고 씻는 功을 바치고 妄이 다한즉 마음이 神靈히 通하여 뽁뽁이 神
 通과 光明의 用을 나타낸다 하시니 이 알라 事상의 神通變化는 하룻날에 能히 이름이
 아니라 이에 漸漸 熏習하여 發現함이어든 하물며 事上神通이 達한 사람 分上에 오하
 려 妖怪한 일이 되고 또한 이 聖人의 末邊事니 비록 或나 타내나 可히 要緊히 쓰지 않
 음이어늘 今時에 迷해 어리석은 무리가 망령되이 이르되 한 생각 깨달을 때에 곧 無
 量한 妙用과 神通變化를 따라 나타낸다 하나니 만일 이 解를 지을진댄 이른바 先後를
 알지 못하며 또한 本末도 分揀치 못함이라 이미 先後와 本末을 알지 못하고 佛道를 求
 하고자 할진댄 모난 나무를 가져서 둥근 구멍에 맞출려는 것과 같음이니 어찌 크게 그

뜻함이 아니리오 이미 方便을 알지 못하는 故로 懸崖의 생각을 지어 스스로 退屈을 내
어서 (千切懸崖를 바라보고 올라갈 수 없다고는 佛性의 생) 佛種性을 끊는 者가 많지 않음이 되지 않는지라 이미
스스로 밝지 못할새 또한 他人의 解悟한 곳이 있음을 信치도 못하여 神通없는 者를 보
고 이에 輕慢을 내나니 賢을 속이고 聖을 속임이라 진실로 可히 슬프도다

△問 호대 汝言頓悟漸修兩門 이 千聖軌轍也 라하 悟既頓悟 근대 何假漸修

修若漸修 근대 何言頓悟 리오 頓漸二義 를 更爲宣說 하사 令絕餘疑 소케하

△문되 네가 頓悟와 漸修의 두門이 千聖의 軌轍이라 말씀하시니 깨달음이 이미 물론
깨달음을 일진댄 어찌 漸修를 假借하며 닦음이 만일 점점 닦음을 일진댄 어찌 頓悟라 말하
리오 頓과 漸의 두義를 다시 爲하여 宣說하사 하여금 나머지 의심을 끊게 하소서

△答 하사 頓悟者 는 凡夫迷時 에 四大 로 爲身 하고 妄想 으로 爲心 하야 不知自

性 이 是眞法身 하미 不知自己靈知 是眞佛也 하야 心外覓佛 하야 波波浪

走 라가 忽被善知識 의 指示入路 하야 一念廻光 하야 見自本性 하면 而此性地

原無煩惱 하고 無漏智性 이 本自具足 하야 即與諸佛 로 分毫不殊 근대 故

云頓悟也 요 漸修者 는 雖悟本性 이 與佛無殊 나 無始習氣 를 卒難

頓除故 로 依悟而修 하야 漸熏功成 하야 長養聖胎 하야 久久成聖 일새 故 로 云

漸修也

나

比如孩子

1

初生之日

에

諸根具足

이

與他無異

나

然

이나

其

力

이

未充

이라

頗經歲月

사하야

方始成人

라이니

△答하시되 頓悟란 것은 凡夫가 迷할때에 四大로 몸을 삼고 妄想으로 마음을 삼아서

自性이 이 참 法身인줄 알지 못하며 自己靈知가 이 참 佛인줄 알지 못하여 마음 밖에

佛을 찾아서 波波(波)히 허랑하게 달리다가 忽然히 善知識의 들어가는 길을 指示함을

입어서 一念에 光(光心)을 돌이켜서 自己本性을 보면 이 性地는 原來 煩惱가 없고 無漏

의 智性이 本來 스스로 具足하여 곧 諸佛로 더불어 分毫도 다르지 않을새 故로 이르되

頓悟요 漸修란 것은 비록 本性이 佛로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깨달으나 비릇함이 없는

習氣를 마침내 몰록 除하기 어려운 故로 깨달음을 의지해 닦아서 점점 熏習해 功이 이

루어서 聖胎를 長養하여 오래 오래하매 聖을 이룰새 故로 이르되 漸修니 比컨대 어린

아이가 처음 난 날에 모든 根의 具足함이 他人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으나 그러나 그

힘이 充實치 못한지라 자못 歲月을 지나야 바야흐로 비로소 사람을 이롭과 같으니라

△問

호대

作何方便

사하야

一念廻機

하야

便悟自性

잇고

△문되 무슨 方便을 지어야 一念에 機를 돌이켜서 문득 自性을 깨달으리잇고

△答

대하사

只汝自心

나

更作什麼方便

오리

若作方便

하야

更求解會

나

比如

有人^이 不見自眼^{하고} 以謂無眼^{하야} 更欲求見^{이니} 既是自眼^{니이} 如何更見

若知不失^{하면} 即爲見眼^{이라} 更無求見之心^{니이} 豈有不見之想^{스니} 自己

靈知^도 亦復如是^{하야} 既是自心^{니이} 何更求會^{되오} 若欲求會^{니면} 便會不得

但知不會^{하면} 是即見性^{라니}

△答하시되 다만 너의 自心이 어니 다시 무슨 方便을 지으리오 만일 方便을 지어서 다시 眼을 求할진댄 比컨대 사람이 있어 自己 眼을 보지 못하고 썩 이르되 眼이 없다 하여 다시 眼을 求하고자 함과 같음이니 이마 이 自己 眼이 어니 어떻게 다시 보리오 만일 잃지 않은줄 알면 곧 眼을 봄이 됨이라 다시 眼을 求하는 마음도 없거니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으리오 自己靈知도 또한 다시 이 같아서 이미 이 自己 眼이 어니 어찌 다시 眼을 求하리오 만일 眼을 求하고자 할진댄 문득 알아 얻지 못함이니 다만 알지 못할줄 알면 이 곧 見性이니라

△問^{호대} 上上之人^은 聞即易會^{와어니} 中下之人^은 不無疑惑^{하니} 更說方便

令迷者^로 趣入^{초석}

△문되 上上의 人은 들으매 곧 쉽게 알거니와 中下의 人은 疑惑이 없지 못하니 다시 方便을 說하사 迷한 者로 하여금 趣向해 들게 하소서

△答^{대하사}道不屬知不知^{하니}汝^나除却將迷待悟之心^{하고}聽我言說^{하라}諸

法^이如夢^{하고}亦如幻化故^로妄念^이本寂^{하고}塵境^이本空^{하니}諸法皆空

之處^에靈知不昧^{하니}即此空寂靈知之心^이是汝^의本來面目^{이니}亦是

三世諸佛^과歷代祖師^와天下善知識^의密密相傳底法印也^라若悟

此心^{하면}眞所謂不踐階梯^{하고}徑登佛地^{하야}步步超三界^{하야}歸家頓絕疑

便與人天爲師^{하야}悲智相資^{하야}具足二利^{하야}堪受人天供養^{이라}日消

萬兩黃金^{하니}汝若如是^고眞大丈夫^라一生能事^를已畢矣^{니라}

△答하시되 道는 알고 알지 못함에 屬하지 않으니 네가 迷함을 가져 깨닫기를 기다리

는 마음을 除却하고 나의 말을 들어라 모든 法이 꿈과 같고 또한 幻과 化와 같은 故로

妄念이 本來 高요하고 塵境이 本來 空하니 모든 法이 다 空한 곳에 靈知가 昧하지 않

나니 곧 이 空寂하고 靈知하는 마음이 이 너의 本來面目이며 또한 이 三世諸佛과 歷

代祖師와 天下善知識의 密密히 서로 傳하시는 法印이라 만일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

이론바 階梯를 밟지 않고 바로 佛地에 올라서 究竟 究竟이 三界에 뛰어나서 집에 돌아

가 볼록 의심을 끊음이니 문득 人天으로 더불어 스승이 되어서 悲와 智가 서로 도와서

二利^{自利利他}를 具足하여 人天의 供養받음을 堪當할지라 날로 萬兩黃金을 누리리니 네가

만일 이갈을진댄 참大丈夫라 一生의 能事를 이미 마침이니라

△問 호대 據吾分上 견대 何者 是空寂靈知之心耶 이까

△문되 나의 分上을 의거하건대 어떤것이 이 空寂靈知의 마음이니이까

△答 대하사 汝今問我者 是汝 의 空寂靈知之心 이니 何不返照 하고 猶爲外

覓 고 我今據汝分上 하야 直指本心 하야 令汝便悟 케호리니 汝須淨心 하야 聽我言

說 하라 從朝至暮 히 十二時中 에 或見或聞 하며 或笑或語 하며 或瞋或喜 하며 或

是或非 하는 種種施爲運轉 이 且道 하라 畢竟是誰 能伊麼運轉施爲耶

아 若言色身 이 運轉 인면 何故 로 有人 이 一念命終 에 都未壞爛 도하야 即眼

不自見 하며 耳不能聞 하며 鼻不辨香 하며 舌不談論 하며 身不動搖 하며 手不執

捉 하며 足不運奔耶 아 是知能見聞動作 은 必是汝 의 本心 이요 不是汝 의

色身也 로다 况此色身 이 四大性空 호미 如鏡中像 하며 亦如水月 하니 豈能了

了常知 하야 明明不昧 하야 感而遂通恒沙妙用也 리오 故 로 云 대하사 神通并妙

用 이여 運水及搬柴 니라하시 且入理多端 이나 指汝一門 하야 令汝還源 호리 汝

還聞鴉鳴鵲噪之聲麼 아 曰聞 아 曰汝 아 返聞汝 의 聞性 하 還有許多

聲麼 아 曰到這裏 는하야 一切聲 과 一切分別 을 俱不可得 이다 曰奇哉奇哉

라 此是觀音入理之門 라아니 我更問爾 니하노 爾道到這裏 하야 一切聲 과 一切

分別 을 總不可得 하아 旣不可得 인연 當伊麼時 하야 莫是虛空麼 아 曰元來

不空 하야 明明不昧 다아니 曰作麼生 이 是不空之體 오 曰亦無相貌 라 言之

不可及 이다 曰此是諸佛諸祖 의 壽命 아니 更莫疑也 니라

△答하시되 네가 이제 나에게 묻는 것이 너의 空寂靈知하는 마음이니 어찌 돌이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 찾음을 하는고 내가 이제 너의 分上을 의지하여 바로 本心을 가리켜서 너로하여금 문득 깨닫게 하리니 네가 모름지기 마음을 깨닫기하여 나의 말을 들어라 아침으로 좇아 저물에 이르기까지 十二時가운데에 或 보고 或 들으며 或 웃고 或 말하며 或 성내고 或 기뻐하며 或 울고 或 그르나 하는 갖가지 施爲하고 運轉함이 또 일러라畢竟에 이 누가 能히 이렇게 運轉하고 施爲하느냐 만일 色身이 運轉한다면 어쩐 까닭으로 사람이 있어 한생각 命이 마치매 도무지 壞爛치 아니하여도 곧 눈이 스스로 보지 못하며 귀가 能히 듣지 못하며 코가 香氣를 가리지 못하며 혀가 談論하지 못하며 몸이 動搖하지 못하며 손이 執提하지 못하며 발이 運奔하지 못하느냐

이 알라 能히 보고 듣고 動作함은 반드시 너의 本心이요 너의 色身이 아니로다
 하물며 이 色身이 四大的 性이 空함이 겨울 가운데 形像과 같으며 또한 물속의 달과
 같으니 어찌 能히 了了히 항상 알아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아니하여 感하매 드디어 恒沙
 의 妙用을 通하리오 故로 이르시되 神通과 아울러 妙用이여 물을 運搬함과 밋 나무를
 運搬함이라 하시니라 또 理에 들이 端緒가 많으나 너에게 한 門을 가리켜서 너로하여
 금 根源에 돌아가게 하리니 네가 또한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느냐 이
 르되 듣노이다 이르시되 네가 너의 듣는 性을 들이켜 들어라 또한 許多한 소리가 있느
 나 이르되 이 속에 이르러서는 一切소리와 一切分別을 다 可히 얻지 못하겠나이다 이
 르시되 기특하고 기특하다 이것이 이 觀音의 理에 드신 門이니라 (淨業經二十五國通中觀音菩薩이 聞
 的으로 觀世音은 二義가 있으니 一은 理의으로 말하면 自己가 發心時에 世音을 觀察하여 聞性을 覺한 것이요 二는 事
 的으로 말하면 一切衆生이 稱隨의 名號를 稱讚할 때에 그 世音을 觀察하여 顯現하게 하는 것이요) 네가 다시 너에게 묻노니 네
 가 이르되 이 속에 이르러서 一切소리와 一切分別을 다 可히 얻지 못한다 하니 이미
 可히 얻지 못할진댄 이러한 때를 當하여 이 虛空이 아니냐 이르되 元來 空하지 아니하
 여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것이 이 空하지 않은 體인고 이르되 또한
 相貌가 없는지라 말로 可히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이르시되 이것이 이 諸佛諸祖의 壽命
 이니 다시 의심치 말지니라

既無相貌

고엔

還有大小

아

既無大小

고엔

還有邊際

아

無邊際故

로

無內外_{하고}

無內外故_로

無遠近_{하고}

無遠近故_로

無彼此_니

無彼此則無

往來_{하고}

往來_{하고}

無往來則無生死_{하고}

無生死則無古今_{하고}

無古今則無迷悟_{하고}

無迷悟則無凡聖_{하고}

無凡聖則無染淨_{하고}

無染淨則無是非_{하고}

則一切名言_을

俱不可得_{이라}

既總無_{하야}

如是一切根境_과

一切妄念_과

乃至種種相貌_와

種種名言_을

來無物也_{리오}

然_{이나}

諸法皆空之處_에

靈知不昧_{하야}

不同無情_{하야}

性自神

解_니此是汝_의

空寂靈知_{하는}

清淨心體_니

而此清淨空寂之心_이

是三

世諸佛_의

勝淨明心_며

亦是衆生_의

本源覺性_{이라}

悟此而守之者_는

坐

一如而不動解脫_{하고}

迷此而背之者_는

往六趣而長劫輪廻_{하니}

故云

迷一心而往六趣者_는

去也_며

動也_요

悟法界而復一心者_는

來也

靜也_{니라}

雖迷悟之有殊_나

乃本源則一也_니

所以云_로

云_대衆生心_{시니}

而此空寂之心_이

在聖而不增_{하야}

在凡而不減_{이라}

故

云_대衆生心_{시니}

而此空寂之心_이

在聖而不增_{하야}

在凡而不減_{이라}

故

云_대衆生心_{시니}

而此空寂之心_이

在聖而不增_{하야}

在凡而不減_{이라}

故

云_대衆生心_{시니}

而此空寂之心_이

在聖而不增_{하야}

在凡而不減_{이라}

故

云_대衆生心_{시니}

而此空寂之心_이

在聖而不增_{하야}

在凡而不減_{이라}

故

云_대衆生心_{시니}

而此空寂之心_이

在聖而不增_{하야}

在凡而不減_{이라}

故

云_대衆生心_{시니}

而此空寂之心_이

在聖而不增_{하야}

在聖而不增_{하야}

在凡而不減_{이라}

故

云_대衆生心_{시니}

而此空寂之心_이

在聖而不增_{하야}

在凡而不減_{이라}

凡^{인연}佛祖奚以異於人^{오이리}而所以異於人者^는能自護心念耳^니汝

若信得及^{하야}疑情^이頓息^{하고}出丈夫之志^{하야}發真正見解^{하미}親嘗其味

自到自肯之地^{하면}則是爲修心人^의解悟處也^라更無階級次第^{로세}

故^로云頓也^니如云於信因中^에契諸佛果德^{하야}分毫不殊^{사하야}方成信

也^{니라}

이미相貌가 없을진댄 또한 大小가 있으랴 이미 大小가 없을진댄 또한 邊際가 있으랴
邊際가 없는 故로 内外가 없고 内外가 없는 故로 遠近이 없고 遠近이 없는 故로 彼此
가 없나니 彼此가 없으즉 往來가 없고 往來가 없으즉 生死가 없고 生死가 없으즉 古
今이 없고 古今이 없으즉 迷悟가 없고 迷悟가 없으즉 凡聖이 없고 凡聖이 없으즉 染淨
이 없고 染淨이 없으즉 是非가 없고 是非가 없으즉 一切名言을 다 可히 얻지 못하는
지라 이미 다 없어서 이같은 一切根境^(六根)과 一切妄念과 乃至 갖가지 相貌와 갖가지
名言을 다 可히 얻지 못할진댄 이 어찌 本來 空寂하고 本來 物件이 없음이 아니리오 그
러나 모든 法이 다 空한 곳에 靈知가 昧하지 아니하여 無情과 같지 않아서 性이 스스
로 神奇롭게 아나니 이것이 이 너의 空寂하고 靈知하는 淸淨한 心體니 이 淸淨하고 空
寂한 마음이 이 三世諸佛의 勝淨明心이시며 또한 이 衆生의 本源覺性이라 이를 깨달

아 지키는 者는 一如한데 앉아서 動치 않고 解脫하고 이를 迷하여 등지는 者는 六趣(六道)에 가서 長劫에 輪回하니 故로 이르시되 한 마음을 迷하여 六趣에 가는 者는 감이며 動함이요 法界를 깨달아 한 마음에 회복하는 者는 음이며 靜함이라 하시니라 비록 迷와 悟가 다름이 있으나 이에 本源인즉 一이니 쓴바로 이르시되 法이라 말한 것은 이르되 衆生心이라 하시니 이 空寂한 마음이 聖人에게 있어도 더하지 않으며 凡夫에게 있어도 滅하지 않는지라 故로 이르시되 聖智에 있어도 빛나지 않고 凡心에 숨어도昧하지 않는다 하시니라 이미 聖人에 더하지 않고 凡夫에 모자라지 않을진댄 佛祖가 어찌 새 사람과 다르리오 새 사람과 다른바는 能히 스스로 心念을 두호하심이니 네가 만일 信해 미쳐서 疑情이 몰록 쉬고 丈夫의 뜻을 내어서 眞正한 見解를 發하며 親히 그 맛을 맛보아서 스스로 自肯하는 땅에 이르면 곧 이 마음 닦는 사람의 解悟한 곳이 됨이라 다시 階級과 次第가 없을새 故로 이르되 頓이니 저 이르되 信因 가운데에 諸佛의 果德에 契合하여 分毫도 다르지 아니하여야 바야흐로 信을 이룬다 함이니라

의果德으로 미물어들이아난을信치 못하면十信을이루지 못하니이는華嚴論의 말씀이다

(信因은十信因位다信位에自己마음이顯佛

△問

호대

既悟此理

하야

更無階級

인면

何假後修

하야

漸熏漸成耶

이까

△문되 이미 이 理致를 깨달아서 다시 階級이 없을진댄 어찌 뒤에 닦아 점점 熏習해 점점 이룬을 假借하나이까

△答하사 悟後漸修之義를 前已具說이而復疑情을 未釋하니不妨重說

汝須淨心하야 諦聽諦聽하라 凡夫 無始曠大劫來로 至於今日이 流

轉五道하야 生來死去에 堅執我相하야 妄想顛倒와 無明種習으로 久與成

性일세 雖到今生하야 頓悟自性이 本來空寂하야 與佛無殊나 而此舊習을

卒難除斷故로 逢逆順境에 瞋喜是非 熾然起滅하야 客塵煩惱 與

前無異 若不以般若로 加功着力이면 焉能對治無明하야 得到大休大

歇之地리오 如云頓悟雖同佛이나 多生習氣深이라 風停波尙湧하고 理現念

猶侵이요 又杲禪師 云하사 徃徃利根之輩 不費多力하고 打發此事하면

便生容易之心하야 更不修治라가 日久月深하면 依前流浪하야 未免輪廻라하

則豈可以一期所悟로 便撥置後修耶 故로 悟後에 長須照察하야 妄

念이 忽起아든 都不隨之하고 損之又損하야 以至無爲사하야 方始究竟이니 天下

善知識 悟後牧牛行이 是也라 雖有後修나 已先頓悟妄念이 本空

心性이 本淨하야 於惡에 斷호대 斷而無斷이요 於善에 修호대 修而無修라

此乃眞修眞斷矣

니 故

云 云

대하사 雖備修萬行

이나 唯以無念

으로 爲宗

이와하

主峯

이 總判先悟後修之義云

대하사 頓悟此性

이 元無煩惱

하고 無漏智性

이 本自具足

하야

與佛無殊

나달

依此而修者

는 是名最上乘禪

이며

亦名如

來清淨禪也

니

若能念念修習

하면

自然漸得百千三昧

니하리

達磨門下

展轉相傳者

1

是此禪也

시라하

則頓悟漸修之義

1

如車二輪

하야

可

라니

△答하시되 깨달은

뒤에 점점

답는

義를

前에 이미

갖추

說했거늘

못하니

거듭

說함이

妨害를

지

않음으로

소니

네가

듣고

자세히

들으라

凡夫가

비릇함이

없는

曠大劫에

옴으로

今日에

이르기까지

五道

(六

道)

에

流轉하여

生해

오고

死해

감에

我相을

굳게

執하여

妄想顛倒

의

無明

種習

(根本)

으로

오래

더불어

性을

이뤘을새

비록

今生에

이르러

물록

自性

이

本來

空寂하여

佛로

더불어

다름이

없으니

만일

般若로써

功을

더하여

힘을

붙이지

않은면

어찌

能히

無

明을 對治하여 크게 쉬고 크게 쉬는 땅에 이름을 얻으리오 저 이르되 물록 깨달음이 비
 록 佛과 같으나 多生의 習氣가 깊은지라 바랍은 머므르되 불결은 오히려 좃고 理致는
 나타나되 생각은 오히려 침노한다 함이요 또 果禪師가 이르시되 가끔 利根의 무리
 가 많은 힘을 허비하지 않고 이 일을 처 發하면 문득 容易한 마음을 내어서 다시 닦아
 다스리지 않다가 날이 오래고 달이 깊으면 前을 의지해 流浪하여 輪回를免치 못한다
 하시니 곧 어찌 可히 一期^(한 때)의 깨달은 바로써 문득 뒤에 닦음을 매쳐 두라 故로 깨달
 은 뒤에 가리 모름지기 照察하여 妄念이 忽然히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르지 말고 損
 하며 또 損하여 썩 하염이 없는데 이르려야 바야흐로 비로소 究竟이니 天下善知識의
 깨달은 뒤에 소 먹이는 行이 이것이라 비록 뒤에 닦음이 있으나 이미 먼저 妄念이 本
 來空하고 心性이 本來 깨끗한줄 물록 깨달아서 惡에 끊되 끊어도 끊음이 없고 善에
 닦되 닦아도 닦음이 없는지라 이는 이에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음이니 故로 이르시되
 비록 萬行을 갖추 닦으나 오직 無念으로써 宗을 살는다 하시고 圭峰이 먼저 깨닫고 뒤
 에 닦는 義를 總判해 이르시되 물록 이 性이 元來煩惱가 없고 無漏의 智性이 本來 스
 스로 具足하여 佛로 더불어 닦음이 없는줄 깨달아서 이를 의지하여 닦는 者는 이 이름
 이 最上乘禪이며 또한 이름이 如來清淨禪이니 만일 能히 念念이 修習하면 自然히 念念
 百千三昧를 얻으리니 達磨門下에 展轉히 서로 傳하는 것이 이 이禪이라 하시니 곧 물

륙 깨닫고 점점 밝는義가 수래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를 闕하면 옳지 못하니라

或者 不知善惡性空^{하고} 堅坐不動^{하야} 捺伏身心^을 如石壓草^{하야} 以爲

修心^{니하나} 是大惑矣^라 故^로 云^{대하사} 聲聞^은 心心斷惑^{니하나} 能斷之心^이 是賊

更斷^{이러} 所以^로 云^{대하사} 不怕念起^{하고} 唯恐覺遲^{라하고} 又云^{대하사} 念起即覺^{하라} 覺

之即無^{시니하} 故^로 悟人分上^엔 雖有客塵煩惱^나 俱成醍醐^니 但照惑無

本^{하면} 空華三界^이 如風卷煙^{하고} 幻化六塵^이 如湯消冰^{니하리} 若能如是念

念修習^{하야} 不忘照顧^{하고} 定慧等持^{하면} 則愛惡^이 自然淡薄^{하고} 悲智^이 自

然增明^{하며} 辜業^이 自然斷除^{하고} 功行^이 自然增進^{하야} 煩惱盡時^에 生死

即絕^{이라} 若微細流注^이 永斷^{하고} 圓覺大智^이 朗然獨存^{하면} 卽現千百億

化身^{하야} 於十方國中^에 赴感應機^{호미} 似月現九霄^에 影分萬水^{하야} 應用

無窮^{하야} 度有緣衆生^{하야} 快樂無憂^{하리} 名之爲大覺世尊^{이니}

或者가 善惡의 性이 空함을 알지 못하고 곧게 앉아 動치 아니하여 몸과 마음을 놀려

調伏함을 들로 풀을 누름과 같이 하여 세 마을 땅을 삼나니 이 크게迷惑함이라 故로 이르시되 聲聞은 마음 마음에 惑을 끊나니 能히 끊는 마음이 이 賊이라 하시니라 다만 殺盜淫妄이 性으로 좇아 일어나는 줄 자세히 觀하면 일어난 것이 곧 일어난 것이 없는지라 當處가 문득 高요함이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끊으리오 쓴바로 이르시되 생각 일어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딜까 두려워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생각이 일어나면 곧 覺하라 覺하면 곧 없다 하시니 故로 깨달은 사람 分上엔 비록 客塵煩惱가 있으나 다 醒酬를 이룸이니 다만 惑이 根本이 없는 줄 비추면 空華인 三界가 바람이 烟氣를 거둠과 같고 幻化인 六塵이 끊는 물이 어름 녹임과 같으리니 만일 能히 이같이 念念이 修習하여 비추어 돌아봄을 잊지 말고 定과 慧를 平等히 가지면 곧 愛惡가 自然히 淡薄하고 悲智가 自然히 增明하며 聖業이 自然히 斷除하고 功行이 自然히 增進하여 煩惱가 다할 때에 生死가 곧 끊어지는지라 만일 微細流注(煩惱本)가 永히 끊어지고 圓覺大智가 朗然히 홀로 있으면 곧 千百億化身을 나타내어 十方國中에 感에 나아가고 機를 應함이 달이 九霄(九과 같은 南詔나 陽數가 九에 妙한 秘로 應한 것은 天을 應한 것이니)에 나타나매 그림자가 萬水에 나눌과 같아서 應用함이 다함이 없어서 緣있는 衆生을 濟度하여 快樂해 근심이 없으리니 이름해 大覺世尊이라 하나니라

△問 後修門中

에 定慧等持之義

實未明了

更爲宣說

委示

開迷하사 引入解脫之門하소

△문되 後修門가운데에 定慧를 平等히 가진다는 義를 實로 밝게 了達치 못하겠아오니 다시 爲하여 宣說하사 委曲히 보여 迷함을 열으사 解脫의 門에 이끌어 들게 하소서

△答하사 若設法義근면 入理千門 莫非定慧 取其綱要則但自性上

에 體用二義니 前所謂空寂靈知 是也 定是體 慧是用也 即

體之用故 慧不離定 即用之體故 定不離慧 定則慧故 寂

而常知 慧則定故 知而常寂 如曹溪 云 心地無亂 自性

定 心地無癡 自性慧 若悟如是 任運寂知 遮照無二 則

是爲頓門箇者 變修定慧也 若言先以寂寂 治於緣慮 後以

惺惺 治於昏住 先後對治 均調昏亂 以入於靜者 是爲漸

門劣機 所行也 雖云惺寂等持 未免取靜爲行 則豈爲了事

人 不離本寂本知 任運變修者也 故曹溪 云 自悟修行 不

在於靜 若靜先後 即是迷人 則達人分上 定慧等持之義

는
不落功用 하야 元自無爲 하야 更無特地時節 이라 見色聞聲時 에도 但伊麼

하고 着衣喫飯時 에도 但伊麼 하고 屙屎送尿時 에도 但伊麼 하고 對人接話時 에도

但伊麼 하며 乃至行住坐臥 와 或語或默 과 或喜或怒 하는 一切時中 에 一

一如是 하야 似虛舟駕浪 에 隨高隨下 하고 如流水轉山 에 遇曲遇直 하야 而

心心無知 하야 今日騰騰任運 하고 明日任運騰騰 하야 隨順衆緣 호대 無障無

礙 하며 於善於惡 에 不斷不修 하야 質直無僞 하야 視聽 이 尋常 이라 則絕一塵

而作對 이니 何勞遣蕩之功 이며 無一念而生情 이라 不假忘緣之力 이니와

△答하시되 만일 法과 義를 배플진면 理에 드는 千가지 門이 定慧아님이 없고 그 綱要를 取한즉 다만 自性위에 体와 用의 두 義니 前에 이른바 空寂과 靈知가 이것이라 定은 이 体요 慧는 이 用이니 体에 即한 用인 故로 慧가 定을 여의지 않고 用에 即한 体인 故로 定이 慧를 여의지 않으니 定이 곧 慧인 故로 寂하되 항상 知하고 慧가 곧 定인 故로 知하되 항상 寂함이라 저 曹溪가 이르시되 心地가 어지럼이 없음이 自性定이요 心地가 어리석음이 없음이 自性慧라 하시니 만일 이 같음을 깨달아서 뜻뜻아 寂하고 知하여 遮 (인定의) 와 照 (인慧의) 가 둘이 없으면 곧 이 頓門箇者 (箇者는 持來한者라는意) 의 雙으로 定慧

를 닦음이 되거니와 만일 말하되 먼저 寂寂으로써 緣慮를 다스리고 뒤에 惺惺으로써
 昏住를 다스린다 하여 先後로 對治하여 昏沉과 散亂을 均調해서 써 靜에 드는 者는 이
 漸門劣機의 行하는 바가 되는지라 비록 惺과 寂을 平等히 가진다 이르나 靜을 取하여
 行함을 免치 못함이니 곧 어찌 일마친 사람의 本來 寂하며 本來 知함을 여의지 않고
 뜻 좇아 雙으로 닦는 者가 되리오 故로 曹溪가 이르시되 스스로 깨달아 修行함은 다투
 는데 있지 않음이니 만일 先後를 다투면 곧 이 迷한 사람이라 하시니 곧 達한 사람 分
 上에 定과 慧를 平等히 가지는 義는 功用到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元來 스스로 하염이 없
 어서 다시 特地(別特)의 時節이 없는지라 色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고 똥 누고 오줌 눌 때에도 다만 이러하고 사
 람을 對하여 接話할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乃至 行住坐臥와 或 말하고 或 默함과 或
 喜하고 或 怒하는 一切時 가운데에 낱알이 이와 같아서 빈 배가 물결에 멎에 하매 높
 음을 따르며 낮음을 따름과 같고 흐르는 물이 山에 轉하매 굽음을 만나며 곧음을 만나
 과 같아서 마음 마음이 缺이 없어서 今日에 홍동 홍동(無心說) 뜻 좇고 明日에 뜻 좇아 洪
 동 洪동하여 衆緣을 隨順하되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으며 善과 惡에 끊지도 않고 닦
 지도 아니하여 質直해 거짓이 없어서 보고 들음이 尋常한지라 곧 한 티끌도 對지을게
 끊어졌거니 어찌 보내어 蕩盡하는 功을 수고로이 하며 한 생각도 情이 날게 없는지라
 緣을 잇는 힘을 假借하지 않으려니와

然^{이나}障濃習重^{하고}觀劣心浮^{하야}無明之力^이大^{하고}般若之力^이小^{하야}於

善惡境界^에未免被動靜^의互換^{하야}心不恬淡者^는不無忘緣遺蕩功

夫矣^니如云六根^이攝境^{하야}心不隨緣^을謂之定^{이요}心境^이俱空^{하야}照

鑑無惑^을謂之慧^니此雖隨相門定慧^라漸門劣機^의所行也^나對治

門中^에不可無也^니若掉舉熾盛^{키든}則先以定門^{으로}稱理攝散^{하야}心不

隨緣^{하야}契乎本寂^{하고}若昏沉^이尤多^{이든}則次以慧門^{으로}擇法觀空^{하야}照

鑑無惑^{하야}契乎本知^니以定治乎亂想^{하고}以慧治乎無記^{하야}動靜相^이

亡^{하고}對治功^이終^{하면}則對境而念念歸宗^{하고}遇緣而心心契道^{하야}任運

雙修^{하야}方爲無事人^{이니}若如是則眞可謂定慧等持^{하야}明見佛性者也^{니라}

그러나 障이濃厚하며 習이重하고 觀이劣하며 마음이 떠서 無明의 힘이 크고 般若의

힘이 작아서 善惡境界에 動과 靜의 서로 變換함을 免치 못하여 마음이 恬淡치

못한 者는 緣을 잊어 遺蕩하는 功夫가 없지 못할지니 저 이르되 六根이 境界를 攝하여

마음이 緣을 따르지 않음을 이르되 定이요 마음과 境界가 다 空하여 惑이 없는줄 비추

어 거울함을 이르되 慧라 함이니 이것이 비록 隨相門의 定慧라 漸門劣機의 行할바나

對治하는 門 가운데에 可히 없지 못함이니 만일 掉舉(掉)가熾盛하거든 곧 먼저 定門으로써 理에 稱合해 散亂을 攝하여 마음이 緣을 따르지 아니하여 本來 寂한데 契合하고 만일 昏沈이 더욱 많거든 곧 다음에 慧門으로써 法을 揀擇해 空을 觀해서 惑이 없는 줄 비추어 저울하여 本來 知한데 契合할지니 定으로써 亂想을 다스리고 慧로써 無記를 다스려서 動靜의 相이 없어지고 對治의 功이 마치면 곧 境界를 對하매 念念이 宗에 돌아 가고 緣을 만나매 마음과 마음이 道에 契合하여 뜻쫓아 雙으로 닦아서 바야흐로 일없는 사람이 될지니 만일 이같은즉 참 可히 이르되 定과 慧를 平等히 가져서 밝게 佛性을 본 者니라

△問 據汝所判

호대 전면

悟後修門中

에

定慧等持之義

1

有二種

하느니

一은

自性定慧

요

二는

隨相定慧

라

自性門則曰任運寂知

하야

元自無爲

하야

絕一塵而作對

이니

何勞遣蕩之功

이피

無一念而生情

이라

不假忘緣之力

하야라

判云

호대

此是頓門箇者

의

不離自性

하고

定慧等持也

요

隨相門則曰

稱理攝散

하야

擇法觀空

하야

均調昏亂

하야

以入無爲

라하

判云

호대

此是漸門

劣機

의

所行也

니라하

就此兩門定慧

하야

不無疑焉

호니

若言一人所行也

호니

爲復先依自性門

하야

定慧雙修然後

에

更用隨相門對治之功耶

아

爲

復先依隨相門하야均調昏亂然後以入自性門耶아若先依自性定

慧則任運寂知하야更無對治之功이니何須更取隨相門定慧耶리오如將

皓玉하야彫文喪德이오若先以隨相門定慧로對治功成然後趣於自

性門則宛是漸門中劣機의悟前漸熏也니豈云頓門箇者의先悟後

修하야用無功之功也리오若一時無前後則二門定慧이頓漸하니有異

如何一時並行也리오則頓門箇者는依自性門하야任運亡功하고漸門劣

機는趣隨相門하야對治勞功이니二門之機이頓漸하고不同이優劣이較

然날이云何先悟後修門中에並釋二種耶아請爲通會하사令絕疑情소서

△문되 너의判斷한 바를 의거하건대 깨달은 뒤 닦는門 가운데에 定과 慧를 平等히 가

지는 義가 二種이 있으니 一은 自性定慧요 二는 隨相定慧라 自性門인즉 이르되 뜻뜻아

寂하고 知하여 元來 스스로 하열이 없어서 한 티끌도 對지을게 끊어졌거니 어찌 遣蕩의

功을 수고로이 하며 한 생각도 情이 날게 없는지라 緣을 잇는 힘을 假借하지 않는다

하여 判斷해 이르되 이는 이 頓門箇者의 自性을 여의지 않고 定慧를 平等히 가짐이요

隨相門인즉 이르되 理에 稱合해 散亂을 攝하며 法을 揀擇해 空을 觀하여 昏沉과 散亂을

均調해서 써 無爲에 든다 하여 判斷해 이르되 이는 이 漸門劣機의 行하는 바라 하니 이 兩門定慧에 나아가서 의심이 없지 못하니 만일 한 사람의 行할 바라 말할진댄 다 시먼저 自性門을 의지하여 定慧를 雙으로 닦은 然後에 다시 隨相門의 對治하는 功을 씀이 되느냐 다시먼저 隨相門을 의지하여 昏沉과 散亂을 均調한 然後에 써 自性門에 들이 되느냐 만일 먼저 自性定慧를 의지한즉 뜻쫓아 寂하고 知하여 다시 對治의 功이 없음이니 어찌 모를지기 다시 隨相門의 定慧를 取하리오 흰 玉을 가져서 文彩를 새겨 德을 喪함과 같고 만일 먼저 隨相門의 定慧로써 對治의 功이 이룬 然後에 自性門에趣 向한즉 宛然히 이 漸門가운데 劣機의 깨닫기 前에 점점 熏習함이니 어찌 頓門高者의 먼 저 깨닫고 뒤에 닦아서 功없는 功을 쓴다 이르리오 만일 一時로 前後가 없는즉 二門의 定慧가 頓과 漸이 다름이 있으니 어떻게 한때에 아울러 行하리오 곧 頓門의 簡者는 自性門을 의지하여 뜻쫓아 功을 잇고 漸門의 劣機는 隨相門에 나아가서 對治하여 功을 수고롭게 하나니 二門의 機가 頓과 漸이 같지 않고 優와 劣이 皎然하거늘 어찌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門가운데에 아울러 二種을 釋하느냐 請컨대 爲하여 通會하사 하여금 疑情을 끊게 하소서

△答

대하사

所釋

의

皎然

이

汝

의

自生疑

모다

隨言生解

하면

轉生疑惑

의

得意忘

言

言

하면

不勞致詰

라

若就兩門

하

各判所行

하면

則修自性定慧者

는

此是

頓門^에 用無功之功^{하야} 並運雙寂^{하야} 自修自性^{하야} 自成佛道者也^요 修
隨相門定慧者^는 此是未悟前漸門劣機^의 用對治之功^{하야} 心心斷惑^{하야}
取靜爲行者^니 而此二門所行^이 頓漸^이 各異^{하야} 不可叅亂也^{와이니} 然
悟後修門中^에 兼論隨相門中對治者^는 非全取漸機所行也^라 取
其方便^{하야} 假道托宿而已^니 何故^오 於此頓門^{에도} 亦有機勝者^{하며} 亦有
機劣者^{하야} 不可一例^로 判其行李也^니 若煩惱淡薄^{하고} 身心^이 輕安^{하야}
於善^에 離善^{하고} 於惡^에 離惡^{하야} 不動入風^{하고} 寂然三受者^는 依自性定^{하야}
慧^{하야} 任運雙修^{하야} 天真無作^{하야} 動靜常禪^{이라} 成就自然之理^{이니} 何假隨
相門對治之義也^{리오} 無病^에 不求藥^{이요} 雖先頓悟^나 煩惱濃厚^{하고} 習氣
堅重^{하야} 對境而念念生情^{하고} 遇緣而心心作對^{하야} 被他昏亂^의 使殺^{하야}
昧却寂知常然者^는 即借隨相門定慧^{하야} 不忘對治^{하고} 均調昏亂^{하야} 以
入無爲^{호미} 即其宜矣^니 雖借對治工夫^{하야} 暫調習氣^나 以先頓悟心性
本淨^{하고} 煩惱本空故^로 即不落漸門劣機^의 污染修也^니 何者^오 修

在悟前則雖用功不忘하야念念熏修나着着生疑하야未能無礙호미如有

一物이礙在胸中하야不安之相이常現在前가이라日久月深하야對治功熟

則身心客塵이恰似輕安나하리雖復輕安이나疑根未斷호미如石壓草하야猶

於生死界에不得自在니故로云修在悟前이非眞修也라하

△答하시되 釋然바가 皎然하거늘 네가 스스로 의심을 내도다 말을 따라 解를 내면 轉

轉히 의혹을 내고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면 詰難일으킴을 수고로이 앓나니라 만일 두門

에 나아가서 各各行할바를 判斷하면 곧 自性定慧를 닦는 者는 이는 이 頓門에 功없

는 功을 써서 아울러 運轉하고 雙으로 寂하여 스스로 自性을 닦아서 스스로 佛道를 이

루는 者요 隨相門定慧를 닦는 者는 이는 이 깨닫지 못한 前에 漸門劣機의 對治하는

功을 써서 마음 마음이 惑을 끊어서 靜을 取하여 行을 하는 者니 이 두門의 行하는

바가 頓과 漸이 各各 달라서 可히 紊亂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깨달은 뒤 닦는 門가운

데에 兼하여 隨相門가운데 對治를 論한 것은 온전히 漸機의 行할바를 取함이 아니라

그方便을 取하여 길을 발리고 宿泊을 依托할 따름이니 어진 까닭이노니 頓門에도 또

한 機가 勝한 者도 있으며 또한 機가 劣한 者도 있어서 可히 一例로 그 行李를 判斷하

지 못함이니 만일 煩惱가 淡薄하고 몸과 마음이 輕安하여 善에 善을 여의고 惡에 惡을

여의어서 八風(利衰毀譽成敗苦樂)에 動치 않고 三受(捨受)가 寂然한 者는 自性定慧를 의지하
 여 뜻쫓아 雙으로 닦아서 天真해 造作이 없어서 動과 靜이 항상 禪이라 自然의 理를 成
 就하거니 어찌 隨相門 對治의 義를 假借하리오 病이 없으매 藥을 求하지 藥을 것이요
 비록 먼저 물록 깨달았으나 煩惱가 濃厚하고 習氣가 堅重하여 境界를 對하매 念念이 情
 이 나고 緣을 만나매 마음 마음이 對를 지어서 저 昏沉과 散亂의 부리킴을 입어서 寂
 과 知가 항상 그러함을 昧却하는 者는 곧 隨相門 定慧를 假借하여 對治를 잊지 말고 昏
 沈과 散亂을 均調하여 써 無爲에 들이 곧 그 마땅함이니 비록 對治功夫를 假借하여 잠
 간 習氣를 고루나 써 먼저 心性이 本來 깨끗하고 煩惱가 本來 空함을 물록 깨달은 故
 로 곧 漸門劣機의 汚染으로 닦는데 떨어지지 染음이니 어점인고 닦음이 깨닫기 前에
 있는즉 비록 功夫를 써 잊지 아니하여 念念이 熏修하나 着着(處)에 의심이 나서 能히
 걸림이 없지 못함이 한 物件이 가슴 가운데 걸려 있음과 같아서 편안치 못한 相이 항상
 나타나 앞에 있다가 날이 오래고 달이 길어서 對治하는 功이 익은즉 몸과 마음의 客塵
 이 마치 輕安한것 같으리니 비록 다시 輕安하나 의심 뿌리가 끊어지지 못함이 돌로
 풀을 누름과 같아서 오히려 生死境界에 自在함을 얻지 못하나니 故로 이르되 닦음이
 깨닫기 前에 있음이 참 닦음이 아니라 하노라

悟人分上

에는

雖有對治方便

이나

念念無疑

하야

不落汚染

하야

日久月深

하면

自然契合天真妙性_{하야} 任運寂知_{하야} 念念攀緣一切境_{호대} 心心永斷諸
煩惱_{하야} 不離自性_{하고} 定慧等持_{하야} 成就無上菩提_{하야} 與前機勝者_로 更
無差別_{니 하리} 則隨相門定慧 雖是漸機所行_{이나} 於悟人分上_{에는} 可謂點
鐵成金_{이라} 若知如是則豈以二門定慧_로 有先後次第二見之疑乎_아
願諸修道之人_은 研味此語_{하야} 更莫狐疑_{하야} 自生退屈_{다아} 若具丈夫之
志_{하야} 求無上菩提者_{한대} 捨此奚以哉_{리오} 切莫執文_{하고} 直須了義_{하야} 一一
歸就自己_{하야} 契合本宗_{하면} 則無師之智 自然現前_{하고} 天真之理 了
然不昧_{하야} 成就慧身_{호대} 不由他悟_{니 하리} 而此妙旨 雖是諸人分上_{이나} 若
非夙植般若種智_{한대} 大乘根器者_면 不能一念而生正信_{니 하리} 豈徒不信
亦乃謗讟_{오리 하야} 返招無間者 比比有之_{라 하니} 雖不信受_나 一經於耳_{하야}
暫時結緣_{하면} 其功厥德_을 不可稱量_{이니} 如唯心訣_에 云_{대 하사} 聞而不信_{도이라}
尙結佛種之因_{이요} 學而不成_{도이라} 猶蓋人天之福_{시니 하} 不失成佛之正因
況聞而信_{하고} 學而成_{하야} 守護不忘者_아 其功德_을 豈能度量_{오리}

깨달은 사람 分上엔 비록 對治하는 方便이 있으나 念念이 의심이 없어서 더럽혀 물드
 는데 떨어지지 아니하여 날이 오래고 달이 길으면 自然히 天真妙性에 契合해서 뜻뜻아
 寂하고 知하여 念念이 一切境界를 반연하되 마음 마음이 기리 모든 煩惱를 끊어서 自
 性을 여의지 않고 定慧를 平等히 가져서 위없는 菩提를 成就하여 前의 根機 勝한 者로
 더불어 다시 差別이 없으리니 곧 隨相門의 定慧가 비록 이 漸機의 行할바나 깨달은
 사람 分上에는 可히 이르되 죄를 點쳐 金을 이룸이라 만일 이 같음을 안즉 어찌 두 門
 의 定慧로써 先後次第二見의 의심을 두랴 願컨대 모든 道 닦는 사람은 이 말을 研究해
 맛드려서 다시 狐疑하여 스스로 退屈을 내지 말지어다 만일 丈夫의 뜻을 갖춰서 위없
 는 菩提를 求하는 者일진댄 이를 버리고 어찌 써하리오 간철히 글을 執하지 말고 바
 로 모름지기 義를 了達해서 날날이 自己에 歸就하여 本宗에 契合하면 곧 無師의 智(根本
 師로 좇아 얻음이 아닌
 故로 이르되 無師智다)가 自然히 앞에 나타나고 天真의 理가 了然해 昧하지 아니하여 慧身을 成
 就하되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지 앎으리니 이 妙한 旨趣가 비록 이 모든 사람 分上이
 나 만일 일찌기 般若種智를 심은 大乘根器가 아니면 能히 한 생각에 正信을 내지 못하
 리니 어찌 한갓 信치 못할 뿐이리오 또한 이에 비방하여 도리어 無間(地獄의 名詞로 二義가 있으나
 一時無間이요 二는 空無間이다)
 을 부르는 者가 比比(잡다
 不鮮)히 있나니라 비록 信해 받지 못하나 한번 귀에 지나서 暫時라
 도 緣을 맺으면 그 功과 그 德을 可히 稱量치 못함이니 저 唯心訣에 이르시되 듣고 信

치 못하더라도 오히려 佛種의 因을 맺고 배워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人天의 福을 덮는다 하시니 成佛할 正因을 잃지 않거든 하물며 들어 信하고 배워 이뤄서 守護해 잇지 않는 者야 그 功德을 어찌 能히 度量하리오

追念過去輪廻之業 不知其幾千劫 墮黑闇入無間 受種種苦

又不知其幾何而欲求佛道 不逢善友 長劫沈淪 冥冥無覺

造諸惡業 時或一思 不覺長吁 其可放緩 再受前殃 又

不知誰復使我 今值人生 爲萬物之靈 不昧修真之路 實謂

盲龜遇木 纖芥投鍼 其爲慶幸 曷勝道哉 我今 若自生退

屈 或生懈怠 而恒常望後 須臾失命 退墮惡趣 受諸苦痛

之時 雖欲願聞一句佛法 信解受持 欲免辛酸 豈可復得乎

及到臨危 悔無所益 願諸修道之人 莫生放逸 莫着貪滯

如救頭然 不忘照顧 無常 迅速 身如朝露 命若西光

今日雖存 明亦難保 切須在意 切須在意

過去輪廻의 業을 따라 생각컨대 알지 못게라 그 몇千劫을 黑闇에 떨어지고 無間에

들어서 갖가지 고통을 받았으며 또 알지 못게라 그 열마나 佛道를 求하고자 하되 善友
 를 만나지 못하고 長劫에 沈淪하여 冥冥히 깨달음이 없어서 모든 惡業을 지었던고 때
 로 或 한번 생각하매 길게 슬퍼함을 깨닫지 못함이로소니 그 可히 放緩하여 다시 前의
 殃禍를 받으랴 또 알지 못게라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제 人生을 만나서 萬物의 靈이
 되어서 眞답는 길을 昧하지 않게 했던고 實로 이르되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났시오 작
 은 芥子를 바늘에 던짐이라 (一) 龜頭木은 人生을 얻기 어렵고 佛法을 만나기 어려움이 마치 大海中 浮龜가 浮木의 孔을 만나 沈淪에 나옴과 같나
 다는 뜻이다 그 慶幸함을 어찌 다 이르리오 내가 이제 만일 스스로 退屈을 내거나 或 懈怠를
 내어서 恒상 뒤를 바라다가 須臾에 命을 잃어서 惡趣에 退墮하면 모든 苦痛을 받을 때
 에 비록 一句 佛法을 들이 信解하고 受持하여 辛酸을免하고자 願한들 어찌 可히 다시
 얻으리오 및 위태한데 臨함에 이르러서는 뒤우쳐도 利益할바가 없음이니 願컨대 모든
 道답는 사람은 放逸을 내지 말며 貧穡에 着하지 말고 머리에 불타를 구원함과 같이 하
 여 비취 돌아봄을 잊지 말지어다 無常이 迅速하여 몸이 아침 이슬과 같고 命이 西쪽 빛
 과 같은지라 今日에 비록 있으나 明日에 또한 安保하기 어려움이니 간절히 모름지기
 뜻에 두며 간절히 모름지기 뜻에 들지어다

且憑世間有爲之善 도하야 亦可免三途苦輪 하야 於天上人間 得殊勝果
 報 하야 受諸快樂 도하야 況此最上乘甚深法門 은 暫時生信 도하야 所成功德 을

不可以比喻로說其少分이니如經에云대하사若人이以三千大千世界七

寶로布施供養爾所世界衆生하야皆得充滿하미又教化爾所世界一切

衆生하야令得四果하면其功德이無量無邊이나不如一食頃에正思此法

所獲功德시니하是知我此法門이最尊最貴하야於諸功德에比况不

及다故經에云대하사一念淨心이是道場이라勝造恒沙七寶塔다寶塔

畢은竟碎爲塵니와一念淨心은成正覺시니하願諸修道之人은研味此

語하야切須在意이다此身을不向今生度하면更待何生度此身고今若不

修하면萬劫差違요今若強修하면難修之行이漸得不難하야功行이自進

嗟夫라今時人이飢逢王饍호대不知下口하고病遇醫王호대不知服藥

不曰如之何如之何者는吾末如之何也已矣도라

또世間에 有爲의 善을 依憑하여도 또한 可히 三途의 苦輪을 免하여 天上과 人間에 殊

勝한 果報를 얻어서 모든 快樂을 받거든 하물며 이 最上乘 甚히 깊은 法門은 暫時에 信

을 내더라도 이를바 功德을 可히 比喻로써 그 少分도 說하지 못함이니 저 經에 이르시

되 만일 사람이 三千大千世界七寶(金銀琉璃瑪瑙)로써 저곳 世界衆生에게 布施하고 供養

하여 다 充滿함을 얻으며 또 저 곳 世界 一切衆生을 教化하여 하여금 四果(須陀洹(入流) 阿羅漢(無學) 阿那含(三住) 阿羅漢)를 얻게 하면 그 功德이 限量없고 邊際가 없으나 한번 밤먹을 동안

에 이 法을 바로 생각하여 얻은바 功德만 갈지 못하다 하시니 이 알라 나의 이 法門이

가장 높고 가장 貴하여 모든 功德에 比況으로 미치지 못하다故로 經에 이르시되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이 道場이라 恒沙의 七寶塔을 造成하는것 보다 勝하다寶塔은

畢竟에 부서져 먼지가 되려니와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正覺을 이룬다 하시니 願컨대

모든 道 닦는 사람은 이 말을 研究해 맛드려서 간절히 모름지기 뜻에 들지어다 이 몸을

今生을 向하여 濟度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生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고 이제 만일

닭지 않으면 萬劫에 어차나 등질것이요 이제 만일 強作히 닭으면 닭기 어려운 行이 점

점 어렵지 않음을 얻어서 功行이 스스로 나아가리라 슬프다 今時에 사람이 주려 王의

차반(車)을 만나되 입을 내릴줄 알지 못하고 病들어 醫王을 만나되 藥을 먹을줄 알지

못하니 어찌할고 어찌할고 이르지 않는 者는 나도 어찌할수 없을 따름이로라

且世間有爲之事 其狀 可見 其功 可驗 人得一事 歎其

希有 我此心宗 無形可觀 無狀可見 言語道 斷 心行處

滅故 天魔外道 毀謗無門 釋梵諸天 稱讚不及 況凡夫

心訣

淺識之流¹ 其能髣髴^{오이리}悲夫^라 井蛙¹ 焉知滄海之闊^이 野干^이 何
 能師子之吼^{라오} 故知末法世中^에 聞此法門^{하고} 生希有想^{하야} 信解受持
 者^는 已於無量劫中^에 承事諸聖^{하야} 植諸善根^{하야} 深結般若正因^한 最
 上根性也^{로다} 故^로 金剛經^에 云^{대하사} 於此章句^에 能生信心者^는 當知是
 人^은 已於無量佛所^에 種諸善根^{시고라하} 又云^{대하사} 爲發大乘者說^이 爲發
 最上乘者說^{시니} 願諸求道之人^은 莫生怯弱^{하고} 須發勇猛之心^{이니} 宿
 劫善因^을 未可知也^{니라} 若不信殊勝^{하고} 甘爲下劣^{하야} 生艱阻之想^{하야} 今
 不修之則縱有宿世善根^{이나} 今斷之故^로 彌在其難^{하야} 展轉遠矣^{이니} 今
 既到寶所^라 不可空手而還^{이니} 一失人身^{하면} 萬劫難復^{이니} 請須慎之^{이다}
 豈有智者¹ 知其寶所^{하고} 反不求之^{하야} 長怨孤貧^{오이리} 若欲獲寶^고 放下
 皮囊^{라니}

또世間の 하염이 있는 일은 그 狀을 可히 보며 그 功을 可히 징험할새 사람이 한 일
 만 얻으면 그 希有함을 讚歎하거나와 나의 이 心宗은 形 可히 볼수 없으며 狀 可히 볼
 수 없어서 言語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行하는 곳이 滅한故로 天魔와 外道가 毀謗할래

야 門이 없고 釋(釋天)과 梵(梵天)의 모든 天이 稱讚할 때야 미치지 못하거든 하물며 凡

夫淺識의 流가 그 能히 髣髴(비슷하다는義로)하리오 슬프다 우물 개구리가 어찌 滄海의 넓

을을 알며 여우가 어찌 能히 獅子의 소리를 하리오 故로 알라 末法世가 法에 이 法

門을 듣고 希有한 생각을 내어서 信解하고 受持하는 者는 이미 限量없는 劫가운데에

모든 聖人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善根을 심어 깊이 般若의 正因을 맺은 最上의 根性이

로다 故로 金剛經에 이르시되 이 章句에 能히 信心을 내는 者는 마땅히 알라 이 사람

은 이미 限量없는 부처님 곳에 모든 善根을 심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大乘 發한 者

를 爲하여 說하며 最上乘 發한 者를 爲하여 說한다 하시니 願컨대 모든 道求하는 사

람은 怯弱을 내지 말고 모름지기 勇猛한 마음을 發할지니 宿劫의 善因을 可히 알지 못

함이니라 만일 殊勝함을 信치 않고 下劣됨을 달게 여겨서 艱阻한 생각을 내어 이제 닦

지 않은즉 비록 宿世의 善根이 있으나 이제 끊는 故로 더욱 그 어려운데 있어서 展轉

히 멀어지리니 이제 이미 寶所에 이른지라 可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한번 사

람의 몸을 잃으면 萬劫에도 회복하기 어려움이니 請컨대 모름지기 삼가할지어다 어찌

智者가 있어 그 寶所를 알고 도리어 求하지 아니하여 가리 孤貧을 원망하리오 만일 보

배를 인고자 할진댄 가족 주머니를 놓아 내릴지니라 (皮囊은 色身을 가리키니 莊生의 至人) 無已라는 말도 이것을 意味한 것이다

修心訣 終

眞心直說自序

眞心直說의 自序

或^이曰祖師妙道^를 可得知乎^{이까} 曰古不云乎^아 道^는 不屬知^{하며} 不屬

不知^{하니} 知是妄想^{이요} 不知^는 是無記^라 若眞達不疑之地^는 猶如太虛

寬廓^{니이} 豈可強生是非耶^{리오} 或^이曰然則諸祖出世¹ 無益群生耶^{이까}

曰佛祖出頭^에 無法與人^{이요} 只要衆生^{으로} 自見本性^{이니} 華嚴^에 云^{대하사} 知

一切法^이 卽心自性^{하면} 成就慧身^{호대} 不由他悟^{시타하} 是故^로 佛祖¹ 不令人

泥着文字^{으로} 只要休歇^{하고} 見自本心^{시케하} 所以^로 德山^은 入門便棒^{고하사}

臨濟^는 入門便喝^{하시} 已是探頭太過^{이니} 何更立言語哉^{리오} 或^이曰昔^에

聞^{호니} 馬鳴^이 造起信^{고하시} 六祖¹ 演壇經^{고하시} 黃梅¹ 傳般若^{하시} 皆是漸次

爲人^{이니} 豈獨無方便於法^이 可乎^{이까} 曰妙高峰上^에 從來^로 不許商量

第二峰頭^에 諸祖¹ 略容話會^{하시} 或^이曰敢祈^{하시} 第二峰頭^에 略垂

方便耶 이까

曰然哉 라

是言也 여

奈何大道

玄曠 하야

非有非無 여

眞心

幽微 하야

絕思絕議 라오

故 로

不得其門而入者 는

雖檢五千之藏教 라도

不以爲多 와어니

洞曉眞心者 는

但出一言之擬比 라도

早是剩法矣 나다

今不

惜眉毛 하고

謹書數章 하야

發明眞心 하야

以爲入道之基漸也 로라

是爲序 라하노

或이 이르되

祖師의 妙한 道를 可히 얻어 알리이까 이르시되 옛적에 이르지 안했느냐

道는 삶에 屬하지 않으며 알지 못함에도 屬하지 않으니 아는것은이 妄想이요 알지 못

함은이 無記라 만일 참으로 達하여 의심치 않는 땅은 마치 太虛의 寬廓함과 같거니

어찌 可히 強作히是非를 내리오 或이 이르되 그러한즉 諸祖의 世上에 나심이 群生에

게 利益이 없나이까 이르시되 佛祖가 머리를 내시매 法을 사람에게 줌이 없고 다만 중

요로이 衆生으로 스스로 本性을 보게 함이니 華嚴에 이르시되 一切法이 곧 마음 自性

인줄 알면 慧身을 成就하되 다른이를 말미암아 깨닫지 않는다 하시니 이런 故로 佛祖

가 사람으로 하여금 文字에 빠져 着하지 않고 다만 宗요로이 쉬고 쉬어서 自己本心을

보게 하시니 쓴바로 德山은 門에 들때 문득 棒하시고 臨濟는 門에 들때 문득 喝하시니

이미이 머리를 더듬음이 너무 지내침이 어니 어찌 다시 말을 세우리오 或이 이르되 옛

적에 들으니 馬鳴이 起信을 지으시고 六祖가 壇經을 演說하시고 黃梅가 般若를 傳하시

니 다이 漸次로 사람을 爲함이시니 어찌 홀로 法에 方便이 없음이 옳으리이까 이르

시되 妙高峰위에 從來로 商量(思)을 許諾지 않으나 第二峰頭에 諸祖가 簡略히 말로 알
 을 容納하시니라 或이 이르되 敢히 비노니 第二峰頭에 簡略히 方便을 드리우겠음니까
 이르시되 그렇다 이 말이여 大道가 玄玄하고 비어서 有도 아니요 無도 아니며 眞心이
 깊고 微妙하여 생각도 끊어지고 議論도 끊어진 데 어찌 하리오 故로 그 門을 연어 들지
 못하는 者는 비록 五千의 藏教(從教로 말하면 八萬四千藏經이요 部帙로 말하면 五千藏教가 된다)를 檢閱하더라도 少 많음이 되지
 않거니와 眞心을 크게 깨달은 者는 다만 한 말의 擬比(擬議比度이니 생각으로 헤아린다는意)를 내더라도 벌써 이
 法이니라 이제 眉毛를 아끼지 않고 (古인이 한 부로 說法하다가 眉毛가 脫落한果 根을 받은 일이 有한故로 이에 말한 것이다) 삼가 두어 章을 써서 眞
 心을 發明하여 써 道에 드는 基漸(基漸漸次)을 삼게 하노라 이에 序 하노라

眞心直說

眞心正信

眞心の 바른 信

○華嚴 에云 대하사信爲道源功德母 라長養一切諸善根 지이라하又唯識 에

云 대하사信如水晶珠 하야能清濁水故 시라하是知萬善發生 이信爲前導 로다故

로佛經 에首立如是我聞 은生信之所謂也 니라

○華嚴에 이르시되 信이 道의 根源과 功德의 母가 되는지라 一切 모든 善根을 長養한 다 하시고 또 唯識에 이르시되 信이 水晶珠와 같아서 能히 濁水를 맑히는 연고라 하시 니 이 알라 萬善의 發生함이 信이 前導가 되도다 故로 佛經에 如是我聞이라 머리에 세 움은 信을 내게 함을 이룬바니라

△或 이曰祖門之信 이與教門信 으로有何異耶 이까

△或이 이르되 祖門의 信이 教門의 信으로 더불어 무엇 다름이 있나이까

△曰多種不同 하네教門 에는令人天 으로信於因果 니有愛福樂者 는信十

善^{으로} 爲妙因^{하고} 人天^{으로} 爲樂果^{하며} 有樂空寂者^는 信生滅因緣^{으로} 爲正

因^{하고} 苦集滅道^로 爲聖果^{하며} 有樂佛果者^는 信三劫六度^로 爲大因^{하고}

菩提涅槃^{으로} 爲正果^{와이니} 祖門正信^은 非同前也^니 不信一切有爲因果

只要信自己^{하고} 本來是佛^{이라} 天真自性^이 人人具足^{하고} 涅槃妙體^이

箇箇圓成^{하야} 不假他求^요 從來自備^니 三祖^이 云^{대하사} 圓同太虛^{하야} 無欠

無餘^{어늘} 良由取捨^{근세} 所以不如^{시고} 誌公^이 云^{대하사} 有相身中^에 無相身^{이요}

無明路上^에 無生路^{시고하} 永嘉^이 云^{대하사} 無明實性^이 即佛性^{이요} 幻化空身^이

即法身^{시이라하} 故知衆生^이 本來是佛^{이로} 旣生正信^{인면} 須要解滋^니 永明

云^{대하사} 信而不解^{하면} 增長無明^{이요} 解而不信^{하면} 增長邪見^{시이라하} 故知信

解相兼^{하야} 得入道疾^{라이니}

△이르시되 多種으로 같지 않으니 敎門에는 人天으로 하여금 因果를 信케 함이니 福樂

을 사랑함이 있는 者는 十善^{(身三(殺盜淫)口四(綺語妄語兩舌惡口)意三(貪瞋癡)의十善을취치면十善이되나니放生과施食과梵行과實語와直語와軟語와和合語와不淫瞋과淸淨觀과因緣觀이이것이다)}으로 妙

因을 삼고 人天으로 樂果삼음을 信하며 空寂을 즐겨함이 있는 者는 生滅因緣으로 正因을 삼고 苦集滅道^{(苦는怖畏과憂集(妄想)을苦고寂滅(樂을希求하여道를달는四聖諦法이다))}로 聖果삼음을 信하며 佛果를 즐겨함이 있는 者

는 三劫의 六度로 大因을 삼고 菩提와 涅槃으로 正果삼음을 信하거니와 祖門의 正信은 前과 같지 않음이니 一切有爲의 因果를 信치 않고 다만 宗요로이 自己가 本來이 佛이라 天眞한 自性이 사람 사람이 具足하고 涅槃의 妙體가 날날이 圓成하여 他에게 求함을 假借하지 않고 從來에 스스로 갖출 信함이니 三祖(大師)가 이르시되 두렷함이 太虛와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眞실로 取捨를 말미암을새 쓴바로 如如하지 못하다 하시고 誌公이 이르시되 相이 있는 몸가운데에 相이 없는 몸이요 無明의 緣위에 無生의 緣이라 하시고 永嘉가 이르시되 無明의 實性(眞은眞實의實字요眞實의實字가아니니無明妄想의緣으로 좃쳐幻起하여本來없으되있는듯한故로이르되實性이라)이 곧 佛性이요 幻化의 空身이 곧 法身이라 하시니 故로 알라 衆生이 本來이 佛이로다 이미 正信을 내었을진댄 모름지기 宗요로이 解를 더할지니 永明이 이르시되 信하고 解하지 않으면 無明을 增長하고 解하고 信하지 않으면 邪見을 增長한다 하시니 故로 알라 信과 解가 서로 兼하여야 道에 들이 빠름을 얻나니라

△或^이曰初發信心

^{하야}

未能入道

^{라도}

有利益否

^{이까}

△或이 이르되 처음 信心을 發하여 能히 道에 들지 못하더라도 利益이 있나이까 없나
이까

△曰起信論

^에

云

^{대하사}

若人

^이

聞是法已

^{하고}

不生劫弱

^{하면}

當知是人

^은

定

紹佛種^{하야} 必爲諸佛之所授記^다 假使有人^이 能化三千大千世界滿
 中衆生^{하야} 令行十善^{도이} 不如有人^이 於一食頃^에 正思此法^{하야} 過前功
 德^{하야} 不可爲喻^{시교하} 又般若經^에 云^{대하} 乃至一念生淨信者^는 如來¹ 悉
 知悉見^{하노} 是諸衆生^이 得如是無量福德^{니시라하} 是知欲行千里^{1년} 初步^를
 要正^{이니} 初步^를 若錯^{하면} 千里俱錯^{이라} 入無爲國^{인면} 初信^을 要正^{이니} 初
 信^을 既失^{하면} 萬善^이 俱退^라 故^로 祖師¹ 云^{대하} 毫釐有差^{하면} 天地懸隔
 是^이 此理也^{니라}

△이르사되 起信論에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이 법을 들어 마치고 初弱을 내지 않으면 마
 땅히 알라 이 사람은 決定코 佛種을 이어서 받드시 諸佛의 授記하는 바가 될지니 假使
 사람이 있어 能히 三千大千世界 가운데 가득한 衆生을 教化하여 하여금 十善을 行하게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 한번 밥먹을 동안에 바로 이 법을 생각하는 것만 같지 못하여 前
 功德에 지나서 可히 비유하지 못한다 하시고 또 般若經에 이르시되 乃至 一念에 깨닫
 한 信을 내는 者는 如來가 다 알며 다 보노니 이 모든 衆生이 이같은 限量없는 福德을
 얻는다 하시니 이 알라 千里를 行하고자 할진댄 처음 걸음을 중요로이 바르게 할지니
 처음 걸음을 만일 그릇하면 千里가 다 그르치는지라 無爲國에 入하려 할진댄 처음 信

을 종요로 이바르게 할지니 처음信을 이미 잃으면 萬가지 善이 다 물러가는지라 故로 祖師가 이르시되 터럭끝만치 어긋난이 있으면 天地가 멀리 隔한다 하시니 이것이 이理致니라

眞心異名

眞心の 다른 이름

○或^이曰^이已生正信^{니이와이}未知^{케라}何名眞心^{잇고}

○或^이이르되 이미 正信을 내었거니와 알지 못게라 어떤것이 이름이 眞心이니잇고

△曰離妄名眞^{이요}靈鑑曰心^{이니}楞嚴經中^에發明此心^{라하니}

△이르시되 妄을 여음이 이름이 眞이요 神靈히 거울함을 이르되 마음이니 楞嚴經가운

데에 이 마음을 發明하나라

△或^이曰但名眞心^가別有異號耶^{이까}

△或^이이르되 다만 眞心이라 이름하니까 別로 다른 號가 있나이까

△曰佛教祖教^에立名^이不同^{하니}且佛教者^는菩薩戒^에呼爲心地^{하니}

發生萬善故^요般若經^에喚作菩提^{하니}與覺爲體故^요華嚴經^에立爲

法界^{하니} 交徹融攝故^요 金剛經^에 號爲如來^{하니} 無所從來故^요 般若經

呼爲涅槃^{하니} 衆聖所歸故^요 金光明^에 號曰如如^{하니} 眞常不變故^요

淨名經^에 號曰法身^{하니} 報化依止故^요 起信論^에 名曰眞如^{하니} 不生不

滅故^요 涅槃經^에 呼爲佛性^{하니} 三身本體故^요 圓覺中^에 名曰總持^{하니}

流出功德故^요 勝鬘經^에 號曰如來藏^{하니} 隱覆含攝故^요 了義經^에 名

爲圓覺^{하니} 破暗獨照故^라 由是^로 壽禪師唯心訣^에 云^{대하사} 一法千名^이

應緣立號^{라하} 備在衆經^{하야} 不能具引^{다이로}

△이르시되 佛敎와 祖敎에 이름은 세움이 같지 않으니 또 佛敎는 菩薩戒에 불려 心地

라 하니 萬善을 發生하는 연고요 般若經에 菩提^(보제)라 불려 지으니 覺으로 더불어

體가 되는 연고요 華嚴經에 세위 法界라 하니 사귀어 사무치고 融通해 攝하는 연고요

金剛經에 號하여 如來라 하니 좃아온바가 없는 연고요 般若經에 불려 涅槃이라 하니

衆聖의 돌아가는바인 연고요 金光明^(經)에 號하여 如如라 이르니 참되고 땃땃하여 變치

않는 연고요 淨名經에 號하여 法身이라 이르니 報化가 依止하는 연고요 起信論에 이름

身(法身 報身 化身 이니 法身은 報身은 智 化身은 用이다)의 本体인 연고요 圓覺가운데에 이름해 總持라 이르니 功德을 流出하는 연고요 勝鬘經에 號하여 如來藏이라 이르니 隱覆하고 含攝하는 연고요 了義經에 이름해 圓覺이라 하니 어둠을 破하여 홀로 비치는 연고라 이로 말미암아 壽禪師의 唯心訣에 이르시되 한 法의 千이름이 緣을 應하여 號를 세웠다 하시니 못 經에 갖추 있어 서 能히 갖추 引証하지 못하겠도다

△或 이 曰 佛教 已知 祖教 何如 하니 잇고

△或 이 이르되 佛教는 이미 알았거니와 祖教는 어떠하니 잇고

△曰 祖師門下 杜絕名言 一名不立 하니 何更多名 마는 應感隨機

其名 하야 亦衆 하니 有時 에 呼爲自己 하니 衆生本性故 하야 有時 에 名爲正

眼 하니 鑑諸有相故 하야 有時 에 號曰妙心 하니 虛靈寂照故 하야 有時 에 名曰

主人翁 하니 從來荷負故 하야 有時 에 呼爲無底鉢 하니 隨處生涯故 하야 有時

喚作沒絃琴 하니 韻出今時故 하야 有時 에 號曰無盡燈 하니 照破迷情故

有時 에 名曰無根樹 하니 根蒂堅牢故 하야 有時 에 呼爲吹毛劍 하니 截斷

塵根故 하야 有時 에 喚作無爲國 하니 海晏河清故 하야 有時 에 號曰牟尼珠

^{하니}濟益貧窮故 ^요有時 名曰無鑄鎖 ^{하니}關閉六情故 ^며乃至名泥牛

木馬心源心印心鏡心月心珠 ^{야타하}種種異名 ^을不可具錄 ^{이니}若達眞心

^{하면}諸名 ^을盡曉 ^요昧此眞心 ^{하면}諸名 ^에皆滯 ^니故於眞心 ^에切宜子細 ^{나타}

△이르시되 祖師門下에 이름과 말이 杜絶한지라 한 이름도 세우지 안했거니 어찌 다시

많은 이름이리오마는 感에 應하고 機를 따라서 그 이름이 또한 많으니 有時에 불려 自

己라 하니 衆生의 本性인 연고요 有時에 이름해 正眼이라 하니 모든 有相을 거울하는

연고요 有時에 號하여 妙心이라 이르니 비어 靈하고 고요히 비치는 연고요 有時에 이

름해 主人翁이라 이르니 從來로 荷負한 연고요 有時에 불려 無底鉢 ^(보울)이라 하니 곳

을 따라 生涯하는 연고요 有時에 沒絃琴 ^(줄없는 거문고)이라 불려 지으니 今時 ^(分別)를 韻달아

내는 연고요 有時에 號하여 無盡燈이라 이르니 迷情을 비취 破하는 연고요 有時에 이

름해 無根樹라 이르니 뿌리와 꼭지가 굳은 연고요 有時에 불려 吹毛劍 ^(칼날위에毛불가자검)이

라 하니 塵根을 끊는 연고요 有時에 無爲國이라 불려 지으니 바다가 편안하고 河水가

맑은 연고요 有時에 號하여 牟尼珠 ^(寶珠)이라 이르니 貧窮을 救濟해 利益케 하는 연고요 有

時에 이름해 無鑄鎖 ^(안개이연)라 이르니 六情을 막아 닫는 연고며 乃至 泥牛와 木馬와 心

源과 心印과 心鏡과 心月과 心珠라 이름하여 갖가지 다른 이름을 可히 갖추 기록하지

못함이니 만일 眞心을 達하면 모든 이름을 다 알것이요 이 眞心을 昧하면 모든 이름에 다 막힐지니 故로 眞心에 간절히 마땅히 仔細히 할지니라

眞心妙體

眞心の 妙한 體

○或^이曰眞心^은 已知名字^{와어니} 其體^는 如何耶^{이까}

○或이 이르되 眞心은 이미 名字를 알았거니와 그 體는 어찌하니이까

△曰放光般若經^에 云^{대하사} 般若^는 無所有相^{하야} 無生滅相^{이라하} 起信論

云^{대하사} 眞如自體者^는 一切凡夫聲聞緣覺菩薩諸佛^이 無有增減^{하야}

非前際生^{이며} 非後際滅^{이라} 畢竟常恒^{하야} 從本已來^로 性自滿足一切功

德^{이라하} 據此經論^{천대} 眞心本體^는 超出因果^{하고} 通貫古今^{하야} 不立凡聖

無諸對待^{호미} 如太虛空^이 徧一切處^{하야} 妙體凝寂^{하야} 絕諸戲論^{하야} 不

生不滅^{하미} 非有非無^며 不動不搖^{하야} 湛然常住^{근세} 喚作舊日主人翁^{이며}

名曰威音那畔人^{이며} 又名空劫前自己^라 一種平懷^{하야} 無纖毫瑕翳^{하야}

一切山河大地와 草木叢林과 萬象森羅와 染淨諸法이 皆從中出이라

故로 圓覺經에 云대하사 善男子아 無上法王이 有大陀羅尼門하니 名爲圓

覺이라 流出一切清淨한 眞如와 菩提와 涅槃과 及波羅蜜의 教授菩薩

主峰이 云대하사 心也者는 冲虛妙粹하고 炳煥靈明하야 無去無來로대 冥

通三際하고 非中非外로대 洞徹十方다 不滅不生니이 豈四山之可害며 離

性離相니이 奚五色之能盲시니라하

△이르시되 放光般若經에 이르시되 般若는 相이 있는바가 없어서 生滅의 相이 없다 하

시고 起信論에 이르시되 眞如自体란 것은 一切凡夫와 聲聞과 緣覺과 菩薩과 諸佛이 더

하고 滅함이 있음이 없어서 前際가 남도 아니며 後際가 滅함도 아니라 畢竟에 常恒하

여 根本 좃아 이미 음으로 性이 스스로 一切功德이 滿足하다 하시니 이 經論을 의거하

건대 眞心の 本体는 因果에 超出하고 古今을 通貫해서 凡과 聖을 세우지 아니하여 모

든 對待가 없음이 太虛空이 一切處에 두루함과 같아서 妙體가 凝寂하여 모든 戲論이

끊어져서 나지도 않고 滅하지도 않으며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며 動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아니하여 湛然히 항상 住할새 옛날 主人翁이라 불러 지으며 이름해 이르되

威音那畔(威音威義음은音聲이며那畔은彼岸이니色聲香味觸前五塵을 관할이다 또 威音王佛은最初佛의名號니威音那畔은古佛永生則四目이라는意도된다) 사람이며 또 이름이 空劫前自己라

한가지로 생각이 평하여 가는 터럭만한 티 가리움이 없어서 一切山河大地와草木叢林과萬象森羅와染과淨의 모든法이다 가운데로 좇아 나는지라 故로 圓覺經에 이르시되 善男子야 위없는 法王이 大陀羅尼(總持)門이 있으니 이름이 圓覺이 되는지라 一切淸淨한 眞如와 菩提와 涅槃과 및 波羅蜜을 流出하여 菩薩을 가르쳐 준다 하시고圭峰이 이르시되 마음이란 것은 冲하며 虛하며 妙하며 粹하고 炳하며 煥하며 靈하며 明하여 감도 없고 음도 없으니 가만히 三際에 通하고 中도 아니요 外도 아니로되 圓覺히十方에 사무쳤도다 滅하지도 않고 나지도 않거니 어찌 四山(我相·人相·壽者相·衆生相)이 可히 害하며 性도 여의고 相도 여의었거니 어찌 五色이 能히 눈멀리리오 하시니라

故 永明唯心訣

에云대하사

夫此心者

는

衆妙群靈而普會

하야

爲萬法之

王_{이요}

三乘五性而冥歸

하야

作千聖之母

로다

獨尊獨貴

하며

無比無儔

하니

實

大道源

이며

是眞法要

시니하

信之則三世菩薩同學

이

蓋學此心也

요

三世諸

佛同證

이

蓋證此心也

요

一大藏教詮顯

이

蓋顯此心也

요

一切衆生迷妄

蓋迷此心也

이

一切行人發悟

이

蓋悟此心也

요

一切諸祖相傳

이

蓋

傳此心也

요

天下衲僧叅訪

이

蓋叅此心也

니

達此心則頭頭皆是

이

物物全彰

이요

迷此心則處處顛倒

하네

念念痴狂

이니

此體

는

是一切衆生

本有之佛性

이며

乃一切世界生發之根源

이라

故

로

世尊

이

鷲峰

에

久

고

善現

이

巖下

에

忘言

고

達摩

少室

壁觀

고

居士

毗耶

에

杜口

니

悉皆發明此心妙體

라

故

로

初入祖門庭者

는

要先識此心體也

니

故로 永明의 唯心訣에 이르시되 대저 이 마음은 衆妙와 群靈이 널리 모여서 萬法의 王

이 되고 三乘과 五性(三乘根性에 不定性과 關提(無善根)性을 加한)이 가만히 돌아가서 千聖의 母를 짓도다 홀로 높고

홀로 貴하며 比할데 없고 짝이 없으니 實로 大道의 根源이며 이 참 法要라 하시니 信

한즉 三世菩薩의 한가지 배우심이 대개 이 마음을 배우심이요 三世諸佛의 한가지 証하

심이 대개 이 마음을 証하심이요 一大藏敎의 말씀해 나타내심이 대개 이 마음을 나타

내심이요 一切衆生의 迷妄이 대개 이 마음을 迷함이요 一切行人의 發悟가 대개 이 마음

을 깨달음이요 一切諸祖의 서로 傳하심이 대개 이 마음을 傳하심이요 天下衲僧의 叅訪

이 대개 이 마음을 叅함이니 이 마음을 達한즉 머리 머리가 다 이것이며 物物物件에

온전히 드러나고 이 마음을 迷한즉 곳곳에 얽여 저구러지며 생각 생각이 어리석어

미침이니 이體는 이 一切衆生의 本來있는 佛性이며 이에 一切世界의 生發하는 根源이

라 故로 世尊이 鷲峰(山巖)에 良久(沈黙)하시고 善現(須臾)이 岩下에 말을 잊으시고 (他室)達摩

가少室(少林)에壁觀(面心)하시고居士(維摩)가毘耶(名)에 입을 막으시니(言)다 이 마음의
妙한體를發明하신지라故로 처음祖門庭에 드는 者는 宗으로이 면저 이 마음體를
알지니라

眞心妙用

眞心の 妙한 用

○或^이曰妙體

^는己知

^{와어니}何名妙用耶

^{이까}

○或^이 이르되 妙體^는 이미 알았거니와 어떤것이 이름이 妙用이니이까

△曰古人

^이云^{대하사}

風動心搖樹

^요

雲生性起塵

^{이라}

若明今日事

^{하면}

昧却

本來人

^{이라하}

乃妙體起用也

^라

眞心妙體

^는

本來不動

^{하야}

安靜眞常

眞常體上

^에

妙用

^이

現前

^{하야}

不妨隨流得妙

^니

故

^로

祖師頌

^에

云^{대하사} 妙心

隨萬境轉

^{하니}

轉處

^에

實能幽

^라

隨流認得性

^{하면}

無喜亦無憂

^{시니}

故

^로

一

切時中

^에

動用施爲

^{하며}

東行西往

^{하며}

喫飯着衣

^{하며}

拈匙弄筯

^{하며}

左顧右

盼 皆是眞心妙用

^이

現前

^{하야}

凡夫

^는

迷倒

^{하야}

於着衣時

^에

只作着衣

會^하喫飯時^에 只作喫飯會^하 一切事業^에 但隨相轉^{일세} 所以^로 在日

用而不覺^하 在目前而不知^하 若是識性底人^{일면} 動用施爲^에 不曾昧

却^{이라}放^로祖師^一云^{대하사} 在胎名神^{이요} 處世名人^{이며} 在眼觀照^{하고} 在耳聽

聞^하在鼻嗅香^{하고} 在口談論^하 在手執捉^{하고} 在足運奔^하 徧現^하 俱該

法界^{하고} 收攝^하在一微塵^{하나} 知之者^는 爲是佛性^{하고} 不識者^는 喚作精

魂^{이라하}所以^로道吾^의 舞笏^과 石鞮^의 拈弓^과 秘魔^의 擎杈^와 俱胝^의

豎指^와 忻州^의 打地^와 雲巖^의 師子^一 莫不發明這着大用^하 於日用

不迷^하自然縱橫無礙^{니라}

△이르시되 古人이 이르시되 바람이動하매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구름이 나매 性이 터
글을 일으키는지라 만일 今日^(分別)의 일을 밝히면 本來人을昧却한다 하시니 이에 妙
體가 用을 일으킴이라 眞心の 妙體는 本來動치 아니하여 靜안하고 고요하며 참되고
땃땃하거든 참되고 땃땃한 體위에 妙用이 앞에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妙를 얻음이妨
害롭지 않음이니 故로 祖師頌에 이르시되 마음이 萬境을 따라 轉하니 轉하는 곳에 實
로 能히 깊은지라 흐름을 따라 性을 알아 얻으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 하시

니故로 一切時가운데에 動해 쓰고 베풀어 하며 東으로 行하고 西로 가며 밥을 먹고
 옷을 입으며 술잔을 잡고 첫잔을 회롱하며 左로 돌아보고 右로 흘겨봄이 다 이 眞心의
 妙用이 앞에 나타남이어늘 凡夫는 迷해 거꾸러져서 옷입을 때에 다만 옷입는 알음알이
 를 지으며 밥먹을 때에 다만 밥먹는 알음알이를 지어서 一切事業에 다만 相을 따라 轉
 할새 쓴바로 날로 쓰는데 있으되 깨닫지 못하며 눈 앞에 있으되 알지 못하거나와 만일
 이性を 안 사람일진댄 動해 쓰고 베풀어 함에 일찌기 昧却지 않는지라 故로 祖師가
 이르시되 胎에 있어서는 이름이 神(身主의 此나)이요 世上에 處하여는 이름이 사람이며 눈에 있
 어 觀照하고 귀에 있어 聽聞하며 코에 있어 香을 맡고 입에 있어 談論하며 손에 있어
 執捉하고 발에 있어 運奔하여 두루 나타나서는 法界를 다 싸고 거두어 攝하여는 한 微塵
 에 있나니 아는 者는 이 佛性이라 하고 알지 못하는 者는 精魂이라 불러 짓는다 하시
 니 쓴바로 道吾의 笏을 춤 춤과(笏은手版이니現命에手帕와 같다道吾神前은學人이法을볼을때에笏을들고춤으로써보인것이다) 石鞮의 활을 잡음과(石鞮神前은學人이法을볼을때에笏을들고춤으로써보인것이다) 秘魔의 집
 계를 들과(秘魔和尚은집계를들어法을보였다) 俱胝의 손가락을 세움과(俱胝和尚은學人이問法할때마다손가락을세워法을보였다) 忻州의 땅을 침과(忻州州人이問法할때에師子의동함으로써보인것이다) 發明
 하지 않음이 없어서 日用에 迷하지 아니하여 自然히 縱과 橫에 걸림이 없음이니라

眞心體用一異

眞心體用的 一과 異

○或^이曰眞心體用^이 未審^{케라} 是一^가 是異耶^{이까}

○或^이 이르되 眞心의 體와 用이 알지 못게라 이 하나임니까 이 다름이니이까

△曰約相則非一^{이요} 約性則非異故^로 此體用^이 非一非異^니 何以知

然^고 試爲論之^{라호리} 妙體^는 不動^{하야} 絕諸對待^{하야} 離一切相^{하니} 非達性契

證者^면 莫測其理也^요 妙用^은 隨緣^{하야} 應諸萬類^{하야} 妄立虛相^{하야} 似有

形狀^{하니} 約此有相無相故^로 非一也^요 又用從體發^{이라} 用不離體^{하고} 體

能發用^{이라} 體不離用^{하니} 約此不相離理故^로 非異也^라 如水^이 以濕爲

體^{하야} 體無動故^요 波^이 以動爲相^{하야} 因風起故^니 水性波相^이 動與不

動故^로 非一也^요 然^{이나} 波外無水^{치고} 水外無波^{하야} 濕性^이 是一故^로 非

異也^니 類上體用一異^를 可知矣^{니라}

△이르시되 相을 잡은즉 하나가 아니요 性을 잡은즉 다름이 아닌 故로 이 體와 用이 하나도 아니요 다름도 아니니 어찌 쟁 그러한줄 아시고 시험해 議論하리라 妙體는 움직이지 아니하여 모든 對待가 끊어져서 一切相을 여의었으니 性을 達하여 契証한 眞가 아니면 그 理致를 헤아릴 수 없고 妙用은 緣을 따라서 모든 萬類를 應하여 冥應되니 虛한 相을 세워서 形狀이 있는 것 같으니 이 有相과 無相을 잡은 故로 하나가 아니요 또 用이 體로 좇아 發하는 지라 用이 體를 여의지 않고 體가 用을 發하는 지라 體가 用을 여의지 않으니 이 서로 여의지 않는 理致를 잡은 故로 다름이 아니라 물이 젖음으로써 體가 되어서 體는 動함이 없는 연고요 물결이 動함으로써 相이 되어서 바람을 因하여 일어나는 연고니 水性과 波相이 動하고 다 못 動하지 않는 故로 하나가 아니요 그러나 물결 밖에 물이 없고 물 밖에 물결이 없어서 젖는 性이 이 하나인 故로 다름이 아닌 것과 같음이니 위와 같이 體와 用의 一과 異를 可히 알지니라

眞心在迷

眞心の迷에 있음

○或曰眞心體用

의

人人具有

何爲聖凡

의

不同耶

이까

○或이 이르되 眞心の體와 用이 사람 사람이 갖춰 있거늘 어찌 聖과 凡이 같지 않음

이 되나 이까

△曰眞心

은

聖凡

이

本同

마는

凡夫

는

妄心

認物

하야

失自淨性

하야

爲此所

隔

일세

所以

로

眞心

이

不得現前

하야

但如暗中樹影

과

地下流泉

이

有而

不識耳

라

故

로

經

에

云

대하사

善男子

아

譬如清淨摩尼寶珠

1

映於五色

隨方各現

하야

諸愚痴者

는

見彼摩尼

에

實有五色

나

善男子

아

圓覺

淨性

이

現於身心

하야

隨類各應

는

彼愚痴者

는

說淨圓覺

에

實有如是

身心自性

도

亦復如是

시고하

肇論

에

云

대하사

乾坤之內

와

宇宙之間

에

中有

一寶

하야

秘在形山

시이라하

此乃眞心在纏也

요

又慈恩

이

云

대하사

法身

이

本

有

하야

諸佛

이

共同

마는

凡夫

는

由妄覆

하야

有而不覺

일세

煩惱纏裏

하야

得如

來藏名

시이라하

裴公

이

云

대하사

終日圓覺

호대

而未嘗圓覺者

는

凡夫也

시라하

故

知眞心

이

雖在塵勞

나

不爲塵勞所染

호미

如白玉投泥

에

其色不改也

더라

△이르시되眞心은聖과凡이本來 같건마는凡夫는妄心으로物件을誤認하여自己의

깨끗한 性을 잃어서 이의 隔한바가 될새 곧바로 眞心이 앞에 나타남을 얻지 못하여 다
 만 어둔 가운데 나무 그림자와 땅 밑에 흐르는 샘이 있으되 알지 못함과 같은지라 故로
 經에 이르시되 善男子야 譬컨대 淸淨한 摩尼寶珠가 五色에 비쳐서 方을 따라 各各 나
 타나거든 고든 愚痴한 者는 저 摩尼에 實로 五色이 있는줄 보는 것과 같나니 善男子야
 圓覺의 깨끗한 性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서 類를 따라 各各 應하거든 저 愚痴한 者는
 깨끗한 圓覺에 實로 이같은 身과 心의 自性이 있다 說할도 또한 다시 이같다 하시고
 肇論에 이르시되 乾坤의 안과 宇宙의 사이에 그 가운데 한 보배가 있어 形山(형산)에 숨
 어 있다 하시니 이는 이에 眞心이 纏(凡夫의 係縛)에 있을이요 또 慈恩이 이르시되 法身이 本
 來있어서 諸佛이 한가지 같진마는 凡夫는 妄이 덮음을 말미암아서 있으되 깨닫지 못할
 새 煩惱가 얹어 싸서 如來藏(法身의 藏에 있는 名詞)의 이름을 얻는다 하시고 裴公이 이르시되 終日
 토록 圓覺하되 일찌기 圓覺하지 못하는 者는 凡夫라 하시니 故로 알라 眞心이 비록 塵
 勞에 있으나 塵勞의 물드는바가 되지 않음이 白玉을 진흙에 던지매 그 빛이 變改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眞心息妄

眞心の 妄을 滅

○或^이曰眞心^이在妄^{하면}則是凡夫^니如何得出妄成聖耶^{이까}

○或이 이르되 眞心이 妄에 있으면 곧 이 凡夫니 어떻게 妄에 뛰어나 聖이 됨을 얻으리
이까

△曰古云^{대하사}妄心無處^{대하사} 卽菩提^라 生死涅槃^이 本平等^{이대하} 經^에云

彼之衆生^{대하사} 幻身^이 滅故^로 幻心^도 亦滅^{하고} 幻心^이 滅故^로 幻塵^도

亦滅^{하고} 幻塵^이 滅故^로 幻滅^도 亦滅^{하고} 幻滅^이 滅故^로 非幻^은 不滅^나

譬如磨鏡^에 垢盡明現^{시대하} 永嘉^이 亦云^{대하사} 心是根法是塵^{이여} 兩種^이

猶如鏡上痕^{이라} 痕垢盡時^에 光始現^{이요} 心法雙忘性卽眞^{시대하} 此乃出

妄而成眞也^{니라}

△이르시되 옛적에 이르시되 妄心이 없는 곳이 곧 菩提라 生死와 涅槃이 本來 平等하다
하시며 經에 이르시되 저 衆生이 幻身이 滅한故로 幻心도 또한 滅하고 幻心이 滅한故
로 幻塵도 또한 滅하고 幻塵이 滅한故로 幻滅함도 또한 滅하고 幻滅함이 滅한故로
幻아님은 滅하지 않나니 比컨대 저울을 잴때 때가 다하면 밝음이 나타남과 같다 하시며
永嘉가 또한 이르시되 마음은 이 根이요 法은 이 塵이여 두가지가 마치 저울 위에 놓

跡과 같은지라 痕垢가 다할 때에 光이 비로소 나타나고 心과 法을 雙으로 잇으며 性
이 곧 참되다 하시니 이것이 이에 妄에 뛰어나 眞을 이룸이니라

△或^이曰莊生^이云^{대하사}心者^는其熱^이 爇火^요 其寒^이 凝水^{이요} 其疾^이

俛仰之間^에 再撫四海之外^{하야} 其居也¹ 淵而靜^{하고} 其動也¹ 懸而天

者^는 其惟人心乎^{시니} 此^는 莊生^이 先說凡夫心^을 不可治伏^이 如此

也^나 未審^{케라} 宗門^엔 以何法^{으로} 治妄心也^{고나잇}

△或이 이르되 莊生이 아르시되 마음이란 것은 그 뜨거움이 타는 불이요 그 차거움이
영진 어름이요 그 빠름이 굽으리고 우러르는 사이에 두번 四海밖을 어루만져서 그居
함이 깊어 고요하고 그 動함이 멀어 하늘하는 것은 그 오직 人心인저 하시니 이는 莊
生이 먼저 凡夫의 마음을 可히 다스려 調伏하지 못함이 이같은을 말씀하심이니 알지
못게라 宗門엔 무슨 法으로써 妄心을 다스리나니잇고

△曰以無心法^{으로} 治妄心也^{니라}

△이르시되 無心法으로써 妄心을 다스리나니라

△或^이曰人若無心^{이면} 便同草木^{이니} 無心之說^을 請施方便^{서하소}

△或이 이르되 사람이 만일 마음이 없으면 문득 草木과 같을지니 無心の 말씀을 請컨

대方便을 배푸소서

△曰今云無心 은 非無心體 를 名無心也 라 但心中無物 을 名曰無心

如言空瓶 하야 瓶中無物 을 名曰空瓶 이요 非瓶體無 를 名穴瓶也 라 故

祖師 로 云 대하사 汝但於心 에 無事 하고 於事 에 無心 하면 自然虛而靈寂而

妙 라하 是此心旨也 니라 據此則以無妄心 정인 非無眞心妙用也 니 從來諸

師 의 說做無心功夫 1 類各不同 하니 今總大義 하야 畧明十種 라호리

△이르시되 이제 無心이라 이름은 마음體가 無心이라 이름함이 아니라 다만

마음 가운데 物件이 無음을 이름해 이르되 無心이니 빈 瓶이라 말함과 같아서 瓶가운

데 物件이 無음을 이름해 이르되 빈 瓶이요 瓶體가 無음을 빈 瓶이라 이름함이 아니라

故로 祖師가 이르시되 네가 다만 마음에 일이 없고 일에 마음이 없으면 自然히 虛하여

靈하고 寂하여 妙하다 하시니 이것이 이 心旨니라 이를 의거한즉 妄心이 無음이언

정 眞心の 妙用이 無음이 아니니 從來로 諸師의 無心功夫 지을을 說함이 類가 各各 같

지 않으니 이제 大義를 摠括하여 簡略히 열 가지를 밝히리라

一曰覺察 이니 謂做功夫時 에 平常絕念 하야 隄防念起 호대 一念纔生 하면 便

與覺破 니 妄念破覺 하야 後念不生 하면 此之覺智 도 亦不須用 이니 妄覺俱

忘^을

名曰無心^{이라}

故^로祖師

云^{이라}

不怕念起^{하고}

只恐覺遲^{라하고}

又偈^에

云^{대하사}不用求真^{하고}

唯須息見^{시니}

此是覺察息妄功夫也^라

一은 이르되 覺察이니 이르되 功夫를 지을 때에 平常히 생각을 끊어서 생각 일어난을 막되 한 생각이 겨우 나면 문득 더불어 覺破함이니 妄念을 破해 깨달아서 後念이 나지 않으면 이 깨달은 智慧도 또한 모름지기 쓰지 않을지니 妄과 覺을 다 잊을을 이롭게 이르되 無心이라 故로 祖師가 이르시되 생각 일어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더딜까 두려워 하라 하시고 또 偈에 이르시되 眞求함을 쓰지 말고 오직 모름지기 見을 쉬라 하시니 이것이 이 覺察하여 妄을 쉬는 功夫라

二曰休歇^{이니}

謂做功夫時

不思善不思惡^{하야}

心起便休^{하야}

遇緣便歇^{하야}

古人^{이니}

云^{대하사}

一條白練去^{하야}

冷湫湫地去^{하야}

古廟裏香爐去^{하야}

直得^{하야}

絶廉纖離分別^{하야}

如痴似兀^{하야}

方有少分相應^{이라하}

此是休歇息妄功

夫也^라

二는 이르되 休歇이니 이르되 功夫지을 때에 善도 생각지 않고 惡도 생각지 아니하여 마음이 일어나매 문득 쉬며 緣을 만나매 문득 쉬이니 古人이 이르시되 한 가닥 된 비 단처럼 해 가며 冷하여 湫湫^{冷湫}히 해 가며 옛 사당속에 香爐처럼 해 가서 바로 廉纖

(微想)이 끊어지고 分別을 여의어서 어리석음 같고 兀兀한 것 같음을 얻어야 마야호로少
分相應함이 있다 하시니 이것이 이 休歇하여 妄을 쉬는 功夫라

三 은 泯心存境 이니 謂做功夫時 에 於一切妄念 에 俱息 하야 不顧外境 하고

但自息心 이니 妄心 이 已息 하면 何害有境 오리 即古人 의 奪人不奪境 法門

也 라 故 로 有語云 호대 是處 에 有芳草 호대 滿城無故人 하이라 又龐公 이 云 하사

但自無心於萬物 하면 何妨萬物 이 常圍繞 시니 此是泯心存境 息妄功

夫也 라

三은 마음을 없애고 境界를 둠이니 이르되 功夫지를 때에 一切妄念에 다 쉬어서 바깥
境界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이니 妄心이 이미 쉬면 어찌 境界있음이
妨害로 우리오 곧 古人의 사람만 배앗고 境界는 빼앗지 않는 法門이라 故로 말이 있어
이르되 이곳에 芳草가 있느니 滿城에 故人이 없다 하고 또 龐公이 이르시되 다만 스스
로 萬物에 마음이 없으면 어찌 萬物이 항상 圍繞함이 妨害로 우리오 하시니 이것이 이
마음만 없애고 境界를 두어 妄을 쉬는 功夫라

四 는 泯境存心 이니 謂做功夫時 에 將一切內外諸境 하야 悉觀爲空寂 하고

只存一心 하야 孤標獨立 이니 所以 로 古人 이 云 하사 不與萬法 으로 爲侶 하미 不

心境

이俱寂

인연畢竟妄從何有

티오

故

로灌溪

云

대하사

十方

에

無壁落

하고

四面

에亦無門

하야

赤髒髒淨灑灑

시라하

即祖師

의

人境兩俱奪法門也

라

故

로有語云

대하사

雲散水流去

하니

寂然天地空

시이라하

又云

대하사

人牛

를

俱不

見

하니正是月明時

시라하

此

는

泯心泯境息妄功夫也

라

五는 마음도

없애고

境界도

없애니

이르되

功夫지을

때에

먼저

바깥

境界를

空寂케

하고

다음에

안

마음을

滅함이니

이미

内外의

마음과

境界가

다

고요할진대

畢竟에

妄

이

어디로

쫓아

있으리오

故로

灌溪가

이르시되

十方에

壁落이

없고

四面에

또한

門이

없어서

별개

벗은듯

하고

깨끗해

물뿌린듯

하다

하시니

곧

祖師의

사람과

境界를

둘다

다

빼앗는

法門이라

故로

말이

있어

이르시되

구름이

흘러지고

물이

흘러가니

寂然히

天地가

空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사람과

소를

다

보지

못하니

正히

이

달

밝은

때라

六은

存心存境

이니

謂做功夫時

에

心住心位

하고

境住境位

하야

有時

에

心

境

이相對則心不取境

하고

境不臨心

하야

各不相到

하면

自然妄念

이

不生

於道

에

無碍

니

故

로

經

에

云

대하사

是法

이

住法位

하야

世間相

이

常住

시라하

即祖師

의

人境俱不奪法門也

라

故

로

有語云

호대

一片月生海

하니

幾家

에

人上樓

고하

又云

호대

山花千萬朶

에

遊子不知歸

니라하

此是存境存心滅

妄功夫也

라

六은 마음도 두고 境界도 둠이니 이르되 功夫지을 때에 마음은 마음 位에 住하고 境界는 境界位에 住하여 有時(時或)에 心과 境이 서로 對한즉 마음이 境을 取하지 않고 境이 다음에 臨하지 아니하여 各各 서로 이르지 않으면 自然히 妄念이 나지 아니하여 道에 걸림이 없음이니 故로 經에 이르시되 이 法(世間)이 法(法)의 位에 住하여 世間相이 항상 住한다 하시니 곧 祖師의 人과 境을 다 깨닫지 않는 法門이라 故로 말이 있어 이르되 한 조각 달이 바다에 나니 몇 집에 사람이 다 락에 오르는고 하고 또 이르되 山꽃千萬송이에 遊子가 돌아갈줄 알지 못한다 하니 이는 이 境도 두고 心도 두어 妄을 滅하는 功夫라

七은 內外全體

니

謂做功夫時

에

於山河大地

와

日月星辰

과

內身外

器一切諸法

이

同眞心體

와

湛然虛明

하야

無一毫異

하야

大千沙界

물

打成一片

이니

更於何處

에

得妄心來

리오

所以

로

肇法師

云

云天地

1

與我同根

이요

萬物

이

與我同體

시니라하

此是內外全體滅妄功夫也

라

七은 안과 밖이 온전히 體니 이르되 功夫 지을 때에 山河大地와 日月星辰과 內身과 外器(界世)와 一切 모든 法이 한가지 眞心の 體라 湛然히 비어 밝아서 一毫의 다름이 없어 서 大千沙界를 처한 조각을 이룸이니 다시 어느 곳에 妄心을 얻어 오리오 쓴바로 肇法師가 이르시되 天地가 나로더불어 한 뿌리요 萬物이 나로더불어 한 體라 하시니 이는 이 內外全體로 妄을 滅하는 功夫라

八은 內外全用

이니 謂做功夫時

將一切內外身心器界諸法

과 及一

切動用施爲

하야

悉觀作眞心妙用

이니

一切心念

이

纔生

에

便是妙用

이

現前

이라

旣一切

1

皆是妙用

인면

妄心

을

向甚麼處安着

이러

故

로

永嘉

云

대하사

無明實性

이

即佛性

이요

幻化空身

이

即法身

시고라하

誌公十二時歌

云

대하사

平朝寅

이여

狂機內隱道人身

이라

坐臥不知元是道

하고

只麼忙忙

受苦辛

시니

此是內外全用息妄功夫也

라

八은 안과 밖이 온전히 用이니 이르되 功夫 지을 때에 一切 안과 밖의 身心과 器界의 모든 法과 밋 一切 動用하고 施爲함을 가져서 다 觀하여 眞心の 妙用을 지음이니 一切 心念이 겨우 나뉘지 못하듯 이 妙用이 앞에 나타남이라 이미 一切가 다 이 妙用일진면 妄心을 어느 곳에 向하여 安着하리오 故로 永嘉가 이르시되 無明의 實性이 곧 佛性이요

幻化의 空身이 곧 法身이라 하시고 誌公의 十二時歌에 이르시되 平朝寅(平朝寅時에起發하여)이

여 미친 기를 안에 道人の 몸이 숨은지라 앓고 누움이 元來이 道인줄 알지 못하고 다
만 저렇듯이 忙忙히 苦辛을 받는다 하시니 이는 이 内外의 全用으로 妄을 쉬는 功夫라

九는 即體即用이니 謂做功夫時에 雖冥合眞體 하나 一味空寂이니 而於中

內隱靈明이니 乃體即用也라 故 永嘉云 惺惺寂寂은 是요 惺

惺妄想은 非며 寂寂惺惺은 是요 寂寂無記는 非라하 既寂寂中에 不容

無記하고 惺惺中에 不用亂想인댄 所有妄心이 如何得生오리 此是即體即

用滅妄功夫也라

九는 體에 即하고 用에 即함이니 이르되 功夫지을 때에 비록 眞體에 冥合하여 한맛

空寂하나 가운데에 안으로 靈明이 숨을이니 이에 體가 곧 用이라 故로 永嘉가 이르시

되 惺惺하고 寂寂함은 옳고 惺惺하고 妄想함은 그르며 寂寂하고 惺惺함은 옳고 寂寂하

고 無記함은 그르다 하시니 이미 寂寂한 가운데에 無記를 容納하지 않고 惺惺한 가운

데에 亂想을 쓰지 않을진댄 있는바 妄心이 어떻게 얻어 나리오 이는 이 體에 即하고

用에 即하여 妄을 滅하는 功夫라

十은 透出體用이니 謂做功夫時에 不分内外하며 亦不辨東西南北하고 將

四方八面^{하야} 只作一箇大解脫門^{하야} 圓陀陀地體用不分^{이라} 無分毫滲

漏^{하야} 通身打成一片^{이니} 其妄^이 何處得起^{리오} 古人^이 云^{대하사} 通身無縫罅

^{하고} 上下武團圓^{시니하} 是乃透出體用滅妄功夫也^{니라}

十은 體와 用에 透出함이니 이르되 功夫지을 때에 안과 밖을 나누지 않으며 또한東西

南北을 가리지 않고 四方八面을 가져 다한 한낱 大解脫門을 지어서 두렷이 陀陀^(두뎃한)

해 體와 用을 나누지 못하는지라 分毫의 滲漏^(세누)가 없어서 온 몸이 한 조각을 처이

룸이니 그 뜻이 어느 곳에 일어난을 얻으리오 古人이 이르시되 온 몸이 꿰뚫 틈이 없

고 위 아래가甚히 團圓^(두뎃한)하다 하시니 이는 이에 體와 用에 透出하여 妄을 滅하는

功夫니라

已上十種做功夫法^을 不須全用^{이요} 但得一門^{하야} 功夫成就^{하면} 其妄^이

自滅^{하고} 眞心^이 卽現^{하리} 隨根宿習^이 曾於何法^에 有緣^{인지} 卽便習之^{하면}

此之功夫^는 乃無功之功^{이라} 非有心功力也^니 此箇休歇妄心法門^이

最緊要故^로 偏多說^{하노} 無文繁也^{니라}

가成就하면 그妄이 스스로滅하고眞心이 곧 나타나리니 根機를 따라 宿世에 익힌 일찌기 어느 法에 緣이 있었는지 곧 문득 익히면 이 功夫는 이에 功이 없는 功이라 마 음 있는 功力이 아니니 이날 妄心을 休歇하는 法門이 가장 緊要한 故로 치우쳐 많이 說하노니 글이 번거롭다 말지니라

眞心四儀

眞心の 四儀 行住坐臥

○或^이 曰前說息妄^은 未審^{케라} 但只坐習^가 亦通行住等耶^{이까}

○或^이 이르되 前에 妄을 선다 說하심은 알지 못케라 다만 앉아 익히나йка 또한 行하고 住하는 等에 通하나이까

△曰經論^에 多說坐習^{니하시} 所以易成故^요 亦通行住等^{하니} 久久^{하야} 漸成

純熟故^라 起信論^에 云^{대하시} 若修止者¹ 住於靜處^{하야} 端坐正意^{호대} 不依

氣息^{하미} 不依形色^{하미} 不依於空^{하미} 不依地水火風^{하미} 乃至不依見聞覺

知^{하고} 一切諸想^을 隨念皆除^{호대} 亦遣除想^{이니} 以一切法^이 本來無想^{하야}

念念不生^{하며}

念念不滅^{이라}

亦不得隨心^{하야}

外念境界後^에

以心除心^{하고}

心若馳散^{는이}

即當收來^{하야}

住於正念^{이니}

是正念者^는

當知唯心^{이요}

無外

境界^며

即復此心^도

亦無自相^{하야}

念念不可得^{라니}

若從坐起^{하야}

去來進

止^에

有所施作^{도이라}

於一切時^에

常念方便^{하야}

隨順觀察^{하야}

久習純熟^{하면}

其心^이

得住^니

以心住故^로

漸漸猛利^{하야}

隨順得入眞如三昧^{하야}

深伏

煩惱^{하고}

信心增長^{하야}

速成不退^{하니}

唯除疑惑^과

不信誹謗^과

重罪業障

과

我慢懈怠如是等人^의

所不能入^{이라하}

據此則通四儀也^라

△이르시되經과論에 많이 앓아 익힘을 말씀하시니 씨 이루기 쉬운바인 연고요 또한

行住等에 통하니 오래 오래하여 점점 純熟함을 이루는 연고라 起信論에 이르시되 만

일 止(定의代名詞)를 닦는 者가 고요한 곳에 住하여 端正히 앓아 뜻을 바꾸되 氣息을 의지하

지 말며 形色을 의지하지 말며 空을 의지하지 말며 地水火風을 의지하지 말며 乃至 見

聞覺知도 의지하지 말고 一切 모든 생각을 생각을 따라 다 除하되 또한 除하는 생각까

지 보낼지니 씨 一切法이 本來 생각이 없어서 念念이 나지 않으며 念念이 滅하지 않는

지라 또한 시려금 마음을 따라 밖으로 境界를 생각한 뒤에 마음으로 씨 마음을 除하려

말고 마음이 만일 달려 흠어지거든 곧 마땅히 거두어 와서 正念에 住할지니 이 正念이란

짓은 마땅히 알라 오직 마음이요 바깥境界가 없으며 곧 다시 이 마음도 또한 自體相
이 없어서 念念이 可히 얻지 못함이니라 만일 앓음으로 좇아 일어나서 가고 오며 나
가고 그침에 베풀어 짓는 바가 있더라도 一切 때에 항상 方便을 생각하여 隨順해 觀察
해서 오래 익혀 純熟하면 그 마음이 住함을 얻나니 씨 마음이 住한 故로 점점 猛利
하여 隨順해 眞如三昧에 얻어 들어서 길이 煩惱를 調伏하고 信心이 增長하여 速히
不退를 이루리니 오직 疑惑과 不信과 誹謗과 重罪와 業障과 我慢과 懈怠이 같은 등 사람
의 能히 들지 못할바는 除外한다 하시니 이를 의지한즉 四儀에 通함이라

圓覺經

에 대하사

云 先依如來奢摩他行

하야

堅持禁戒

하고

安處徒衆

하야

宴坐

靜室

이러하
시나

此

는

初習也

요

永嘉

云

대하사

行亦禪坐亦禪

이여

語默動靜體

安然

이러하
시니

據此

전면

亦通四儀耳

라

總論功力

전면

坐尙不能息心

은이

況行

住等

으로

豈能入道耶

리오

若是用得純熟底人

인면

千聖

이

興來

萬般魔妖

라고

不廻顧

어든

豈況行住坐中

에

不能做功夫也

리오

如人

欲讎恨於人

도하야

乃至行住坐臥

와

飲食動用

하는

一切時中

에

不能忘了

欲愛樂於人

도

亦復如是

하니

且憎愛

는

有心中事

로대

尙於有心中

에

容得^은今做功夫

^는

是無心事

^나

又何疑四儀中

^에

不常現前耶

^{라오}

只

恐不信不爲

^{인정}

若爲若信

^{하면}

則威儀中

^에

道必不失也

^{리라}

圓覺經에 이르시되 먼저 如來의 奢摩他^(반역하면止)行을 의지하여 굳게 禁戒를 가지고 徒

衆에 安處하여 靜室에 宴坐^(坐)한다 하시니 이는 처음 익힘이요 永嘉가 이르시되 行함

도 또한 禪이요 앉음도 또한 禪이여 語默과 動靜에 體가 安然하다 하시니 이를 의거하

전대 또한 四儀에 通함이라 總히 功力을 論하전대 앉아서도 오히려 能히 마음을 쉬지

못하거든 하물며 行住等으로 어찌 能히 道에 들리오 만일 이 用功해 純熟함을 얻은 사

람일진댄 千聖이 일어나 오히려 놀래 일어나지 않고 萬가지의 魔妖라도 돌아보지 않

거든 어찌 하물며 行하고 住하고 앉는 가운데 能히 功夫를 짓지 못하리오 저 사람이

사람을 讐恨하고자^(원수하고 자하는 뜻) 하더라도 乃至 行住坐臥와 飲食動用하는 一切에 가운데

能히 잊지 못하며 사람을 愛樂하고자 함도 또한 다시 이같이 또 憎愛는 有心 가운데

일이로되 오히려 有心 가운데에 容納해 얻거든 이제 功夫를 지음은 이 無心의 일이니

또 어찌 四儀 가운데에 항상 現前하지 못함을 의심하리오 다만 信치 않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 함이언정 만일 하고 만일 信하면 곧 威儀 가운데에 道를 반드시 잃지 않으리라

眞心所在

眞心の 있는 바

○或^이曰息安心而眞心^의現矣^{지라하}然則眞心體用^이今在何處^{고나}

○或이 이르되 妄心を 쉬매 眞心이 나타나다 하시니 그런즉 眞心の 體와 用이 이제 어
느 곳에 있나니 잇고

△曰眞心妙體^一徧一切處^{하나}永嘉^一云^{대하사}不離當處常湛然^{호대}覓即

知君不可見^{지라하}經^에云^{대하사}虛空性故^며常不動故^며如來藏中^에無

起滅故^{시고하}大法眼^이云^{대하사}處處菩提路^요頭頭功德林^{이라하}此^는即是

體所在也^요眞心妙用^이隨感隨現^{호미}如谷應聲^{이니}法燈^이云^{대하사}今古

應無墜^라分明在目前^다片雲^은生晚谷^{하고}孤鶴^은下遙天^{이라하}所以

魏府元華嚴^이云^{대하사}佛法^이在日用處^{하며}在行住坐臥處^와喫茶喫

飯處^와語言相問處^와所作所爲^{호대}舉心動念^{하면}又却不是也^{지라하}故知

體則徧一切處^{하야}悉能起用^대但因緣有無不定故^로妙用^이不定耳

非無妙用也^니修心之人^이欲入無爲海^{하야}度諸生死^{고대}莫迷眞心

體用所在也

나라

△이르시되 眞心の 妙한 體가 一切處에 두루하니 永嘉가 이르시되 當處를 여의지 않고
 항상 湛然하되 찾으려 하면 곧 알라 그대가 可히 보지 못한다 하시고 經에 이르시되
 虛空性인 연고며 항상 動치 않는 연고며 如來藏가운데에 起와 滅이 없는 연고라 하시
 고 大法眼이 이르시되 곳곳에 菩提의 길이요 머리 머리 功德의 수풀이라 하시니 이는
 곧 이 體의 있는 바요 眞心の 妙한 用이 感함을 따라서 따라 나 타남이 골짜기가 소리
 를 應함과 같음이니 法燈이 이르시되 今古에 泮泮이 떨어짐이 없는지라 分明히 눈 앞
 에 있도다 조각 구름은 늦은 골짜기에 나고 의로운 鶴은 먼 하늘에 나린다 하시니 쓴
 바로 魏府(名地)元華嚴(法師)이 이르시되 佛法이 날로 쓰는 곳에 있으며 行住坐臥하는 곳
 과 차 먹고 밤 먹는 곳과 말서로 묻는 곳과 짓는 바와 하는 바에 있으며 마음을 들어
 생각을 動하면 또 도리어 옳지 못하다 하시니 故로 알라 體는 곧 一切處에 두루하여 다
 能히 用을 일으키되 다만 因緣의 있고 없음이 定하지 못한 故로 妙用이 定하지 못함이
 언정 妙用이 없음이 아니니 마음 닦는 사람이 하염이 없는 바다에 들어서 모든 生死를
 건너고자 할진대 眞心體用의 있는 바를 迷하지 말지니라

眞心出死

○或^이 曰嘗聞見性之人^은 出離生死^{라하} 然^{이나} 往昔諸祖^는 是見性人

皆^{이로}有^고生有死^하 今現見世間修道之人^도 有生有死事^하 如何云出

生死耶^{이까}

○或^이 이르되 일찌기 들으니 見性한 사람은 生死에 出離한다 하시니 그러나 往昔에 諸祖는 이 見性한 사람이로되 다 生이 있으며 死가 있으시고 이제 번드시 보건대 世間에 道達는 사람도 남이 있고 죽는 일이 있으니 어떻게 生死에 뛰어난다 이르리이까

△曰生死¹ 本無^{어늘} 妄計爲有^나 如人^이 病眼^{으로} 見空中花^{어든} 無病人

說無空花^{면라하} 病者¹ 不信^{가이라} 目病^이 若無^{하면} 空花自滅^{하야} 方信花無

只花未滅^{도이라} 其花亦空^{이라} 但病者¹ 妄執爲花^요 非體實有也^니 如

人^이 妄認生死爲有^{어든} 或無生死人^이 告云本無生死^{면라하} 彼人^이 不信

一朝^에 妄息^{하야} 生死自除^{사하야} 方知生死¹ 本來是無^니 只生死未息

時^{에도} 亦非實有^{로대} 以妄認生死有^니 故^로 經云^{대하사} 善男子^야 一切衆

生^이從無始來^로種種顛倒^{호미}如迷人^이四方易處^{한단}妄認四大^{하야}爲

自身相^{하고}六塵緣影^{으로}爲自心相^{하나}譬彼病目^이見空中花^{하미}乃至如

衆空花¹滅於虛空^{도이라}不可說言有定滅處^니何以故^오無生處故^라

一切衆生^이於無生中^에妄見生滅^{일세}是故^로說名輪轉生死^{라하}據此

經文^{전면}信知達悟圖覺眞心^{하면}本無生死^니今知無生死^{호대}而不能脫

生死者^는功夫不到故也^라

△이르시되 生死가 本來 없거늘 妄計로 있음이 되나니 저 사람이 病든 念으로 空中에
꽃을 보거든 病없는 사람이 虛空꽃이 없다 說하면 病者가 믿지 않다가 念병이 만일 없
으면 虛空꽃이 스스로 滅하여 바야흐로 꽃이 없음을 信하나니 다만 꽃이 滅하지 않더
라도 그 꽃이 또한 空한지라 다만 病者가 망령되어 執하여 꽃을 삼음이요 體가 實로
있음이 아니니 저 사람이 망령되어 生死를 認識하여 있음을 삼거든 或 生死없는 사
람이 告해 이르되 本來 生死가 없다 하면 저 사람이 信치 않다가 하루 아침에 妄이 쉬
어서 生死가 스스로 除하여야 바야흐로 生死가 本來 이 없는줄 아나니 다만 生死가 쉬
지 못했을 때에도 또한 實로 있음이 아니로 되 썬 망령되어 生死가 있는줄 알이니 故로
經에 이르시되 善男子야 一切衆生이 無始로 좇아 음으로 갖가지 顛倒함이 迷한 사람이

四方の處所를 바꿈과 같아서 망령되이 四大를 認識하여 自身の相을 삼고 六塵의 반연하는 그림자로 自心の相을 삼나니 比컨대 저 病든 눈이 空中에 꽃을 보며 乃至 無空花가 虛空에 滅하더라도 可히 決定코 滅한 곳이 있다 말하지 못함과 같음이니 어찌 쓴 연고뇨 난 곳이 없는 연고라 一切衆生이 남이 없는 가운데에 망령되이 生滅을 붙새 이런故로 說해 이름이 生死에 輪轉함이라 하시니 이 經文을 의거하건대 진실로 알라 圓覺眞心을 達悟하면 本來 生死가 없음이니 이제 生死 없음을 알되 能히 生死를 벗지 못하는 者는 功夫가 이르지 못한 연고라

故_로 敎中_에 說_{대하사} 菴婆女₁ 問文殊云_{호대} 明知生是不生之法_{마는} 爲甚

麼被生死之所流_{고니잇} 文殊₁ 云_{대하사} 其力_이 未充故_{시고하} 後有進山主₁ 問

修山主云_{대하사} 明知生是不生之法_{마는} 爲甚麼却被生死之所流_{고니잇} 修₁

云_{대하사} 筭畢竟成竹去_나 如今_에 作筏使_{나를} 得麼_{시니하} 所以_로 知無生死₁

不如體無生死_며 體無生死₁ 不如契無生死_며 契無生死₁ 不如用

無生死_니 今人_은 尙不知無生死_{어든} 况體無生死_{하며} 契無生死_{하며} 用無

生死耶_{리오} 故_로 認生死者_는 不信無生死法_이 不亦宜乎_아

故로 敎中에 說하시되 菴婆女가 文殊께 물어 이르되 남이 이나지 않는 法因을 밝게

알진마는 어찌하여 生死의 흐르는 바를 입나니잇고 文殊가 이르시되 그 힘이 차지 못
한 연고라 하시고 後에 進山主가 있어 修山主께 물어 이르시되 남이 이 나지 않는 法
인줄 밝게 알진마는 어찌하여 도리어 生死의 흐르는 바를 입나니잇고 修가 이르시되 죽
순이 畢竟에 대를 이루어 가나 如今에 때를 지어 쓸려한들 얻겠느냐 하시니 쓴바로 生
死없음을 알이 生死없음을 體得하는 것만 같지 못하며 生死없음을 體得함이 生死없는 데
契合하는 것만 같지 못하며 生死없는 데 契合함이 生死없음을 쓰는 것만 같지 못함이니
今時에 사람은 오히려 生死없음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生死없음을 體得하며 生死없
는데 契合하며 生死없음을 쓰리오 故로 生死를 認識하는 者는 生死없는 法을 信치 못
함이 또한 마땅치 않으랴

眞心正助

眞心の 正과 助

○或^이曰如前息妄^{하면}

眞心^이

現前^{이와}

且如妄未息時^엔

但只歇妄做

無心功夫^아

更有別法可對治諸妄耶^{이까}

○或이 이르되 前과 같이 妄을 쉬면 眞心이 앞에 나타나려니와 또 만일 妄이 쉬지 못

할 때엔 다만 妄을 쉬어 無心功夫를 짓나이까 다시 別다른 法可히 모든 妄을 對治함
이 있나이까

△曰正助 不同也 以無心息妄 爲正 以習衆善 爲助 譬
如明鏡 爲塵所覆 雖以手力 揩拭 要須妙藥磨瑩 光始現
也 塵垢 煩惱也 手力 無心功也 磨藥 衆善也 鏡光 眞心也
起信論 云 復次信成就發心者 發何等心 畧有三
種 云何爲三 一者 直心 正念眞如法故 二者 深心 集
一切善行故 三者 大悲心 欲拔一切衆生苦故 問曰上說法
界一相 佛體無二 何故 不唯念眞如 復假求學諸善之行
答曰譬如大摩尼寶 體性 明淨 而有鑛穢之垢 若人 雖念
寶性 不以方便 種種磨治 終無得淨 如是衆生 眞如之法
體性 空淨 而有無量煩惱染垢 若人 雖念眞如 不以方
便 種種熏習 亦無得淨 以垢無量 徧一切法故 修一切善

行^{하야} 以爲對治

若人

修行一切善法

自然歸順眞如法故

하면

△이르시되 正과 助가 같지 않음이니 無心히 妄을 섞으므로 正을 삼고 못 善을 익힘으로 助를 삼는지라 比컨대 明鏡이 먼지의 덮인 바가 되었거든 비록 손의 힘으로써 문질러 닦으나 종요로이 모름지기 妙한 藥으로 磨琢해 빛내어야 光이 비로소 나타남과 같음이니 塵垢는 煩惱요 手力은 無心の 功이요 磨藥은 衆善이요 鏡光은 眞心이라 起信論에 이르시되 다시 다음에 信成就로 發心한다든 것은 어떠한 마음을 發하는고 簡略히 세가지가 있으니 어떤것이 三이 되는고 一은 直心이니 바로 眞如法을 생각하는 연고요 二는 深心이니 一切善行을 모으는 연고요 三은 大悲心이니 一切衆生の 苦를 배고 자하는 연고니라 물어 이르되 위에 法界가 一相이라 佛體가 둘이 없다 說하셨거늘 어쩐 까닭으로 오직 眞如만 생각지 않고 다시 모든 善을 求하여 배우는 行을 假借하나니 잇고 答해 이르시되 比컨대 大摩尼^(반역한 眞如를 닦는 佛垢나 眞如가 淨하여 佛像의 眞實의 의지함을 얻고다)寶가 體性이 밝고 깨끗하나 鐵穢의 때가 있으니 만일 사람이 비록 寶性을 생각하나 方便으로써 갖가지 같아 다스리지 않으면 마침내 깨끗함을 얻을수 없음과 같아서 이같은 衆生の 眞如의 法도 體性이 되고 깨끗하나 限量없는 煩惱의 染垢가 있으니 만일 사람이 비록 眞如를 생각하나 方便으로써 갖가지 熏習하지 않으면 또한 깨끗함을 얻을수 없으리니 塵垢가 限量이 없어서 一切法에 두루한 故로 一切善行을 닦아서 對治함이니 만일 사람이 一切善法

을修行하면自然히眞如法에歸順하는연고라하시니

據此所論

전대

以休歇妄心

으로

爲正

하고

修諸善法

으로

爲助

니

若修善時

엔

與無心相應

하야

不取着因果

니

若取因果

하면

便落凡夫人天報中

하야

難

證眞如

하야

不脫生死

요

若與無心相應

하면

乃是證眞如之方便

이되

脫生

死之要術

이라

兼得廣大福德

하리

金剛般若經

에

云

대하사

須菩提

야

菩薩

이

無住相布施

하면

其福德

을

不可思量

이라하

今見世人

이

有叅學者

1

纔

知有箇本來佛性

하면

乃便自恃天真

하고

不習衆善

나하

豈只於眞心

에

不

達

오이리

亦乃翻成懈怠

하야

惡道

도

尙不能免

든이

况脫生死

아

此見

이

大錯

也

나라

이論하신바를의지하전대妄心を섞으로써正을삼고 모든善法을닦음으로助를삼음이니 만일善을닦을때엔無心으로더불어서로應하여因果를取着하지말지니 만일因果를取하면문득凡夫의人天報가운데에떨어져서眞如를証하기어려워生死를벗지 못할것이요 만일無心으로더불어서로應하면이에이眞如를証하는方便이며生死를벗는要術이라兼하여廣大한福德을얻으니金剛般若經에이르세되須菩提아菩薩이相에住함이없이布施하면그福德을可히思量치 못한다하시니 이제

보전대世上 사람이 參學함이 있는 者가 겨우 날 本來佛性이 있음을 알면 이에 묻득
스스로 天真만 믿고 못 善을 익히지 않나니 어찌 다만 眞心에 達하지 못할 뿐이리오
또한 이에 뒤쳐 懈怠를 이워서 惡道도 오히려 能히 免치 못하거든 하물며 生死를 벗으
라 이 見이 크게 그릇됨이니라

眞心功德

眞心の 功德

○或^이曰有心修因 不疑功德矣^{와어니} 無心修因 功德^이何來^{고니잇}

○或이 이르되 마음 있이 닦는 因은 功德을 의심치 않으려니와 마음 없이 닦는 因은 功德이 어디서 오나니잇고

△曰有心修因 得有爲果 無心爲因 顯性功德^{이니} 此諸功德^이

本來自具^{로대} 妄覆不顯^{가이라} 今旣妄除^{로대} 功德^이 現前^{이니} 故 永嘉云

三身四智體中圓^{이로} 八解六通^이 心地印^{이라하} 乃是體中 自具性

功德也^라 古頌^에 若人^이 靜坐一須臾^{하면} 勝造恒沙七寶塔^{이라} 寶塔^은

畢竟化爲塵니이와어 一念淨心 은 成正覺 이라하 故知無心功 이 大於有心也

로다 洪州水潦和尚 이 叅馬祖問 대하사 如何是西來的的意 고니잇 被馬祖 의 一

踏踏倒 하야 忽然發悟 하사 起來撫掌大笑云 대하사 也大奇也大奇 라 百千三

昧 와 無量妙義 를 只向一毛頭上 하야 便一時 에 識得根源去 라하 乃作禮

而退 하사 據此則功德 이 不從外來 하야 本自具足也 라 四祖 1 謂懶融禪

師曰夫百千法門 이 同歸方寸 하고 河沙功德 이 摠在心源 하야 一切戒門

定門慧門 과 神通變化 1 悉自具足 하야 不離汝心 이라하 據祖師語 진면 無

心功德 이 甚多 은 但好事相功德者 는 於無心功德 에 自不生信耳 니라

△이르시되 마음있이 님는 因은 有爲의 果를 얻고 無心으로 因이 됨은 性功德을 나타

내나니 이 모든 功德이 本來 스스로 갖췄으되 妄이 덮혀 나타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미

妄이 除할새 功德이 앞에 나타나이니 故로 永嘉가 이르시되 三身과 四智 (六識을 위칭)

참) 妙觀察智(六識을 위칭) 成所作智(前五識을 위칭) 가 體가운데 두렷하고 八解 (具云하면八解脫이며보단八背捨라고도한다一은內有색想으로外色의不淨等相을觀함이니二

禪에當하고三은淨解脫로具足住니三神에當하고四는空无邊處요五는識无邊處요六은受所有處요七은非想非非想處요八은想受滅定解脫이니四神八定の行과같다 와 六通이 마음땅에 印이라 하시니 이에

이 體가운데에 스스로 性功德을 갖추이라 옛 頌에 만일 사람이 고요히 앉기를 한 須臾

○或^이曰眞心^이現前^에如何知是眞心^의成熟無礙也^{고니잇}

○或^이이르되眞心^이앞에 나타나 패 어떻게 이眞心^의成熟하여 걸림이 없음을 아나
니잇고

△曰學道之人^이得眞心現前時^에但習氣^를未除^{하야}若遇熟境^{하면}有

時失念^{나나}如牧牛^에雖調到牽拽隨順處^{라도}猶不敢放了鞭繩^{하고}直待

心調步穩^{하야}趕趁入苗稼中^{도하야}不傷苗稼^{사하야}方敢撒手也^타到此地步

便不用牧童鞭繩^{도이라}自然無傷苗稼^니如道人^이得眞心後^에先且

用功保養^{하야}有大力用^{사하야}方可利生^{이니}若驗此眞心時^에先將平生所

憎愛底境^{하야}時時想在面前^{호대}如依前起憎愛心^{하면}則道心^이未熟^{이요}

若不生憎愛心^{하면}是道心^이熟也^라雖然如此成熟^{이나}猶未是自然不

起憎愛^니又再驗心^{호대}若遇憎愛境時^에特然起憎愛心^{하야}令取憎愛

境界^{도하야}若心不起^{하면}是心無礙^{호미}如露地白牛^{하야}不傷苗稼也^{니라}古有

呵佛罵祖者^는是與此心相應^{하야}今見纔入宗門^에未知道之遠近^{하고}

便學呵佛罵祖者

는

太早計也

니라

△이르시되 道배우는 사람이 眞心이 現前함을 얻을 때에 다만 習氣를 除하지 못하여 만일 익숙한 境界를 만나면 有時에 생각을 잃나니 소를 먹일제 비록 調伏해 끝이 隨順하는 곳에 이를지라도 오히려 敢히 채찍줄을 놓지 말고 바로 마음이 調順하고 걸음이 平穩하여 몰아 苗稼가운데 들게 하더라도 苗稼를 傷치 않음을 기다려야 바야흐로 敢히 손을 놓음과 같은지라 이 地歩(罪處)에 이르러서는 문득 牧童의 채찍줄을 쓰지 않더라도 自然히 苗稼를 傷함이 없을지니 道人이 眞心を 얻은 後에 먼저 또 功夫를 써 保養하여 큰 力用이 있어야 바야흐로 可히 衆生을 利케함과 같나니 만일 이 眞心を 시험할 때에 먼저 平生에 미워하고 사랑하는바 境界를 가져서 때때로 낮앞에 생각해 두되 만일 前을 의지하여 憎愛心이 일어나면 곧 道心이 이지 못함이요 만일 憎愛心이 나지 않으면 이 道心이 익음이라 비록 그러히 같이 成熟하나 오히려 이 自然히 憎愛를 일으키지 않음이 아니니 또 다시 마음을 시험하되 만일 憎愛의 境界를 만날 때에 特히 憎愛心を 일으켜서 하여금 憎愛의 境界를 取하려 하여도 만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마음은 이 걸림이 없음이 드러난 땅에 흰 소와 같아서 (露地白牛는 無上한 乘妙法에 비한 것이다) 苗稼를 傷치 않을지니라 옛적에 佛을 꾸짖고 祖를 꾸짖음이 있는 者는 이 此心으로 더불어 서로 應함이어늘 이제 보건대 저우 宗門에 들매 道의 遠近을 알지 못하고 문득 佛을 꾸짖으며 祖를 꾸짖

真心無知

眞心の
함이
없음

○或^이曰眞心與妄心^이對境時^에如何辨別眞妄耶^이

○或이 이르되 眞心과 다 못 妄心이 境界를 對할 때에 어떻게 眞과 妄을 辨別하나이까

△曰妄心
은
對境
하야
有知而知
하야
於順違境
에
起貪嗔心
하고
又於中容

境에起癡心也니既於境上에起貪嗔痴三毒인면足見是妄心也라祖

師云대하사逆順相爭이是爲心病세니故知對於不可者대하是妄心也

若眞心者근대無知而知하야平懷圓照故로異於草木하코不生憎愛故

異於妄心하니 卽對境虛明하야 不憎不愛하야 無知而知者 眞心이라 故

肇論에云대하사夫聖心者는微妙無相이라不可爲有요用之彌勤이라不

可爲無_며乃至非有故_로知而無知_요非無故_로無知而知_{시라하}是以_니

無知即知 無以言異於聖人心也 又妄心 在有着有 在無着

無 常在二邊 不知中道 永嘉 云 捨妄心取眞理 取捨之

心 成巧僞 學人 不了用修行 深成認賊將爲子 若是眞心

居有無而不落有無 常處中道 故 祖師 云 不逐有緣

勿住空認 一種平懷 泯然自盡 肇論 云 是以 聖人

處有不有 居無不無 雖不取於有無 然 不捨於有無 所以

和光塵勞 周旋五趣 寂然而往 忽爾而來 恬淡無爲 而

無不爲 此 說聖人 垂手爲人 周旋五趣 接化衆生 雖往

來而無往來相 妄心 不爾故 眞心妄心 不同也 又眞心

乃平常心也 妄心 乃不平常心也

△이르시되 妄心은境界를 對하여 함이 있어 알아서 順하고 여기는境界에 貪瞋心을 일

으키고 또 中容(中)境界에 痴心을 일으키나니 이미境界위에 貪瞋痴三毒을 일으킬진대

足히 이 妄心임을 불지라 祖師가 이르시되 逆과 順에서로 다름이 이 마음의 病이 된

다 하시니 故로 알라 옳고 옳지 않음에 對되는 것이 이 妄心이요 만일 眞心일진대 病

이 없이 알아서 생각이 평해 두렷이 비치는故로草木과 다르고 憎愛를 내지 않는故로妄心과 다르니 곧 境界를 對하매 비어 밝아서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아니하여 함이 없이 아는 것이 眞心이라 故로 肇論에 이르시되 대저 聖人の 마음은 微妙하여 相이 없는지라 可히 있다하지 못하고 쓰매 더욱 부지런한차라 可히 없다하지 못하며 乃至 있음이 아닌故로 알되 함이 없고 없음이 아닌故로 함이 없이 안다 하시니 이로써 함이 없이 곧 함을 써 聖人の 마음과 다르다 말할수 없나니라

(함이 없이 아는 眞心은 衆生과 諸佛이 一無二無의 眞性을 離知의 마음인故로 이 둘이다)

또 妄心은 有에 있어 有에 着하고 無에 있어 無에 着하여 항상 二邊에 있어서 中道를 알지 못하니 永嘉가 이르시되 妄心을 버리고 眞理를 取하면 取捨의 마음이 巧僞를 이루는지라 學人이 써 修行함을 了達치 못하여 眞이 賊을 알아 장차 아들 삼을을 이룬다 하시니 만일 이 眞心일진댄 有無에 居하되 有無에 떨어져 지지 아니하여 항상 中道에 處할새 故로 祖師가 이르시되 緣있음을 쫓지 말며 空한 알음알이에 도 住하지 말아서 한가지로 생각을 平히 하면 泯然히 스스로 다한다 하시며 肇論에 이르시되 이로써 聖人은 有에 處하되 있지 않고 無에 居하되 없지 않나니 비록 有와 無를 取하지 않으나 그러나 有와 無를 버리지도 않음새 쓴바로 塵勞에 心光을 和하며 五趣에 周旋하여 寂然히 가고 忽爾히 와서 恬淡해 하염이 없으되 하지 않음이 없다 하시니 이는 聖人の 손을 드리워 사람을 爲하여 五趣에 周旋해서 衆生을 接化하여 비록 往來하나 往來하는 相이 없음을 說함이라 妄心은 그렇지 못한故로 眞心과 妄心이 같지 않으니라 또 眞心

은 이에 平常한 마음이요 妄心은 이에 平常치 않은 마음이니라

△或^이 曰何名平常心也^{고니잇}

△或^이 이르되 어찌 平常心이라 이름하나잇고

△曰人人^이 具有一點靈明^{하야} 湛若虛空^{하야} 徧一切處^{하나} 對俗事^{하야} 假

名理性^{이요} 對行識^{하야} 權號眞心^{이라} 無分毫分別^{호대} 遇緣不昧^{하야} 無一念

取捨^{호대} 觸物皆周^{하야} 不逐萬境遷移^{하야} 設使隨流得妙^{라도} 不離當處湛

然^{하야} 覓即知君不可見^이 乃眞心也^{니라}

△이르시되 사람 사람이 한點 靈明이 갖춰 있어서 맑음이 虛空과 같아서 一切處에 두

루하나니 俗事를 對하여 저지 理性이라 이름하고 行識^{受想}을 對하여 權^便으로 眞心이

라 이름하는지라 分毫의 分別이 없으되 緣을 만나매 昧하지 않으며 一念의 取捨가 없

으되 物을 接觸하매 다 두루하여 萬境을 좇아 遷移하지 않으며 設使 흐름을 따라 妙

함을 얻더라도 當處를 여의지 않고 湛然하여 淸^정하려하면 곧 알라 그대가 可히 보지 못

△或^이 曰何名不平常心耶^{이까}

△或^이 이르되 어찌 不平常心이라 이름하나이까

△曰境有聖與凡하미 境有染與淨하미 境有斷與常하미 境有理與事하미 境

有生與滅하미 境有動與靜하미 境有去與來하미 境有好與醜하미 境有善與

惡하미 境有因與果하미 境有물細論하면 則萬別千差와니 今乃且舉十對호니

皆名不平常境也라 心隨此不平常境而生하고 不平常境而滅하나 不平

常境心을 對前平常眞心일세 所以로 名不平常妄心也요 眞心은 本具

하야 不隨不平常境生하야 起種種差別일세 所以로 名平常眞心也니라

△이르시되 境이 聖과 다름 凡이 있으며 境이 染과 다름 淨이 있으며 境이 斷과 다름
常이 있으며 境이 理와 다름 事가 있으며 境이 生과 다름 滅이 있으며 境이 動과 다름
靜이 있으며 境이 去와 다름 來가 있으며 境이 好와 다름 醜가 있으며 境이 善과 다름
惡이 있으며 境이 因과 다름 果가 있으니 境界의 있음을 자세히 論하면 곧 萬別千差이
니와 이제 이에 아직 十對만 들었으니 다 이름이 不平常境이라 마음이 이 不平常境을
따라 나고 不平常境을 따라 滅하니 不平常境의 마음을 前의 平常眞心에 對할새 쓴
바로 不平常妄心이라 이름하고 眞心은 本來 갖추어 不平常境을 따라 나서 갖가지 差別
을 일으키지 않을새 쓴 바로 平常眞心이라 이름하니라

△或이曰眞心은 平常하야 無諸異因하미 奈何佛說因果善惡報應乎이까

△或이 이르되 眞心은 平常하여 모든 다른 因이 없거늘 어찌하여 佛이 因果善惡報應을 說하셨나이까

△曰妄心^이 逐種種境^{하야} 不了種種境^{하고} 遂起種種心^{일새} 佛說種種因

果法^{하사} 治伏種種妄心^{하야} 須立因果也^{와어니} 若此眞心^{일새} 不逐種種境^{일새}

由是^로 不起種種心^{이라} 佛^이 即不說種種法^{한니} 何有因果也^{미오}

△이르시되 妄心이 갖가지 境界를 좇아 갖가지 境界를 了達하지 못하고 드디어 갖가지 마음을 일으킬새 佛이 갖가지 因果法을 說하사 갖가지 妄心을 다스려 調伏하려하여 모릅지기 因果를 세웠거니와 만일 이 眞心일진대 갖가지 境界를 좇지 않을새 이로 말미암아 갖가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지라 佛이 곧 갖가지 法을 說하지 않으시리니 어찌 因果가 있으리오

△或^이 曰眞心^이 平常不生耶^{이까}

△或이 이르되 眞心이 平常하여 나지 않나이까

△曰眞心^이 有時施用^{이나} 非逐境生^{이요} 但妙用遊戲^{하야} 不昧因果耳^{나라}

△이르시되 眞心이 有時에 배풀어 쓰나 境界를 좇아 남이 아니요 다만 妙用이 遊戲하여 因果에昧하지 않나니라

眞心所往

眞心の 갈바

○或^이曰未達眞心人^은 由迷眞心故 作善惡因^{이니} 由作善因故^로
 生善道中^{하고} 由作惡因故^로 入惡道中^{하야} 逐業受生^은 其理不疑^{와이니} 若
 達眞心人^{인대} 妄情^이 歇盡^{하야} 契證眞心^{하야} 無善惡因^{이니} 一靈身後^에 何
 所依託耶^{이까}

○或이 이르되 眞心을 達하지 못한 사람은 眞心 迷함을 말미암은 故로 善惡의 因을 짓
 나니 善因지음을 말미암은 故로 善道가운데 나고 惡因지음을 말미암은 故로 惡道가운데
 들리어 業을 쫓아 받아 남은 그 理致가 의심스럽지 않거니와 만일 眞心을 達한 사
 람일진대 妄情이 쉬어 다해서 眞心에 契合해 証하여 善惡의 因이 없음이니 한 靈이 몸
 뒤에 어디 依託할 바니이까

△曰莫謂有依託者 勝無依託耶 又莫將無依託者^{하야} 同人間飄
 零之蕩子^{하미} 似鬼趣無主之孤魂^{하야} 特爲此問^{하야} 求有依託耶^아

△이르시되 依託있는 것이 依託없는 것 보다 勝하다 이름이 아나나 또 依託없는 것을 가져서 人間의 飄零(本業善說ニ身世(人生一世)의不幸에比한것이다)하는 蕩子와 같이 여기며 鬼趣의 主人없는 孤魂과 같이 여겨서 特히 이 물음을 하여 依託있음을 求함이 아나나

△或 이 曰然 이다

△或 이 이르되 그렸읍니다

△曰達性則不然也 一切衆生 이 迷覺性故 妄情愛念 으로 結業爲

因 生六趣中

受善惡報 이다

假如天業爲因

只得天果 이다

除合生

處

餘並不得受用 이다

諸趣皆爾 이다

既從其業故

合生處

爲樂 이다

不生處

爲非樂 이다

以合生處

爲自己依託

不生處

爲他人依

託 所以

有妄情則有妄因

有妄因則有妄果

有妄果則有依

託

有依託則分彼此

分彼此則有不可可也

今達眞心

契無

生滅之覺性

起無生滅之妙用

妙體

眞常

本無生滅

妙用

隨緣

似有生滅

然

從體生用

用即是體

何生滅之可有

達人

即證眞體

其生滅

何干涉耶

如水

以濕性爲體

波浪爲用

이니濕性

은

元無生滅故

로

波中濕性

인

何生滅耶

리

然이나 波

離濕性

로

別無故

로

波亦無生滅

라

△이르시되 性を 達한즉 그렇지 않음이니 一切衆生이 覺性を 迷한 故로 妄情과 愛念으로 業을 結하여 因이 되어 六趣 가운데 나서 善惡의 報를 받나니 假使 만일 天業으로 因이 되어서는 다만 天果를 얻어서 合當히 날 곳을 除하고는 나머지 는 아울러 受用함을 얻지 못하는지라 諸趣가 다 그러하여 이미 그 業을 좇는 故로 合當히 날 곳으로 樂을 삼고 나지 않음 곳으로 樂아님을 삼으며 合當히 날 곳으로써 自己의 依託을 삼고 나지 않음 곳으로 他人의 依託을 삼나니 悤바로 妄情이 있은즉 妄因이 있고 妄因이 있은즉 妄果가 있고 妄果가 있은즉 依託이 있고 依託이 있은즉 彼此를 나누고 彼此를 나누는 옳고 옳지 않음이 있거니와 이제 眞心を 達하여 生滅없는 覺性에 契合하여 生滅없는 妙用을 일으킴이니 妙躰는 眞常하여 本來 生滅이 없으나 妙用은 緣을 따라서 生滅이 있는 것 같은지라 그러나 躰로 좇아 用을 내는지라 用이 곧 이 躰니 무슨 生滅이 可히 있으랴 達한 사람은 곧 眞躰를 証했거니 그 生滅이 어찌 干涉하리오 물이 濕性으로써 躰가 되고 波浪으로 用이 됨과 같나니 濕性은 元來 生滅이 없는 故로 波浪 가운데 濕性인들 어찌 生滅하리오 그러나 波浪이 濕性을 여의고 別로 없는 故로 波浪도 또한 生滅이 없나니라

所以^로古人^이云^{대하사}盡大地^一是沙門一隻正眼^이盡大地^一是箇伽

藍^이是悟理人^의安身立命處^{시라하}既達真心^인四生六道^一一時消殞

^{하고}

山河大地^一悉是真心^{이라}不可離此真心之外^에別有依託處也^니

既無三界妄因^{이라}必無六趣妄果^요妄果既無^근說甚依託^오別無彼

此^{하니}既無彼此^근則何可不可也^{리오}即十方世界^一唯一真心^{이라}全身

受用^{하야}無別依託^{이요}又於示現門中^에隨意往生^{하야}而無障礙^니故^로

傳燈^에云^{대하사}溫操尙書^一問圭峰曰悟理之人^이一期壽終^에何所依

託^{잇고니}圭峰^이曰一切衆生^이無不具有靈明覺性^{하야}與佛無殊^{하니}若能

悟此性^이即是法身^{하면}本自無生^{이니}何有依託^오靈明不昧^{하야}了了常

知^라無所從來^며亦無所去^니但以空寂^{으로}爲自體^인勿認色身^바以

靈知^로爲自心^{정인}勿認妄念^{이니}妄念^이若起^어都不隨之則臨命終時

自然業不能繫^요雖有中陰^{이나}所向自由^{하야}天上人間^에隨意寄託

^{이러하}此即真心^의身後所往者也^{니라}

쓴바로 古人이 이르시되 온 大地가 이 沙門의 한쪽 正眼이며 온 大地가 이날 伽藍이며
 이 理를 깨달은 사람의 몸을 두고 命을 세울 곳이라 하시니 이미 眞心을 達했을진댄
 四生과(胎卵)六道가 一時에 녹아 떨어지고 山河大地가 다 이 眞心이라 可히 이 眞心을
 여의 밖에 別로 의탁할 곳이 있지 않음이니 이미 三界의 妄因이 없는지라 반드시 六趣
 의 妄果가 없을것이요 妄果가 이미 없을진댄 무슨 의탁을 說하리오 別로 彼此가 없으
 니 이미 彼此가 없을진댄 곧 어찌 옳고 옳지 않으리오 곧 十方世界가 오직 한 眞心이
 라 全身이 受用하여 別의탁이 없고 또 示現하는 門가운데에 뜻을 따라 往生하여 障礙
 가 없나니 故로 傳燈에 이르시되 溫操尙書가 圭峰께 물어 이르되 理를 깨달은 사람이
 一期(生)의 壽가 마치매 어디에 의탁할 바니잇고 圭峰이 이르시되 一切衆生이 靈明한
 覺性을 갖춰있지 않음이 없어서 佛로 더불어 닮이 없으니 만일 能히 이 性이 곧 이
 法身인줄 깨달으면 本來 스스로 남이 없거니 어찌 의탁이 있으리오 神靈히 밝아 昧하
 지 아니하여 了了히 항상 아는지라 좃아온 바가 없으며 또한 잘바도 없음이니 다만 空
 寂으로써 自體를 삼을지언정 色身을 알지 말며 靈知로써 自心을 삼을지언정 妄念을 알
 지 말지니 妄念이 만일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르지 않은즉 命마침을 臨할 때에 自然히
 業이 能히 업매지 못하고 비록 中陰(鬼의名이니 人死後에 아직 轉生치 않은 中間에 形軀는 비록 여의었으나 五陰은 오려져
 없거니와 餘人은 다 있나니 四十九歲의 滿度까지 中陰을 應度하는 것이다)이 있으나 向하는 바에 自由하여 天上과 人間에 뜻을 따라 寄託한

다 하시니 이것이 곧 眞心の 몸 뒤에 가는 바니라

眞心直說 終

圓頓成佛論

圓頓教(經)의成佛하는論

○或^이問牧牛子曰聞汝所立^{호니}今時修心人^이先以自心^의日用無

明分別之種^{으로}便爲諸佛不動智然後^에依性修禪^이方爲妙爾^{시나}此

中不動智佛果^一是本覺理佛耶^아是新成事佛耶^{이까}清涼祖師^一依

性起品^{하야}佛智^一在衆生心之義^를立三復次^{하시}一^은生生^이自有^요

取始教中四智菩提種子와起信中隨染性淨之義하야據義高判也라當果^一自有^요衆生의當來所得佛果一三世融攝故로在無明心中이라三^은他果^一

在我^니衆生本覺이與佛本覺으로一體故로盧舍那佛智一隨理普遍하야在不修衆生의生滅八識之心하야因作果하나니是謂事事無碍也라如是三義中^에當於何義

耶^아若但返照性淨本覺^{하야}爲不動之佛果^{나네}則當初復次^요若成事

事無碍佛^{인네}則當後二復次圓融成佛也^라大凡教家^의所論成佛圓

融行布之義^一是住初成佛也^니今時修心人^의見性成佛^이亦登住

初位耶^아教中所論信位假者^는須歷一萬劫勤修^{사하야}乃成十信滿心

今時人^이 已滿十千劫^{하야} 登住初成佛^이 大甚徑挺^{하야} 不近人情^{하니}

如是等疑^를 請垂開決^{하사} 聞所不聞^{소하}

○或이 牧牛子^가 問어 이르되 너의 세운바를 들으니 今時에 마음 닦는 사람이 먼저 自
心의 日用에 無明分別하는 種子로써 諸佛의 不動智를 삼은 然後에 性을 依止하여
禪을 닦음이 바야흐로 妙함이 된다 하시니 이 가운데 不動智佛果가 이 本覺인 理佛입니
까 이 新成한 事佛이니이까 清涼祖師가 性起品을 依止하여 佛智가 衆生心에 있다는 義
를 三復次를 세우시니 一은 衆生衆生이 스스로 있음이요(衆生의 當來의 佛果가 三番가
다^하) 二는 當來의 果가 스스로 있음이요(衆生의 當來의 佛果가 三番가
나^하) 三은 他果가 나에게 있음이
니(衆生의 本覺이 佛의 本覺으로 더 붙어 一은 凡夫의 佛智가 理佛이다 衆生의 當來의 佛果가 三番가
다^하) 二는 當來의 果가 스스로 있음이요(衆生의 當來의 佛果가 三番가
나^하) 三은 他果가 나에게 있음이
나만일 다만 性이 깨닫한 本覺을 返照하여 不動의 佛果를 삼을진댄 곧 初復次에 當
할것이오 만일 事事無碍를 이룬 佛일진댄 곧 二復次의 圓融成佛에 當할지라 大凡 教
家의 論한바 成佛하는 圓融과 行布의 義가 이 住初(初住)의 成佛이니 今時에 마음 닦
는 사람의 見性成佛이 또한 住初의 位에 오르느냐 教中에 論한바 信位를 假借하는 者
는 모름지기 一萬劫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닦아야 이에 十信의 滿心을 이루거늘 今時에
사람이 이미 十千劫이 차서 住初에 올라 成佛한다 함이 너무 甚히 徑挺(徑挺은 佛智가 理佛이
나^하) 하여 人情에 가깝지 않으니 이 같은 等의 심을 請컨대 열어 決함을 드리우

사 듣지 못한바를 듣게 하소서

△予^하笑曰^하山僧^이少投祖域^하所習^이各異^하豈能於今時講匠^의

盛論華嚴成佛是非之門^에而能詣談哉^{리오}但修禪餘暇^에偶得華嚴

新論^{하야}輒有翫味處^{호니}今試語汝^{호리}汝當永除前來學習差別義理靜

論之心^{하고}聽而瑩之^{어다}華嚴論者^는是果後大聖李通玄長者^의所撰

長者^{이라}降神唐朝^{하사}隱於北京方山土窟中^{하사}龍女供饌^{하고}虎受使

令^{하미}夜則不炳燈燭^{하고}齒間放光^{하사}撰集華嚴大論四十卷^{하사}其文^이

質而理詣^{하야}度越常規故^로人罕知之^라予^이宿劫有緣^{하야}搜得於龍

藏間^{하야}感遇慶懷^{하야}翫味忘教^{하야}窮其旨趣^{호니}唯忘言了義^{하미}忘義了

心者^{라사}可以仰信矣^{리라}

△내가 웃어 이르되 山僧이 젊어서 祖域에 投身하여 익힌바가 各各 다르니 어찌 能히

今時 講匠의 盛히 華嚴成佛을 論하는 是非의 門에 能히 나아가 말하리오 다만 禪담는

餘暇에 偶然히 華嚴 新論을 얻어서 문득 翫味한 곳이 있으니 이제 시험해 너에게 말하

리니 네가 마땅히 永히 前來에 差別義理를 배워 익힌 靜論의 마음을 除하고 들어 밝힐

지어나 華嚴論은 이 果後大聖(善賢)이신 李通玄長者의 지으신바라 長者가 神을 唐朝에 내리사 北京方山 土窟가운데 숨으사 龍女가 僕을 작만하고 범이 使令을 받으며 밤인즉 燈燭을 밝히지 않고 菌間에 光을 놓으사 華嚴大論四十卷을 撰集하시니 그 글이 質朴하고 理致가 나아가서 普通規模에 度越(越)한 故로 사람이 아는 이가 드문지라 내가 宿劫에 緣이 있어 龍藏(龍宮의) 사이에 찾아 얻어서 만났을 느껴 생각에 慶事로 여겨 飯味하여 喜음을 잊어서 그 旨趣를 窮究하니 오직 말을 잊고 義를 了達하며 義를 잊고 마음을 了達한 者라야 可히 새 우러러 信할러라

詳夫論主

의

旨趣

호니

要以分析華嚴大義

하사

令末世大心凡夫

로

於生

死地面上

에

頓悟諸佛不動智

하야

以爲初悟發心之源也

라

是故 第

二會

에

以普光明智

로

爲殿名

하사

說十信法門

대하사

直示如來普光明智

의

大用無方重重無限

하사

以爲信心

고하사

又舉十色世界

와

十智如來

와

十

首菩薩

하사

表法示之

하사

令其易解

시니

先舉東方金色世界

는

令發心者

信是自己白淨無垢法身之理也

요

本所事佛

이

是不動智佛

은

直

信自己無明分別之種

이

本是諸佛不動智也

요

上首菩薩

이

是文殊

師利^는 直信自己根本智中^에 善揀擇無相妙慧也^라 一切衆生^이 聞

此普法^{하고} 發心之者^는 一一自具如是之法^{이니} 故^로 光明覺品^에 云^하 云^하

一切處¹ 金色世界^며 一切處¹ 不動智佛^{이며} 一切處¹ 文殊師利^{시라하}

具如論中廣明^{라하}

論主의 旨趣를 자세히 하니 中으로 이 써 華嚴의 大義를 分析하사 末世의 大心凡夫로 하

여금 生死地面위에 諸佛의 不動智^(根本智)를 물룩 깨달아서 써 처음 깨달아 發心하는 根

源을 삼게 한지라 이런 故로 第二會에 普光明智^(不動智와 같다)로써 殿名을 삼으사 十信法門을

說하시되 바로 如來 普光明智의 大用이 方所가 없어 重重無限함을 보이사 써 信心을

삼으시고 또 十色世界와 十智如來와 十首菩薩을 드사 法을 表하여 보이사 그로하여금

알기 쉽게 하시니 먼저 東方金色世界를 드심은 發心한 者로한여금 이 自己의 白淨無垢

한 法身의 理인줄 信케 함이요 本來섭진바 佛이 이 不動智佛임은 바로 自己無明分別의

種이 本來 이 諸佛의 不動智임을 信케 함이요 上首菩薩이 이 文殊師利임은 바로 自己

根本智가운데에 잘 揀擇하는 無相妙慧를 信케 함이라 一切衆生이 이 넓은 法을 듣고

發心하는 者는 날날이 스스로 이같은 法을 갖추이니 故로 光明覺品에 이르시되 一切處

가 金色世界며 一切處가 不動智佛이며 一切處가 文殊師利라 하시니 갖추 論 가운데 變

染流轉中不失性淨之理也 라 若約華藏世界主 하아 爲名則此根本智

爲盧舍那佛 이요 若約金色世界主 하아 爲名則此根本智 爲不動智

佛 이요 若約大心衆生 의 返照發現處 하아 爲名則此根本智 爲自心普

光明智佛 이며 亦是自心不動智佛 이며 亦是自心盧舍那佛 이니 隨舉一名

하아 皆具三身十身等 이라

△答하시되 이같은 疑情을 굳게 執하여 버리지 못하면 곧 어찌 論主의 보이신바 觀行의 門에 參預하리오 모름지기 생각을 잊어 虛하고 밝아서 消息하고 冲融하여야 이에 可할지니라 그러나 論文의 보이신바 義를 자세히 하니 말씀하신바 不動智가 또한 이 根本普光明智라 이 根本智에 當하여 이름해 諸佛 果智라 함이니 이 根本智가 이 理事와 性相과 生佛과 自他와 染淨과 因果의 體性인 故로 홀로 染을 따라 流轉하는 가운데 性깨끗함을 잃지 않는 理만 取함이 아니라 만일 華藏世界主를 잡아 이름한즉 이 根本智가 盧舍那佛이 되고 만일 金色世界主를 잡아 이름한즉 이 根本智가 不動智佛이 되고 만일 大心衆生의 返照해 發現한 곳을 잡아 이름한즉 이 根本智가 自心의 普光明智佛이 되며 또한 이 自心의 不動智佛이며 또한 이 自心의 盧舍那佛이니 한 이름 들을 따라서 다 三身과 十身(一은 普提身二는 顯身三은 化身四는 力持身五는 相好身六은 威勢身七은 意生身八은 福德身九는 法身十은 智身이다) 등을 갖추이라

以此根本普光明智中 에 本具自他生佛染淨因果理事性相情非情

故論云此之佛華嚴經法門是大根衆生自信自心普光明智一眞法界之道也當知此輩堪受此經觀行相應又云以十方諸佛無依住智幻住莊嚴門遍法界虛空界法性恒遍十方如影對現色身同自身故本不二故體無差別故十方諸佛智身如影所言如響如是信解當得成佛我今信者亦如是知如是信解云何有退全身全心及一切境界全是法身理智本無依住本無所得一切語言分別如空中響應無作緣任物成聲本無依住了如斯法而生信解云何有退設有習氣暫時念退信及住位一往不退又云大體常須自信自己身語意境界一切諸行分別皆從如來身語意境界諸行分別中生皆無體無性無我無人但以法界無作自性緣生本無根栽處所可得性自法界無有內外中間應如是知如是觀察觀自觀他同一體性

이라
無我^와 我所^{하니} 以定慧力^{으로} 如是修行^{하고} 既自知已^{는하야} 觀衆生苦^{하야}

自利利他^를 皆如普賢廣大行願^{이니} 一如此經五位法則也^{시고하}

씨 이 根本普光明智가운데에 本來 自他와 生佛과 染淨과 因果와 理事와 性相과 情과
非情이 갖춘 故로 論에 이르시되 이 佛華嚴經法門은 이 大根衆生이 스스로 自心普光明
智인 一眞法界의 道를 信함이니 마땅히 알라 이 무리가 이 經受持함을 堪當하여 觀行
이相應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十方諸佛의 無依住智(不動智의 代名詞) 幻住莊嚴門(모든示現이하나도眞
으로씨 法界와 虛空界에 두루하여 法性이 항상 十方에 두루해서 그림자와 같이 色身을
對現하여 自身과 같은 연고며 本來 들이 아닌 연고며 體가 差別이 없는 故로 十方諸佛
의 智身이 그림자와 같고 말쑥한바가 메아리와 같으니 이같이 信解하여야 마땅히 成佛
함을 얻는지라 내가 이제 信하는것도 또한 이같이 알며 이같이 信解하거니 어찌 退轉
이 있으리오 全身과 全心和 一切境界가 온전히 法身의 理智라 本來 依住가 없으
며 本來 얻을바가 없어서 一切 語言分別이 空中에 메아리와 같아서 無作의 緣을 應하
며 物을 말져 소리를 이뤄서 本來 依住가 없으니 이같은 法을 了達하여 信解를 내거니
어찌 退함이 있으리오 設使 習氣가 있어서 暫時에 물려감을 생각하더라도 信과 眞住
位(初發心時에便成 正覺한初住의位)는 一往(一)에 退하지 않는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大體가 항상 모름지기
스스로 自己의 身語意境界와 一切 諸行分別이 다 如來의 身語意境界와 諸行分別가운데

로 좇아 나는지라 다 體가 없고 性이 없으며 我도 없고 人도 없으니 다만 法界의 造作
없는 自性으로써 攀緣해 날새 本來 根栽와 處所 可히 얻을게 없어서 性이 스스로 法界
라 内外와 中間이 있음이 없는줄 信할지니 應當 이같이 알며 이같이 觀察하여 自를 觀
하고 他를 觀함에 同一한 體性이라 我와 我所가 없으니 定慧力으로써 이같이 修行하고
이미 스스로 알아 다쳐서는 衆生の 苦를 觀하여 스스로 利하고 他를 利케 함을 다 普
賢의 廣大한 行願과 같이 할지니 한결같이 이 經의 五位法則과 같다 하시고

又云^{대하사}

此經如來出現品

云^{대하사}

菩薩摩訶薩

應知自心念念常有

佛成正覺

^{시니하}

爲明諸佛如來

不離此心

^코

成正覺故

^요

又云^{대하사}

一切衆生

^도

心亦如是

^{하야}

悉有如來成正覺

^{시니하}

此明凡聖心

^이

自體

清淨無異

^라

但有迷悟

^{연정}

不隔分毫

^{하니}

但一心妄念不生

^{하면}

得心境蕩

然^{하야}性自無生

^{이라}

無得無證

^{하야}

即成正覺故

^니

便以此法

^{으로}

廣利衆生

^{하면}

是普賢行

^{이라}

故

^로

無心性理妙慧

^로

簡擇一乘三乘人天因果

^{一名}

爲文殊

爲文殊

^요

隨差別智同行

^{하야}

知根利生

^{하야}

無有休息

^이

名爲普賢

以大悲

^로

救護一切衆生

^이

名爲觀音

^{이요}

以此三心

^{으로}

一時修習

^이

名

毗盧遮那_요 慣習心成_이 名爲自在_요 無法不明_이 名爲無碍_요 智隨
 根應_{하야} 普遍十方_{호대} 性無來往_을 名曰神通_{이니} 修之在初_나 慣習_을 摠
 得_{이요} 妄生多劫_{이나} 智日_은 不遷_{이라} 此摠非難_{니이여} 何須不作_{이디} 學而不得_을
 猶福勝人天_{이여} 不信不修_{하면} 苦窮何盡_{하디고요} 又云_{대하사} 此經_은 是佛果
 門_{이나} 還授與凡夫中_에 樂學不厭生死者_{하야} 於生死海中_에 取一切智
 也_라 若實二乘_{일면} 在會_{도하야} 如聾不聞_{이요} 三乘菩薩_은 雖行六波羅蜜_{하야}
 得六神通_{도이라} 有畏苦之心_{하야} 厭患世間_{하야} 往生淨土_{하디} 設有慈悲心者_{이라}
 以留愛習_{하야} 住世利生_{일세} 雖聞此教_나 不能生信_{하나} 如經中自明_{이라}
 此經_은 不爾_{하야} 以一切衆生_이 從一切諸佛根本智生_{일세} 還以根本普
 光明智_로 爲發菩提心之初也_{라하}

또 이르시되 이經 如來出現品에 이르시되 菩薩摩訶薩이 백백이 自心の 念念에 항상
 佛이 正覺을 이룸이 있는줄 알라 하시니 諸佛如來가 이 마음을 여의지 않고 正覺이룸
 을 밝힘이 되는 연고요 또 이르시되 一切衆生도 마음이 또한 이같이 다 如來가 正覺
 을 이룸이 있다 하시니(又云下는 經中에서 正覺을 法門을 引發한 것이 다) 이는 凡聖의 마음이 自體가 淸淨해 다름이 없는

지라 다만 迷와 悟가 있음이 언정 分毫도 隔하지 않으니 다만 한 마음에 妄念이 나지
 않으면 心과 境이 蕩然함을 얻어서 性이 스스로 남이 없는지라 얻음도 없고 証함도 없
 어서 곧 正覺이름을 밝힌 연고니 문득 이 法으로써 널리 衆生을 利케 하면 이 普賢行
 이라 故로 心性理가 없는 妙慧로 一乘과 三乘과 人天의 因果를 簡擇함이 이름이 文殊
 가 되고 差別智를 따라 同行하여 根機를 알아 衆生을 利케 해서 休息함이 있음이 없음
 이 이름이 普賢이 되고 大悲로써 一切衆生 救護하기를 願함이 이름이 觀音이 되고 이
 三心(悲觀智文)으로써 一時에 닦아 익힘이 이름이 毗盧遮那(覺明遍照)요 慣習心
 이 이뤄짐이 이름이 自在가 되고 法마다 밝지 않음이 없음이 이름이 無碍가 되고 智
 가 根을 따라 應하여 널리 十方에 두루하되 性이 來往이 없음을 이름해 이르되 神通이
 니 닦음이 처음내 있으나 慣習을 摠히 얻고(初發心時便成正覺) 妄에는 多劫을 내나 智日
 은 옮기지 않는지라(古祖의 所謂迷와 覺多劫을 내나 悟하면 곧 利那라는 意다) 이 摠히 어려움이 아니어니 어찌 모름지기 짓지
 않으리오 배워 얻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福이 人天보다 勝하려니와 信치 않고 닦지 않
 으면 苦窮이 어찌 다하리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經은 이 佛果의 門이나 도리어 凡
 夫가운데에 즐거이 배워 生死를 싫어하지 않는 者에게 주어서 生死海가운데에 一切智
 를 取하게 함이라 만일 實로 二乘일진면 會에 있을지라도 귀먹음과 같애 듣지 못하고
 三乘菩薩은 비록 六波羅蜜을 行하여 六神通을 얻음지라도 苦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

어서 世間을 싫어하고 근심하여 淨土에 往生하며 (三乘權教善緣은最初부터有功用으로發心하여一乘法의無功用道를

이根絶되지 못하는것이니모두) 設使 慈悲心이 있는 者라도 愛習을 머물러서 世上에 住하여 衆生

을 利케 할새 비록 이 教를 들으나 能히 信을 내지 못하니 經가운데 스스로 瞋恨과

같은지라 이 經은 그렇지 아니하여 一切衆生이 一切諸佛의 根本智로 좃아 낯새 도리

어 根本普光明智로써 菩提心을 發하는 始初를 삼는다 하시니

據如上論文之義 하야 三復深思 호니 此論主所示生佛互融之義 는 要令

觀心入道之者 로 常須自信自己身語意 와 及境界之相 이 皆從如來

身語意境界中生 이라 皆無體無性 하야 本不二故 며 體無差別故 니 但以

法界無作自性緣生故 로 緣緣之相 이 全性而起 니 性自法界 라 無內

外中間 하야 應如是知 하미 如是觀察也 시니 此則佛及衆生 이 本從根本普

光明智性海幻現故 로 生佛相用 이 似有差殊 나 全是根本普光明智

之相用也 라 故 로 本是一體而起用重重 이니 此當性起門也 니라

위와 같은 論文의 義를 의거하여 세번 反復해 깊이 새각하니 이 論主의 보이신바 衆生

과 佛이 서로 融通하다는 義는 종요로이 마음을 觀하여 道에 드는 者로 하여금 항상 모

름지기 스스로 自己의 身語意와 境界의 相이다 如來의 身語意境界가운데로 좃아 나

는지라 다體가 없고 性이 없어서 本來 둘이 아닌 연고며 體가差別이 없는 연고니 다
만 法界의 造作 없는 自性으로써 반연해 나 는 故로 緣과 緣의 相이 온 性으로 일어남이
니 性이 스스로 法界라 内外와 中間이 없는줄 信하여 應當이 같이 알며 이같이 觀察케
하시니 이는 佛과 및 衆生이 本來 根本普光明智의 性海로 좃아 幻으로 나타난 故로 衆
生과 佛의 相用이 差殊함이 있는것 같으나 온전히 이 根本普光明智의 相用이라 故로
本來 이一體로되 用을 일으킴이 重重함이니 이는 性起門에 當하니라

他處所論生佛互融之義 已成果智盧舍那佛 在衆生生滅八識

之中 衆生 亦在佛智之中者 是不異理之一事 全攝理性時

令彼不異理之多事 隨所依理 皆於一中 現也 此則生佛

體殊而隨理普遍 如因陀羅網中 珠珠體別而影影交羅也

此當緣起門事事融攝也 義理 展轉 論之又論則雖歸一致

觀行得道門中 意有親疎 請捨諸議論 默而思之 又他處所

述成佛之義 曰先悟毘盧法界 後修普賢行海 明毘盧法界則

廣陳緣起門中事事無碍之相 乃曰先須起想觀之 若不起想

則失佛果無碍圓德하다此大不然이何得佛果圓德因妄想而現

若因想而現者오이리是無常法也나經不云乎若人欲識佛境界

當淨其意如虛空나遠離妄想及諸取하令心所向皆無碍바라

他處家疏注에 論한바 衆生과 佛이 서로 融通하다는 義는 이미 果智를 이룬 盧舍那佛이

衆生의 生滅하는 八識가운데 있으며 衆生도 또한 佛智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 理와 다

르지 않은 한 事가 온전히 理性을 攝할 때에 저 理와 다르지 않은 많은 事로하여금

依止한바 理를 따라서 다 하나가운데 나타나게 함이라 이는 곧 衆生과 佛이 體가 다르되

理를 따라 널리 두루함이 因陀羅網帝釋天宮에 넓은寶網이니가운데에 珠와 珠가 體는 다르되 影

과 影이 사귀어 羅列함과 같나니 이는 緣起門의 事事가 融攝함에 當하는지라 義理를

展轉하여 論하고 또 論한즉 비록 一致에 돌아가나 觀行해 道를 얻는 門가운데엔 뜻이

親과 疎가 있으니 請친대 모든 議論을 버리고 默默히 생각할지니라 또 他處에 稱述한

바 成佛의 義는 이르시되 먼저 毗盧의 法界를 깨닫고 뒤에 普賢의 行海를 닦음이니 毗

盧의 法界를 밝힌즉 널리 緣起門가운데 事事無碍의 相을 배풀고 이에 이르되 먼저 모

름지기 생각을 일으켜 觀할지니 만일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佛果의 證得없는 圓

德을 잃는다 하니 이는 크게 그렇지 않은지라 어찌 시러금 佛果의 圓德을 妄想을 因하

여 나타나리오 만일 생각을 因하여 나타나는 것일진댄 이는 無常한 法이라 經에 이르

시지 안했느냐 만일 사람이 佛의 境界를 알고자 할진댄 마땅히 그 뜻을 깨끗이 함을
虛空과 같이 할지라 멀리 妄想과 및 모든 取를 여의어서 마음으로 하여금 向하는바에
다 걸림이 없이 하라 하시니라

若對下劣人

의

未能返照自心佛智發明者

하야

勸令存想

하야

仰信不退

亦得也

와어니

此論之意則不然

하야

只令大心凡夫

도

返照自心根本普

光明智一眞法界之道

하면

則便悟盧舍那佛不動智佛等

이니

十方諸佛

雖有名號差殊

와

依正莊嚴各別

이나

皆是自心普光明智之相用

이라

俱非外物也

니

以自心普光明智

1

量同虛空法界

하야

無有一佛

도

從本智而起

며

無有一衆生

도

不從本智而生

니

故知佛及衆生

이

依智生

하야

依智幻住

하야

生無所從

이

滅無所至也

도다

故

로

論

에

云

대하사

自心境

의

自他普眞則普見衆生心

과

自心

과

如來心

과

及身

이

同一

體相

이라

皆如幻相

하야

不見生住滅壞相則近

이요

迷此別求則遠

이니

如是

之法

이

如經廣明

시이라하

단일 下劣한 사람의 能히 自心佛智를 返照해 發明치 못한 者를 對하여 勸해 하여금 생

작을 두어서 우러러 信하여 退轉치 않게 함은 또한 옳으려니와 이 論의 뜻인즉 그렇지
 아니하여 다만 大心凡夫로 하여금 自心 根本普光明智인 一眞法界의 道를 返照하면 곧
 문득 盧舍那佛과 不動智佛等을 깨달음이니 十方諸佛이 비록 名號의 差殊와 依와 正
 莊嚴의 各各 다름이 있으나 다 이 自心普光明智의 相用이라 다 바깥 物件이 아니니
 써 自心의 普光明智가 量이 虛空과 法界와 같아서 한 佛도 本智로 좇아 일어나지 않음
 이 있음이 없으며 한 衆生도 本智로 좇아 나지 않음이 있음이 없음일새니 故로 알라
 佛과 및 衆生이 智를 依止해 幻으로 나며 智를 依止해 幻으로 住하여 나되 좇은바가
 없으며 滅하되 이를바가 없도다 故로 論에 이르시되 自己마음과 境界의 自와 他가 別
 리 참된줄 達한즉 別리 衆生心과 自心과 如來心과 및 身이 同一한 體相이라 다 幻相과
 같은줄 보아서 生住滅壞의 相을 보지 않은즉 가깝고 이를 迷하여 別로 求한즉 멀이니
 이 같은 法이 經에 널리 밝힘과 같다 하시니라

又論主頌

에 대하사云

佛是衆生心裏佛

이라

隨自根堪無異物

다이트

欲知一切

諸佛源

인연

悟自無明本是佛

이러하

將此頌意

하야

字細思看

하면

可以知之

니라

今日觀心之士

悟自無明所成果智

即理佛即事佛

이로

即自佛

即他佛

이러

即因佛即果佛

이니

故

로

云初水後水一性水

요

因佛果佛

一性佛^{시니라하} 旣云佛是衆生心裏佛^{이라} 隨自根堪無異物^{인면} 當知已成
 果智盧舍那佛^의 十身相海 全是自心普光明智佛^{이라} 但隨根所堪^{하야}
 現似外相^{이나} 依正莊嚴^이 本非外物也^니 以自心普光明智 量同法
 界虛空界^{하야} 相用^이 自在^{하야} 能一能多^{하미} 能大能小^{하미} 能生能佛^{하미} 能
 自能他^{하미} 能現能隱^{하미} 能卷能舒^{하미} 能逆能順^{하미} 能善能惡^{하미} 能染能
 淨^{하나} 是不思議大光明藏^이 含攝諸法^{하야} 爲萬化之源^{이라} 當知盧舍那
 佛^이 從凡夫地^로 始自發心^{하야} 行菩薩道^{하야} 至於果地^히 所有大悲大
 智大願^과 一一念一一行一一法一一時一一處 皆是自心普光明
 智之運爲也^라 以普光明智 廓徹虛明^{하미} 靈妙無方^{하야} 大用自在^{하야}
 法爾恒然^{하니} 纔有一法緣生^{하면} 無非自心性起功德^{이라} 以摠別同異成
 壞 同時自在故^로 以智照之^{하면} 可見^{이요} 情識思而不知^{니라}

또 論主의 頌에 이르시되 佛은 이 衆生의 마음속에 佛이라 自己根機의 堪當함을 따라
 다른 物件이 없도다 一切諸佛의 根源을 알고자 할진면 自己無明이 本來이 佛인줄 깨

달으라 하시니 이 頌의 뜻을 가져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可히 새 알지니라 今에 마
 음을 觀하는 선비가 自己無明을 깨달아 이룬바 果智가 곧 理佛이요 곧 事佛이며 곧 自
 佛이요 곧 他佛이며 곧 因佛이요 곧 果佛이니 故로 이르시되 初水와 後水가 한 性의
 물이요 因佛과 果佛이 한 性의 佛이라 하시니라 이미 이르되 佛이 이 衆生의 마음속에
 佛이라 自己根機의 堪當함을 따라 다른 物件이 없을진대 마땅히 알라 이미 果智를 이
 룬 盧舍那佛의 十身相海가 온전히 이 自心의 普光明智佛이라 다만 根機의 堪當할바를
 따라서 나타나 外相과 같으나 依와 正의 莊嚴이 本來外物이 아니니 普光明
 智가 量이 法界와 虛空界와 같아서 相用이 自在하여 能히 一하고 能히 多하며 能히 大
 하고 能히 小하며 能히 衆生하고 能히 佛하며 能히 自하고 能히 他하며 能히 現하고
 能히 隱하며 能히 卷하고 能히 舒하며 能히 逆하고 能히 順하며 能히 善하고 能히 惡
 하며 能히 染하고 能히 淨하니 이 不思議한 大光明藏이 모든 法을 含攝하여 萬化의
 源이 되는지라 마땅히 알라 盧舍那佛이 凡夫地로 좇아 비로소 스스로 發心하여 菩薩道
 를 行해서 果地에 이르기까지 있는바 大悲、大智、大願과 一念、一行、一二法、一
 一時、一一處가 다 이 自心普光明智의 運爲라 普光明智가 靡微하여 비어 밝으며 靈
 妙해 方所가 없어서 大用이 自在하여 法이 그러히 항상 그리하니 겨우 한 法이 變연하
 여 남이 있으면 自心의 性이 일어난 功德이 아님이 없음이라 攄別同異成壞가 同時
 에 自在한 故로 智로써 비추면 可히 볼것이요 情識으로 생각하면 알지 못할지니라

又以自心內諸佛普光明智_로 普照一切衆生_{하면} 則衆生相_이 卽如來
 相_이 衆生語_ㅣ 卽如來語_며 衆生心_이 卽如來心_{이며} 乃至治生產業_과
 工巧技藝_ㅣ 皆是如來普光明智_의 運爲之相用_{이라} 都無別異也_나 但
 是衆生_이 自業自誑_{하야} 自見是凡是聖_과 是自是他_와 是因是果_와 是
 染是淨_과 是性是相等_{하야} 自生分別_{하야} 自生退屈_{이요} 非由普光明智_ㅣ
 故作如是_나 若能發勇猛心_{하야} 悟自無明_의 本神本眞_{하야} 無功大用恒
 然之法_{하면} 則便是諸佛不動智_라 故_도 論主_ㅣ 以大悲心_{으로} 叮嚀之曰
 以一切衆生_이 本從諸佛根本智生_{이니} 還以根本普光明智_로 爲發菩
 提心之初也_{시요} 又云_{대하사} 欲知一切諸佛源_{인면} 悟自無明本是佛_{시니라} 何
 有智者_ㅣ 得聞先聖_의 如是懇苦之言_{하고} 而不生信_{하며} 亦不觀自心_{하고}
 談論終日_{하야} 虛過一生耶_{리오}

또 自心안의 諸佛普光明智로써 널리 一切衆生을 비추면 衆生相이 곧 如來相이며 衆生
 語가 곧 如來語며 衆生心이 곧 如來心이며 乃至 生產業을 다스림과 工巧(工藝技術)의 技
 藝가 다 이 如來普光明智의 運爲하는 相用이라 도무지 別다름이 없진마는 다만 이 衆生

이 自業으로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이 凡과 이 聖과 이 自와 이 他와 이 因과 이 果와
이 染과 이 淨과 이 性과 이 相等을 보아서 스스로 分別을 내어 스스로 退屈을 냄이요
普光明智가 짐짓 지음을 말미암아 이 같음이 아니니 만일 能히 勇猛心을 發하여 自己無
明의 本來 神奇롭고 本來 참되어 功없는 大用이 항상 그러한 法을 깨달으면 곧 문득 이
諸佛의 不動智라 故로 論主가 大悲心으로써 叮嚀(再三叮嚀한 뜻이다)해 이르시되 一切衆生
이 本來 諸佛의 根本智로 좇아 남이니 도리어 根本普光明智로써 菩提心을 發하는 始初
를 삼는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一切諸佛의 根源을 알고자 할진대 自己無明이 本來 이
佛인줄 깨달으라 하시니 어찌 智者가 있어 先聖의 이 같은 懇苦한 말씀을 얻어 듣고 信
을 내지 않으며 또한 自心을 觀하지 않고 談論으로 날을 마쳐 헛되이 一生을 지내리오

△問 호대 聞汝所說 호대 甚深難思 와어나 然 이나 只是同體之義 요 無異體之義

也 니 所以然者 는 現今十界依正 의 染淨緣起 1 歷然差別故 로 自他

相續 이 各異也 라 何得以已成果智盧舍那佛 로 一往將爲自佛耶 리오

不若常徒 의 所論盧舍那果智 의 所依理 와 與衆生生滅八識 의 所依

理 1 一體故 로 隨所依理 하야 在不修衆生心中 하야 作因作果也 다니이

△문되 너의 說하신바를 들으니 甚히 깊어 생각하기 어렵거니와 그러나 다만 이 同體

의義요 異體의義가 없음이니 卽 그러한바는 現今 十界의 依와 正의 染淨緣起가 歷然
히 差別한 故로 自와 他의 相續이 各各 다른지라 어찌 시러금 이미 果智를 이룬 盧舍那
佛로써 一往이 가져 自佛을 삼으리오 常徒(華嚴疏注)의 論한바 盧舍那果智의 依止하는바
理와 다못 衆生生滅八識의 依止하는바 理가一體인 故로 依止하는바 理를 따라서 닮
지않는 衆生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因을 짓고 果를 짓는다 하는것만 같지 못하니이다

△答대하사 前已論之

호니

但息心無諍

하고

虛懷內照

하야

成辦妙果

爲要

何更問耶

리호

旣以伸問

인대

吾更言之

라호리

若論緣起門中融攝之義

난대

則

誠如所難

니이와

今此論主旨趣者

는

爲頓悟佛智

한

大心凡夫

하야

直示諸

佛普光明智果海一眞法界之道

하사

於離言中

에

不得已而說也

시니

若

如言執之則同中

에

無異

하고

異中

에

無同

이라

言自則非他

요

言他則非自

也

와이니

若得意會之則即同即異

하피

即自即他也

니

今爲得意會之者

하야

說具異相之同相

具他佛之自心佛也

과

然

이나

且約今時頓悟者

의

圓照法界自心之境

이

本具自他凡聖因果

하야

說自心普光明智佛果

耳

와이니

究竟非同非異

며

非自非他

니

以離言智境界故

라

汝若執現今

凡聖相續各別之見^{하야} 云自佛他佛^과 同相異相^을 不可混濫^{하리라} 則宛
 是遍計^라 情執^을 未忘^{니이} 何時^에 得入生佛圓具^{하고} 同異自在^한 本智^라
 之境界耶^{리오} 若唯論因果門^{하야} 口靜終日則可矣^{아니} 若依觀行門^{하야} 速^{으로}
 證菩提^{하야} 透脫塵勞^{하고} 廣度群迷^{하야} 續佛壽命者^고 恒以自己一心^{으로}
 融會凡聖因果依正差別^{이니} 其中^에 具六相義^{하야} 非情識知^라 後當更
 明^{호리라} 此是經論要旨^요 千聖通宗也^라

△答하시되 前에 이미 論했으니 다만 마음을 쉬어 다투지 말고 생각을 비워 안으로 비
 취서 妙果를 成辦함이 要가 됨이니 어찌 다시 물으리오 이미 써 퍼 물었을진대 내가 다
 시 말하리라 만일 緣起門 가운데 融攝의 義를 論할진대 곧 진실로 問難한바와 같거니와
 이제 이 論主의 旨趣는 佛智를 깨달은 大心凡夫를 爲하여 바로 諸佛의 普光明智
 果海인 一眞法界의 道를 보이사 말을 여윈 가운데에 不得已해 說함이시니 만일 말과
 같이 執한즉 같은 가운데에 다름이 없고 다른 가운데에 같음이 없는지라 自를 말한즉
 他가 아니요 他를 말한즉 자가 아니라니와 만일 뜻을 얻어 理會한즉 同에 即하고 異에
 即하며 自에 即하고 他에 即함이니 이제 뜻을 얻어 理會한 者를 爲하여 異相을 갖춘
 同相과 他佛을 갖춘 自心佛을 說함이라 그러나 또 今時에 頓悟한 者의 法界自心의 境

이 本來 自他와 凡聖과 因果가 갖추을 두렷이 비춤을 잡아서 自心の 普光明智佛果를
 說했지니와 究竟엔 同도 아니요 異도 아니며 自도 아니요 他도 아니니 세 말을 여원智
 의 境界인 연고라 네가 만일 現今 凡과 聖의 相續이 各各다른 見을 執하여 이르되 自
 佛他佛과 同相異相을 可히 混濫치 못한다 하면 곧 宛然히 이 遍計라 情執을 잊지 못함
 이어나 어느 때에 生과 佛이 圓具하고 同과 異가 自在한 本智의 境界에 들을 연으리
 오 만일 오직 因果門만 論하여 口誦으로 날을 마친즉 옳거니와 만일 觀行門을 依止해
 서 速히 菩提를 証하여 塵勞를 透脫하고 널리 群迷를 濟度하여 佛의 壽命을 잇는 者일
 진면 항상 自己의 一心으로써 凡聖과 因果와 依正의 差別을 融會할지니 그 가운데에
 六相의 義가 갖추서 情識으로 알것이 아니라 뒤에 마땅히 다시 밝히리니 이것이 이 經
 論의 要旨요 千聖의 通宗이라

如來出現品

에

不云乎

아

菩薩摩訶薩

이

聞此法已

하고

即能以大觀察

知三世諸佛

이

同一體性

하며

即能以善根廻向智

로

普入如是法

호대

不入而入

이라

不於一法

에

而有攀緣

이요

恒以一法

으로

觀一切法

이니

佛子

菩薩摩訶薩

이

成就如是功德

하면

少作功力

으로

得無師自然智

시라

又

經

에

云

대하사

森羅及萬像

이

一法之所印

아시라

하

賢首國師

一

云

대하사

言一法

者^는 所謂一心也^라 是心^이 即攝一切世間出世間法^{이니} 即是一法界

大摠相法門體^라 唯依妄念^{하야} 而有差別^{하니} 若離妄念^{하면} 唯一眞如^은

故^로 言海印三昧也^라 海印者^는 眞如本覺也^니 妄盡心澄^{하면} 萬像齊

現^{호미} 猶如大海¹ 因風起浪^{가이라} 若風止息^{하야} 海水澄清^{하면} 無像不現^{일세}

故^로 云海印三昧也^{시니라} 若但論於一衆生心中^에 具明三大攸同^과 始

本不二之義^{하면} 則如起信論^에 所明曰所言法者^는 謂衆生心^{이라} 是心

이 即攝一切世間出世間法^{하니} 依於此心^{하야} 顯示摩訶衍義等^{이요} 若論

於一衆生心中^에 具明生佛互融^과 因果同時之義^{하면} 則如華嚴論主

의 所明曰佛是衆生心裏佛^{이라} 隨自根堪無異物^{이니} 欲知一切諸佛源

인변 悟自無明本是佛^{라이니} 又如出現品偈^에 云^{하사} 佛智亦如是^{하야} 遍在衆

生心^{대이로} 妄想之所纏^{으로} 不覺亦不知^{어늘} 諸佛^이 大慈悲^로 令其除妄想

하사 如是乃出現^{하사} 饒益諸菩薩^{시니라} 此是一一衆生心中^에 生佛互融

恒然之義也^라

如來出現品에 이르지 안했느냐 菩薩摩訶薩이 이法을 들어 마치고 곧 能히 大觀察로
 써 三世諸佛이 同一한 體性인줄 알며 곧 能히 善根回向智로써 널리 이같은 法에 들며
 들지 않고 드는지라 한 法에 반연이 있지 않고 항상 한 法으로써 一切法을 觀하니 佛
 子야 菩薩摩訶薩이 이같은 功德을 成就하면 造作없는 功力으로 無師智와 自然智를 얻
 는다 하시고 또 經에 이르시되 森羅와 및 萬像이 한 法의 印친바라 하였거늘 賢首國師
 가 이르시되 한 法이라 말한 것은 이른바 한 마음이라 이 마음이 곧 一切世間과 出世間
 法을 攝하니 곧 이 一法界大總相法門體라 오직 妄念을 依止하여 差別이 있으니 만일
 妄念을 여의면 오직 한 眞如_用새 故로 海印三昧라 말하심지라 海印이란 것은 眞如本
 覺이니 妄이 다하고 마음이 밝으면 萬像이 가지런히 나타남이 마치 大海가 바람을 因
 하여 물결을 일으키다가 만일 바람이 止息하여 海水가 澄清하면 像마다 나타나지 않음
 이 없음과 같을새 故로 이르되 海印三昧라 하시니 만일 다만 衆生心 가운데에 갖추
 三大_用(_{俗用})의 같은바와 始_(如)本_(本)이 틀아닌 義를 밝힘을 論하면 곧 起信論에 밝힌바
 이르시되 말한바 法이란 것은 衆生心을 이름이라 이 마음이 곧 一切世間과 出世間法을
 攝하니 이 마음을 依止하여 摩訶衍의 義를 나타내 보인다는 등과 같고 만일 한 衆生心
 가운데에 갖추 生과 佛이 서로 融攝과 因果果가 同時라는 義를 밝힘을 論하면 곧 華嚴
 論主의 밝히신바 이르시되 佛은 이 衆生의 마음속에 佛이라 自己根機의 堪當함을 따라

다른 物件이 없음이니 一切諸佛의 根源을 알고자 할진면 自己無明이 本來이 佛인줄 깨달으라 함과 같으니라 또 저 出現品 偈에 이르시되 佛智도 또한 이같이 두루 衆生 心에 있으되 妄想의 얽힌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기를 諸佛이 大慈悲로 그로 하여금 妄想을 除하려 하사 이같이 이에 出現하사 모든 菩薩을 饒益케 한다 하시니 이것이 이 날날 衆生心가운데에 生과 佛이 서로 融하여 항상 그러한義라

又論云 雖然安立十信 及五位次第 畢竟成普賢行 因滿

果終時亦不移 普光明智 亦不異 此觀行及者 了知此十

種信心 直至佛果普賢行滿以來 一時總解 名爲信心也 此

是今日大心衆生 初發信心 因果同時也 審如上之義 華嚴

起信所論一心三大之義 廣略開合 務機成異 皆是現今凡夫

心中 含攝之義 但隨言教 終日諍論 增長我慢勝負之心

空過一生 不解返照 勤修梵行 可不慙愧乎 先聖 豈不知

道所言法者 謂諸佛心 豈不知道佛智 在菩薩心中乎 然

不如是而叮嚀指衆生心者 使汝張口 終日諍論 不修觀行

還復沈淪耶

아

如有信根

인연

三復思之

이다

또論에 이르시되 비록 그러히 十信과 및 五位次第와 畢竟에 普賢行을 이루어 因이 차
매 果가 마침을 安立했으나 때도 또한 옮기지 않으며 普光明智도 또한 다르지 않음이
니 이는 觀行해 미친 者의 이 十種信心으로 바로 佛果普賢行滿以來에 이름을 了知하여
一時에 다 알이 이름이 信心이 됨이라 이것이 이 今日 大心衆生이 처음 信心을 究하여
因果가 同時라 하시니 위와 같은 義를 살피건대 華嚴과 起信의 論하신바 一心과 三大
의 義가 廣略과 開合이 機(生衆)를 힘쓰게 하여 다름을 이뤘으나 다 이 現今 凡夫 마음
가운데에 含攝한 義어늘 다만 言教를 따라 終日토록 諍論해서 我慢勝負의 心を 增長하
여 헛되이 一生을 지내고 返照하여 부지런히 梵行 닦을 줄 알지 못하니 可히 부끄럽지
않으랴 先聖이 어찌 말한바 法이란 것은 이르되 諸佛의 마음이라 이를 줄 알지 못하며
어찌 佛智가 菩薩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를 줄 알지 못했으리오 그러나 이같이 하지 않
고 叮嚀히 衆生心이라 가리킨 것은 너로 하여금 입을 벌려 날이 맞도록 諍論하고 觀
行을 닦지 아니하여 도리어 다시 沈淪케 함이라 만일 信根이 있을진면 세번 反復해 생
각할지이다

△問

호대

向來所說

은

既聞命矣

와이니

古今禪門達者

의

見性成佛

이

豈非

一分性淨之體

고

不具相用耶

고

미엇

△문되 向來에 說하심하는 이미 命을 들으려니와 古今 禪門에 達한 者의 見性成佛이 어찌 一分 性淨의 體가 相用을 갖추지 못함이 아니리오고

△答 대하사

不然 하다

汝豈不聞

가

永嘉眞覺大師

一宿曹溪

하사

開悟本心

作歌 하시

其略 에

曰心鏡明鑑無碍

여

廓然瑩徹周沙界

라

萬像森羅影

現中 하니

一顆圓光

이

非內外

라

一性

이

圓通一切性

이요

一法

이

遍含一

切法 이라

一月

이

普現一切水

하니

一切水月

이

一月攝

다

諸佛法身

이入

我性 하니

我性

이

還共如來合

시

이

又英邵武

1

開悟本心作偈

하

니

其略

曰十方

이

齊現一毛端

하니

華藏重重帝網寒

시

고

又大慧禪師

1

秉

拂云 대하사

欲識佛性義

고

當觀時節

이니

時節

이

若至

하면

其理自彰

이라

乃至須知微塵諸佛

이

出世

하

降王宮坐道場

며

轉法輪降魔軍

며

度

衆生入涅槃

미하

攄不出這箇時節

이니

諸人

이

若信得及

하면

無邊刹境

이

自他

1

不隔於毫端

이요

十世古今

이

始終

이

不離於當念

시니

如是等

開悟本心

하

得見自心鏡內

에

帝網重重無盡法界者

를

禪門傳記中

不可勝數

어늘

味者

1

不知其源

하

不覽禪錄

하

亦不見華嚴大論

之旨故 로 纔聞禪者 의 說即心即佛 하면 以謂不過性淨佛也 나하 是大愚 惑이라

△答하시되 그렇지 않다 네가 어찌 듣지 못했느냐 永嘉眞覺大師가 한번 曹溪에 留宿하사 本心을 開悟하여 노래를 지으시니 그 略에 이르시되 마음 저울이 밝아 비침이 障碍가 없음이여 廓然히 밝게 사무쳐 沙界에 두루한지라 萬像森羅의 그림자가 가늘데 나타나니 한 덩이 圓光이 안과 밖이 아니라 한 성이 두럿이 一切性을 通하고 한 法이 두루 一切法을 含한지라 한 달이 넉리 一切 물에 나타나니 一切水月이 한 달에 攝했도다 諸佛法身이 나의 성에 드니 나의 성이 도리어 如來와 한가지 合한다 하시고 또 英邵武가 本心을 開悟하여 偈를 지으시니 그 略에 이르시되 十方이 가지런히 한 터럭끝에 나타나니 華藏이 重重하여 帝綱이 차다 하시고 (平政張前名恭熙字叔淵의 遺稿에 載한 詩로 無所遺恨을 示하는 詩로 遺稿의 本意가 前觀境의 交光互映의 妙境을 示하는 것이요 意는 二根本의 本來일다) 또 大慧禪師가 拂子 (拂子의 意) 를 잡아 이르시되 佛性의 義를 알고자 할진면 마땅히 時節因緣을 觀할지니 時節이 만일 이르면 그 理가 스스로 드러나는지라 乃至 모름지기 알라 微塵諸佛이 世上에 出現하사 王宮에 내리시고 道場에 앉으시며 法輪을 轉하고 魔軍을 降伏받으시며 衆生을 濟度하고 涅槃에 드심이 總히 이 時節에 나지 않음이니 모든 사람이 만일 信해 미치면 無邊한 世界境界가 自와 他가 터럭끝도 隔하지 않고 十世古今이 始와 終이 當念을 여의지 않는다 하시니 이같은 等 本心을 開悟하여 自心거

을 안에 帝網이 重重한 無盡法界를 얻어 본 者를 禪門傳記가 云에 可히 다 세지 못하
거늘 昧한 者가 그 根源을 알지 못하고 禪錄을 보지 못하며 또한 華嚴大論의 旨趣를
보지 못한 故로 겨우 禪하는 者의 곧 마음이 곧 佛이라 說함을 들으면 세이르되 性淨
의 佛(隨染性淨의 佛은 圓覺과 起信에 밝힌바 理當가 具足지 못한 證理成 佛을 말함이니 所顯法界이 라는 것이다)에 지나지 못한다 하나니 이 크게 어리석고 惑함이
라

非謂華嚴教門 說理未盡이로但學者 滯在言教義理分際하야未能
忘義了心하야速證菩提근세所以 達摩 西來하사欲令知月不在指라
法是我心故 不立文字고하시以心傳心耳 是以 禪門 只貴破執
現宗하고不貴繁辭義理施設이라故 所有破執言句 近於一分理性
의 離言絕慮之義 昧者 不知其義하고每將相似語例하야便謂同於
頓教나니하是大不然이라設於華嚴無盡法界重玄法門도이라生於法愛하야解
分을未忘이면亦爲所破也 台教 亦云하사圓門生着도이라尙爲初教 的
所破라하但性海果分 是法界證處 不可預談이녀亦不是心思意解
의 所及 故 清凉祖師 亦云하사圓音 非扣而常演 果海 離

念而心傳

시이라 하

又云

대하사

佛證離言

시이라 하

是知禪門

에

離念相傳

이

是頓

證法界處也

요

決非頓教中

에

不說法相

하고

唯見眞性

하야

一念不生

이

即名爲佛也

라

華嚴教門이 理를 說함이 다하지 못했다 이름이 아니로되 다만 學者가 言教義理의 分際에 滯在하여 能히 義를 잊고 마음을 了達하여 速히 菩提를 証하지 못할새 쓴바로 達摩가 西에서 오사 하여금 달이 손가락에 있지 않은지라 法이 이나의 마음인줄 알게하고 자 하신故로 文字를 세우지 않으시고 마음으로써 마음을 傳함이시니 이로써 禪門에 다만 執을 破하여 宗을 나타냄을 貴히 여기고 繁辭義理로 施設함을 貴히 여기지 않는지라 故로 있는바 執을 破한 言句가 一分理性의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진 義에 가깝거늘 昧한 者가 그 義를 알지 못하고 迷妄 相似한 語例를 가져서 문득 頓教과 같다이르나니 이 크게 그렇지 않은지라 設使 華嚴에 無盡法界의 重玄法門이라도 法愛를 내어 解分을 잊지 못하면 또한 破할바가 됨이니 台教(天台宗)에 또한 이르시되 圓門에 着을 내더가도 오히려 初教의 破할바가 된다 하시니 다만 性海의 果分은 이 法界의 証한 곳이라 可히 미리 말하지 못하며 또한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뜻으로 理解함의 미칠바가 아니라 故로 清涼祖師가 또한 이르시되 圓音은 물음이 아니로되 항상 演說하고 果海는 생각을 여의어 마음으로 傳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佛은 말 여임을 証하셨다 하시니

이 알라 禪門에 생각을 여의어 서로 傳함이 이 물록 法界를 証한 곳이요 決코 頓教 가운데에 法相을 說하지 않고 오직 眞性만 보아서 한 생각 나지 않음이 곧 이름이 佛 이 됨이 아니라

何以知其然 고 禪有三玄門 하니 一 은 體中玄 이요 二 는 句中玄 이요 三 은 玄

中玄 이라 初體中玄門 에 引無邊刹境 이 自他 1 不隔於毫端 하고 十世古

今 이 始終 이 不離於當念等事事無碍法門 하야 以爲初機悟入之門 하니

此亦是言教中 에 解分 을 未忘故 로 以句中玄 의 無跡平常灑落言句 로

令其破執 하야 頓忘佛法知解也 나 此亦有灑落知見 과 灑落言句故 로

以玄中玄 의 良久默然棒喝作用 으로 鍛鍊 하나 當此之時 하야 頓忘前來第

二玄門 의 灑落知見 과 灑落言句 일세 故 로 云 대하사 得意忘言道易親 시니라

是謂頓證法界處也 라 此中三玄은 雖非 臨濟本意나 且 順古師之意하야 明之라 禪門 에도 亦有爲初機下劣人 하야

指示隨流妄染中 에 有性淨妙心 하야 令其易解信入 케하 信入然後 에 忘

其解分 하야 方爲親證 이니 若不忘解分 하면 坐在解脫深坑 하야 不能於萬行

緣起門中 에 轉身無滯故也 라

어찌 써 그 그러한 줄 아는고 禪에 三玄門(三玄門의 세 문이다)이 있으니 一은 體가운데 玄함이요 二는 句(句의 用이)가운데 玄함이요 三은 玄가운데 玄함이라 처음 牀中玄門에 無邊한 世界境界가 自와 他가 터럭끝도 隔하지 않고 十世古今이 始와 終이 當念을 여의지 않는다는 等事事無碍法門을 이끌어서 初機의 깨달아 드는 門을 삼으니 이도 또한 이言敎가운데에 解分을 잊지 못한 故로 句中玄의 자취없이 平常하여 灑落한 言句로써 그로하여금 執을 破하여 물록 佛法의 知解를 잊게하나 이도 또한 灑落한 知見과 灑落한 言句가 있는 故로 玄中玄의 良久와 默然과 棒과 喝의 作用으로써 鍛鍊하니 이 때를 當하여 물록 前來 第二玄門의 灑落知見과 灑落言句를 잊을새 故로 이르시되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며 道가 親하기 쉽다 하시니 이는 物록 法界 証한 곳을 이름이라 (此中의 三玄은 비록 三玄의 本意가 아니라 지고 禪師의 意를 顯하여 밝힌 것) 禪門에도 또한 初機의 下劣한 사람을 爲하여 흐름을 따라 망령되이 물드는 가운데에 性淨한 妙心이 있음을 가리켜 보여서 그로하여금 쉽게 알아 信해 들게 함이 있으시니 信해 든 然後에 그 解分을 잊어야 바야흐로 親히 証함이 됨이니 만일 解分을 잊지 못하면 解脫의 길은 구렁에 앉아 있어서 能히 萬行緣起門 가운데에 몸을 轉해 滯함이 없지 못하는 연고라

敎中

에도

亦有以性淨本覺

으로

爲法界無碍緣起之源

하니

如賢首國師

의

所述依華嚴奧旨

하야

妄盡還源觀中

에

先標一體

하니

謂自性清淨圓明

體^라然^{이나}此則是如來藏中性淨之體^라從本已來^로性自滿足^{하야}處

染不垢^{하미}修治不淨^{일세}故^로云自性清淨也^요性體遍照^{하야}無幽不燭

故^로曰圓明也^라煩惱^{일세}覆之則隱^{하고}智慧¹了之則現^{이니}非生因

之所生^{이라}唯了因之所了^니起信論^에云^{대하사}眞如自性^이有大智慧光

明義故^미遍照法界義故^미眞實識知義故^{사타하}廣說如彼^{니하시}故^로曰自

性清淨圓明體也^라二^는依前淨體^{하야}起於二用^{이니}一者^는海印森羅

常住用^{이니}言海印者^는眞如本覺也^라妄盡心澄^{하야}萬像齊現^{호미}猶如

海水¹澄清^에無像不現^{이니}起信論^에云^{대하사}無量功德藏^인法性眞如

海^{시라하}所以^로名爲海印三昧也^요二者^는法界圓明自在用^{이라}是華嚴

三昧也^니謂廣修萬行^{호대}稱理成德^{하야}普周法界^{하야}而證菩提^{근세}故^로

云法界圓明自在用也^라三^은示三遍者^는謂依前二用^{하야}一一用中

普周法界^{근세}故^로云遍也^니一者^는一塵^이普周法界遍^{이요}二者^는

一塵^이出生無盡遍^{이요}三者^는一塵^이含容空有遍^{이라}此^는明事事無

碍也

라하

據此賢首所立之義

전대

如是二用三遍等

의

普周法界容融無

碍之德

이

皆從衆生心中自性清淨圓明體起也

라

若是華嚴所論一

眞無障碍法界

定與衆生心中性淨本覺

으로

其體

인

各別

인

而賢首

祖師

의

作是說者

則是誑誘盲聾

하는

妄語人矣

되다

故知隨機設教

廣略

이

稍異

나

其源

은

一也

니라

教中에도 또한 性淨한 本覺으로세 法界無碍緣起의 源을 삼음이 있으니 저 賢首國師의 지

으신바 華嚴奧旨를 依止하여 妄盡還源觀

(妄이盡하면源에 돌아가는觀)

가운데 먼저 한 體를 標하니 이르되 自

性清淨圓明曄라 그러나 이는 곧 이 如來藏가운데 性淨의 曄라 根本耑아 이 미음으로 性

이 스스로 滿足하여 染에 處하되 때문지 않으며 닥아 다스리되 깨닫지 않을새 故로 이

르되 自性清淨이요 性曄가 두루 비취 어둔데 마다 비치지 않음이 없을새 故로 이르되

圓明이라 煩惱가 덮은즉 숨고 智慧가 了達한즉 나타남이니 生因의 넉바가 아니라 오직

了因의 了達할바니

(生因은本來法性의體가 갖춰진즉體의一切善法을發生함이較劣劣機의顯明顯發을生함과 같 은것이요了因은智慧로써法性의理를照了한이體의物을照了했다了의可證은과 같은것이다)

起信論에 이르시

되眞如自性이 大智慧光明이 있는 義인 연고며 두루 法界를 비추는 義인 연고며 眞實히

아는 義인 연고라 하사 넉리 說함이 저와 같으시니 故로 이르되 自性清淨圓明曄라 二

는 前의 淨曄를 依止하여 두 用을 일으킴이니 一은 海印森羅常住用이니 海印이라 말한

것은眞如本覺이라 妄이 다하고 마음이 맑아서 萬像이 가지런히 나타나니 마치 海水가
 澄清하매 像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음과 같음이니 起信論에 이르시되 限量없는 功德
 藏인 法性眞如海라 하시니 쓴바로 이름이 海印三昧가 됨이요 二는 法界圓明自在用이라
 이는 華嚴三昧니 이르되 널리 萬行을 닦되 理에 極合해 德을 이뤄서 널리 法界에 두루
 하여 菩提를 證할새 故로 이르되 法界圓明自在用이라 三은 三遍을 보이신 것은 이르되
 前의 두用을 依止하여 날날 用가운데에 널리 法界에 두루할새 故로 이르되 遍이니
 一은 한 塵이 널리 法界에 두루하는 遍이요 二는 한 塵이 無盡을 出生하는 遍이요 三
 은 한 塵이 空과 有를 含容하는 遍이라 이는 事事無碍를 밝혔다 하시니 이 賢首의 세
 운바 義를 依據하건대 이같은 二用과 三遍等の 널리 法界에 두루하여 容融無碍한 德이
 다 衆生心가운데 自性淸淨圓明曄로 좇아 일어남이라 만일 이 華嚴에 論하신바 一眞無
 障碍法界가 決定코 衆生心가운데 性淨本覺으로 더붙어 그 曄가 各各 다를진대 賢首祖
 師의 이 말씀을 지으신 것이 곧 이 논말고 귀먹은이를 속여 달래는 妄語人이라 하
 로 알라 機를 따라 敎를 배움이 廣과 略이 적이다르나 그 根源은 하나니라

又義湘法師法界圖偈

에

曰法性

이

圓融無二相

하니

諸法

이

不動本來

寂

이라

無名無相絕一切

하니

證智所知

요

非餘境

이라

眞性

이

甚深極微妙

하야

不守自性隨緣成

하니

一中一切多中一

되오

一即一切多即一

다이크

一微

塵中^에 含十方^{하니} 一切塵中^에 亦如是^라 無量遠劫^이 卽一念^{이요} 一念

卽是無量劫^이^{나지}^하 此中^에 首標法性圓融無二相^은 是賢首^의 所

謂自性清淨圓明體也^며 亦是衆生^의 本有眞性^이 圓明清淨^하 處染

不垢^하 修治不淨^하 煩惱^ㅣ 覆之則隱^하 智慧^ㅣ 了之則現^{이라} 非生因

之所生^{이요} 唯了因之所了者也^나 若人^이 返照自心清淨覺性^하 妄盡

心澄^{하면} 萬像齊現^{호미} 猶如海水澄清^에 無像不現^{이니} 則名海印森羅常

住用也^라 其餘法界圓明自在用^{으로} 乃至二遍中^에 事事無碍^ㅣ 不離清

淨覺性^을 可知矣^니 湘師^의 所立法性^이 圓融^하 無名無相^{이라} 絕諸待

對^하 唯證智^의 所知^요 非餘境界者^도 亦是親證自性^의 本來湛寂離

名絕相處^하 而爲事事無碍法界之源^{이니} 豈以離言^{으로} 同於頓教也^{리오}

또 義湘法師의 法界圖偈에 이르시되 法性이 圓融해 두相이 없으니 모든 法이 動지 않

아 本來 고요한지라 이름도 없고 相도 없어 一切가 끊어졌으니 證한 智로 알바요 나머지

(人)境界가 아니라 眞性이 甚히 깊어 極히 微妙하여 自性을 지키지 않고 緣을 따라 이
루나니 一가운데 一切요 多가운데 一이며 (義) 一이 곧 一切요 多가 곧 一이로다 (相) 한

微塵 가운데에 十方을 속하니 一切塵 가운데에 또한 이 같은지라 限量 없는 면 劫이 곧
念이요 一念이 곧 이 限量 없는 劫이라 하시니 이 가운데에 처음 法性이 圓融하여 두 和
이 없음을 標하심은 이 賢首의 이르신바 自性淸淨圓明曄며 또한 이 衆生의 本來 있는
眞性이 圓明하고 淸淨하여 染에 處하되 때 묻지 않고 닦아 다스리되 깨끗지 아니하여
煩惱가 덮은즉 숨고 智慧가 了達한즉 나타나는지라 生因의 열바가 아니요 오직 了因
의 了達할바인 것이니 만일 사람이 自心の 淸淨한 覺性을 返照하여 妄이 다하고 마음
이 맑으면 萬像이 가지런히 나타남이 마치 海水가 澄清하매 像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음이니 곧 이름이 海印森羅常住用이라 그 나머지 法界圓明自在用으로 乃
至 三遍 가운데에 事事無碍가 淸淨한 覺性을 여의지 않음을 可히 알지니 湘師의 제우
신바 法性이 圓融하여 이름도 없고 相도 없는지라 모든 待對가 끊어져서 오직 證한 智
의 알바요 나머지 境界가 아니라는 것도 또한 이 親히 自性의 本來 湛寂하여 이름을
여의고 相이 끊어진 곳을 證해서 事事無碍法界의 源을 삼음이니 어찌 말여임으로써
頓敎와 같다 하리오

禪門宗師 對機門中 權爲下根 雖有說示隨染心中淸淨 覓性

只令學者 返照自性 爲要 不貴說理深淺也 若一言下

返照自性 頓忘言解則自心鏡內 十界依正 緣起差別 煥然

齊現

하야

法界無碍緣起

을

於斯

에

可見也

이을

昧者

徒標圓教無障碍

法界曰禪者所論

이

不過起信中隨染性淨之義

의

亦不過一分理性

離言絕相之義

나나하

皆是執滯言教之跡

하야

不知先聖

의

隨機設教

廣略

이

雖異

나

無不指歸一心耳

라

禪門宗師가

機를

對하는

門가운데에權으로下根을

為하여

비록染을 따르는 마음가

운데淸淨한覺性을說해

보임이 있으나 다만學者로하여금

自性을

返照케함이要가

되고理를說함의 깊고 열음을貴히여가지 않음이니 만일 한 말씀 아래에自性을返照

하여물록말과解를잇은즉自心거울안에十界依正의緣起差別이煥然히가지런하

게나타나서法界無碍緣起를이에可히볼것이어늘昧한者가한가圓敎의無障碍法界

를標하여이르되禪者의論하는바가起信가운데染을따르되性이깨끗하다는義에

不過하며또한一分理性의말을여의고相이끊어진義에不過하다하나니다이言敎

의자취에執滯하여先聖의機를따라敎를배우심이廣과略이비록다르나한마음

에가리켜돌아가지 않음이 없음을알지 못함이라

若能頓忘言敎施設

한

義理分別

하고

密室靜坐

하야

虛襟澄慮

하야

返照自

心

하야

得其淵源

하면

則將現今一念性淨妙心

하야

作隨染本覺

도이다

亦得

이되

作性淨本覺_{도이라}

亦得_{이더}

作無障礙法界_{라도}

亦得_{이더}

作不動智佛_{도이라}

亦得

作_{이더}虛舍那佛_{도이라}

亦得_{이더}

即理即事_와

即自即他_에

隨舉無妨也_니

故

知_{하라}

起信_에

性淨本覺_을

賢首_一

得之則爲二用三遍之源_{이요}

頓教_에

離言絕相_을

湘師_一

證之則亦爲性海果分_은

佛智所知之境_{이니}

是知

小根_이

如言執之則異_요

達士_一

得意會之則同也_다

況今時_에

大心

凡夫_一

遇善友開示_{하야}

能廻光返照則曠劫已來_의

無明住地煩惱_一

便爲諸佛普光明智_니

以衆生_의

煩惱無明種種幻化_一

皆從如來普

光明智之所生起故_다

今日返照_一

全是自體_요

本非外物_{이니}

如湛水

生波_에

波全是水_며

花生空界_에

花全是空_{이라}

曉公_의

所謂寂照無

明無不明_{하니}

詎滅痴闇得慧明_이

是也_니

如是開悟自心根本普光明

智_{하면}

即是謂初心正覺佛也_다

論_에

云_{대하사}

以菩提妙智_로

普印_{하면}

邪思

妄行_이自無生處_니

名爲正覺也_{니라}

妄行

만일 能히 言敎로 施設한 義理 分別을 물론 잊고 密室에 靜坐하여 胸襟을 비우고 생각

을 밝혀서 自心을 返照하여 그 淵源을 얻으면 곧 現今에 한 생각 性이 깨끗한 妙心을 가져서 染을 따르는 本覺을 짓더라도 또한 善이며 性이 깨끗한 本覺을 짓더라도 또한 善이며 無障礙法界를 짓더라도 또한 善이며 不動智佛을 짓더라도 또한 善이며 佛을 짓더라도 또한 善은 지라 곧 理와 곧 事와 곧 自와 곧 他에 둘을 따라 妨害로움이 없음이니 故로 알라 起信에 性이 깨끗한 本覺을 賢首가 얻은즉 二用과 三遍의 源이 되고 頓敎에 말을 여의고 相이 끊어짐을 湘師가 證한즉 또한 性海果分은 佛智로 알바 境界가 됨이니 (法性眞理는 證智로 알바 요諦의 境界가 아니라 眞理이다) 이 알라 小根이 말과 같이 執한즉 다르고 達士가 뜻을 얻

어 理會한즉 같음이라 하물며 今時에 大心凡夫가 善友의 열어 보임을 만나서 能히 光을 돌이켜 返照한즉 曠劫已來의 無明住地 (五住地의 第五根本과 枝末中에 根本無明이 되며 我法二執中에 法執의 煩惱가 되나니 이는 一切煩惱의 所依며 難易正死의 因이 되니 故로 이 말이 住地이다) 煩惱가 문득 諸佛의 普光明智가 되나니 세 衆生의 煩惱無明의 갖가지 幻化가 다 如來의 普光明智로 좇아 生起하는바인 연고라 今日에 返照함이 온전히 이 自體요 本來 바랄 物件이 아니니 밝은 물이 물결을 내내 물결이 온전히 이 물이며 꽃이 空界에 나내 꽃이 온전히 이 空임과 같은지라 曉公의 이르신바 寂과 照가 밝음도 없고 맑지 않음도 없으니 어찌 痴闇을 滅하여 慧明을 얻으리오 하심이 이것이니 이같이 自心의 根本普光明智를 開悟하면 곧 이 이르되 初心의 正覺佛이라 論에 이르시되 菩提의 妙智로써 널리 印치면 邪思와 妄行이 스스로 날 곳이 없음이니 이름이 正覺이 된다 하시니라

△問 호대 今日凡夫 悟心成佛者 是究竟耶 未究竟耶 若是究

竟일단 何名初心이름 若未究竟일단 何名正覺이름

△문되 今日 凡夫의 마음을 깨달아成佛하는 者가 이 究竟이나 究竟이 아니냐 만일이 究竟일진댄 어찌 初心이라 이름하며 만일 究竟이 아닐진댄 어찌 正覺이라 이름하리
잇고

△答대하사 今時具縛凡夫 於生死地面上 以日用中無明分別之種

便成諸佛根本普光明智 以諸佛根本智 與衆生無明之心

本一體故 所以 今日凡夫 以根本智果海 爲初悟發心之源

若非頓悟自心 煩惱性自離 無漏智性 本自具足者 何名

於一佛乘圓頓門中 以果成信者也 論云 以根本智 爲初

發菩提心 以根本智 圓故 時亦普徹 爲一切智之大體 成

一切行之始終 生一切法之元始 一切萬行 智爲先導故 善

知智海 一切行海 菩提心海 大慈大悲海 莫不由斯根本智

果海而生也 三乘教 置之於五位之後 一乘教 置之於十信

之初 但衆生 種性 利鈍 不同故 教隨根立 此其證也

是知此一乘圓頓門假者^라 十信心初^에 得根本智果海^로 非由十

千劫歷修然後^에 至十信滿心^이 明矣^{로다} 論中^에 但明一生功終^고 本

無十千劫之文也^니 但初心凡夫^이 會緣^{하야} 方了自心根本普光明智

非由漸修功至然後^에 悟也^라 故^로 理智雖現^{의나} 而多生習氣^이 念

念猶侵^{하야} 有爲有作^{하야} 色心未殄^{이니} 是謂十信凡夫^의 爲解礙處也^라

△答하시되 今時에 具縛凡夫가 生死地面위에 日用가운데 無明分別의 種으로써 문득

諸佛의 根本普光明智를 이룬은 씨 諸佛의 根本智가 衆生無明의 마음으로더불어 本來

한 體인 연고라 쓴바로 今日 凡夫가 根本智果海로써 처음 깨달아 發心하는 根源을 삼

음이니 만일 自心의 煩惱性이 스스로 여의고 無漏의 智性이 本來 스스로 具足함을 물

록 깨달은 者가 아니면 어찌 一佛乘圓頓門가운데에 果로써 信을 이룬 者라 이름하리오

論에 이르시되 根本智로써 처음 菩提心 發함을 삼나니 씨 根本智가 두렷한 故로 때가

또한 널리 사무쳐서 一切智가 되는 大體며 一切行을 이루는 始終이며 一切法을 내는

元始니 一切萬行에 智가 先導가 되는 故로 잘 智海를 알면 一切行海와 菩提心海와 大慈

大悲海가 이 根本智果海를 말미암아 나지 않음이 없음이라 三乘敎에는 五位의 後에 두

고 一乘敎에는 十信의 初에 두니 (三乘敎에 三賢은 菩提心을 삼아 第八地에 見道하는 故로 根本智果海가 五의 後에 있거니와 一乘敎에 初住에 見道하여 三賢十地의 乃至十一地로 修證의 實證을 삼는 故로 根本智果海가 五位에 있는 것이니)

다만衆生の種性이 利와鈍이 같지 않은故로 敎가 根을 따라 세웠다 하시니 이것이 그證據라 이알라 이 一乘圓頓門을 假藉하는 者는 十信心처음에 根本智果海를 얻음이요 十千劫을 지나 答을 말미암은 然後에 十信滿心에 이르지 않음이 밝도다 論가운데에 다만 一生에 功이 마침을 밝히시고 本來 十千劫이란 筭이 없으니 다만 初心凡夫가 緣을 理會하여 바야흐로 自心の 根本普光明智를 了達함이요 漸修의 功이 이름을 말미암은 然後에 깨달음이 아니라 故로 理와 智가 비록 나타나나 多生の 習氣가 念念이 오히려 침노하여 하염이 있고 지음이 있어서 色과 心이 다하지 못함이니 이는 이르되 十信凡夫의 解碍가 되는 곳이라

然^{이나}以悟自無明^의

本神本眞^{하야}

無功大用恒然之法故^로

自修十信

中方便止觀^{하야}

任運功成^{하야}

定慧圓明^을

便名發心住^니

梵行品^에

云

初發心時^에

即得阿耨菩提者^라

當此住也^라

入十住之後^에

以普

光明智^로

恒處世間^{하야}

隨根普應^{하야}

敎化衆生^{호대}

而無染着^{하야}

悲智漸

明^{하고}

功行漸增^{하야}

畢竟成普賢行^{하야}

因滿果終^에

報得無量相好^와

無

量莊嚴^{호미}

如光如影^{하야}

恒遍十方^{하야}

非有非無^며

非常非斷^{이니}

以大願

大智自在用故^로

如是大用自在^라

不離初悟根本普光明智中恒然

之行^{이라} 以智體¹ 圓故^로 時亦不移^며 智亦不異^요 於中^에 鍊治習氣

悲智漸圓^{하야} 昇進階級^이 非無^나 然^{이나} 從初發心^{으로} 以入無時智門

故^로 雖至究竟位^나 初無移易也^니 如王寶印^이 一印文成^{하야} 無前後

也^라 任一切衆生^의 隨根同別^{하야} 以六相義^로 會通^{하면} 可見^{날이} 昧者¹

約根本智^의 該收五位^{하야} 論則不許漸修之行^나 是^는 但知總相者也

若約行解昇進^의 階位漸次^{하야} 論則不許時不移智不異^{호미} 如王寶

印^이 一印文成^{하야} 無前後之旨^나 是^는 但信別相者也^니 皆由未離情

見^{하야} 理智不圓故也^라

그러나 自己無明의 本來 神奇롭고 本來 참되어 功없는 大用이 항상 그러한 法을

깨달은 故로 스스로 十信가운데 方便止觀을 닦아서 뜻뜻아 功이 이뤄져 定과 慧가 두

렷이 밝음을 문득 發心住라 이름하나니 梵行品에 이르시되 처음 發心할 때에 곧 阿耨

菩提를 얻는다는 것이 此住에 當함이라 十住에 든 後에 普光明智로써 항상 世間에 處

해서 根을 따라 널리 應하여 衆生을 教化하되 染着함이 없어서 悲智가 점점 밝고 功行

이 점점 더하여 畢竟에 普賢行을 이뤄서 因이 차고 果가 마치매 報가 無量한 相好와

無量한 莊嚴을 얻음이 光과 같고 影과 같아서 항상 十方에 두루하여 有도 아니요 無도 아니며 常도 아니요 斷도 아니니 大願 大智의 自在한 用으로써 하는 故로 이같이 大用이 自在함이 처음 깨달은 根本普光明智가운데 항상 그러한 行을 여의지 않는지라 세 智體가 두렷한 故로 때로 또한 옮기지 않으며 智도 또한 다르지 않고 가운데에 習氣를 鍊磨해 다스려서 悲와 智가 점점 두렷하여 昇進하는 階級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初發心으로 좇아 세 無時智의 門에 든 故로 비록 究竟位에 이르나 當初에 옮겨 바뀔 것이 없음이니 王의 寶印이 한번 印치매 文彩가 이루어 前後가 없음과 같음이라 一切衆生の 根을 따라 같고 다름을 맡겨서 六相의 義로써 會通하면 可히 볼 것이 어늘 昧한 者가 根本智의 五位를 싸 거둠을 잡아 論한즉 漸修의 行을 許諾지 않나니 이는 다만 摠相만 아는 者요 만일 行解昇進의 階位漸次를 잡아 論한즉 時도 옮기지 않고 智도 다르지 않음 이 王의 寶印이 한번 印치매 文彩가 이루어 前後가 없음과 같은 旨趣를 許諾지 않나니 이는 다만 別相만 信하는 者나 다 情見을 여의지 못하여 理와 智가 두렷하지 못함을 말미암은 연고라

論云_{대하사} 入此初地六相法門者_는 乃至創始_에 具足凡夫₁ 能發廣

大願行_{하야} 能趣入故_로 非是由因地前行解而來_니 意明設教_에 備明

修行滯障_의 節級安危_나 然_이 發心者₁ 一時_에 摠頓修_{하야} 居一時一

行之內요 非是要從節級次第修來니 以摠別同異成壞法으로 圓融하면
 可見이라 於此六字三對法中에 一字1 有六하니 且約人身하야 類之하면 餘
 可准知라 如一人身에 具足六相義하니 頭身手足眼耳鼻舌等用이 各
 別은 是別相이요 全是一身一四大는 是摠相이며 一空無體는 是同相이요
 不廢如是無異性하고 頭身手足眼耳鼻舌等用이 有殊는 是異相이며 頭
 身手足眼耳鼻舌等이 共成一身은 是成相이요 但隨無作緣有하야 各無
 自性하야 無體無相하며 無生無滅은 是壞相이라 又一切衆生은 名爲摠相
이요 愚智區分은 名爲別相이며 皆同佛智而有는 名爲同相이요 隨執業異
는 名爲異相이며 因所作業하야 受報得生은 名爲成相이요 心無所依하야 業
 體無性은 名爲壞相이라 又十方報佛은 名爲摠相이요 衆寶所嚴한 身土
 差別은 名爲別相이며 同一法身이 理智無二는 名爲同相이요 智隨行異
는 名爲異相이며 成就衆生은 名爲成相이요 能所皆空하야 無得無證은 名
 爲壞相이라 又以一智慧로 該收五位는 名爲摠相이요 行解昇進은 名爲

別相^{이더} 同佛根本智^는 名爲同相^{이요} 修差別智^는 名爲異相^{이더} 成大菩

提^{하야} 具普賢行^은 名爲成相^{이요} 智體無依^{하야} 用而不作^은 名爲壞相^{이러}

又三世久劫差別^은 名爲別相^{이요} 以智普觀^에 在一刹那^는 名爲總相

^{이더} 隨業長短^은 名爲異相^{이요} 情亡見盡^에 長短時無^는 名爲同相^{이더} 智

無依住^는 名爲壞相^{이요} 應根與法^은 名爲成相^{이러하} 云云

論에 이르시되 이 初地의 六相法門에 드는 者는 乃至 創始에 具足凡夫^(轉地凡夫로 다轉한名詞)가 能

히 廣大願行을 發하여 能히 趣向해 드는 故로 이 地前에 行解를 因하여 음을 말미암을

이 아니니 뜻이 教를 배플때 修行滯障의 節級과 安危를 갖추 밝히나 그러나 發心한 者

가 한 때에 總히 물록 닦아서 一時一行의 안에 있고 이 중요로이 節級次第로 좇아 닦아

음이 아님을 밝힘이니 總別同異成壞의 法으로써 圓融하면 可히 불지라 이 六字三對法

가운데에 한 글자가 六이 있으니 또 사람의 몸을 잡아 比類하면 나머지 是 可히 準則해

알지라 저 一人의 몸에 六相의 義가 具足하니 頭、身、手、足、眼、耳、鼻、舌等 用

이 各各 다름은 이 別相이요 온전히 이 一身이며 一四大임은 이 總相이며 한결같이 空

하여 體가 없음은 이 同相이요 이 같은 다름이 없는 性을 廢하지 않고 頭、身、手、足、

眼、耳、鼻、舌等 用이 다름이 있음은 이 異相이며 頭、身、手、足、眼、耳、鼻、舌等

이 한가지 한 몸을 이름은 이 成相이요 다만 無作의 緣을 따라 있어 각각 自性이 없
서 體도 없고 相도 없으며 生함도 없고 滅함도 없음은 이 壞相이라 또 一切衆生은 이
름이 攄相이 되고 愚와 智의 區分은 이름이 別相이 되며 다 佛智와 한가지 있음은 이
름이 同相이 되고 執을 따라 業이 다름은 이름이 異相이 되며 지은바 業을 因하여 報
를 받아 얻어 남은 이름이 成相이 되고 다음이 依止한바가 없어서 業假가 性이 없음은
이름이 壞相이 됨이라 또 十方報佛은 이름이 攄相이 되고 衆寶로 莊嚴한바 身과 土의
差別은 이름이 別相이 되며 同一한 法身이 理와 智가 둘이 없음은 이름이 同相이 되고
智가 行을 따라 다름은 이름이 異相이 되며 衆生을 成就함은 이름이 成相이 되고 能과
所가 다 空하여 없음도 없고 證함도 없음은 이름이 壞相이 됨이라 또 한 智慧로써 五
位를 싸 거둠은 이름이 攄相이 되고 行解로 昇進함은 이름이 別相이 되며 佛의 根本智
와 같음은 이름이 同相이 되고 差別智를 닦음은 이름이 異相이 되며 大菩提를 成就하
여 普賢行을 갖춤은 이름이 成相이 되고 智跡가 依止함이 없어서 쓰되 짓지 않음은 이
름이 壞相이 됨이라 또 三世久劫의 差別은 이름이 別相이 되고 智로써 널리 觀하매 一
剎那에 있음은 이름이 攄相이 되며 業을 따라 길고 짧음은 이름이 異相이 되고 情이
없고 見이 다하매 長短의 때가 없음은 이름이 同相이 되며 智가 依止해 住함이 없음은
이름이 壞相이 되고 根을 應하여 法을 줌은 이름이 成相이 된다 하시니

今時悟解普光明智之佛果

當於法界證處

離言故

雖未預談

이나 且約後修緣起門中_{하야} 論則圓融行布二義 相成_{하고} 究竟未究竟

二義 相成_{하고} 理佛事佛二義 相成_{하고} 他果自果二義 相成_{하야} 至

於十住成佛_{도하야} 亦復如是_{하니} 論_에 云_{대하사} 若於此大方廣佛華嚴經佛果

普光明智境界之上_에 存古立今_{하야} 作遠近時分前後去來二世_와 有佛

處無佛處_와 正法像法末法_{하야} 及於十方三世諸佛_에 作舊佛新佛

淨土穢土等者_는 將知未能成信也_{시고하} 又云_{대하사} 信因中_에 契諸佛果德

分毫不謬_{사하야} 方名信心_{이니} 心外_에 有佛_은 不名爲信_{이라} 名爲大邪見

人也_{시고하} 又云_{대하사} 初始發菩提心_에 以持根本智大圓明鏡_{하야} 普照諸法

以是當知_{하라} 今時返照自性十信初心凡夫之位_에 具論如是難

思果德也_니 以初發心時_에 無明住地煩惱_로 便爲諸佛不動智故_라

今時에 悟解한 普光明智의 佛果가 法界 證한 곳에 當하여는 말을 여인 故로 비록 미리

말하지 못하나 또 後修의 緣起門가운데를 잡아 論한즉 圓融과 行布의 두義가 서로 이

루고 究竟과 究竟아닌 두義가 서로 이루고 理佛과 事佛의 두義가 서로 이루고 他果와 自果의 두義가 서로 이루며 十住成佛에 이르러서도 또한 다시 이같이 論에 이르

시되 만일 이 大方廣佛華嚴經 佛果普光明智境界위에 古를 두고 今을 세워 遠近의 時分
인 前後去來三世와 有佛處、無佛處와 正法、像法、末法을 지으며 및 十方三世諸佛에
舊佛新佛과 淨土穢土等을 짓는 者는 장차 알라 能히 信을 이루지 못한다 하시고 또 이
르시되 信因가운데에 諸佛의 果德에 契合하되 分毫도 그르치지 아니하여야 마야호로
이름이 信心이니 마음 밖에 佛이 있음은 信이 된다 이름하지 못하는지라 이름이 大邪
見人이 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처음 비로소 菩提心을 發할제 佛 根本智大圓明鏡을
가져서 널리 모든 法을 비춘다 하시니 이로써 마땅히 알라 今時에 自性을 返照하는 十
信初心凡夫의 位에 갖추 이같이 생각하기 어려운 果德을 論함이니 佛 처음 發心할때
에 無明住地煩惱로 문득 諸佛의 不動智를 삼는 연고라

由願起行時

에

妄習

이

雖未盡

이나

全是根本智之運爲法

이

隨緣

일세
故

로

云

대하사

其智

1

初以願興

하야

乃至功終願滿

에

以普光明智

로

利衆生

故

시니하

是知全是根本智之應用法

이

隨緣恒然之行也

라

所有報化相

用

이

是無功之智

의

大悲之行

이니

任一切衆生

의

所見

하야

由願起行

하야

慈善根力

인

大小緣起

의

具相萬差

1

如光如影

하야

隱現自在

호미

如空

中響

이

任物成音

하야

非常無常

이며

心識所知境界

1

全是根本智之大

用^{이요} 所言普賢^이 是差別智者^는 且約根本普光明智^의 舉體運爲之

用^{하야} 言之^라 無有先後^{근대} 故^로 云^{한사} 普光明智^一 量同法界虛空界^{하야}

無有中邊^{하미} 體同一切衆生心^{하야} 恒隨一切衆生^{니이} 宜見何身^이 宜聞

何法^{오이리} 十方世界^에 恒同對現^{하야} 而不失時^{시라하}

願을 말미암아 行을 일으킬 때에 妄習이 비록 다하지 못하나 온전히 이 根本智의 運

爲하는 法이 緣을 따를새 故로 이르시되 그 智가 처음 願으로써 일어나서 이에 功이

마치고 願이 차는데 이름에 普光明智로써 衆生을 利케하는 연고라 하시니 이 알라 온전

히 이 根本智의 應用하는 法이 緣을 따라 항상 그러한 行이라 있는바 報化의 相用^{報身의相}

의用이 이 功없는 智의 大悲의 行이니 一切衆生의 보는바를 말거 願을 말미암아 行을

일으켜서 慈善根力인 大小緣起의 具相萬差가 光과 같고 影과 같아서 隱과 現이 自在함

이 空中에 메아리가 物을 맡겨 소리를 이룸과 같아서 常과 無常이 아니며 心識의 아는

바 境界가 온전히 이 根本智의 大用이요 말끔한바 普賢이 이 差別智란 것은 또 根本普

光明智의 舉體^總가 運爲하는 用을 잡아서 말끔하심이라 先後가 있음이 없을새 故로

이르시되 普光明智가 量이 法界와 虛空界와 같아서 中과 邊이 있음이 없으며 躰가 一

切衆生의 마음과 같아서 항상 一切衆生을 따르거니 마땅히 무슨 몸을 보며 마땅히 무

은 法을 들으리오 十方世界에 항상 한가지 對現하여 때를 잃지 않는다 하시니(十方世界에 때를 잃지 않고 이롭다)

時를 잃지 않고 유색衆生을 濟度하는故로 이롭다

雖有如是從初發心_{으로} 由願起行_{하야} 乃至功終願滿_{이나} 非是衆生心外

之事_라 故_로 云_{대하사} 佛證衆生之身_{하야} 用衆生之用_{시이라하} 又云_{대하사} 佛是衆

生心裡佛_{이라} 隨自根堪無異物_{시이라하} 一切衆生_의 無明妄想_이 無別自

性_{이라} 全是十方諸佛_의 三身四智之本源_{일세} 故_로 云_{대하사} 欲知一切諸佛

源_{일면} 悟自無明本是佛_{시이라하} 以本智佛_이 自具三大性相理事之德故

但隨自業_{하야} 隱現有殊耳_라 衆生_이 作惡_에 惡是違用故_로 報得染

分_{하야} 依正差別_이 雖是違用_{이나} 亦是本智中_에 本惡用故_로 智之相用

不減也_요 諸佛_이 修善_{하사} 報得莊嚴_에 善是順用故_로 相用_이 湛然

清淨_{하시} 雖是起行報得_{이나} 亦是根本智中_에 本具善用故_로 不增也_라

然_{이나} 各隨自業善惡故_로 有淨穢苦樂差殊_나 而其智之體相用_은 於

染淨緣起_에 本無增減_{하야} 恒常現露_{하야} 理事無碍_{하고} 生佛_이 互融故_로

今日悟解不動智硯果 三身四智等 頓圓 이니 十身四智 即三身 四智中 各具也 如六祖所

說 이라 故 로 云 대하사 三身 이 元我體 로 四智 이 本心明 이따하 亦不妨後修報

得也 라

비록 이같이 初發心으로 좃아 願을 말미암아 行을 일으켜서 이에 功이 마치고 願이 차는 데 이름이 있으나 이 衆生の 마음 밖에 일이 아니라 故로 이르지 되 佛은 衆生の 體를 證하여 衆生の 用을 쓴다 하시고 또 이르지 되 佛은 이 衆生の 마음 속에 佛이라 自己根 機의 堪當함을 따라 다른 物件이 없다 하시며 一切衆生の 無明妄想이 別다른 自性이 없 는지라 온전히 이 十方諸佛의 三身과 四智의 本源일새 故로 이르지 되 一切諸佛의 根源 을 알고자 할진면 自己無明이 本來이 佛인줄 깨달으라 하시니 세 本智의 佛이 스스로 三大와 性相과 理事의 德을 갖춘 故로 다만 自己의 業을 따라 隱과 現이 다름이 있음 이라 衆生이 惡을 지으매 惡은 이 用을 어김인 故로 報가 染分을 얻어서 依와 正의 差 別이 비록 이 用을 어기나 또한 이 本智가운데에 本惡用인 故로 智의 相用이 減하지 않고 諸佛이 善을 닦으사 報가 莊嚴을 얻으시매 善은 이 用을 順함인 故로 相用이 滿 然해 淸淨하시니 비록 이 行을 일으켜 報얻음이나 또한 이 根本智가운데에 本來 갖춘 善用인 故로 더하지도 않음이라 (何處에 海水의 清濁이 善惡이라 면 波浪을 일으키는 濁水는 波舟의 過가 있는 故로 이르지 隨用이요 波浪이 없는 清水는 淨舟의 功이 있는 故로 이르지 隨用이다 그러나 水의 濕性은 滿滿이 통이 있다 衆生心도 또한 그 나그나 善惡의 用은 因이 隨順의 差異는 있음) 그러나 各各 自己業의 善惡을 따르는 故로 淨穢와 苦樂의 差

殊가 있으나 그智의 體、相、用은 染淨의 緣起에 本來 增減이 없어서 恒常 現露하여
 理와 事가 結縛이 없고 生과 佛이 서로 融通한 故로 今日에 悟解한 不動智佛果가 三身
 四智等이 물록 두렷함이니 (十身과 十智가 본三身 四智中에 갖추어 있다) 六祖의 說하신바와 같은지라 故로 이르시되 三
 身이 元來나의 體요 四智가 本來 마음 밝음이라 하시니 또한 뒤에 닥아 報應음이 妨害
 롭지 않음이라 (初發心住에 佛果를 頓悟하여 無時智門에 들어 닥아도 닥음이 없는 故로 佛
 後에 佛智하여 十身相海의 果報를 受함이 當初에 妙善롭지 않은 것이다)

此根本普光明智佛果 是生佛之體故 理事性相善惡染淨俱
 圓俱泯 如曉公 所立一大法身佛也 以智體 本具三大故
 非但性淨本覺理佛也 以智體 本無十世遠近延促故 非當果
 攝在也 以根本智 是自心之佛故 非他果在我也 故知賢首
 清涼 所辦性起品中 佛智在衆生心之義 與長者論之旨 稍
 異也 然 若約緣起門中融攝之義 論則以衆生 今日悟解普
 光明智中 生佛 圓融故 謂他果在我 亦得 十世圓融故
 謂當果自有 亦得 以有隨染性淨故 謂生生自有 亦得 然
 今日頓悟普光明智佛 非約圓融行布緣起門之所論 以法界

證處

에

果豈預談

오리

이 根本普光明智佛果가 이 生과 佛의 體인 故로 理事와 性相과 善惡과 染淨이 다 圓하
고 다 泯하니 曉公의 세우신바 一大法身佛과 같음이라 智體가 本來 三大을 갖추 故
로 다 性이 깨끗한 本覺理佛일뿐 아니요 智體가 本來 十世의 遠近延促이 없는 故
로 當來의 果가 攝해 있음도 아니요 根本智가 이 自心의 佛인 故로 他의 果가 나에
게 있음도 아니니 故로 알라 賢首와 清涼의 辨斷하신바 性起品가운데에 佛智가 衆生의
마음에 있다는 義가 長者의 論의 旨趣로 더불어 적이 다룬지라 그리나 만일 緣起門가운
데 融攝의 義를 잡아서 論한즉 衆生의 今日에 悟解한 普光明智가운데에 生과 佛이
圓融한 故로 他의 果가 나에 게 있다 이르더라도 또한 옳으며 十世가 圓融한 故로 當來
의 果가 스스로 있다 이르더라도 또한 옳으며 染을 따르되 性이 깨끗함이 있는 故
로 衆生衆生이 스스로 있다 이르더라도 또한 옳은지라 그리나 今日에 頓悟한 普光明智
佛은 圓融과 行布의 緣起門을 잡아 論할바가 아니니 法界 證한 곳에 果를 어찌 미
리 말하리오

此中所論悟者

는

非先修而後

에

悟故

로

是解悟也

니

雖是解悟

나

以

頓發悟處故

로

即不可說果分性海

로

同也

며

又以一乘佛果

는

法爾

在十信初心

일세

非當果融攝之論也

와

若約後修緣起門中

에

功終

願滿果德

하야

論之

하미

又約本智體中

에

圓三世事

하야

論之則當果自有

亦如彌勒樓閣中

에

所現彌勒三世因果

라

故

로

論云

대하사

智中

無三世古今內外遠近量故

시라하

又以真體

1

圓

하야

十世事

交叅徹故

시라하

如是二義

雖具

나

今日頓悟

는

的於初義

요

若約漸修緣起門則

十信初心先悟之後

에

勤修止觀

하야

色心有漏

1

摠盡

하야

至住初

에

定

力

을

已成

하야

解碍摠亡

하고

證悟入位

하야

歷修十住十行十回向十地

하야

至等覺位

히

是修自業所見真體中

에

所現自己三世因果

와

及報佛

境界等

이

如對目前

이니

故

로

論云

대하사

此教

는

是毘盧遮那報身所說

文殊師利

이라

從祇園往覺城

하사

轉其教說

니

爲報身如來

는

是無盡

莊嚴功德自受用身

이라

非是凡夫人天三乘

의

所觀

니

大心衆生

但聞其教

요

不見其身

일세

除爲如來加持

로

得見

이요

依自業力

는

不能得

見

이라

大心衆生

이

於覺城東文殊師利所

에

具聞得教

하고

若也承教修

行

하야

一生功終

하면

十方諸佛

이

如對目前

하리

即善財

1

至慈氏樓閣中

할새 오직 如來의 加持(加被와 같은 佛力을 軟弱한 衆生에게 加持하여 그 衆生은 도를 이 갈가 지게 하는 것이다)로 얻어 봄이
 되고 自己의 業力을 依止하여는 能히 얻어 보지 못하는지라 大心衆生이 覺城東 文殊師
 利의 處所에 갖추 敎를 들어 얻고 만일 敎를 받들어 修行하여 一生에 功이 마치면 十
 方諸佛이 目前에 對함과 같으니 곧 善財가 慈氏의 樓閣가운데 이르러서 보신바 부
 처님의 境界가 이 그 樣式이니라(善財는 華嚴末會에 人間轉地凡夫로 一生에 證得佛果을 就한 一萬八千大衆(五百童子五百童女五
 百優婆塞五百優婆夷六千比丘一萬菩薩)의 代表의 存在다 五十五善知識(五十五位)을 觀見時
 正最後에 彌勒(慈氏)樓閣中에 入하여 自己의 三世
 因果와 諸佛의 三世因果를 一時에 보아 마친 것이다)

圓頓成佛論 終

看話決疑論

話頭를 보는데疑心を決하는論

○或^이問牧牛子^{호대}華嚴教^에既明法界無碍緣起^{하야}無所取捨^{어늘}何

故^로禪門^에揀十種病^{하야}而看話耶^{이까}

○或^이牧牛子^가問되華嚴教^에이미法界의 無碍緣起를 밝혀서 取捨할바가 없거늘 어

진 까닭으로 禪門^에 十種의 病을 가려서 話頭^{(言談의端緒다宗領의話頭로이름바公案을말함)를} 보나이까

△答^{하사}近來汎學輩¹不知禪門話頭參詳妙密旨趣^{하야}多有此疑^{하니}

若論眞性緣起義理分齊^{근면}則禪學者^{근들}豈不知此十種禪病^이如華

嚴法界緣起耶^{되오}故^로徑山大慧禪師¹亦云^{하사}平昔^에知見^이多^{하야}

以求證悟之心^이在前作障故^로自己正知見^이不能現前^{하나}然^{이나}此

障^이亦非外來^며亦非別事^{시니}豈有揀耶^{되오}所言十種病^이以求證悟

之心^{으로}爲本^{늘이어}既云此障^이亦非外來^{근면}從何處來耶^며亦非別事^{근면}

是何事耶^아此^는全明性起之德^{이니}故^로教中^에亦云一切障礙¹即

究竟覺^{이니} 得念失念^이 無非解脫等^이 是也^라 然此義理^一 雖最圓妙

^나 摠是識情聞解思想邊量故^로 於禪門話頭參詳徑截悟入之門^에

一一全揀佛法知解之病也^라

△答하시되 近來에 汎汎히 배우는 무리가 禪門에 話頭參詳하는 妙密한 旨趣를 알지 못하여 많이 이의심이 있으니 만일 眞性緣起의 義理分齊^(分齊는 眞性의 緣起와 妄念의 分齊를 가리키는 말로 이 둘을 가리지 않고 논할지언정)를 論할진대 곧 禪學者인들 어찌 이 十種禪病이 華嚴의 法界緣起와 같은줄 알지 못하리오 故로 徑山^(地名인 동시에 大慧의 別號도 된다) 大慧禪師가 또한 이르시되 平昔에 知見이 많아서 證悟를 求하는 마음 이 앞에 있어 障得를 짓는 故로 自己의 正知見이 能히 앞에 나타나지 못하니 그러나 이 障이 또한 밖에서 오는도 아니며 또한 別다른 일도 아니라 하시니 어찌 揀擇함이 있 으리오 말쑥한바 十種病이 證悟를 求하는 마음으로써 根本이 되었거늘 이미 이르되 이 障이 또한 밖에서 오는 아닐진대 어느곳으로 좃아 오며 또한 別다른 일이 아닐진대 이 무슨 일이라 이는 온전히 性起^(性起는 緣起의 眞性을 가리키는 말로 이 둘을 가리지 않고 논할지언정)의 德을 밝힘이니 故로 敎中^(經中)에 또한 이르시되 一切障得가 곧 究竟覺이니 得念과 失念이 解脫아님이 없다는 등이 이것이라 그러히 이 義理가 비록 가장 두렷하고 妙하나 摠히 이 識情인 聞解와 思想邊의 量인 故로 禪門에 話頭參詳하여 바로 꺾어 깨달아 드는 門엔 날날이 온전히 揀擇하는 佛法知解의 病이라

然^{이나} 話頭無字^는 如一團火^{하야} 近之則燎卻面門故^로 無佛法知解措
 着之處^{하니} 所以^로 云此無字^는 破惡知惡解底器仗也^{하야} 若有能破所
 破^의 取捨揀擇之見則完是執認言迹^{하야} 自撓其心^{이니} 何名得意參詳
 但提撕者也^{하야} 禪門^{에도} 亦有爲密付難堪借教悟宗之者^{하야} 說眞性
 緣起事事無碍之法^{하니} 如三玄門^에 初機得入^{하는} 體中玄所明^에 云無
 邊剎境^이 自他^이 不隔於毫端^{이요} 十世古今^이 始終^이 不離於當念^{하야}
 又云^고 又云^데 又云^{하사} 一句明明該萬像等^이 是也^라 禪門中^에 此等圓頓信解^인
 如實言教^이 如恒河沙數^나 謂之死句^는 以令人^{으로} 生解碍故^라 並是
 爲初心學者^이 於徑截門活句^에 未能參詳故^로 示以稱性圓談^{하야} 令
 其信解^{하야} 不退轉故^니 若是上根之士^이 堪任密傳^{하야} 脫略窠臼者^인
 纔聞徑截門無味之談^{하면} 不滯知解之病^{하고} 便知落處^{하니} 是謂一聞千
 悟^{하야} 得大摠持者也^라

그러나 話頭의 無字는 한 덩이 불과 같아서 가가이한즉 面門을 燎卻(燒却)하는 故로 佛

法知解를 둘 곳이 없으니 쓴바로 이르시되 이 無字는 惡知와 惡解를 破하는 器仗(기仗)이라 했거니와 만일 能破와 所破의 取捨揀擇하는 見이 있은즉 完然히 이 言跡을 執해 誤認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혼듬이니 어찌 뜻을 얻어 參詳하여 다만 提撕(제씨) (提撕이여 徹悟의 妙法이니 放心의 妙法이 아니다) 하는 者라 이름하리오 禪門에도 또한 密付(밀부) (密付의 妙法이니 傳授의 妙法이 아니다)를 堪當하기 어려워 敎를 假借해 宗을 깨닫는 者를 爲하여 眞性緣起인 事事無碍의 法을 說함이 있으니 저 三玄門에 初機가 얻어 드는 體中玄의 밝힌바에 이르시되 無邊한 世界境界가 自와 他가 터럭끝도 隔하지 않고 十世의 古今이 始와 終이 當念을 여의지 않는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한 글귀가 明明하여 萬像을 꾸린다는 등이 이것이라 禪門가운데에 此等 圓頓의 信解인 如實한 言敎가 恒河沙數와 같으나 死句 (諸義와 義路의 開解思想이 없는 것은 아니다 元句에 應하나니 八萬藏經이 이것이다)라 이름은 세 사람으로 하여금 解碍를 내게하는 연고라 아울러 이 初心學者가 徑截門(徑截門의 妙法이니 禪門의 妙法이 아니다)에 能히 參詳치 못함이 되는 故로 性에 稱合한 圓談으로써 보여서 그로 하여금 信解하여 退轉치 않게한 연고니 만일 이 上根의 선비가 密傳을 堪任하여 窠臼를 脫略한 者일진면 겨우 徑截門의 맛없는 말을 들으면 知解의 病에 滯하지 않고 문득 落處를 아나니 이는 이르되 한번 들으매 구이나 깨달아서 大抱持를 얻는 者라

又若約圓頓信解門則此十種知解之病 도 亦爲眞性緣起 라 無可取捨

然 나 이 以有語路義路聞解思想 로 初心學者 1 亦可信受奉持 하 여 니

若約徑截門則當於親證密契는하야無有語路義路하야未容聞解思想故

雖法界無碍緣起之理라도翻成說解之碍니若非上根大智면焉能

明得이며焉能透得耶리오以故로泛學輩1翻成疑謗이理固然矣라

또 만일 圓頓의 信解門을 잡은즉 이 十種知解의 病도 또한 眞性の 緣起가 되는지라 可
히 取하고 버릴게 없으나 그러나 語路和 義路의 聞解思想이 있는 故로 初心學者가
또한 可히 信해 받고 받들어 가지거니와 만일 徑截門을 잡은즉 親히 證하고 隱密히 契
合함에 當하여는 語路和 義路가 있음이 없어서 聞解와 思想을 容納하지 못하는 故로
비록 法界無碍緣起의 理라도 뒤쳐 說解의 障礙를 이룸이니 만일 上根大智가 아니면 어
찌 能히 밝혀 얻으며 어찌 能히 꿰어 얻으리오 쓴 故로 泛學輩가 뒤쳐 疑謗을 이룸이
理가 眞實로 그러함이라

又禪宗學語者의 論此話頭 1 有二義 一은 全提之語 二는 破病

之談이와話頭知微하야但提撕做工夫者는都無全提之解이는况有破病

之念하야埋沒密旨也리오纔擬一念全提破病之解하면便落意根下卜度

之病이니豈爲參詳活句者耶리오

또 禪宗에 말 배우는 者의 이 話頭를 論함이 두 義가 있으니 一은 全提(全提此의 略稱이
니이 一대 全提)

해잡)의 말이요 二는 破病의 말이니와 話頭에 微意를 알아서 다만 잡들어工夫를 짓는 者는 도무지 全提의 解도 없거든 하물며 破病의 생각이 있어서 隱密한 旨趣를 埋沒하리오 겨우 한 생각 全提와 破病의 解를 헤아리면 문득 意根아래 卜度하는 病에 떨어짐이니 어찌 活句를 參詳하는 者가 되리오

△問

호대

既云法性

이

圓融

하야

緣起無碍

근대

雖有聞解

나

何有碍耶

고대

△문되 이미 法性이 圓融하여 緣起가 결림이 없다 이를진대 비록 聞解가 있으나 어찌 결림이 있으리잇고

△答

하사

汝豈不見

가

圓覺經

에

云

하사

若復有人

이

勞慮永斷

하야

得法界

淨

하면

即被淨解

의

爲自障礙

근대

故於圓覺

에

而不自在

파하

得法界淨者

亦爲解碍

어든

況今學者

도

將情識

하야

卜度緣起無碍

아니

豈爲解脫知

見耶

리오

△答하시되 네가 어찌 보지 못했느냐 圓覺經에 이르시되 만일 다시 사람이 있어 塵勞의 생각이 永히 끊어져서 法界淨을 얻으면 곧 淨解의 自己障礙가 됨을 입을새 故로 圓覺에 自在하지 못한다 하시니 法界의 淨을 얻은 者도 또한 解의 碍가 되거든 하물며 이제 學者가 情識을 가져서 緣起無碍를 卜度하거니 어찌 解脫知見이 되리오

△問 호대 然則如般若經所謂無智亦無得 과 又頓教所謂一念不生 하면

即名爲佛等離言絕慮 이까 是耶

△문되 그러한즉 저般若經에 이르신바 智도 없고 또한 忍음도 없음과 또 頓教에 이르신바 一念이 나지 않으면 곧 이름이 佛이 된다는 등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짐이 옳습니까

△答 하사 離言絕慮 는 五教 에 皆有之 하니 以教教 에 皆有一絕言 하야 並令

忘詮會旨故 로 小乘 은 證人空眞如 하고 大乘菩薩 은 證法空眞如 하니 當

於證門 하야 皆離言絕慮 니 若言慮 를 未忘 이런 何名證也 리오 頓教 에 但說

理性 의 離言絕相 하야 別爲一類離念之機故 로 一念不生 하면 即名爲佛

者 는 但是證理成佛 이라 可名爲素法身也 요 華嚴 에 說法界無碍緣起

菩薩 이 聞薰修習則十信地 에 見聞終心 하야 成解行 하고 信滿住初 에

名爲證入故 로 華嚴論 에 云 하사 先以聞解 로 信入 하고 後以無思 로 契同

既以無思 로 證入 하면 亦是離言絕慮也 라 清凉祖師 이 云 하사 佛證

離言 이라 又云 하사 性海果分 은 當是不可說 시 又云 하사 果海 는 離念

而心傳

서이니라 하

如是而推

전

華嚴普機

도

當於證入之門

는하

亦是離言絕

慮 明矣

트다

△答하시되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짐은 五敎(一은小乘敎二는大乘敎三은大乘妙敎四는頓敎五는圓敎다)에 다 있으니 써敎와
敎에 다 하나의 말 끊어짐이 있어서 아울러 하여금 말을 잊고 旨趣를 알게 하신 故로 小
乘은 人空(我空)眞如를 證하고 大乘菩薩은 法空眞如를 證하니 證한 門에 當하여는 다 말
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짐이니 만일 말과 생각을 잊지 못하면 어찌 證했다 이릅하리오
頓敎에 다만 理性의 말을 여의고 相이 끊어짐을 說하여 別로 一類의 생각 여의 根機를
爲한 故로 한 생각 나지 않으면 곧 이름이 佛이 된다는 것은 다만 이 理만 證한 成佛
이라 可히 이름이 素法身이 됨이요 華嚴에 法界無碍緣起를 說하사 菩薩이 들어 薰習하
고 닦아 익힌즉 十信地에 見聞이 마음에 마쳐서 解行을 이루고 信이 찬 住初에 이름이
證해 들이 되는 故로 華嚴論에 이르시되 먼저 聞解로써 信해 들고 뒤에 無思로써 契合
해 갈다 하시니 이미 無思로써 證해 들진댄 또한 이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짐이라
清涼祖師가 이르시되 佛은 말 여임을 證하셨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性海果分은 이 不
可說에 當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果海는 생각을 여의고 마음으로 傳한다 하시니 이
같이 推究하진대 華嚴의 普機(大機)도 証해 드는 門에 當하여는 또한 이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짐이 밝도다

五

10

REV

10

10

解^{하야} 破執現宗^{하니} 彼此入門行相^이 一同^{한이} 何得言頓教^엔 但證理成

佛^{이라} 未證無碍法界^요 禪宗徑截門^에 噴地一發者^는 親證法界一心

自然圓融具德耶^아 同是離言離念相應^{한이} 何有一偏一圓耶^{리오} 不

應自是而非他^니 如有明證^{는이} 略舉一二^{하야} 以祛疑滯^{소케하}

△문되 頓教가운데에 敎를 꾸짖어 여임을 勸하여 相을 毀하고 마음을 없애며 禪門에

話頭도 또한 惡知惡解를 破하여 執을 破해 宗을 나타내니 彼此에 入門의 行相이 한결

갈거늘 어찌 시러금 頓敎엔 다만 理만 証한 成佛이라 無碍法界를 証하지 못하고 禪宗

徑截門에 噴地에 한번 發한 者는 親히 法界一心을 證한지라 自然히 圓融해 德을 갖겠

다 말하랴 한가지 이 말을 여의고 생각을 여의어 相應함이어늘 어찌 하나는 偏하고 하

나는 圓함이 있으리오 백백이 스스로 옳다 하여 他를 그르게 여기지 말지니 만일 밝은

證據가 있거든 簡略히 한 두 가지를 들어서 써 疑滯를 버리게 하소서

△答^{대하사} 敎學者^의 疑謗禪法^이 只爲此疑^를 未決^{이라} 禪學不得意者^는

必以話頭^로 爲破病^{하며} 爲全提^{하며} 爲句內^{하며} 爲句外等^은 皆認定死語

成於絡索^{하야} 並爲三句^의 所使^{하야} 滯在十種病^{이니} 豈爲參詳活句者

耶^{리오} 專精禪學者^도 尙如是^{이든} 况教學者¹ 豈無疑念耶^{리오} 且頓教中
 所引言教^는 爲一類離念之機^{하야} 說眞如理性^의 離言絕慮之義^니 如
 論^에 云^{대하사} 心眞如者^는 即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니 所謂心性^이 不
 生不滅^{이라} 一切諸法^이 唯依妄念^{하야} 而有差別^{하니} 若離心念^{하면} 則無一
 切境界之相^{이라} 是故^로 一切法^이 從本已來^로 離言說相^{하니} 離名字相^하
 離心緣相^{하야} 畢竟平等^{하야} 無有變異^{하야} 不可破壞^라 唯是一心^{일체} 故^{이리}
 名眞如^{니라} 問曰若如是義者^고 諸衆生等^이 云何隨順^{하야} 而能得入^{이리}
 答曰若知一切法^이 雖說^{이나} 無有能說可說^이 雖念^{이나} 亦無能念可念^이
 是名隨順^{이요} 若離於念^{이면} 名爲得入^{이라하} 此等言教¹ 正是離念之
 機^의 所入心眞如門也^라

△答하시되 教學者의 禪法을 疑謗함이 다만 이의심을 決하지 못함이 됨이라 禪學에 뜻
 을 얻지 못한 者가 반드시 話頭로써 破病을 삼으며 全提를 삼으며 句內^(一句)를 삼으며
 句外를 삼는 등은 다 死語를 알아 定하여 絡索^(구리)을 이뤄서 아울러 三句^(三有無)의 부리
 킨바가 되어서 十種病에 滯해 있음이니 어찌 活句를 參詳하는 者가 되리오 禪學에 精

을 오로지하는 者도 오히려 이 같거든 하물며 敎學者가 어찌 疑念이 없으리오 또 頓敎
가운데 이 곧 言敎는 一類의 생각 여인 根機를 爲하여 眞如理性의 말 여의고 생각 끊
어진 義를 說하심이니 저 論에 이르시되 心眞如란 것은 곧 이 一法界大總相法門 緣니
이른바 心性이 나지도 않고 滅하지도 않는 지라 一切 모든 法이 오직 妄念을 依止하여
差別이 있으니 만일 心念을 여의면 곧 一切境界의 相이 없는 지라 이런 故로 一切法이
根本 妄아 이미 恣으로 言說相을 여의며 名字相을 여의며 心緣相을 여의어서 畢竟에 平
等하여 變異함이 없음이 없어서 可히 破壞하지 못하는 지라 오직 이 한 마음일새 故로
이름이 眞如니라 물어 이르되 만일 이 義와 같을진댄 모든 衆生等이 어떻게 隨順하여
야 能히 얻어 들어가리잇고 答해 이르시되 만일 一切法이 비록 說하나 能히 說하는 것
可히 說할게 있음이 없으며 비록 생각하나 또한 能히 생각하는 것 可히 생각할게 없음
을 알면 이 이름이 隨順이요 만일 생각을 여의면 이름이 얻어 들이 된다 하시니 此等
의 言敎가 正히 이 생각 여인 根機의 드는바 心眞如門이라

據眞實了義則妄念

이

本空

하야

更無可離

며

無漏諸法

이

本是眞性

이요

隨緣妙用

이

永不斷絕

하야

又不應破

는일마

但爲一類衆生

이

執虛妄名相

하야

難得玄悟故

로

佛

이

且不揀善惡染淨

과

世出世間

하고

一切

를

俱破

나하시

是故

로

聞此敎者

이

隨順平等無相之理

하야

作無能說可說能念可

念之解然後에 離此解此念하고 得入眞如門故로 但名證理成佛이나 然

此眞如이 是는 一法界大總相法門體故로 得爲諸法之性이 亦爲萬

行之源이니 何有菩薩이 證心眞如而不明性上緣起德用耶리오 而賢首

祖師이 但引一念不生하면 即名爲佛等離言之詮하야 立頓教者는 以說

不彰顯故也라

眞實한 了義를 依據한즉 妄念이 本來 空하여 다시 可히 여윌게 없으며 無漏의 諸法이

本來 이 眞性이요 緣을 따르는 妙用이 永히 끊어지지 아니하여 또 뻔뻔이 破하지 않으

런마는 다만 一類의 衆生이 虛妄한 名相을 執하여 玄悟를 얻기 어려움이 되는 故로 佛

이 또 善惡과 染淨과 世間과 出世間을 가리지 않고 一切를 다 破하시니 이런 故로 이

教를 듣는 者가 平等해 相이 없는 理를 隨順하여 能히 說할것 可히 說함과 能히 생각

할것 可히 생각할게 없는 解를 지은 然後에 이 解와 이 생각을 여의고 眞如門에 얻어

드는 故로 다만 理만 證한 成佛이라 이름하나 그러나 이 眞如는 이 一法界大總相法門

體인 故로 얻어 諸法의 性이 되며 또한 萬行의 源이 되이니 어찌 菩薩이 心眞如를 證

하고 性上에 緣起德用을 밝히지 못함이 있으리오 賢首祖師가 다만 한 생각 나지 않으

면 곧 이름이 佛이 된다는 等 말 여인 말씀을 이끌어서 頓教를 세우신 것은 세 말씀이

말게 나타나지 못한 연고라

禪門

에도

亦有多種根機

의

入門

이

稍異

하니

或有依唯心唯識道理

하야

入

體中玄

니 하나

此

는

初玄門

이라

有圓教事事無碍之詮也

니

然

이나

此人

이

長

有佛法知見

이

在心

하야

不得脫灑

근새

或有依本分事祇對

한

灑落知見

하야

入句中玄

하야

破初玄門佛法知見

니 하나

此玄

에

有徑截門庭前栢樹子

麻三斤等話頭

라 하나

然

이나

立此三玄門

은

古禪師之意

라

以本分事祇對

話頭

로

爲破病之語故

로

置於第二玄

이나

然

이나

未亡灑落知見言句

하야

猶於生死界

에

不得自在故

로

立第三玄中玄

의

良久默然棒喝作用

等

하야

破前灑落知見

하니

所以

로

云

대 하사

三玄施設

이

本由遣病

이라

若望上

祖初宗

전면

即未可

시니

故

로

此師

이

云

대 하사

近來行脚人

이

皆以天台華頂

趙州石橋

로

將爲向上一路

와어니

此是暫時行李之處

요

非究竟安身

立命之地

라 하시

니라

禪門에도 또한多種根機의入門이 적이 다툼이 있으니或唯心과唯識의道理를依止하여體中玄에 들이 있나니 이는初玄門이라圓教事事無碍의말씀이 있음이니그러나

이 사람이 기리 佛法知見이 마음에 있음이 있어서 脫灑함을 얻지 못할새 或 本分事로

祇對(對는 對의 對나 古人의 問法은 來賓에게 對하여 答을 하) 禪子의 遠來를 謝禮한 對法이 對法에 對한 것이 없다 하엿다 한 灑落知見을 依止하여 句中玄에 들어서 初玄門의

佛法知見을 破함이 있나니 이玄에 徑截門의 庭前柏樹子(學人이 趙州和尚에 佛法大義를 問은 때 趙州가 庭前柏樹子라 答한 公案이다)와 麻三

斤(人의 洞山和尚에 의해서 佛의 佛이 佛이다) 佛은 洞山이 麻三斤이라 答한 것이다 등의 話頭가 있나니라 그러나 이 三玄門을 세움은 古禪師의

뜻이라 本分事로 祇對한 話頭로써 破病의 말을 삼는 故로 第二玄에 두었으나 그러나

灑落한 知見의 言句를 잊지 못하여 오히려 生死界에 自在함을 얻지 못하는 故로 第三

玄中玄의 良久와 默然과 棒과 喝의 作用等을 세워서 前의 灑落知見을 破하니 곧바로

이르시되 三玄의 施設이 本來 病보냄을 말미암은지라 만일 上祖의 初宗에 바라보전대

곧 옳지 못하다 하시니 故로 이 師(古禪)가 이르시되 近來 行脚하는 사람이 다 天台(山)

華頂(峰)과 趙州(地)로써 가져 向上一路를 삼거니와 (天台華頂과 趙州石橋는 正한 古祖가 學者에게 佛法大義를 傳을 答한 庭前柏樹子 麻三斤과 같은 同一한 公案이다)

이는 이 暫時 行李할 곳이요 究竟에 몸을 두고 命을 세울 땅이 아니라 하시니라

然이나 普安道禪師 承昭陽之義 立三句外 別置一句曰當人

如舉唱 三句 豈能該 有問如何事 南嶽與天台 然이나 此

天台南嶽等無味之談 在三句內則爲破病之言 在三句外則非

謂破病 乃全提此事言也 故 長蘆師 云 山僧 有時 裂

半折三하야未嘗舉着宗門中事와어니如今엔紐半破三하야全提此事去也

시라
고하
又云
대하
사

雲門大師

有時

三句內說

法
고하시

有時
엔

三句外提

하이
시라

以是故知 하라 古人

五

亦以一例話頭

或爲

三句內破病之言

或

爲三句外全提之句

하
니

豈可足怪今時人

의

認徑截門話頭

하야
成

絡索

者耶

라
오

그러나 普安道禪師가 昭陽의 義를 이어서 三句를 세운 밖에 別로 一句를 두어 이르시

되 當人이 만일 舉唱하면 三句가 어찌 能히

싸리오

雲門(昭陽)은 비록
우지안했더니 그

三句의 말이 있었으나 일찍이 三句의 名을
前圖明密이 비로소 三句의 名을 세우니

截斷衆流이二는隨波逐浪이三은國產乾坤이四德山(圓明)의眞眼普安道禪師가五句의語를因하여六마라한이又一句를別置하여七되天中이라하건乾坤의作가即天中이다무爲自然과中正不偏의義를取한것이八다隨波逐浪을自機法兩句라하건截斷衆流을不涉義緣句라고도한다)어떠한일

인고 물음이 있으면 南嶽과 다 못 天台라 하리라 하시니 그러나 이 天台와 南嶽等 맞으면

는 말씀이 삼句안에 있은즉 破病의 말이 되고 삼句밖에 있은즉 破病을 이룸이 아니라

이에 이 일(一大事)을全提해 말함이니 故로 長蘆師가 이르시되 山僧이 有時엔 半을 찢고

三을 꺾어서 (病破)

일찌기 宗門가운데 일을 들지 않거니와 如今엔 半을 뺀고 三을 破하여

○ 온전히 이 일을 이끌어 간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雲門大師가 有時엔 三句안에 法을

說하고 有時엔 三句밖에 綱要을 이끈다 하시니 이를 쓴 故로 알라 古人도 또한 一例

의 話頭로써 或三句內에 破病의 말을 삼으며 或三句外에 全提의 句를 삼으니 어찌

可하히 今時人의 徑截門話頭를 誤認하여 絡索이루는 者를 足히 怪異히 여기리오

然이나 今所宗徑山大慧和尚 是曹溪直下正脉相傳第十七代本分

宗師라 所立徑截門語句叅詳得入 迥異於此하니 何者오 宗師所示

庭前栢樹子麻三斤狗子無佛性等話頭 都無端的所示之法하고 但

給沒滋味無摸索底話頭然後 隨而誡之曰情識 未破則心火熠

熠地하니 正當恁麼時하야 但以所疑底話頭 提撕호대 如僧 問趙州호대

狗子 還有佛性也無이까 州云하사 無 只管提撕舉覺호대 左來也不是

右來也不是 不得作有無會하미 不得作眞無之無로 卜度하미 不得

作道理會하미 不得向意根下 思量卜度 不得向揚眉瞬目處하야 採

根하미 不得向語路上 作活計하미 不得颺在無事甲裡 不得向舉起

處承當하미 不得文字中引證하미 不得將迷待悟하고 直須無所用心하야 心

無所之時 莫怕落空이니 這裡 卻是好處라 驀然老鼠入牛角 便

見倒斷也아하 如是下注脚하야 給話頭故 學者 於十二時中四威儀

內^에 但提撕學覺而已^요 其於心性道理^엔 都無離名絕相之解^{하네} 亦

無緣起無碍之解^{하야} 才有一念佛法知解^{하면} 便滯在十種知解之病故

一一放下^{하야} 亦無放下不放下^와 滯病不滯病之量^가 忽然於沒滋

味無摸索底話頭上^에 噴地一發則一心法界^이 洞然明白故^로 心性

所具百千三昧^와 無量義門^을 不求而圓得也^{되니} 以無從前一偏義理

聞解所得故^라 是謂禪宗徑截門話頭叅詳證入之秘訣也^{노라}

그러나 이제 宗하는바 徑山大慧和尚은 이 曹溪直下の 正脈으로 相傳하는 第十七代本

分宗師라 세우신바 徑截門語句의 參詳해 얻어 들이 멀리 이와 다르니 어쩔인고 宗師의

보이신바 庭前栢樹子、麻三斤、狗子無佛性等의 話頭는 도무지 端的히 보이신바 法이

없고 다만 滋味도 없으며 잡을수도 없는 話頭를 攄然後에 따라 警誡해 이르시되 情識

을 破하지 못한즉 心火가 熾熾^(타는) 하리니 正히 이러한 때를 當하여 다만 의심하는바

話頭로써 잡들되 저 僧이 趙州께 묻되 狗子도 또한 佛性이 있나йка 없나йка 州가 이

르시되 無라 하심을 다만 가마라^(일음만아處 理하는듯) 잡들어 舉覺하되 左로함도 또한 옳지 못하며

右로함도 또한 옳지 못하이니 시러금 有와 無의 알음알이를 짓지 말며 시러금 참으로

없다는 無로 卜度을 짓지 말며 시러금 道理의 알음알이를 짓지 말며 시러금 意根아래

를 向하여 思量卜度하지 말며 시러금 눈섭을 드날리고 눈 감작이는 곳을 向하여 무집

짓지 말며 (擲下瞬目은 示師의 學人에게 보이다는 法門을 이 습득의 契機은 무집짓는다는 뜻이니 무집은 화상의 眞華의 뜻인 안것을 말함) 시러금 語路

(圖說의 이르신 바 句를의 성취함을 이의 기爲하여 사람이 들어 알도록 眞華에 빠놓는 구경이니 擲下瞬目處에 들어 있는다는 뜻이니 또 무리를 막는다는 뜻도 있다) 위를 向하여 살림살이를 짓지 말며 시러금 일 없는 牢속에 드

날려 있지 말며 시러금 擧起(語頭)하는 곳을 向하여 잡아 當하러 말며 시러금 文字가

운데 引證하지 말며 시러금 迷함을 가져 깨달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모름지기 마

음을 쓸바가 없어서 마음이 갈바가 없을 때에 空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

속이 도리어 이 좋은 곳이라 驀然(然)히 老風가 소 불에 들매 문득 거꾸러져 끊어짐을

본다 하여 (老風入牛角은 中國에 위잡는 風俗이니牛角은 구멍에 고소한 油를 만라 휘가 그 속에 들어 매다 시나오지 못하고 문득 倒懸을 보게 되니 學人의 識心이 한번 끊어지는 境界에 비한 것이다 倒懸은 죽는다는 뜻이다) 이같이 注脚을 내려

서 話頭를 주는 故로 學者가 十二時가운데와 四威儀안에 다만 잡들어 擧覺할 따름이요

그 心性道理엔 도무지 이름을 여의고 相이 끊어졌다는 解가 없으며 또한 緣起無碍의

解도 없어서 겨우 한 생각 佛法의 知解가 있으면 문득 十種知解의 病에 滯在하는 故로

날날이 放下하여 또한 放下하고 放下하지 않음과 病에 滯하고 病에 滯하지 않는 思量

도 없다가 忽然히 滋味도 없고 잡을수도 없는 話頭위에 噴地에 한번 発한즉 一心法界

가 洞然(洞然)히 明白한 故로 心性의 갓춘바 百千三昧와 無量한 義門을 求하지 않되 두

텃이 얻으리니 從前의 一偏인 義理와 聞解로 얻은 바가 없는 연고라 이것이 禪宗經

截門에 話頭를 參詳하여 證해 드는 秘訣이라 이르노라

圓教中 에 雖談十玄無碍緣起法門 이 是不思議乘菩薩 의 普眼境界

나 而於今時觀行者 에는 以聞解當情故 로 須經見聞生解行生然後 에

證入 이니 當證入生 는하야 透脫從前聞解 하고 亦以無思 로 契同也 와인 今所論

禪宗教外別傳徑截得入之門 은 超越格量故 로 非但教學者 이 難信

難入 이라 亦乃當宗 에도 下根淺識 은 茫然不知矣 니라 今略引二三段得入

因緣 하야 令不信不知者 로 知有禪門徑截得入 이 不同頓教 하미 亦與圓

宗得入者 로 依教離教 에 遲速 이 迥異也 니호리 如水潦和尚 이 於採藤處 에

問馬祖 호대 如何是祖師西來意 고니잇 祖 이 云 대하사 近前來 하라 向徐道 라호리 水潦

才近前 에 馬祖 이 攔胸一踏踏倒 니하시 水潦 이 不覺起來 하야 拍手呵呵

大笑 어늘 祖 이 云 대하사 汝 이 見箇甚麼道理 완대 便笑 오 水潦 이 曰百千法門

無量妙義 를 今日於一毛頭上 에 盡底識得根源去 이다로소 馬祖 이 便不

管他 니하시 水潦和尚 이 只喫馬祖一踏 하고 百千法門 과 無量妙義 를 自何

而盡底識得耶 아 故知禪宗上根得入 은 不關頓教中 에 但詮言絕之

理하아 但爲離念之機 明矣로다

圓教가운데에

비록 十玄

(一은同時具足相應門二는廣狹自在無碍門三은一多相容不同門四는諸法相即自在門五는秘密護國俱成門六은微細相安立門七은因陀羅網境界門八은托事顯法生解門九는十世隔法異成門十은主伴圓明具德門이니六相의義와大

同한것이다

無碍緣起法門이 이不思議乘菩薩의

普眼境界라

말씀했으나

今時의觀行하는者

에는씨聞解가情에當한故로모름지기見聞과解行을지낸然後에證해들이니證

入함에當하여는從前의聞解를透脫하고또한생각없음으로써契合해갈거니와이제

論한바禪宗教外別傳의바로겪어얻어드는門은格量을超越한故로다만敎學者가

信하기어렵고들기어려울뿐아니라또한이에當宗에도下根과淺識은茫然(曄昧)히

알지못하나니라이제簡略히二三段의得入한因緣을이끌어서信하지않고알지못하

는者로하여금禪門에바로겪어얻어들이頓敎와갈지않으며또한圓宗의얻어드는

者로더불어敎를依止하고敎를여윌에遲와速이멀리다름이있음을알게하리니저

水潦和尚이藤을캐는곳에馬祖게묻되어떤것이이祖師西來의뜻이니잇고祖가이

르시되앞에가까이오니라너를向하여이르리라水潦가겨우앞에가까이하매馬祖

가가슴을잡아한번밟아밟아거꾸러뜨리시니水潦가不覺에일어나서손을치고呵

呵히크게웃거늘祖가이르시되네가날무슨道理를보았관데문득웃는고水潦가

이르시되百千가지法門과無量한妙義를今日한터럭끝(毛頭毫末)위에밀을다하여根

源을알아가노이다馬祖가문득저를管攝지않으시니水潦和尚이다만馬祖의한번

밥을 먹고 百千法門과 無量妙義를 어디로부터 밀을 다해 알았으랴 故로 알라 禪宗에
上根의 언어들은 頓敎가운데 다만 말 끊어진 理를 말솜하여 다만 생각 여원 根機를 爲
함에 關係치 않음이 밝도나

又永嘉眞覺大師 到曹溪 持瓶戴笠 繞禪牀三匝 振錫一下

卓然而立 祖 曰夫沙門 須具三千威儀 八萬細行 大德

自何方來 生大我慢 眞覺 曰生死事大 無常迅速 祖

曰何不體取無生 了無速乎 眞覺 曰體卽無生 了本無速

祖 曰如是如是 眞覺 須臾 告辭 祖 曰返太速乎 眞覺

曰本自非動 豈有速耶 祖 曰誰知非動 眞覺 曰仁者

自生分別 祖 曰汝 善得無生之意 小留一宿 眞覺 一宿

出曹溪門外 以所證之道 發言爲歌曰絕學無爲閑道人 不

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 卽佛性 幻化空身 卽法身 乃至

雪山肥膩更無雜 純出醍醐我常納 一性 圓通一切性 一法

徧含一切法 一月 普現一切水 一切水月 一月攝 諸佛

法身^이 入我性^{하고} 我性^이 還共如來合^{이라} 一地具足一切地^{하니} 非色非

心非行業^{이라} 彈指圓成八萬門^{하고} 剎那滅卻三祇劫^{시니} 以此而推^{컨대}

永嘉眞覺大師 但於祖師^의 何不體取無生一言之下^에 直得桶底

脫^{하야} 頓證法界^{고하시} 但云體卽無生^{이요} 了本無速^{시니} 是當於證門^{는하야} 不

消多言語也^{로대} 而於門外^에 發言爲歌^{하야} 唱出所證境界^{는하야} 則曰一性

圓通一切性等^{시니} 故知此師^의 普眼境界^는 事事圓融^{하며} 生佛^이

圓融^{하며} 地位 圓融^{하며} 八萬法門 圓融^{하야} 如是法界無盡德用 彈

指之間 圓滿成就^{하시} 豈可比於頓教中^에 初地卽八地^며 乃至寂滅

眞如 有何次第^{하리오} 但據理都泯耶^아

王 永嘉眞覺大師가 曹溪에 이르사 瓶을 가지며 杖을 쓰시고 禪牀을 둘러 三匝하고

錫杖을 떨쳐 한번 내리시고 卓然히 서신대 祖가 이르시되 대저 沙門은 모름지기 三千

의 威儀와 八萬의 細行을 갖출것이 어늘 大德은 어느 方所로부터 왔관대 大我慢을 내

는고 眞覺이 이르시되 生死의 일이 크고 無常이 迅速하니이다 祖가 이르시되 어찌 남

이 없음을 體達해 取하며 速함이 없음을 了達하지 못하느냐 眞覺이 이르시되 體達하면

곧 남이 없고 了達하면 本來 速함이 없나니이다 祖가 이르시되 이 같고 이 같다 眞覺이
 須臾에 하직을 告하신대 祖가 이르시되 도리어 너무 速한져 眞覺이 이르시되 本來 스
 스로 動함이 아니어니 어찌 速함이 있으리잇고 祖가 이르시되 누가 動함이 아님을 아
 는고 眞覺이 이르시되 仁者(仁)가 스스로 分別을 내나니이다 祖가 이르시되 네가 잘 無
 生의 뜻을 얻었도다 조금 머물러 하룻밤 자거라 眞覺이 하룻밤 留宿하시고 曹溪門밖
 에 나오사 證한바 道로써 말씀을 發해 노래해 이르시되 배움을 끊고 하염이 없는 한가
 한 道人이여 妄想을 除하지도 않고 眞을 求하지도 않는지라 無明의 實性이 곧 佛性이
 요 幻化의 空身이 곧 法身이라 乃至 雪山에 肥膩가 다시 雜됨이 없어서 純全히 醍醐를
 내내 내가 항상 드리는지라 (雪山에 肥膩를 藥초가 만일 먹으면 純全히 醍醐의 되어 醍醐(醍醐은 藥초로만은 料牌) 上未嘗
 이루나니 華嚴一乘法門을 衆生이 한 번 얻어 들으면 반드시 如來家에 남을 비한 것이다) 한 性이 두렷
 이 一切性을 通하고 한 法이 두루 一切法을 含한지라 한 달이 널리 一切물에 나타나니
 一切水月이 한 달에 攝한지라 諸佛의 法身이 나의 性에 들고 나의 性이 도리어 如來와
 한가지 合하는지라 一地가 一切地를 具足하니 色도 아니요 心도 아니며 行業도 아니라
 彈指에 八萬門을 圓成하고 剎那에 三祇劫을 滅卻한다 하시니 이로써 미루건대 永嘉眞
 覺大師가 다만 祖師의 어찌 無生을 體達해 取하지 못하느냐 하신 한 말씀 아래에 바로
 桶 밑이 빠짐을 얻어서 物류 法界를 證하시고 다만 이르시되 體達하면 곧 남이 없고 了
 達하면 本來 速함이 없다 하시니 이 證한 門에 當하여는 많은 말을 쓰지 않되 門 밖에

말씀을 發해 노래를 하여 證하신바 境界를 불러 내어서는 곧 이르시되 性이 一切性
을 圓通했다는 等이라 하시니 故로 알라 이 師의 普眼境界는 事事가 圓融하며 生과 佛
이 圓融하며 地位가 圓融하며 八萬法門이 圓融하여 이같은 法界의 다함이 없는 德用을
손가락 통기는 사이에 圓滿히 成就하시니 어찌 可히 頓教가운데에 初地가 곧 八地며
乃至 寂滅眞如가 무슨 次第가 있으리오 하여 다만 理를 의거해 도무지 없앴에 比하랴

又 徑山大慧和尚이 引經偈云 菩薩이 住是不思議 於中思議不

可盡이라 入此不可思議處_{는하야} 思與非思 皆寂滅_{시니라} 然_{이나} 亦不得

住在寂滅處_니 若住在寂滅處_면 即被法界量之所管攝_{이라} 敎中_에 謂

之法塵煩惱_니 滅卻法界量_{하고} 種種殊勝_을 一時蕩盡了_{코사} 方始好看

庭前栢樹子_와 麻三斤_과 乾屎橛_과 狗子無佛性_과 一口吸盡西江水

와 東山水上行之類{하야} 忽然一句下_에 透得_{사하야} 方始謂之法界無量廻

向_{이라} 如實而見_{하되} 如實而行_{하되} 如實而用_{하야} 便能於一毛端_에 現寶王

刹_{하되} 坐微塵裡_{하야} 轉大法輪_{하야} 成就種種法_{하되} 破壞種種法_을 一切由

我_{본지} 如壯士展臂_에 不借他力_{하되} 師子遊行_에 不求伴侶_{시니라} 以此而推

禪門話頭叅詳者 전면 滅卻法界量 하고 種種殊勝 을 亦蕩盡了然後 에

方始好看庭前栢樹子等話頭 하야 忽然一句下 에 透得 하야 方始謂之法

界無量廻向 이라 便能於一毛端 에 現寶王刹 하며 坐微塵裏 하야 轉大法輪

則話頭疑破 하야 噴地一發者 는 乃能親證無障碍法界矣 니 豈可以遣

十種知解之病 으로 當於頓教一類離念之機耶 리오

또徑山大慧和尚이 經偈를 이끌어 이르시되 菩薩이 이不思議에 住하여 가운데思議함을
可히 다하지 못하는지라 이 可히思議치 못하는 곳에 들어서는 思와 다못 思아님이
다寂滅하다 하시니 그러나 또한 시러금 寂滅한 곳에 住해 있지도 말지니 만일 寂滅한
곳에 住해 있으면 곧 法界량의 管攝하는 바를 입을지라 敎中에 이르되 法塵煩惱니 法界
량을 滅卻하고 갖가지 殊勝함을一時에 蕩盡해 마치고야 바야흐로 비로소 善이 庭前栢
樹子와 麻三斤과 乾屎橛 (僧이雲門의 물이었던 것이 佛의 出處處니 雲門이 마른 등막 대가라答하였다) 과 狗子無佛性과 一口吸盡西江水 (龍居士가馬祖
를더불어이되지않는者가이러면서말았니까馬祖가答하시되네
가一口로西江水를마셔다함은기다려서곧네에게일려준다云云이다) 의 類를 보
아서 忽然히 一句아래에 透得하여야 바야흐로 비로소 法界無量廻向이라 이를지라 如實
히 보며 如實히 行하며 如實히 써서 문득 能히 한 터럭 끝에 寶王 (佛陀의 尊勝이니 佛이功德으로세
尊嚴이된故로이르되寶王이다) 刹을
나타내며 微塵속에 앉아서 大法輪을 轉하여 갖가지 法을 成就하며 갖가지 法 破壞함을

一切가 나에게 말미암음이 壯士가 팔을 펼치 他人의 힘을 假借하지 않으며 師子가遊行할제 伴侶를 求하지 않음과 같다 하시니 이로써 미루건대 禪門에 話頭를 參詳하는 者는 法界量을 滅卻하고 갖가지 殊勝함을 또한 蕩盡해 마친 然後에 바야흐로 비로소 庭前柏樹子 등의 話頭를 보아서 忽然히 한 글귀 아래에 透得하여야 바야흐로 비로소 法界無量回向이라 이를지라 문득 能히 한 터럭끝에 寶王刹을 나타내며 微塵속에 앉아서 大法輪을 轉한다 했은즉 話頭의 의심이 破하여 噴地에 한번 發한 者는 이에 能히 親히 無障礙法界를 證함이니 어찌 可히 十種知解의 病을 보냄으로써 頓教一類의 생 각 여원 根機에 當한다 하리오

△問 호대 然則禪宗得入者 는 雖不攝頓教之機 나 以證事事無碍故 로

當於圓教箇者 어는 何得言圓教外 에 別有密傳之門之機耶 이까

△문되 그러한즉 禪宗에 얻어 드는 者는 비록 頓教의 機에 攝하지 않으나 事事無碍를 證한 故로 圓教의 箇者에 當하거늘 어찌 시려금 圓教外에 別로 密傳하는 門의 機가 있다 말하나이까

△答曰前不云乎 아 圓教 에 談十玄無碍法門 이 雖是不思議乘菩薩

의 普眼境界 나 而於今時凡夫觀行門 엔 以有聞解語路義路故 로 未

得無分別智^{하고} 須經見聞解行生然後^에 證入矣^나 當於證入^{하는} 亦如

禪門無念相應故^로 論^에 云^{대하사} 先以聞解^로 信入^{하고} 後以無思^로 契同

禪門徑截得入者^는 初無法義聞解當情^{하고} 直以無滋味話頭^로 但

提撕舉覺而已^라 故^로 無語路義路心識思唯之處^{하거} 亦無見聞解行

生等時分前後^{라가} 忽然話頭¹ 噴地一發則如前所論一心法界¹ 洞

然圓明故^로 與圓教觀行者^로 比於禪門一發者^{전대} 教內教外¹ 迥然

不同故^로 時分遲速^이 亦不同^을 居然可知矣^나 故^로 云教外別傳^이

迥出教乘^{이라} 非淺識者^의 所能堪任^{노라하}

△答해 이르시되 前에 이르지 안했느냐 圓教에 十玄無碍法門을 말씀함이 비록 이不思

議乘菩薩의 普眼境界나 今時凡夫의 觀行하는 門에는 세 聞解한 語路和 義路가 있는

故로 分別없는 智를 얻지 못하고 모름지기 見聞과 解行을 지낸 然後에 證해 들이니 證

해 들에 當하여는 또한 禪門에 無念으로 相應함과 같은 故로 論에 이르시되 먼저 聞解

로써 信해 들고 뒤에 無思로써 契合해 같다 하겠거니와 禪門에 바로 꺾어 얻어 드는
者는當初에 法과 義의 聞解가 情에 當함이 없고 바로 滋味없는 話頭로써 다만 證들어
擧覺할 따름이라 故로 語路和 義路의 心識으로 思唯할 곳이 없으며 또한 見聞과 解行

等の時分前後도 없다가 忽然히 話頭가 噴地에 한번 發한즉 前에 論한 바와 같은 一心
法界가 洞然히 圓明한 故로 圓敎의 觀行하는 者로 더불어 禪門의 한번 發한 者에 比하
건대 敎內와 敎外가 迥然히 같지 않은 故로 時分의 遲와 速이 또한 같지 않음을 居然
(晏然)히 可히 알지니 故로 이르되 敎外에 別傳이 멀리 敎乘에 난지라 淺識者의 能히堪
任할 바가 아니라 하노라

禪門^{에도} 亦有密付難堪中下之流 或以離言絕慮^로 冥心入理^나 而
於目前緣起事法^에 未能透得故^로 徑山大慧禪師 訶曰硬休去歇
去者^는 此是守忘懷空寂而生解者也^요 或認凡夫日用平常心^{하야} 以
爲至道^{하고} 不求妙悟曰但放曠任其自在^{하야} 莫管生心動念^{이니} 念起念
滅^이 本無實體^{나니} 故^로 大慧禪師 亦訶曰這箇^는 又是守自然體^{하야}
爲究竟法而生解者也^{니라} 禪宗^에 或有以三界唯心萬法唯識事事
圓融^{으로} 爲觀門^{하니} 此是初玄門中^에 法眼和尚^과 韶國師^의 所立^{이라} 同
於圓敎^나 但設法廣略^이 有異耳^나 圭峯密禪師^의 所謂佛教^는 爲萬
代依憑^{이라} 理須委示^요 師訓^은 在即時度脫^{이라} 意使玄通^{이니} 玄通^은 必

在亡言故

로

言下

에

不留其迹

하야

迹絕於意地

하고

理現於心源矣

니

以

故

로

宗師

의

對機所示事事無碍法門

이

最爲省略

하야

要在直截悟入

이요

不許注解知之

니라

禪門에도 또한 密付를 堪當하기 어려운 中下의 流가 或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짐으로써 마음에 冥合해 理에 들이 있으나 目前的 緣起事法에 能히 透得치 못하는 故로 徑山大慧禪師가 꾸짖어 이르시되 굳게 쉬어 가고 쉬어 간다는 것은 이는 이 忘懷空寂을 지켜 解를 내는 者요 或 凡夫의 날로 쓰는 平常心을 誤認하여 써 至道를 삼고 妙悟를求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다만 놓아 비워 그 自在함을 맡겨서 마음 나고 생각 動함을 管攝하지 말지니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滅함이 本來 實體가 없다 하나니 故로 大慧禪師가 또한 꾸짖어 이르시되 이것은 또 이 自然體를 지켜 究竟法을 삼아서 解를 내는 者라 하시니라 禪宗에 或 三界唯心和 萬法唯識의 事事圓融으로써 觀門을 삼음이 있으니 이는 이 初玄門가운데에 法眼和尙과 韶國師의 세우신바라 圓敎와 같으나 다만 法을 배푸신 廣과 略이 다름이 있음이니 圭峯密禪師의 이르신바 佛敎는 萬代의 依憑이 되는지라 理가 모름지기 委曲히 보이고 師訓은 即時에 度脫함에 있는지라 뜻이 하여금 玄玄히 通하게 함이니 玄玄히 通함은 반드시 말을 잊음에 있는 故로 말 아래에 그 자취를 머물지 아니하여 자취가 뜻 땅에 끊어지고 理致가 마음 根源에 나타난다 함이니 쓴

故로 宗師의 機를 對하여 보이신바 事事無得法門이 가장 省略함이 되어서 要가 바로
꺾어 깨달아 들에 있고 注解해 알을 許諾지 않나니라

佛眼禪師 一 舉拂子云 대하사 大衆 아 從上許多賢聖 이 摠在山僧拂子頭

上 하야 各各坐大蓮花 하야 說微妙法 하야 交光相羅 호미 如寶絲網 하니 還信得

及麼 시고하 又末山尼了然 이 先聽大經 하고 後叅祖道 하야 發明大事 하야 乃有

頌云 대하사 五蘊山頭古佛堂 에 毘盧晝夜放毫光 이라 若知此處非同異 하면

即是華嚴 이 徧十方 시니하 如是等宗師 一 以事事無碍法門 으로 指示學

人 하야 直下承當者 一 比比有之 하니 將此 하야 比於教中玄門則義理 一 彌

廣而證智 一 彌融矣 라 故 曉公 이 云 대하사 智人觀行 은 外忘諸理 하고 內

求自心 일세 所以 로 能得至無理之至理也 시니하 當知禪門宗師 의 所示無

碍法門 이 雖同圓教 나 而言句 一 省略故 로 於證入之門 에 切近耳 라

佛眼禪師가 拂子를 들어 이르시되 大衆아 위로 좃아 許多한 賢聖이 摠히 山僧의 拂子머

리 위에 있어서 各各 大蓮花에 앉아 微妙한 法을 說하여 光을 사귀어 서로 羅列함이

寶絲의 網과 같으니 또한 信해 미치느냐 하시고 또 末山尼了然이 먼저 大經(華嚴)을 듣

고 뒤에 祖道를 參究해서 大事를 發明하여 이에 頌이 있어 이르시되 五蘊山머리 옛 佛
堂에 毘盧가 낮과 밤으로 白毫光을 놓는지라 만일 이곳이 同과 異가 아닌줄 알면 곧
이 華嚴(華嚴經)이 十方에 두루함이라 하시니 이같은 等 宗師가 事事無碍法門으로써 學
人을 指示하여 直下(直下)에 承當(承當)한 者가 比比(比比)히 있으니 이를 가져서 教가운데
玄門에 比한즉 義理가 더욱 廣하고 證한 智가 더욱 融通한지라 故로 曉公이 이르시되
智人의 觀行은 밖으로 모든 理를 잊고 안으로 自己마음을 求할새 忒바로 能히 至極히
理없는 至極한 理를 얻는다 하시니 마땅히 알라 禪門宗師의 보이신바 無碍法門이 비록
圓敎와 같으나 言句가 省略한 故로 證해 드는 門에 切近함이라

然^{이나} 禪門此等如實言句

若比敎門

雖是省略^{이나}

若比徑截門話

頭則以有佛法知解故

未脫十種病

所以云

夫叅學者

須

叅活句

莫叅死句

活句下

薦得

永劫不忘

死句下

薦得

自救不了

是以

大慧禪師

以沒滋味話頭

令學者叅詳

豈

不滯十種病

直下承當

便能使得三句

不爲三句

所使

豈

可與頓敎遮詮

同論

而賢首國師

輒取此門此機

收束於頓

敎耶

清涼國師

主峯禪師

亦皆簡辨云

禪宗離念無念

亦

是此中^에拂迹遮過^나但以心傳心密意指授之處^는非今簡牘所論

^{시이라하}此其明證也^{니라}

그러나 禪門의 此等 如實한 言句를 만일 敎門에 比하면 비록 이 省略하나 만일 徑截門話
頭에 比한즉 佛法の 知解가 있는 故로 十種의 病을 벗지 못함이니 쓴바로 이르시되
대저 參學하는 者는 모름지기 活句를 參할지언정 死句를 參하지 말지니 活句아래에 薦
得^(傳)하면 永劫에도 잊지 않고 死句아래에 薦得하면 스스로 救援함도 마치지 못한다
하시니 이로써 大慧禪師가 滋味없는 話頭로써 學者로 하여금 參詳하여 十種病에 滯하지
않고 直下에 잡아 當해서 문득 能히 三句를 부리고 三句의 부리키는 바가 되지 않게
하시니 어찌 可히 頓敎의 遮詮^(表詮의 相對面을 나타내는 소음을 말한 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 않다는是非를 나타내는遮詮이요 짜다는 것은 소음의 體를 나타낸 表詮이 되는 것이다)으로 더 붙여 한가지
論할 것이 관데 賢首國師가 문득 이 門의 이 機를 取하여 頓敎에 收束했느냐 淸涼國師와
圭峰禪師도 또한 다 簡辨해 이르시되 禪宗의 생각을 여의고 생각이 없음이 또한 이
이가운데에 자취를 떨치고 허물을 막음이나 다만 마음으로써 마음을 傳하여 密意로
가리켜 주는 곳은 이제 簡牘으로 論할바가 아니라 하시니 이것이 그 밝은 證據니라

禪宗^에或有源派俱別之論曰法別門別機別^{이나}此義不然^{하니}但言初

從縛地位^{하야}徑截得入^은有門別機別^{니와}豈可言大菩薩^이親證一心

法界^{도하야}亦別耶^아然^{이나}古德^이云^{대하사}能悟祖道^{하야}發揮般若者^아末季

未^에之有也^{시나하}據此義則話頭^아有叅意叅句二義^{하니}今時疑破者^는

多分叅意^요未得叅句故^로與圓頓門正解發明者^로一般矣^라如是

之人^의觀行用心^도亦有見聞解行之功^{대이로}但不如今時文字法師^아

於觀行門中^에內計有心^{하고}外求諸理^{하야}求理彌細^{하야}轉取外相之病

耳^{와이어}豈可與叅句門^에疑破^{하야}親證一心^{하야}發揮般若^{하야}廣大流通者

同論耶^로此證智現前者^로今時^에罕見罕聞^{이니}故^로今時^에但貴

依話頭叅意門^{하야}發明正知見耳^라以此人見處^로比於依教觀行^{하야}

未離情識者^{하면}天地懸隔故也^니伏望觀行出世之人^은叅詳禪門活

句^{하야}速證菩提^{하면}幸甚幸甚^{다이로}

禪宗에 或源과 派가 다 다르다는 論이 있어 이르되 法이 다르고 門이 다르고 機가 다르다 하나 이 義가 그렇지 않으니 다만 처음 縛地位로 좇아 바로 꺾어 얻어 들은 門이 다르고 機가 다름이 있다 말하려니와 어찌 可히 大菩薩이 親히 一心法界를 證하여도 또한 다르다 말하랴 그러나 古德이 이르시되 能히 祖道를 깨달아 般若를 發揮하는者

가末季에 있지 못하다 하시니 이義를 의거한즉 話頭가 參意와 參句의 두義가 있
니(參意門은古祖의公案을如實히參究하여의지察識을의지하고參句門은參意門에得意한者로서當初에情識을의지
 處空을再入하는境界를말함이니故로佛의祖道를悟하여觀者를攝擄하는者가末季에있지못하다는것은이參意門의得入을말한것이다) 今時에 의
 심이 破한 者는 多分히 參意로 參句를 얻지 못한 故로 圓頓門에 正解發明한 者로더블
 어一般이라 이같은 사람의 觀行에 마음을 씬도 또한 見聞과 解行의 功이 있되 다만
 今時에 文字法師가 觀行門 가운데에 안으로 마음 있음을 헤아리고 밖으로 모든 理를 求
 해서 理를 求함이 더욱 微細하여 轉轉히 外相을 取하는 病과 같지 않거니와 어찌 可히
 參句門에 의심이 破해서 親히 一心을 證하여 般若를 發揮해서 廣大히 流通하는 者로
 더블어 한가지 論하리오 이 證한 智가 現前한 者를 今時에 보기 드물고 듣기 드물으니
 故로 今時에 다만 話頭의 參意門을 依止하여 正知見을 發明함이 貴한지라 이 사람의
 見處로써 敎를 依止해 觀行하여 情識을 여의지 못한 者에게 比하면 天地가 懸隔한 연
 고니 엇드려 바라전대 觀行해 世上에 뛰어나는 사람은 禪門活句를 參詳하여 速히 菩提
 를 證하면 다행함이甚하고 다행함이甚하도다

看話決疑論 終

附錄

昇平府曹溪山修禪社佛日普照國師碑銘

并序

知公州事副使兼勸農使管句學士將仕郎兼禮部尙書 賜紫金

魚袋 臣 金君綏奉 宣撰

禪那之學源_이 出於迦葉波_라 達摩_ㅣ 得之_{하사} 來化震旦_{니하시} 傳之者_는

以不傳而傳_{이요} 修之者_는 以無修而修_라 葉葉相承_{하고} 燈燈并耀_{하니} 一

何奇也_오 暨乎去聖彌遠_에 法隨而弛_{하야} 學者_ㅣ 守陳言迷密旨_{하야} 棄

本而逐末_{일세} 於是乎觀察悟入之路_ㅣ 茅塞_{하고} 文字戲論之端_이 蜂起

而正法眼藏_{하야} 幾墜乎地_{로다} 於此_에 有人焉_{호대} 獨能背浮僞之俗_{하고}

慕正眞之宗_{하야} 始於尋詮而詣理_{하고} 終於修定以發慧_{하사} 旣得乎己_에

兼施諸人_{하야} 使禪風_{으로} 寢而復振_{하고} 祖月_로 晦而更明_{시니} 若然者_는 可

不謂迦葉之嫡孫_{이며} 達摩之宗子_라 善繼善述者乎 繫我國師_ㅣ 是

己로다師의諱는知訥니이시京西洞州人也라嘗自號爲牧牛子시다俗姓은

鄭氏니考光遇는國學學正이요妣趙氏는開興郡夫人이라生而多病하야

醫理不効근세考迺禱佛하야誓以出家한대疾尋愈하야年甫八歲에投曹溪

雲孫宗暉禪師하야祝髮受具다시戒學無常師하고惟道之從하미志操超

邁하야軒軒如也러라二十五에以大定二十二年壬寅에舉僧選中之하고

未幾南遊할새抵昌平清源寺하야住錫焉이니러偶一日에於學寮에閱六祖

壇經가이라至曰眞如自性이起念이라六根이雖見聞覺知나不染萬像하고

而眞性이常自在야라하乃驚喜하야得未曾有하사起繞佛殿하고頌而思之니하시

意自得也라自是로心厭名利하야每欲棲遁林壑하야艱恬以求其道하사

造次必於是다하시越大定二十五年乙巳에遊下柯山할새寓普門寺하야因

讀大藏가이라得李長者의華嚴論하야重發信心하사搜抉而索隱하고嘖嘖而

味情에前解이라轉明이라迺潛心圓頓觀門하고亦欲導末學之迷하야爲之

去釘拔楔이니러適有舊識禪老得才者이住公山居祖寺하야邀請懇至어늘

遂往居焉하사 廣迎諸宗의 拋名高士輩하야 刻意勸請하사 習定均慧하 夙

夜無斃者이 累稔矣되라 至承安二年戊午春에 與禪侶數子로 一鉢尋

勝하야 登智異山하사 隱居上無住庵하시 境致이 幽寂하야 甲天下에 眞安禪

之佳所也라 於是에 屏黜外緣하고 專精內觀하사 磨淬發銳하고 沿尋窮源

한새 時有得法瑞相數事나 語繁不載하노 師이 嘗言予自普門已來로 十

餘年矣라 雖得意勤修하야 無虛廢時나 情見未忘하야 有物礙膺이 如譬

同所러니 至居智異하야 得大慧普覺禪師語錄에 云禪은 不在靜處하디 亦

不在鬧處하디 不在日用應緣處하디 不在思量分別處라 然이나 第一不得

捨却靜處鬧處와 日用應緣處와 思量分別處코 叅이니 忽然眼開하면 方

知是屋裡事야하 予이 於此에 契會하야 自然物不碍膺하고 譬不同所하야 當

下安樂耳라하 由是로 慧解이 增高하야 衆所宗仰라이라 五年庚申에 移居松

廣山吉祥寺하사 領徒作法이 十有一年에 或談道하디 或修禪하사 安居頭

陀에 一依佛律하사 四方緇白이 聞風輻輳하야 蔚爲盛集이라 至有捨名爵

捐妻子

하고

毀服壞形

하야

命侶而偕來者

하며

王公士庶

投名入社

도

亦

數百人

라이러

師

이

以道自任

하사

不以人之譽非

로

動其心

하사

性且慈忍

하사

善接後流

하야

雖或悖謬迂意

타도

猶能憫念攝護

하야

情理不止若慈母

之於嬌子然

라이러

其勸人誦持

는

常以金剛經

이요

立法演義則意必六祖

壇經

이며

申以華嚴李論

과

大慧語錄

으로

相羽翼

라이러

開門

이

有三種

하니

曰惺寂等持門

이며

曰圓頓信解門

이며

曰徑截門

이라

依而修行

하야

信入者

多焉

하니

禪學之盛

이

近古莫比

리라

師

이

又善攝威儀

하사

牛行虎視

로

燕居

謹飭

하야

無惰容止

며

至於執勞任力

히

恒在衆先

하사

億寶山之白雲精

舍積翠庵

과

瑞石山之圭峰蘭若祖月庵

이

皆師之所作而往來修禪

者也

리라

上

이

自潛邸

로

素重其名

시니

及卽位

에

勅改號松廣山

하야

爲曹

溪山

하며

吉祥寺

로

爲修禪社

하야

御書題榜

고

旣又就賜滿繡袈裟一領

以褒異之

하사

篤敬光護之誠

이

他無等夷

리라

初師之來南遊也

에

與

同學諸子

로

約曰吾欲遁名結香社

하야

以定慧

로

爲事

하노

於子等

에

何

如^오曰末法^에恐非其時^{아닐하}師¹乃慨然長嘆曰時却可遷^{이나}心性^은

不變^{이니}教法興衰^는乃三乘權學之見耳^라智者¹應如是乎^아衆皆

服曰然^{아타하}他日結同社^에必號定慧^{라하}及在居祖寺^{하야}果立定慧社^{하고}

仍述勸修定慧結社文^{니하시}償初志也^라移社松廣^에亦循其名^{시이러}後以

隣寺^에有同稱者^{아타하}因受朝旨易焉^{니하시}所謂修禪社也^라名雖異而義

則同也^니師之志在定慧¹如此^{러라}大安二年春二月^에因薦母^{하야}設

法筵數旬^{니이러}時^에謂社衆曰吾住世語法^이不久^{리니}宜各努力^{다이어}俄三

月二十日^에示疾^{하사}凡八日而終^{니하시}預知也^라前一夕^에就浴室沐浴

侍者^{대신}請偈^{하야}因設問^{늘이어}師¹從容答話^{다하시}夜艾^에乃入方丈^{하야}問

答^이如初^{러니}將曉^에問^{하사}今是何日^고曰三月二十七日也^{다니이}師¹具

法服盥漱云這箇眼^은不是祖眼^{이로}這箇鼻^는不是祖鼻^며這箇口^는

不是孃生口^며這箇舌^은不是孃生舌^{라이니}令擊法鼓集衆^{고하시}策六環

錫杖^{하사}步至善法堂^{하야}祝香昇座^를如常儀^{고하시}乃振錫舉前夕方丈中

問答語句因緣云대하사禪法靈驗이不可思議라今日에來到這裏하야欲

爲大衆說破去也니하노爾等이不昧一着子問來하면老漢도亦不昧一着

子答去라호라顧視左右고하시以手로摩之曰山僧命根이盡在諸人手裡라

一任諸人의橫拖倒曳니하노有筋骨底는出來하라便伸足踞于床하사隨問

而答에言諦義詳하야言辯無碍니하시具如臨終記하다最後에有僧이問호대

昔日毘耶에淨名이示疾고하시今日曹溪에牧牛1作病니하시未審케라是同

是別이까師가云爾學同別來아乃拈拄杖數下云대하사千種萬般이摠

在這裡니라因執杖고하시踞床不動하사泊然而逝다하시門徒1設香燈하야供養

七日에顏色이如生하고鬚髮이漸長라이러茶毘拾遺骨하니骨皆五色이요得

舍利大者三十粒과其小者無數하야浮圖于社之北麓하다上이聞之慟

謚曰佛日普照國師고라하塔曰甘露시라하閱世는五十三齡이며受臘은三

十有六年이라生平所著는如結社文과上堂錄과法語歌頌各一卷이

發揚宗旨하야咸有可觀라이러或이曰死可大故也이늘師能委命乘化하사

優游自肆

하느니

是其中

에

必有大過人者也

로다

然

이나

語之至道則未也

니

何以言之

오

蓋老子

는

貴知我者希

고하세

莊周

는

欲行不畦異

니하세

古之爲

道者

는

與人同耳

이늘

其肯自爲

삼

異奇偉之迹

하야

以取人知耶

아

至如

世尊

이

號法中王

이라

神通作用

이

游戲自在

대하사

及其雙林宴寂則曰吾

今背痛

하니

將入涅槃

시고라

遂右膝累足而化

미하세

又唐隱峰禪師

는

倒立

而化

하세

妹有爲尼

하야

咄曰老兄

이

平生

에

不循法律

니리

死便熒惑於人

今師之開堂示衆

이

已多矣

이늘

死之日

에

而乃復更鳴鼓集衆

하야

升

座說法

하고

踞床告滅

니하세

其於道

에

不爲疣贅乎

아

答

호대

不然

하다

夫道之

用

이

無方而人之行

이

不同

이라

故

로

曰天下

1

一致而百慮

요

殊途而

同歸

라하

若所云者

는

知其一

이요

未知其二也

로다

且歷代禪門諸祖

1

臨

終囑法

하사

必顯神異

는

僧史

에

載之詳矣

미

至於後之諸師

의

升堂說

法而就化

도하야

若興善寺之惟寬

은

上堂說偈

하고

安坐而化

미하세

若首山之

省念

은

遺偈尅日

에

上堂說法

하사

安坐長往

미하세

若瑞峰之志端

은

剃髮

澡身

하고

升堂辭衆

하사

安坐而化

하시

若大寧之隱微

는

上堂說偈而化

하시

皆可譏耶

아

嗟呼

라

像季之人

이

多疑而少信

일세

非有先覺之士

이

善巧方便

으로

開示勸導

하야

生欽慕心

이면

雖欲發趣聖道

나

斯亦難矣

나

觀師之心

컨넌

亦接機利物之一端也

니라

師沒之明年

에

嗣法沙門惠

스

諶等

이

具師之行狀

하야

以聞

호대

願賜所以示後世者

하시

上曰

사타하

命小臣

하야

文其碑

하시

臣

은

業儒而未至者也

어는

而况於佛心祖印方外

이

之談乎

이까

但迫明命

하야

無由以辭

은새

玆扣竭於謏聞

하야

敢形容於盛美

이

其銘曰

指以標月兮

여

月不在指

요

言以說法兮

여

法不在言

다로

三乘諸部兮

여

隨機差別

이요

徑截直入兮

여

唯有一門

다로

牟尼示花兮

여

迦葉破顏

여

達摩面壁兮

이요

慧可斷臂

여

心傳心兮

로다

不二

요

法與法兮齊致

로다

風兮未殄

니이여

何代兮乏人

오이리

師之身兮

여

鶴出籠

이요

師之心兮

여

鏡無

塵

다로

柯山兮

여

啓途

요

松社兮

여

蛻駕

로다

定水淡兮

여

湛無波

요

慧炬

光兮

여

光不夜

로다

庭栢兮

여

答祖意

요

池蓮兮

여

演眞宗

다

四衆繞兮

雜遝

이요

一音暢兮

여

春容

다

觀死生兮

니

豈眞妄兮

리요

殊科

리요

噫

師之振錫兮

여

萬像

이

都融

이니

風吹柳絮兮

여

雨打梨花

로다

禪那

(반연하면靜慮 또는 思惟修니 神의 具稱이다)

의 學의 根源이

迦葉波에서

난지라

達摩가 얻으사

震旦

(中國)

에 와 教

化하시니 傳하는 者는 傳하지 않음으로써 傳하고 닦는 者는 닦음이 없음으로써 닦는지

라 葉과 葉이 서로 繼承하고 燈과 燈이 아울러 빛나니 한결같이 일마나 奇特하고 聖

人에 가기가 더욱 멀때 法이 따라 解弛함에 미쳐서 學者가 陳言

(陳言은 舊言)

만 지키고 密旨를

迷하여 根本을 버리고 枝末을 좇을새 이에 觀察해 깨달아 드는 길이 茅塞하고 文字戲

論의 끝이 벌떼 일어나듯하여 正法眼藏의 거의 땅에 떨어졌도다 이에 사람이 있으되

홀로 能히 浮僞의 俗을 등지고 正眞한 宗을 사모하여 처음에는 言詮을 찾아 理에 나아

가고 終에는 定을 닦아써 慧를 發하사 이마 몸에 얻으매 兼하여 모든 사람에게 배울

어서 하여금 禪風으로 寢息했다 다시 멀치고 祖月로 어두었다 다시 밝게 하시니 이러

한 者는 可히 迦葉의 嫡孫이며 達摩의 宗子라 잘 繼하고 잘 述한 者라 이르지 않으라

기록하다 우리 國師가 이로다 師의 諱는 知訥이니 京西 洞州

(今 興寧)

人이라 일찌기 自號

를 牧牛子라 하시다 俗姓은 鄭氏니 考 光遇는 國學에 學正이요 妣 趙氏는 開興郡 夫人

이라 誕生하매 病이 많아서 醫藥의 다스림이 効驗이 없을새 考가 이에 佛前에 祈禱하
 여 出家로써 盟誓한대 病이 곧 나아서 나이 겨우 八歲에 曹溪(六)의 雲孫(孫子)인 宗暉禪
 師게 投身하여 머리를 깎고 具足戒를 받으시다 學은 몇몇한 스승이 없고 오직 道만 좇
 으며 志操가 超邁하여 軒軒(높은 모양)한듯 하더라 二十五에 쎌 大定(金世宗의 年號)二十二年 壬寅에 僧
 選에 科擧해 맞추고 얼마 앓되어서 南으로 놀새 昌平淸源寺에 이르러서 錫杖을 머무시
 더니 偶然히 一日에 學寮에서 六祖壇經을 閱覽하다가 이르시되 眞如自性이 생각을 일
 으키는지라 六根이 비록 見聞覺知하나 萬像에 물들지 앓고 眞性이 항상 自在하다 하심
 에 이르러서 이에 놀라고 기뻐하여 未曾有를 얻으사 일어나 佛殿을 圍繞하고 頌하여
 생각하시니 뜻을 스스로 얻은지라 이로부터 마음이 名利를 싫어하여 매양 林壑에 棲
 遁해 艱恬(艱은刻苦의義 恬은泰然의義 艱니刻苦한故로 放逸치 않고 泰然한故로 拘執이 없는 것이다)히 쎌 그 道를 求하고자 하사 造次라도 이에 만드
 시 하시다 전너 大定二十五年 乙巳에 下柯山에 놀새 普門寺에 寓居하여 因해 大藏經을
 읽다가 李長者의 華嚴論을 얻어서 거듭 信心을 發하사 搜扶(搜 兼)해 隱旨를 찾고 嘖嘖(嘖 咀)
 해 情에 맞드리매 前의 解가 轉轉히 밝은지라 이에 圓頓의 觀門에 潛心하고 또한 末
 學의 迷함을 引導하여 爲해 뜻을 버리고 말독을 베고자 하시더니 마침 舊識禪老인 得
 才라는 이가 있어 公山 居祖寺에 住하여 맞아 請함이 懇曲하고 至極하거늘 드디어 가
 居하사 널리 諸宗의 名利를 拋棄한 高士의 무리를 맞이하여 뜻에 새겨 勸請하사 定을
 익히고 慧고 睿를 夙夜(晝 夜)에 盡음이 없이 한것이 여러 해러라 承安二年 戊午春에 이

르러 禪侶數子로 더불어 一鉢로 勝地를 찾아서 智異山에 오르사 上無住庵에 隱居하시니
 境致가 깊고 고요하여 甲天下에 참으로 禪을 편안히 할 佳所라 이에 外緣을 물리쳐 버
 리고 內觀에 精을 오로지하사 磨淬^(한을갈)해 銳利를 發하고 沿尋^(찾음)해 根源을 다할새
 時에 得法한 瑞相의 數事가 있었으나 말이 번거해 記載하지 않노라 師가 일찍이 말
 씌하시되 내가 普門으로부터 이미 음으로 十餘年이라 비록 뜻을 얻어 부지런히 닦
 아서 헛되이 때를 廢함이 없으나 情見을 잊지 못하여 物件이 있어 가슴에 걸림이 怨
 讐와 處所를 한가지함과 같더니 智異에 居함에 이르러서 大慧普覺禪師語錄에 이르시
 되 禪은 靜處에 있지 않으며 또한 鬧處에도 있지 않으며 日用에 緣을 應하는 곳에
 도 있지 않으며 思量하고 分別하는 곳에도 있지 않노라 그러나 第一시러금 靜處
 와 鬧處와 日用應緣處와 思量分別處를 버리고 參하지 말지니 忽然히 눈이 열리면 바
 야흐로 이 家裏의 일인줄 안다 하심을 얻어서 내가 이에 契會하여 自然히 物件이 가슴
 에 걸리지 않고 怨讐가 處所를 한가지하지 아니하여 當下^(當)에 安樂했다 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慧解가 더욱 높아서 大衆의 宗仰하는 바래라 五年 庚申에 松廣山吉祥寺에 移
 居하사 徒衆을 거느리고 作法한지 十이요 또 一年에 或道를 말씀하며 或禪을 닦으사
 安居하고 頭陀함에 한결같이 佛隨의 律門을 依止하시니 四方에 緇^(僧)와 白^(俗)이 風聲
 을 듣고 輻輳하여 蔚然히 盛集함이 된지라 名爵을 버리며 妻子를 덜고 衣服을 毀하며

形貌를壞하여 伴侶를 命해 함께 오는 者가 있음에 이르며 王公과 士庶가 이름을 먼저
 社에 들도 또한 數百人이라 師가 道로써 自任하사 사람의 譽하고 非함으로써 그
 마음을 動치 않으니며 性稟이 또 慈忍하사 잘 後流를 接하여 비록 或悖謬해 뜻을 거스
 리더라도 오히려 能히 憐憫히 생각해 攝護하여 情理가 그치지 않음이 慈母가 嬌子에
 게 함과 같더라 그 사람에게 誦持를 勸하심은 항상 金剛經으로써하고 法을 세워 義를
 演說한즉 뜻이 반드시 六祖壇經이며 거듭 華嚴李論과 大慧語錄으로써 서로 羽翼하더
 라 門을 열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르되 惺寂等持門이며 이르되 圓頓信解門이며 이르되
 徑截門이라 依止해 修行하여 信해 든 者가 많으니 禪學의 盛함이 近古에 比할데 없더
 라 師가 또 잘 威儀를 攝하사 牛行(徐緩而行)과 虎視(平正而視)로 燕居(處獨)에 謹飭하여 容止를 게
 을리함이 없으시며 執勞하고 任力(力運)하는데 이르기까지 항상 大衆의 先에 계시니 億寶
 山の 白雲精舍와 積翠庵과 瑞石山の 圭峰蘭若와 祖月庵이 다 師의 지으신바로 往來하여
 禪을 닦는 者러라 上이 潞郎(周位以前)로부터 本來 그 名望을 重히 여기시더니 卽位함에 미쳐
 勅命으로 松廣山을 고쳐 이름하여 曹溪山을 만들며 吉祥寺로 修禪社를 만들어 御書로
 榜을 쓰시고 이미 또 곧 滿繡袈裟 一領을 下賜하여 써 褒彰해 달리하시니 篤敬하고 光
 護하는 誠이 다른이가 等夷(갈다)함이 없더라 처음에 師가와 南으로 늘게 同學諸子로더
 불어 約束해 이르시되 내가 名利를 逃避하고 香社를 結하여 定慧로써 일을 삼고자 하

노니 子等의 뜻에 어찌하고 이르되 末法에 그 때가 아닌가 두려워한다 하거늘 師가 이
 에 慨然히 길게 嘆息해 이르시되 때는 문득 可히 遷變하나 心性은 變치 않음이니 敎法
 이 興하고 衰함은 이에 三乘權學의 見이라 智者가 變이 이 같으랴 大衆이 다 服從해
 이르되 그렇다 하여 他日에 同社를 結하매 반드시 定慧라 이름한다 하더니 冥居祖寺
 에 있어 果然 定慧社를 세우고 因하여 勸修定慧結社文을 지으시니 初志를 갓으심이라
 社를 松廣으로 옮기매 또한 그 이름을 좇으시더니 後에 隣近寺院에 同稱者가 있다
 하여 因해 朝旨를 받아 變易하시니 이른바 修禪社라 이름은 비록 다르나 義는 곧 같음
 이니 師의 뜻이 定慧에 있음이 이 같더라 大安二年 春二月에 母親 薦度함을 因하여 法筵
 을 罷문지 數旬이러니 때에 社衆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내가 世上에 住하여 法을 말함
 이 오래지 않으니 마땅히 各各 힘쓸지어다 문득 三月二十日에 病을 보이사 무릇 八
 日만에 終하시니 미리 아신지라 前 一夕에 浴室에 나아가 沐浴하신대 侍者가 渴를 請
 하여 因해 設問하거늘 師가 從容히 答話하시다 밤이 오래매 이에 方丈에 들어서 問答
 이 처음과 같더니 장차 새대 물으시되 오늘이 이 무슨 날인고 이르되 三月二十七日이
 니이다 師가 法服을 갖추어 洗手하고 養齒해 이르시되 이 눈은 이 祖眼이 아니며 이 코
 는 이 祖鼻가 아니며 이 입은 이 어머니가 낳은 입이 아니며 이 혀는 이 어머니가 낳은
 혀가 아니니라 하여금 法鼓를 쳐 大衆을 모이게 하시고 六環錫杖을 짚으사 善法堂(設法殿)
 에 걸어 이르러 祝香하고 昇座함을 常儀(平素에 說法하는 儀式)와 같이 하시고 이에 錫杖을 떨치고

前夕 方丈가운데 問答한 語句因緣을 들어 이르시되 禪法의 靈驗이 可히 思議치 못하는
 지라 今日에 이속에 來到하여 大衆을 爲해 說破해 가고자 하노니 너희 等이 一着子를
 昧하지 않고 물어 오면 老漢도 또한 一着子를 昧하지 않고 答해 가리라 左右를 돌아보
 시고 손으로 써 어루만져 이르시되 山僧의 命根이 다 諸人의 手裡에 있는지라 한결간
 이 諸人의 横으로 끌고 거꾸로 이품을 맡기노니 筋骨이 있는이는 나오니라 문득 발을
 펴고 床에 거러앉으사 물음을 따라 答하심에 말씀이 諦當하고 義가 詳細하여 言辯이
 결림이 없으시니 갖추 臨終記와 같다 最後에 僧이 있어 묻되 昔日 毘耶에 淨名이 疾을
 보이시고 今日 曹溪에 牧牛가 病을 지으시니 알지 못게라 이 같습니까 이 다릅니까 師
 가 이르시되 네가 同別을 배워 왔느냐 이에 柱杖을 잡아 두어번 내려 이르시되 千種萬
 般이 搥히 이속에 있나니라 因하여 柱杖을 잡으시고 床에 거러앉아 動치 않으사 泊然
 히 가시다 門徒가 香과 燈을 베풀어서 供養한지 七日에 顔色이 生存時와 같고 鬚髮이
 점점 자라더라 茶毘_(葬火)하여 遺骨을 주으니 骨이 다 五色이요 舍利_(佛의 骨과 精氣로 舍利는 佛의 骨과 精氣로 舍利는 佛의 骨과 精氣로 舍利는 佛의 骨과 精氣로)의 大者
 三十粒과 그 小者 數없음을 얻어서 社의 北麓에 浮圖_(佛의 塔이다)하다 上이 듣고 슬피하사
 謚號해 이르되 佛日普照國師라 하고 塔은 이르되 甘露라 하시다 閱世는 五十三齡이며
 受臘_(入山한 年數)은 三十이요 또 六年이라 生平의 著述하신바는 저 結社文과 上堂錄과 法語歌
 頌 各各 一卷이 宗旨를 發揚하여 다 可히 보암직함이 있더라 或이 이르되 死亡이 可
 히 大故어늘 師가 能히 命을 버리고 化를 타사 優游해 스스로 放肆하시니 이 그 가운

데에 반드시 크게 사람에게 지냄이 있는者로다 그러나 至道를 말한즉 아니니 어찌세 말
 하는고 대개 老子는 나 아는者가 드물을 貴히여기시고 莊周는 行이 崖異(常異)하지 않고
 자하시니 옛적의 道를 한者는 사람으로더불어 같거늘 그 어찌 스스로 詭異하고 畸
 偉한 자취를 하여 세 사람의 道를 取하랴 저 世尊은 號가 法中王이라 神通作用이 游戲
 自在하시되 그 雙林에서 宴寂하심에 미쳐서는 곧 이르시되 내가 이제 등이 아프니 장
 차 涅槃에 든다 하시고 드디어 右膝로 발을 포개고 化함에 이르시며 또 唐나라 隱峰禪
 師는 거꾸로 서서 化하신대 妹가 比丘尼된이가 있어 咄해 이르디 老兄이平生에 法律
 을 좇지 않더니 죽어서도 문득 사람을 焚惑한다 하니 이제 師의 開堂하여 示衆함이 이
 미 많거늘 죽는 날에 이에 다시 또 복을 올리고 大衆을 모아서 자리에 올라 說法하고
 床에 거러앉아 滅을 告하시니 그 道에 疣贅(贅)가 되지 않으랴 答하되 그렇지 않다 대
 저 道의 用이 方所가 없고 사람의 行이 같지 않은지라 故로 이르되 天下가 理致는 하
 나로되 百가지 생각이오 길은 다르되 한가지 돌아간다 하시니 너의 이른바는 그 하나
 만 알고 그 들은 알지 못함이로다 또 歷代의 禪門諸祖가 臨終에 法을 付囑하사 반드시
 神異를 나타내심은 僧史에 記載함이 仔細하며 後에 諸師의 堂에 올라 說法하고 化에
 나아감에 이르러서도 이렇듯 興善寺의 惟寬은 上堂하여 偈를 說하고 安坐하여 化하시
 며 이렇듯 首山의 省念은 偈를 끼치고 尅日(日)에 上堂하여 說法하사 安坐해 길게 가시

머 이령듯 瑞峰의 志端은 머리를 깎고 몸을 씻고 堂에 올라 大衆을 하직하사 安坐하여
化하시며, 이령듯 大寧의 隱微는 上堂하여 偈를 說하고 化하시니 다 可히 譏弄하랴
스 프다 像季^(世末) 사람이 疑心이 많고 信하는이가 적을새 先覺한 선비가 善巧方便으로써 開
示하고 勸導하여 欽慕하는 마음을 내게함이 있지 않으면 비록 聖道에 發趣하고자 하나
이 또한 어려움이니 師의 마음을 觀하건대 또한 機를 接하고 物을 利케하는 一端이니
라 師가 沒하신지 明年에 法을 이은 沙門 惠講等이 師의 行狀을 갖추어 써 들리되^(訓王親 樂進賢)
願친대 써 後世에 보일바를 주소서 上이 이르시되 愈^(進)라 하사 이에 小臣을 命하여
그 碑에 글을 짓게 하시니 臣은 儒를 業하여 이르지 못한 者어든 하물며 佛心과 祖印
의 方外의 談이리이까 다만 明命에 逼迫하여 말미암아 써 辭讓할수 없을새 이에 小聞
을 扣竭하여 敢히 盛美를 形容하노이다 그 銘에 이르되

손가락으로 써 달을 標함이며 달이 손가락에 있지 않고 말로써 法을 說함이며 法이
말에 있지 않도다 三乘의 諸部여 機를 따라 差別이요 徑截의 바로 들이여 오직 一門이
있도다 牟尼가 꽃을 보이심이며 迦葉이 낮을 破하고 達摩가 壁에 낮하심이며 慧可가
팔을 끊었도다 마음으로 마음을 傳함이며 둘이 아니요 法으로 法을 證하여 理致가 가
지런하도다 眞風이며 다하지 않거니 어느 代여 사람이 없으리오 師의 몸이며 鶴이 동
지에서 나고 師의 마음이며 거울이 티끌이 없도다 柯山이며 길을 열고 松社여 명에를

벗었도다 定水가 맑음이어 맑아 물결이 없고 慧炬가 빛남이어 빛나 밤이 아니로다 庭
 栢이여 祖意를 답함ियो 池蓮이여 眞宗을 演說함이로다 四衆이 圍繞함이어 雜還하고
 一音으로 演暢함이어 春容(聲領)이로다 死生이 幻과 같은줄 觀하거니 어찌 眞妄이 料가
 다르리오 슬프다 師가 錫杖을 떨침이어 萬像이 모두 圓融함이니 바람이 柳絮를 불이
 여비가 梨花를 치도다